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작품으로 이해하기 ① 예시 답안

본문 9~11쪽

- 01 ④
02 ②
03 ㉠: 기러기 ㉡: 열 십자

■ 김소월, 「길」

해제 ▶ 이 작품은 고향을 상실한 채 떠돌아야 하는 나그네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삶의 타전을 빼앗기고 정처 없이 유랑해야 했던 민족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3음보 율격을 변주하여 방황하는 화자의 비애를 표현하고 있으며, 대화하듯 건네는 말투, 방황성을 상실한 '길'이라는 공간적 배경, 감정 이입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 등을 통해 삶의 뿌리를 잃은 화자의 절망과 허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갈릴길 한가운데에서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서 있는 화자의 모습은, 일제 강점기 고난 속에서 주체적 삶의 길을 잃었던 우리 민족의 비애와 좌절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의 비애

구성 ▶

- 1연: 방황하는 나그네로서의 화자
- 2연: 정처 없이 떠도는 일상의 반복
- 3연: 갈 곳 없는 화자의 막막함
- 4연: 고향에 갈 수 없는 현실
- 5연: 기러기에게 길을 묻는 자조적 시선
- 6연: 방향을 상실한 화자의 방황
- 7연: 아무 길도 선택할 수 없는 절망감

01 ④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에서 의문형 종결 방식을 사용한 것은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시 전체의 율격의 통일성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호흡을 세 마디로 끊어 읽는 율격을 활용하여 시 전체의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각 연에서 시행의 길이는 유사하면서도 각각 차이점을 보이며 변주되고 있다. 이는 현대시의 운율 형성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못 가오', '곳이라오', '새었소', '섰소', '없소' 등에서 청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오'와 '-소' 등의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왁가왁', '갈래갈래' 등 동일한 단어가 중첩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

적 의미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2 ② '오늘은 / 또 몇 십 리 / 어디로 갈까'에서 화자는 끝없이 이어지는 나그네의 여정으로서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고단한 유랑민의 삶의 행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화자가 관념 속에서 인생의 길을 탐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적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갈망과도 거리가 멀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에서 '길'의 의미가 나그네의 여정임을 주목할 때, '가마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어제도' 밤을 지새웠다는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으로 인한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불안한 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산으로 올라갈까 / 들로 갈까'는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정주 객산'을 '차 가고 배 가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은, 차나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임을 화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임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나그네의 여정이 일제 강점기의 고단한 유랑민의 삶의 행로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에서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03 이 작품에서 나그네의 처지인 화자는 '갈래갈래 갈린 길'의 '열 십자' 한가운데에서 있으면서 방황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처지와 달리 '저 기러기'는 공중에서 자유롭게 비상하고 있는 대상으로서 화자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2강 시의 내용

작품으로 이해하기 ② 예시 답안 본문 13~14쪽

- 01 ㉠: (가), (다) ㉡: (나) ㉢: (다)
 02 ㉠: 가장(家長), (손자의) 할아버지 등 ㉡: 농부
 03 ㉠

㉠ 안민영, 「고을사 저 꽃이여～」

해제 > 이 작품은 활짝 피었다가 지고 있는 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소회를 읊은 시조이다. 완전히 피어 있지도 않고 완전히 시들지도 않은 상태의 꽃에 대한 예찬의 어조가 두드러지지만, 모든 꽃은 끝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수리이므로 머지않아 완전히 시들게 될 꽃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인생에 대한 비유로도 읽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의 절정기를 넘어 어느 정도 노화한 나이로 접어든 사람의 인생을 예찬하는 노래가 된다.

주제 > 지고 있는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과 안타까움

구성 >

- 초장: 반쯤 시든 꽃의 고운 지대
- 중장: 반쯤 시든 꽃이 그대로 있기를 바람.
- 종장: 나비를 맞이하는 꽃의 표정

㉡ 오경화, 「피골피골 우는 소리에～」

해제 > 이 작품은 봄을 배경으로 하여 삼대가 어울려 사는 한 가정의 한가롭고도 평화로운 일상을 담담하게 묘사한 시조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낮잠을 즐기고 글을 읽고 베를 짜고 꽃놀이를 하고 술을 거르는 모습을 묘사하는 가운데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한 가정의 평화로운 일상

구성 >

- 초장: 피꼬리 울음소리에 낮잠을 깬.
- 중장: 아들, 며느리, 손자의 평화로운 일상
- 종장: 아내가 술을 거르고 맛보기를 권함.

㉢ 이규보,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

해제 > 이 작품은 농민들을 수탈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배층에 대한 반감을 비교적 직설적으로 표현한 한시이다. 작가인 이규보는 고려의 무신 집권기에 관직에 진출하여 활약한 사대부로서 민중들의 고난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 이 작품은 특히 수탈당하는 농부를 화자로 설정하여 지배층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 귀족 계층에 대한 농부의 원망

구성 >

- 1연: 왕손 공자들이 자신들을 알보는 데 대한 농부의 항변
- 2연: 때가 되기 전부터 조세를 걷는 데 대한 농부의 항변

01 (가)에서는 ‘저 꽃이여’, (다)에서는 ‘왕손 공자들이’라고 하여 시적 청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각은 이들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취하고 있다. (나)에서는 피꼬리 울음소리에서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을 읽고’, ‘베 짜는데’가 연속되는데, 이는 화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난 시점에 다른 공간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청각적 심상을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의 마지막 행에서는 설의적인 문장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02 (나)는 피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집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작품이다. 화자는 ‘작은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지어미’가 무엇을 하는지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다. 이로 보아 화자는 ‘작은아들’의 아버지, ‘며느리’의 시아버지, ‘손자’의 할아버지, ‘지어미’의 남편임을 알 수 있다. 즉 한 가정의 어른이라는 의미의 ‘가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에서는 ‘우리 농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화자가 농부(들)임을 알 수 있다. 이규보는 고려의 문신이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화자로 설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 (다)에서 ‘헛곡식’은 농부들이 가꾸는 대상이고, ‘조세’는 헛곡식을 가꾸는 노동이 끝난 후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다. 곡식을 거두면 조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 제도적으로 인접해 있다. 그러나 (다)에서 ‘조세’는 아전들이 성화를 부리며 거두어 가려고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탈’의 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를 노동의 보람으로 볼 수는 없다.

3강

소설의 서술상 특징

작품으로 이해하기 ③ 예시 답안

본문 16~18쪽

01 (1) × (2) × (3) ○

02 ④

03 [A]에서 초점화자는 칠복으로,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칠복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주목하게 됩니다. [B]에서 초점화자는 봉구로,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봉구의 칠복에 대한 죄책감(미안함)에 주목하게 됩니다.

■ 문순태, 「징 소리」

해제 ▶ 이 작품은 1970년대 수몰 지구를 배경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 현실과 실항민들이 겪는 아픔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단편 소설이다. 칠복은 농촌 출신 빈민을 대표하는 인물로, 댐 개발로 인해 재산과 고향을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다. 모든 것을 상실한 채 마을로 돌아온 칠복은 징을 울리면서 한과 슬픔을 토해 낸다. 그가 울리는 징 소리는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적 삶의 회복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주제 ▶ 산업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실항민의 한

전체 줄거리 ▶ 칠복은 낚시꾼들을 방해하며 징을 울리다 종종 매를 맞곤 한다. 마을 사람들은 댐 건설로 호수에 잠겨 버린 방울재를 떠나 매운탕 장사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으며, 칠복을 동정하면서도 그를 내쫓으려 한다. 원래 칠복은 일찍 부모를 잃고 외가에서 머슴처럼 살다가, 도시에서 온 순덕과 결혼했다. 순덕은 곧 도시 생활을 원했고, 결국 부부는 광주의 사글셋방에서 어렵게 살아간다. 칠복은 농사 품팔이로 번 돈을 들고 집에 돌아왔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후 징을 들고 방황하던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만, 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마을 사람들은 결국 칠복을 버스에 태워 쫓아낸다.

01 (1) 칠복은 '시골에서 벌어들인 돈마저 모두 깨 먹어 버리고, 얼마 안 남은 산동네 사글셋방값마저 찾아 쓴' 상황에서도 '방울재에서 나올 때 나눠 가진 굶물인 징 하나만'은 간직한 채 떠돌아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다. 잃어버렸던 징을 되찾으려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2) 강촌 영감은 자신을 내쫓지 말아 달라는 칠복의 애원에도 '안 가겠다면 덕석물이를 허서라도 내쫓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봉구, 덕칠, 팔만도 칠복의 애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강촌 영감과 함께 칠복을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낸다.

(3) 봉구는 마을을 떠나는 칠복의 등에 업힌 딸아이가 기침을 하자 '잠바를 벗어 덮어씌워 주'고 버스가 도착하자 '천 원짜리 두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넣어 주는 등, 칠복 부녀에게 동정을

표하면서 칠복을 배웅한다.

02 ④ 칠복이 '다시는 휘방 치지 않겠'다면서 자신을 내쫓지 말아 달라고 강촌 영감에게 비는 것으로 보아, 방울재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이유로 칠복을 쫓아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칠복의 환각을 구실로 칠복을 쫓아내고 있다는 볼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칠복은 '환각' 속에서 '낮익은 하늘,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정월 대보름날 밤 매귀굿을 할 때처럼' '춤을 추고 싶어져' 징을 찾아 들고 춤을 추게 되었다.

② 칠복은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타향을 떠돌다가 징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고, 예전의 모습이 사라진 고향에서 '환각'을 겪으며 '방울재를 삼킨 호수의 물'과 '거대한 댐'이 아닌 수몰되기 전 고향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③ 칠복은 '환각'을 통해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그들과 '정월 대보름날 밤 매귀굿을 할 때처럼'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 이를 통해 '환각'에는 방울재 사람들과의 유대에 대한 칠복의 그리움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칠복은 돌아온 고향에서 '환각'을 통해 현재의 '방울재를 삼킨 호수의 물'과 '거대한 댐'이 아닌, 과거의 '낮익은 하늘,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을 본다. 이는 방울재의 모습을 현재 상태와 다르게 지각하는 칠복의 정신 상태를 보여 준다.

03 [A]에서 서술자는 칠복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칠복이 고향에 대해 느끼는 그리움과 그로 인한 칠복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B]에서 서술자는 봉구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봉구가 칠복을 떠나보낸 직후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4강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작품으로 이해하기 ④ 예시 답안

본문 20~22쪽

- 01 • 해당 구절: 응서의 칼이 ~ 추풍낙엽 같으니
• 평가의 내용: 김응서의 탁월한 무력(武力)에 대한 예찬
- 02 적의 침입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자면 서도 눈과 귀를 열어 둬.
- 03 ②

■ 작자 미상, 「임진록」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조선의 정치 상황과 전쟁의 경과를 통해 일반 민중들과 이름난 전쟁 영웅들의 활약을 보여 주는 역사 소설이다. 지문에는 여러 이본 중 경판본을 수록하였다. 봉당 정치로 인한 어지러운 정치상, 평수길의 조선 정벌 준비와 조선 침범, 이순신의 승리, 명나라 구원병의 참전, 그리고 사명당 등 여러 인물의 활약을 형상화하였다.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면서도 설화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흥미를 더하는 한편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였다. 「임진록」 전체가 단일한 서사 구조로 응집되어 있지 않고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다수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문에 주어진 내용은 평양성 전투에서 기녀 계월향의 도움을 받아 왜장 소서비의 목을 벤 장수였던 김응서에 대한 사실적 기록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한 대목이다.

주제 ▶ 왜적의 침입에 대응하는 김응서의 활약

전체 줄거리 ▶ 왜국에서는 평수길이 태어나고 조선에서는 조헌이 왜란을 예언하나 갑신으로 귀양을 간다. 왜국의 장수들이 조선을 정탐한 데 이어 황윤길 등이 왜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후 곧장 왜국의 침범이 시작되고 조선은 패전을 거듭한다. 선조는 북쪽으로 피신한 채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고, 김응서와 이순신 등의 활약으로 왜군을 격퇴한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트집으로 선조는 굴욕을 당하게 되고 이순신은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며, 평수길의 죽음으로 전란이 끝나게 된다. 이후에도 진주성 싸움, 김덕령과 강홍립, 김응서의 활약이 계속되며, 사명당이 왜국으로 건너가 왜왕의 항복을 받는다.

01 ‘응서의 칼이 있는 곳에 도적의 머리 추풍낙엽 같으니’는 3인칭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이나 상황을 평가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이 장면에서는 비유와 과장 표현을 통해 홀로 많은 적군을 처단하는 김응서의 영웅적 활약상을 더욱 부각하여 독자가 그에게 성원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02 기생의 말에 따르면 왜장 종일은 ‘비단 휘장을 드리워 장의 귀마다 방울을 달아 조금 요동하면 방울 소리가 요란한지라. 이로써 불우지변을 방지하며, 삼경 전에는 귀로 자며 눈으로 보고 삼

경 후에는 눈으로 자며 귀로 듣고 사경이 되면 귀와 눈을 모두 자고 보지 아니하’는 인물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종일이 매우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03 ② 김응서가 부친상을 당한 상황에서 상주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로운 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김응서를 비롯한 지배층이 국가의 안위보다 가문의 법도를 우선시한다고 평가할 근거로 볼 수는 없다. 김응서가 세상에서 보기 힘든 장사이면서도 전란의 와중에 은거하고 있었다는 설정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지만, 이는 서사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응서가 부친상을 당했으면서도 이원익의 부름에 응한 상황은 오히려 지배층의 충성심을 부각하므로 지배층의 무능한 행태에 대한 반감과는 거리가 멀다.

5강

극의 특성과 극문학의 구성 요소

작품으로 이해하기 ⑤ 예시 답안

본문 24~27쪽

- 01 ④
02 ④
03 [A]: 헛것 [B]: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

■ 김민정, 「길삼봉면」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선조 때 일어났던 기축옥사를 배경으로 하여 역사적 사건에 허구를 덧붙여 창작한 희곡이다. 기축옥사는 1589년(선조 22), 정여립이 모반을 꾀한다는 고변에서 촉발되어 2년 남짓한 기간에 동인 쪽의 수많은 선비들이 처벌된 사건이다. 기축옥사를 배경으로 실체가 모호한 ‘길삼봉’이라는 존재를 이용하여, 죄 없는 정적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는 위정자들의 모습과 신하들의 갈등을 부추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왕의 모습, 이익과 권력 다툼에 혈안이 되어 민생은 뒷전인 왕과 위정자들 탓에 민중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극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를 통해 정치권력의 비정함과 정쟁이 야기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비판적 주제의식을 잘 나타냈다. 극 중 인물 중 선조, 정철, 이산해, 최영경은 실

존 인물이다. 작가는 김훈의 장편 소설 『칼의 노래』에 나오는 ‘길삼봉’에 관한 내용에 착안하여,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한다. 『칼의 노래』는 임진왜란 직전 사회적으로 불길하고 흉흉한 분위기가 팽배하던 시기를 다루고 있어 두 작품은 시대적 배경 면에서 서로 이어진다. 2009년에 극단 연우무대(연출: 안경모)에 의해 남산예술센터에서 초연되었다.

주제 ⑤ 정치권력의 비정함과 정쟁이 야기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⑤ 조선 전역에서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늘에서는 변란을 예고하는 천문 현상이 일어나 민심이 흉흉하다. 한양에서는 백성들이 밤낮없이 남산골에 모여 「동동곡」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해괴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서인과 동인이 극심한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동인의 선비 정여립이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죽게 된다. 길삼봉이란 인물은 정여립과 함께 거론된 반란의 우두머리인데, 그가 누구인지 아니면 그가 실재하는 인물인지도 불분명하지만 선조는 정철을 시켜 길삼봉을 찾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정여립과 관련이 있는 수많은 동인의 선비들이 길삼봉으로 의심받아 죽임을 당한다. 서인인 정철은 위관(재판장)이 되어 길삼봉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동인의 선비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급기야 재야의 덕망 있는 선비인 최영경마저 붙잡아 신문을 한다. 동인인 이산해는 교활하고 냉혹한 인물로 최영경을 돕는 척하면서 몰래 그에게 독주를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후 정치적 야욕 때문에 죄 없는 선비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정철을 고발한다. 이에 선조는 정철을 쫓아내고 이산해에게 위관의 자리를 맡기지만, 정체불명의 길삼봉을 잡아들이라는 어명을 더욱 매섭게 내림으로써 역모를 구실로 자행되어 온 공포 정치를 계속 이어 간다. 겉으로는 권력의 축이 정철의 서인에서 이산해의 동인으로 옮겨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승자는 실제 없는 길삼봉을 내세워 신하들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왕권을 강화한 선조인 것이다.

01 ④ ‘서찰’ ⑥ 안에는 벼슬을 대가로 최영경을 길삼봉이라고 거짓 고발할 것을 사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산해는 이 서찰이 정철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선조는 이산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서찰을 본 선조는 정철이 위관으로서 주도한 ‘옥사’ ③가, 서인인 정철이 정적인 동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불공정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판단해, 정철의 관직을 폐하고 징벌을 내린다. 그러나 옥사를 주도하는 위관의 자리가 정철에서 이산해로 바뀌었을 뿐, 길삼봉과 관련해 진행되어 온 옥사는 계속 이어진다. 이는 ‘위관은 무얼 하는가?~어서 길삼봉을 잡아들여라!’라는 선조의 대사와 그것을 잇는 ‘길삼봉을 잡으라는 어명이시다.’라는 이산해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조가 옥사를 멈추게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대들의 쓸개 빠진 당파 싸움’, ‘당쟁만 일삼는 그대들은’이라는 최영경의 대사에서, 그가 정철이 옥사 ③를 진행한 이유를

당쟁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수많은 고변을 밝히고자 그리한 충정은 헤아려 주시옵소서.’, ‘역모를 막고자 한 소인의 충정을 헤아려 주옵소서.’와 같은 정철의 대사에서, 그가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옥사 ③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이산해는 정철이 정적 제거를 위해 음모를 꾸밌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서찰을 제시하면서 정철이 그 서찰을 쓴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철은 그 서찰이 자신의 필체를 모방하여 만든 거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산해는 자신이 송강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문우라는 사실을 근거로 정철의 필체를 잘 알고 있으며 그 서찰은 정철이 쓴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이산해가 자신과 정철이 문우였던 사실을 내세워 서찰 ⑥에 대한 자기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최영경의 고발을 사주하는 내용의 서찰 ⑥을 근거로 하여, 이산해는 옥사 ③의 진행 과정에서 정철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계락을 꾸밌음을 주장한다.

02 ④ 정철은 정쟁만 일삼고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는 위정자들에 대한 최영경의 비판을 귀담아듣지 않고, 되레 귀변을 동원해 반박한다. 이러한 정철의 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비판의 뜻을 전하려는 최영경의 심리가 ‘정색하며’라는 지시문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해당 지시문을 통해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최영경의 심리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①에는 술에 취해 최영경을 신문하는 정철의 행동이 제시되어 있다. 술에 취한 채로 신문을 진행한 정철의 행동은 훗날 이산해가 선조 앞에서 정철을 비판하는 빌미가 되는데 이는 ‘충심을 다한다는 위관이 어찌 술에 취해 공초를 진행하였겠사옵니까?’라는 이산해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② ‘호탕히 웃으며’라는 지시문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최영경의 담대한 성격과 자신은 죄가 없고 땀땀하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최영경의 심리를 드러낸다. 아울러 정철이 진행하는 옥사에 대해 ‘없는 죄를 엮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정철의 행위에 대한 최영경의 부정적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정철은 말로는 최영경에게 ‘헌자라는 소릴 들을 만하’다고 하지만 지시문에 나온 태도로는 비웃고 있다. 태도와 말의 불일치에서 정철의 말이 상대방을 비꼬기 위한 방어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⑤ ‘눈이 불꽃이 될 듯 부딪친다’라는 지시문은 정철과 이산해 간의 고조된 갈등을 대사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준다. 아울러 지시문 앞에서 정철의 대사가 ‘일찍이 이산해는 정여립의 서간.’에서 끊기는데 정철이 본래 하고자 했던 말은 ‘일찍이 이산해는 정여립의 서간에 언급된 인물이다.’로 짐작된다. 지금 자신을 비판하는

이산해가 본래 역적 정여립과 관련이 있는 인물임을 언급함으로써 이산해의 말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자신을 변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철은 이 말을 끝마치지 못하는데 이는 그만큼 이산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03 정철은 ‘행함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최영경의 고매한 뜻이 기실 현실에서의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최영경은 정철이 사용한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 없는 죄를 만들어 정적을 해치는 정철을 ‘헛것을 핑계 삼아 선비의 목을 치는 그대’라고 비판하면서 정철의 행위가 근거 없는 정치적 모략이라는 생각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A]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헛것’이다. 선조가 정철을 축출하고 위관의 자리를 이산해에게 넘긴 후 선조와 이산해가 함께 기쁨의 웃음을 짓는 장면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선조가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 이산해에게 잔혹한 옥사를 계속 이어 갈 것을 명령하고 이에 이산해가 놀라면서 급히 선조의 명령을 따르는 장면이다. 정철이 축출되면서 옥사가 멈추고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던 분위기는,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라는 지시문으로 제시되는 선조의 태도 변화만으로 기존의 엄혹한 분위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서인과 동인 간의 정쟁에서 서인 우세에서 동인 우세로 전세가 역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모호한 길삼봉을 구실로 삼아 선조가 주도하는 공포 정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산해가 잔인한 옥사가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말을 하면서 다급하게 선조의 명령에 따르는 모습에서, 동인과 서인이 서로 갈등하는 와중에 선조의 왕권이 더욱 강해졌음을 짐작하게 된다. 따라서 [B]에 들어갈 적절한 지시문은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이다.

6강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작품으로 이해하기 6 예시 답안

본문 29~30쪽

01 ③

02 ①

03 (자신이) 높아진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자신에게) 유익하다 등

■ 백문보, 「윤정설」

해제 > 이 작품은 글쓰기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한 윤택(尹澤)이 자신이 지은 정자의 이름을 ‘윤정’이라 하자, 이에 대해 글쓰기가 써 준 한문 수필이다. 늦은 나이에 급제하고 그보다 더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나아간 윤택의 삶이 가진 가치를 밤나무의 생태적 속성을 바탕으로 칭송하고 있다. 설(說) 갈래에 속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조와 약간 다르지만, 밤나무가 가진 속성과 윤택의 삶을 유추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 갈래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 늦되어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는 삶의 이치

구성 >

- 1문단: 밤나무를 선호하는 윤 공의 취향
- 2, 3문단: 밤나무에 대한 윤 공과 ‘나의 생각’
- 4문단: 윤 공의 성취와 밤나무의 닮은 점
- 5문단: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지는 이치
- 6문단: 밤의 생장 및 수확에서 깨닫는 삶의 이치

01 ③ ‘윤 공’은 밤나무가 주는 실용적 혜택, 즉 쓰임새를 근거로 들어 밤나무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글쓰이는 생장이 느리지만 이점이 많은 밤나무에 빗대어 늦게 과거에 합격하고 늦게 벼슬에 나아갔으나 커다란 성취를 이룬 ‘윤 공’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02 ① 글쓰이는 ‘윤 공’의 생애에 비추어 볼 때, 어려움과 노력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결함이 아니며 어느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글쓰이는 어려움과 노림에 미덕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부러라도 추구해야 하는 미덕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글쓰이의 관점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므로 이 글의 실상과 다르다.

③ 글쓰이는 어려움과 쉬움을 태도의 문제로, 빠름과 느림을 천성의 문제로 구별하여 보는 관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글쓰이는 풀과 나무의 생장에서 어려움과 쉬움, 빠름과 느림은 제각각 다르다고 했고, 이는 인간의 삶에서도 두루 나타난다고 보

EBS

고 있다. 따라서 쉬움과 빠름이 더 우세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글쓰이는 어려움과 느낌의 미덕을 말하고 있을 뿐, 쉬움과 빠름을 추구하는 태도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역설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가리킨다. 따라서 괄호 안에는 겸손과 모순되는 뜻을 가진 말이 들어가야 한다. 겸손의 뜻을 고려하면 ‘자신이 높아진다’나 ‘자신에게 유익하다’ 등의 내용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전체적으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 연에서 ‘뿔가의 노래를 부르던’ 정도에서 드러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반전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 ③ 가상의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도치된 어순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정도에서 계절감을 짐작할 수 있으나, 계절의 순환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02 ④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는 ‘이민 열차’에서 고향을 떠날 때 바라보던 조국의 풍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이라는 구절에서 서러움의 정서가 환기되므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며 감격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드러낸 구절로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달리는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유랑민의 미래를 어둡고 답답한 이미지로 화자가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힘한 땅에서 힘한 번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에게 대한 진술은, 당대 유랑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여러 시련을 겪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③ ‘함경도 사내’인 ‘나’가 고향(함경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화자가 고향으로 향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고향을 떠난 처지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본인은 고향을 떠난 처지이지만, 둘 다 마찬가지로 ‘혈벗은’ 처지라는 점을 드러낸 부분으로, 함께 귀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지애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03 이 작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처지와,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향하는 자신의 처지가 다르면서도 ‘혈벗은’ 채로 돌아가는 유랑민의 처지라는 점에서 유사함을 바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들은 같이 열차 지붕 위에 드러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씩의 별’을 통해 저마다의 희망을 떠올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7강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작품으로 이해하기 7 예시 답안 본문 32~34쪽

01 ①
02 ④
03 하나씩의 별

■ **이용악, 「하나씩의 별」**

해제 ▶ 이 작품은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유랑민과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화자는 고향이 아닌 서울로 향하고 있는데, 이들이 열차의 지붕 위에서 함께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은 변환기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저마다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유랑민이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구성 ▶

- 1연: 귀국하는 화물 열차 지붕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유랑민
- 2연: 서로 다른 사연을 지니고 귀국하는 유랑민의 모습
- 3연: 광복의 기쁨과 동시에 느끼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
- 4연: 희망을 품고 바라보는 저마다의 별

01 ①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을 반복하여 시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9강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작품으로 이해하기 9 예시 답안

본문 41~44쪽

01 ㉠, ㉡, ㉢

02 ㉢

03 ㉣

■ 현진건, 「고향」

해제 ▶ 이 작품은 ‘그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가 나중에 제목을 바꾼 소설로, 일제의 수탈 때문에 농촌 공동체가 황폐해진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서술자인 ‘나’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그’의 얼굴이 일제 강점기에 고통받는 조선 민중의 전형적인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게 연민과 동정,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극적인 사건의 전개나 인물 간의 갈등 관계가 두드러지는 않지만, 액자식 구성을 통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고발하는 사실주의적 경향을 보여 주는 이 소설은 결말 부분에 신민요를 삽입하여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주제 ▶ 일제 강점기 조선 민중의 참혹한 삶에 관한 폭로

전체 줄거리 ▶ ‘나’는 대구발 서울행 기차에서 기이한 옷차림과 행동을 보이는 ‘그’와 우연히 함께 앉게 된다.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여겨 ‘그’를 외면하려 하지만, 일제의 식민 지배로 고향에서의 삶이 파멸해지면서 시작된 ‘그’의 파란만장한 유랑 생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는 먼 객지에서 부모님을 잃고 떠돌다가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예전에 자신과 훈미가 있었으나 부모에 의해 유락에 팔려 가고 말았던 여인을 다시 만나서 들은, 비참한 그녀의 인생 이야기도 ‘나’에게 들려준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일제에 대한 분노와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며,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같이 부른다.

01 사회·문화적 맥락은 당대의 이념이나 사상, 사회 제도나 문화적 관습, 사회 질서에 대응하는 인물의 삶의 방식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을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원에서 탐구하려는 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그’가 궁금해하는 ‘노동 속삭소’라는 시설이 어떤 곳이었는지 파악하여 ‘그’의 현재 처지와 연관 지어 보려는 ㉠, 당대 한국, 중국, 일본의 의복 문화와 관련지어 ‘그’의 옷차림이 묘사된 부분을 더 상세하게 이해해 보려는 ㉡, 그리고 작품 속 대중교통 이용객의 모습을 오늘날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작품 속 인물 간 관계 형성에 관해 이해해 보려는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물의 심리와 태도에 관심을 두는 ㉡,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를 분석해 보려는 ㉣는 작품 내의 요소들에 주목하는 내재적 관점에 따른 감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02 ㉢ ‘그’의 ‘신세타령’을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동양 척식 회사가 역둔토의 소유권을 전부 소유하게 된 후로 ‘그’의 고향 사람들은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는 일을 겪어야 했고, 결국 ‘남부여대하고 타쳐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양 척식 회사가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면서 소작료를 징수함은 물론, 회사에 소작인 노릇을 하는 중간 소작인의 착취까지 더해져 이중의 착취가 행해짐으로써 ‘그’와 고향 사람들의 소득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동양 척식 회사가 일본으로 반출하는 양곡의 운송 임무를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맡겼는지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② ‘세상이 뒤바뀌자’ 역둔토는 ‘전부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고 했으므로, 역둔토가 강점, 강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그’의 고향 사람들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가 되어 버린 역둔토를 경작한 후 가혹한 소작료에 시달렸다고 했으므로, ‘그’의 고향 사람들이 역둔토의 경작 자격을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⑤ ‘그’의 고향 사람들이 사삿집 농토의 농사를 지을 때보다 역둔토 농사를 지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얻었다는 것은 동양 척식 회사가 역둔토를 소유하기 이전 시절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03 ㉣ ㉡은 ‘그’가 ‘나’에게 한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으로, ‘그’와 ‘궤녀’가 지난 9년 동안의 고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껴 슬만 나누어 마시고 헤어졌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역사의 질곡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민중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함께 느낀 것일 뿐, 취업난으로 인한 생활고로 인간관계가 변질된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01

고전 시가

본문 46~47쪽

01 ⑤

02 ③

03 ①

㉠ 신충, 「원가」

해제 ▶ 이 작품은 신라 효성왕 때 신충이 지은 향가이다. 『삼국유사』에 배경 설화와 함께 원문 8구가 전해진다. 후구는 소실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원래 10구체 형식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 작품을 잣나무에 걸어 놓자 잣나무가 말라 버리고, 신충의 염원이 이루어지자 잣나무가 다시 소생되었다는 배경 설화에 의거해 「해성가」처럼 주술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약속을 어긴 임에 대한 원망과 소외감, 괴로움과 좌절감이 작품 전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원망의 언어가 주술적 힘을 얻게 된 것으로 설명한다. ‘잣’, ‘달’, ‘물’의 비유를 통해 시적 정황과 이별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서정성을 인정받는다. 제시된 지문은 김원진의 향찰 해독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주제 ▶ 약속을 저버린 임을 원망하는 마음

구성

- 1~4구: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하시던 임이 변해 버린 상황
- 5~8구: 지나가는 물결을 바라보는 모래처럼 안타깝고 괴로운 화자의 심정

㉡ 이순신, 「진중음」

해제 ▶ 이 작품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큰 공을 세운 이순신이 지은 한시(오언 율시)로, ‘진중음’이란 제목으로 알려진 세 작품 중 하나이다.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바다를 지키던 화자는 높은 누각에 올라 하염없이 생각에 잠긴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고 있지만 난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자신의 명성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소망이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고 ‘귀거래사’를 읊으며 자연과 함께 사는 것임을 고백한다. 태평한 나라를 염원하는 충신의 마음과 명성에 연연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꿈꾸는 선비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주제 ▶ 하루빨리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고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구성

- 기(1, 2행): 홀로 누각에 앉아 생각에 잠김.
- 승(3, 4행): 큰 난리가 끝나고 태평한 시절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 전(5, 6행): 자신이 이룬 업적을 시기하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알려지는 자신의 명성
- 결(7, 8행): 어서 빨리 전쟁을 평정하고 전원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

01 시적 상황의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 따르면 이 시의 화자는 (가)를 지은 ‘신충’ 자신으로도 볼 수 있다. 화자는 더 이상 자신을 중히 여기지 않는 왕을 ‘지나가는 물결’에 빗대면서, 자신을 ‘연못 잣’의 ‘모래’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모래’에 왕을 빗대어 왕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신충’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가)의 화자가 ‘질 좋은 잣’을 작품 속에 언급한 것은 잣나무가 주인이 될 것이라 장담했던 <보기>의 효성왕에게 자신과 바둑을 두면서 했던 말을 떠올려 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라는 임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의 배경 설화 속 효성왕이 신충에게 했던 말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했던 왕의 장담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③ (가)의 화자는 ‘낮이 변해 버린 겨울에여’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탄식을 통해 신충에 대한 효성왕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왕의 마음이 식어 싸늘해진 상태를 ‘겨울’이라는 계절적 분위기로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에 자신이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연못’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충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화자는 ‘어느 날에야~태평해질까’와 같이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자기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업적을 깎아내리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화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의도에 대해 의심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한바다’는 수군이 있는 바다 위를, ‘가을바람’은 서늘해지는 계절을, ‘이 밤’은 밤이 깊어 어두컴컴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들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② 화자는 자신이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과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 앞날에 대한 고뇌 등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는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읊으리’와 같이 미

래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평화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는 것은 평화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곧 자신보다 국가의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화자는 독자들에게 '도연명'이라는 시인과 그가 쓴 작품 「귀거래사」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화자 또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 생활을 소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스스로를 두고 '세상 모든 것 여희여 버린 처지여'라고 말하고 있다. 임의 닢이 변해 버린 순간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의 화자는 '온 세상'과 관련해 자신이 해 온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있다. 즉 '온 세상'이 태평해지도록 난리 속에서 업적을 세워 왔음과 '온 세상'을 위해 앞으로 '변방의 근심을 평정'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는 임이 변해 버린 순간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 모든 것'과 소통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의 경우, '온 세상'이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자신의 명성을 알리는 것보다는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나)의 화자는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세상 모든 것 여희여 버린' 것과 같은 심정임을 말하고 있지만, '세상 모든 것'이 '임과 함께할 수 없게 된 화자가 잃어버린 것 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는 자신의 업적을 어느 정도 이루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④ (가)의 화자는 '세상 모든 것'을 원해 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또한 (나)의 화자도 '온 세상'을 원하고 있거나 가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화자가 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충성스러운 마음은 작품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02

고전 시가

본문 48~50쪽

01 ⑤

02 ⑤

03 ③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해제 >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고려 가요 중 대표작으로 꼽힌다. 임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이 진솔하게 나타난 작품으로, 과장된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남녀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 > 임과의 영원한 사랑 기원

구성 >

- 1연: 임에 대한 사랑의 의지
- 2연: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 3연: 임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에 대한 원망
- 4연: 임에 대한 기다림

㉡ 김삼현, 「내 영혼 술에 섞여～」

해제 > 이 작품은 추상적 대상인 '영혼'을 술에 섞을 수 있다는 참신한 발상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잊고 다른 이를 마음에 두고 있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평시조이다. 임의 마음속을 찾아다니며 다른 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다 태우겠다는 화자의 말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전해지는 문헌에 따라 작가가 '김창흠'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의 사랑을 얻겠다는 의지

구성 >

- 초장: 자신의 영혼을 술에 섞어 임의 마음속에 들어감.
- 중장: 임의 마음속을 굽이굽이 찾아다님.
- 종장: 다른 이를 생각하는 임의 마음을 태우려 함.

㉢ 작자 미상,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

해제 > 이 작품은 대화체의 형식을 통해 이별의 고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시조이다. 화자는 '이별 나는 구멍'을 막을 수 있는지를 장사에게 묻고 있는데, 장사는 천하의 영웅호걸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그들도 '이별 나는 구멍'을 막을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이에 화자는 임과 오랫동안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는데, 임과의 이별을 때울 수 있는 구체적 대상으로 사물화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슬픔을 드러낸 참신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주제 >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한탄

구성 >

- 초장: 이별 구멍을 때울 수 있느냐는 '나'의 물음
- 중장: 이별 구멍은 그 누구도 때울 수 없다는 '장사'의 대답
- 종장: 임과 오랫동안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나'의 한탄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는 '얼음 위에 맺인 자리 보아 입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뉘더라도 입을 한테 지내겠다고 여겼더니'라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며 입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진시황', '한 무제', '제갈량', '서초 패왕' 등과 같이 역사적 인물들의 능력을 나열하며 이러한 영웅들도 입과의 이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입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과 이별한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자신을 잊고 남을 생각하는 입의 마음을 태우고 싶다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낼 뿐,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이 드러나지 않으며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도 않다.

② (다)의 화자는 입과의 이별을 막기 위해 '장사'에게 '이별 나는 구명도 때우는가'라고 묻고 있다. 따라서 (다)는 입과 이별해야 하는 부정적 상황에 놓인 화자가 자신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는 '어느 잠이 오리오'와 '버기터시니 뉘러시니잇가' 등의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입에 대한 그리움과 입과 이별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다)는 화자와 '장사'의 대화를 통해 입과 이별해야 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화자의 독백을 통해 자신을 잊고 남을 생각하는 입의 마음을 태우고 싶다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낼 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는 객관적 상관물인 '도화'를 활용하여 입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 않다. (나)는 '남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 하노라'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입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대상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서 입의 마음은 화자가 아닌 ㉠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은 입이 화자 대신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으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다)의 화자는 입과의 이별을 막을 수 있는가를 ㉡에게 묻고 있고, 이러한 화자의 물음에 대해 ㉡은 진시황이나 한 무제 등과 같은 인물들도 입과의 이별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의 대답을 듣고 (다)의 화자는 입과의 이별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의 처지를 환기시켜 주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이 '시름 없어 소춘풍'하는 것은 봄이 왔기 때문일 뿐, 화자를 조롱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화자는 ㉡에게 '여울은 어디 두고 소에 자러 오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가)가 헤어짐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은 이별한 후 화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연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 입의 마음이 화자가 아닌 ㉡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 화자의 괴로움을 심화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일 뿐, 화자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자연물로는 볼 수 없다.

③ (가)에서 ㉡은 작품의 맥락상 화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입을 의미하며 화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화자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자연물이라 볼 수 없다. (나)에서 ㉡은 입이 마음을 주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화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은 작품의 맥락상 화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입을 의미할 뿐, 화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다)의 화자는 입과의 이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에게 묻고 있을 뿐, 자신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 '여울'과 '소'는 모두 추위에 얼 수 있는 공간이며, '비오리'가 잠도 잘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비오리'가 잠을 자거나 추위에 얼 수 있는 공간으로 '소'를 인식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인 '소'를 평소와 다르게 인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밤'이라는 시간은 화자의 바람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흐르는 물리적 시간이다. (가)의 화자는 '얼음 위'에서 얼어 죽더라도 '오늘 밤'이 '더디 새'길 바라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인 시간에 변화를 주어 입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뉘'은 사람의 몸에 깃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관념적인 대상으로, 눈으로 확인하거나 실체를 알 수 없는 추상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가)의 화자는 이별로 인해 입을 만날 수 없다는 점에서 화자와 입의 육체는 서로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의 화자가 자신의 '뉘'이라도 입을 한테 지내겠다고 여겼던 것은 추상적 대상인 '뉘'은 육체와 달리 입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 의한 것으로, 이는 입과의 이별로 인한 힘겨움과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물리적인 변화를 줄 수 없는 추상적

인 대상이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자신의 '영혼'이 '술에 섞여 입의 속에' 들어가서 '남 향한' 입의 마음을 '다 태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추상적 대상을 물리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사물화하여, 자신을 멀리하는 입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이별'은 서로 갈리어 떨어지는 것으로, 이별은 술의 구멍을 때우는 것처럼 수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의 화자는 '이별 나는 구멍'을 때울 수 있는지를 '장사'에게 묻고 있는데, 이는 추상적인 대상을 사물화하여 입과의 이별을 원하지 않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3 고전 시가 본문 51~52쪽

01 ③ 02 ⑤ 03 ③

■ 정훈, 「월곡답가」

해제 > 이 작품은 전체 10수의 연시조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일관되게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인 '월곡'은 작가가 존경하는 인물로, 작가는 대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신의 심회를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향촌 사족으로서 현실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때 '월곡'은 속세에 초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며 작가의 이상적인 지표로 설정되어 나타난다.

주제 >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

구성 >

- 제1수: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
- 제2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알아봐 주는 벗
- 제4수: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벗에 대한 예찬
- 제5수: 벗을 찾아가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
- 제6수: 벗에 대한 흠모
- 제7수: 벗에 대한 그리움
- 제9수: 벗과 함께 세상을 초탈하고 싶은 마음
- 제10수: 선계에 대한 동경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제6수>에는 '달이 밝은 제'와 '시절이 좋은 제'에 화자가 바라본 상황이 드러나 있고, '잔을 들고'와 '경을 보고'에 이러한 상황에 따른 화자의 행위가 각각 드러나 있다. 또한 '달이 밝은 제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와 '시절이 좋은 제는 경을 보고 그리노라'에 대구의 형식이 드러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1수>에는 대상을 '내 벗'이라고 여기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날 뿐, 자연 현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제4수>에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표현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제9수>에는 명령적 어조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상산에 채지 하러'에 자연에서 화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 있을 뿐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제10수>에는 '나도 타다 어떠하리'에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만,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에서 화자는 '신선'이 타는 '청학'을 '나도 타다 어떠하리'라고 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신 또한 신선과 같이 행동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낼 뿐, 자신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에서 화자는 대상을 '내 벗'이라고 하며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㉒에서 '옛그제 지나간 한 분'은 화자에게 '꿈다'고 한다는 점에서 '분 바른 각시님네'와 대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㉓에서 화자는 '벗님 사는 땅'이 '용추동 밖이오 구름다리 위로다'라고 하였는데,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온다는 것을 볼 때, '용추동 밖', '구름다리 위'는 대상과 화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 ④ ㉔에서 '바라도 볼 성 없다'는 것에는 '피'와 '구름'으로 가려져 '고인의 집 땅'을 바라보기 어려운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벗님 사는 땅'을 생각하며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온다는 것을 통해서 작가가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꿈에서나마 대상을 만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포부를 펼치고자 하는 마음과 대상을 닮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작가가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내 양자 하 험하'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알 수 있으며, '분 바른 각시님네 다 웃고 다'닌다는 것을 통해 작가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초옥 삼간에 숨어' 있다는 것을 통해 대상이 속세와 단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대상을 '내 벗님'이라고 여기는 것을 통해 작가가 대상을 자신과 가깝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속세에 초연한 대상에 대한 지향은 작가가 자신의 처지에 합당한 현실 대응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시절이 좋은 제는 경을 보고 그리워한다는 것을 통해 작가에게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이 될 괴운 탓으로 잊힐 적이 적’다는 것을 통해 작가가 그러한 대상을 향해 지속적인 애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상산에 채지하러’ 가자는 것을 통해 작가가 속세와 거리를 두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을 통해 속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듣도 보도’ 말자는 것을 통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태도를 알 수 있다.

04

고전 시가

본문 53~54쪽

01 ③

02 ③

03 ④

㉠ 소식, 「두류산 양단수를 ~」

해제 > 두류산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으로, 이 작품은 지리산의 뛰어난 경치를 무릉도원이라는 선경(仙境)에 빗대어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주제 > 두류산(지리산)의 절경에 대한 예찬

구성 >

- 초장: 두류산 양단수를 봄.
- 중장: 두류산 양단수의 아름다움
- 종장: 두류산 양단수를 무릉도원으로 여김.

㉡ 김천택, 「요일월 순건곤은 ~」

해제 > 요순시절은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요순시대의 일월과 건곤(천지)은 그대로인 것과 달리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고, 화자는 늦게 태어난 것을 탄식하고 있다. 작가의 삶을 반영하여 평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주제 > 혼란스러운 시대에 대한 탄식

구성 >

- 초장: 요순시절의 자연은 그대로임.
- 중장: 변함없는 자연과 달리 인세는 달라짐을 탄식함.
- 종장: 불우한 시대에 태어남을 슬퍼함.

㉢ 작자 미상, 「대장부 공 이루고 ~」

해제 > 작자 미상의 사실시조이다. 대장부가 공을 이룬 후에 물러

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열거의 방식으로 보여 주며 지극한 충만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대장부의 즐거운 삶에 대한 만족감

구성 >

- 초장: 대장부가 공을 이룬 후의 상황
- 중장: 임천에 초당 짓고 손임금이 지은 남풍시를 노래하며 평화로운 세월을 보냄.
- 종장: 평화로운 삶에 대한 지극한 만족감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와 (다)에는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나)에는 슬픔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다)에는 즐거움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화자의 긍정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종장에서 시적 청자를 ‘아화야’로 부르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화자가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화자의 한탄이 섞인 영탄적 표현이 제시되고 있을 뿐 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는 한결같은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한 세상 인사에 대한 탄식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는 대조의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다)는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 화자가 임천에 초당을 짓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열거하여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지, 특정 공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는 화자의 행동이 열거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가)~(다)는 모두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와 (다)에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는 데 반해 (나)에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슬픔의 정서가 드러난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두류산 양단수에 대해 듣기는 하였으나 보지는 못했던 때라면, ㉡는 말로만 듣던 두류산 양단수를 본 때이다. 화자는 말로만 듣던 곳을 직접 보면서 무릉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하며 지극한 충족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는 ㉠과 달리 화자가 시간적인 실제 경험을 통해 충족감을 느끼는 시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는 평화로운 시대인 요와 순의 시절을 의미하는데, 이 시절의 자연은 현재도 그대로이지만 세상 인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리운 '세상 인사'가 있었던 때라고 볼 수도 있다. 반면 ㉕는 두류산 양단수에 대해서 들었던 과거의 시간이지만, 그때 들었던 두류산 양단수를 지금 보고 있으므로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리운 대상이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㉖는 대장부가 공을 이룬 후의 시간이므로 사회적인 성취를 이룬 이후의 만족감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㉗는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긴 모습을 보고 있는 시간으로, 사회적인 성취를 이룬 이후의 만족감과는 관련이 없다.

④ ㉘와 ㉙는 모두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있는 시간으로, 결핍으로 인한 슬픔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㉚와 ㉛는 모두 화자가 지극한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시간으로 볼 수 없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는 대장부의 꿈을 이룬 후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천금준마'를 솔질하고 '보라매'도 길들이고, '노복'은 밭을 갈고, '절대가인'도 옆에 둔 채 술과 더불어 거문고까지 연주하며 정서적으로 지극한 충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세속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이후에 느끼는 정서적으로 충족된 삶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세속적 욕망 자체를 부정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화자가 '두류산 양단수'를 직접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머무는 공간을 '무릉'에 빗대며 현실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고전 시가에서 낙원을 표상하는 시어로 자주 등장하는 '무릉도원'을 바로 화자가 경험하는 두류산의 모습과 연결 지으며 '도화 뜬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산영'이 비치는 모습의 공간을 낙원으로 여기고 있다.

③ (나)는 화자가 요순시대의 자연은 그대로인 것에 반해 '세상 인사'가 달라졌음을 탄식하며 자신이 늦게 태어나 요순시대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에 슬픔을 느끼고 있다.

⑤ (다)의 중장에서 열거되고 있는 모습은 대장부가 공을 이루고 물러난 뒤 의식주에 결핍 없이 충만함을 느끼는 모습으로, 화자는 이를 '강구연월', 즉 태평성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05

고전 시가

본문 55~57쪽

01 ⑤

02 ②

03 ④

㉔ 원천석, 「눈 맞아 휘어진 대를 ~」

해제 > 이 작품은 사군자 중 하나인 대나무를 소재로 하여, 굽힘 없는 곧은 절개를 노래한 평시조이다. 화자는 한겨울 눈을 맞아 휘어지면서도 꺾이지 않고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를 보며, 시련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곧은 절의를 노래하고 있다. 작가는 고려의 유신(遺臣)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무리의 회유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두 왕조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유학 자로서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 이 작품은 그러한 작가의 절의를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주제 > 대나무의 절개 예찬(고려 왕조에 대한 절의)

구성 >

- 초장: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
- 중장: 눈 속에서도 푸른 대나무
- 종장: 대나무의 절개 예찬

㉕ 작자 미상, 「연못에 비 오는 소리 ~」

해제 > 이 작품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자 미상의 평시조이다. 현실에서 만나지 못한 임을 꿈에서 만나 보려고 했으나 연잎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 임과의 만남이 좌절되었다는 것이 전체적인 설정이다. 빗소리, 연잎, 물방울과 같은 자연적 소재들이 어우러져 시적 상황과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임과 만나지 못하는 화자의 아쉬움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 > 사랑하는 임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슬픔

구성 >

- 초장: 연못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림.
- 중장: 꿈에 임을 만나려 했으나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남.
- 종장: 임을 만나지 못한 슬픔

㉖ 이정보, 「임이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

해제 >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하는 화자의 다짐을 담은 사설시조이다. 임과 화자가 각각 오리나무와 칙녕쿨모 모습을 바꾼다는 상상을 통해,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임과 결코 헤어지지 않겠다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현실을 초월한 변신의 상상은 임에 대한 애정을 더욱 절실하게 드러내며, 그 사랑이 끝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 임과의 사랑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구성 >

- 초장: 오리나무가 된 임과 칙녕쿨이 된 화자
- 중장: 임과 결속되어 항상 붙어 살고 싶은 심정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는 '세한고절은 너뿐'이라고 말하며 '대'라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세한고절'을 지닌 '대'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예찬적 태도를 보여 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세한고절은 너뿐'이라고 하는 데에서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고 볼 경우 자연과 인간을 대비한 표현이 나타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나게 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나)에는 애상적 정서가 나타나지만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닌 독백체의 말하기 방식이 사용되었다.
- ③ (가)는 '~푸를쏘냐'에서, (나)는 '~깨끗던고'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것을 통해 현실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의 경우 '늬라서 굶다던고'에서 화자가 미상의 타인이 한 말을 인용하고 그 말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경우 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화자가 ⑥로 변신하는 발상은 나타나지만, ⑥에서 ③로의 변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의 경우 화자와 '임' 간 결속의 의미를 더욱 부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된 소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임'은 곧게 자라고 생명력이 강한 ③에 비유되고 있다. 그리하여 ③은 칠푼쿨이 감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든든히 기뻐한 존재로서 '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형상화한 자연물로 볼 수 있다.
- ③ ④와 ⑥의 주요한 특성은 둘 다 추위에 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동 설달' 겨울에도 두 소재가 함께 살아남는 것이 가능함을 뒷받침해 준다.
- ④ ⑥는 퉁쿨로써, ③은 줄로써 다른 대상을 능동적으로 '감'는 기능을 가진 소재이다. 따라서 ⑥와 ③ 모두 강력하고 지속적인 결속을 위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 ⑤ ③은 감고 ④는 감기는 대상으로 서로 얽혀져 있다는 ③과 ④ 사이의 외형적인 주요 특성은, ⑥가 감고 ③은 감기는 대상으로 ⑥와 ③ 사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자연물의 특성에 기대어서 화자는 '임'과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비'는 '듣'는다는 하강 이미지와 액체라는 본연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초·중장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화자를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종장에서는 연 '잎 위에 구슬'처럼 떨어진 '비'가 입을 못 만난 화자가 흘린 슬픔의 눈물에 빗대어져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연 '잎 위에 구슬' 모양으로 흘러서 맺힌 것을 '비'가 아니라 화자의 눈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눈'은 고체라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무게로 절개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대'를 눌러 '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때의 '눈'은 절개를 꺾게 만드는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에서 '눈'은 하얀색으로 시각적 차원에서 '대'의 푸름과 색채 대비를 이룬다. 이는 '세한고절은 너뿐'에서 알 수 있듯이 추운 겨울의 계절적 배경 속에서 화자가 '대'만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에서 화자는 잠에 들어 '임 보러 가던 꿈'을 꾸고 있다가 빗소리에 의해 깨어난다. 이때 '비'는 꿈에서 만날 수 있는 입을 못 만나게 만들었으므로 임과 화자의 만남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 ⑤ (다)에서 '비'와 '눈'은 '바람', '서리'와 함께 임과 화자가 서로 사랑으로 맺어져 결속 관계를 이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관계를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원인 요소로 나타나 두 사람 사이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치게 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06 고전 시가

본문 58~62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④

■ 승승, 「면양정가」

해제 > 이 작품은 작가가 고향에 내려와 면양정을 짓고, 정자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신의 생활을 노래한 은일 가사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면양정 주변의 자연 풍경을 근경과 원경으로 그려 내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정경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풍류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결사 부분의 '역군은이삿다'와 같은 관습적 표현을 통해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정극인의 「상춘곡」의 영향을 받은 이 작품은 면양정에서의 풍류 생활을 노래하면서도 유학자 본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철의 「성산별

곡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강호가도를 확립한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성 >

- 서사: 제월봉의 형세와 면양정의 모습
- 본사 1: 면양정의 근경과 원경
- 본사 2: 면양정의 사계절 풍경
- 결사: 풍류 생활의 만족감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 멀리 떨어져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과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엮었는데’를 통해 면양정이 위치한 곳과 무등산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는 면양정을 떠난 화자가 무등산이 아닌, 면양정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자가 면양정을 떠나 무등산의 사계절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은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쏘냐 / 부르며 타이며 희이며 이아며’는 화자가 면양정에서 자신의 벗과 함께 노래를 즐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벌였는 듯’과 ‘가운데 굽이’의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엮었는데’를 통해 면양정이 무등산에서 뻗어 나온 일곱 개의 산 중에서 가운데 위치한 산에 세워졌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와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는 화자가 면양정을 벗어나 지팡이를 짚으며 이동하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이 몸이 이리함도 역군은이삿다’는 면양정에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삶이 임금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면양정이 마치 ‘구름 탄 청학이 /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펼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구름 탄 청학)는 화자가 바라보는 면양정의 외형적 특징을 비유하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화자가 가마를 타고 가면서 듣는 피꼬리 소리를 ‘교태’롭다고 하는 것은 봄을 즐기는 화자의 감정이 자연물인 ‘피꼬리’에 이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녹양에 우는 피꼬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면양정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대상일 뿐 화자의 처지와는 관련이 없다. 한편 화자는 자연을 감상하며 ㉡의 소리를 듣고 있을 뿐, ㉢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대상은 아니다.

② ㉠은 추상적 사물을 구체화하여 드러낸 대상이 아닌, 면양정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대상이다. 한편 ㉡는 화자가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듣는 소리일 뿐, 화자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은 아니다.

③ 면양정은 제월봉에 있는 정자로, 이상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정자라는 점에서 ㉠가 이상적 세계의 몽환적 분위기를 환기하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는 화자가 자연을 즐기기 위해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듣는 소리일 뿐, 현실 세계에 몽환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은 면양정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였는 듯’을 통해 면양정이 위치한 공간의 광활함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화자는 가마를 타고 ㉡의 소리를 들으며 자연을 감상하고 있을 뿐, 화자가 위치한 곳이 역동적인 공간은 아니며 ㉢가 공간의 역동성을 부각하는 대상도 아니다.

0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의 ‘어부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는 ‘달’이 떠오른 시간적 배경과 ‘어부 피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연관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화자가 자신을 찾은 대상들과 함께 풍경을 즐기는 모습은 ㉡에서 확인할 수 없다. <보기>의 ‘기러기 한 소리에 맑은 서리 물들이고’는 시간적 배경과 청각적 이미지를 연관 지은 것으로, ‘깃옷 입은 손님은 다 나를 찾아와 눈에 가득 보이도다’는 화자가 자신을 찾은 대상들과 함께 풍경을 즐기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는 ‘곡구암 반타암’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을 제시하고 있지만, ㉡에서는 구체적 지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② ㉡에서는 ‘황운은 또 어찌 만경에 펼쳤는가’라는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가을 들뜬의 풍요로움을 부각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세모에 날씨 차고 온 산에 눈 덮이니 / 인적은 끊어지고 우는 새도 없는 때에’라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겨울 산의 적막함을 전달하고 있다.

③ ㉡에서는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라는 백색의 이미지와 관련된 건축물을 활용하여, <보기>에서는 ‘백옥 궁궐’이라는 백색의 이미지와 관련된 건축물을 활용하여 눈으로 덮인 겨울 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㉗에서는 ‘된서리’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와 ‘금수’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보기>에서는 ‘맑은 서리’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와 ‘금수’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단풍이 물든 가을 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D]에서 화자가 ‘바람’을 찌고 ‘달’을 맞으며, ‘밤’을 줌과 ‘고기’를 낚는 생활을 하며 바쁘게 보내는 것은 현재의 시간에 해당한다. <보기>에서 과거는 ‘양’의 시선으로, 현재는 ‘면’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화자의 모습은 ‘양’의 시선이 아닌, ‘면’의 시선에서 자신의 삶을 살피보는 것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 ‘면’은 아래를 굽어보는 것으로 ‘면’과 ‘양’의 시선은 ‘면양정’을 기준으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A]에서 정자 앞 넓은 들에 흐르는 물과 물가의 모래밭을 날고 있는 기러기는 산 중턱에 있는 면양정보다 아래에 펼쳐진 풍경에 해당하므로, [A]에 제시된 풍경은 ‘면’의 시선으로 바라본 ‘면양정’ 주변 풍경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양’은 위를 우러러보는 것으로 ‘면’과 ‘양’의 시선은 ‘면양정’을 기준으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B]에서 넓은 길 바깥길 하늘 아래 병풍처럼 펼쳐진 봉우리와 원근의 푸른 절벽에 벌여 있는 산들은 산 중턱에 위치한 면양정보다 위쪽에 펼쳐진 풍경에 해당하므로, [B]에 제시된 풍경은 ‘양’의 시선으로 바라본 ‘면양정’ 주변 풍경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면’과 ‘양’의 시선은 ‘면양정’을 기준으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C]에서 흰 구름 뿌연 연화와 산람이 하늘로 떠나는 풍경은 면양정보다 위쪽에 펼쳐진 풍경에 해당하고, 흰 구름 뿌연 연화와 산람이 광야로 건너가는 모습은 면양정보다 아래에 펼쳐진 풍경에 해당한다. [C]에 제시된 풍경은 ‘면’과 ‘양’의 시선을 모두 사용하여 ‘면양정’ 주변의 풍경을 바라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양’의 시선으로, 현재는 지금 자신의 삶을 살피보는 것이므로 ‘면’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E]에서 ‘이때’는 현재의 시간이고, ‘약양루 위의 이백’은 과거에 살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E]에 제시된 화자의 모습은 ‘면’과 ‘양’의 시선을 모두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살피보는 것에 해당한다.

답 ④

07

고전 시가

본문 63~66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④

■ 작자 미상, 「사친가」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가사(잡가)이다. 「사친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를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주제를 월령체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매달의 행사나 절기(명절)와 관련지어 각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사친」이라는 주제와 무관하게 계절의 변화나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화자의 지식수준을 뽐내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나 중국의 고사 등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월령체라는 형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한해의 변화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풍경과 상황, 그에 대한 단상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주제 > 사시사철 부모님을 생각하며 섬기려는 마음

구성 >

- 1~12행(정월령): 정월 대보름에 달구경하는 소년들에게 부모 봉양 생각할 것을 권함.
- 13~21행(2월령): 이월 한식일(청명)에 절기의 의미를 떠올리며 절기를 즐기지 못하는 부모님을 안타까워함.
- 22~34행(3월령): 삼월 단청절에 단청절 행사와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흥겨움 속에서 부모님을 생각함.
- 35~46행(4월령): 4월 초파일(관등절)에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림.
- 47~61행(5월령): 5월 단오절에 여름을 맞아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과 보리타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님을 떠올림.

01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와 [D]에는 ‘소년’이나 ‘아이’를 청자로 삼아 말을 건네는 부분이 나타난다. [A]에서는 ‘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봉양 생각하라’와 같이 효의 실천을 권하고 있지만, [D]에서는 ‘아이’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강조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B]의 ‘후인’은 ‘개자추’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데, 그들을 청자로 삼아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③ 이 작품은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매달의 절기나 명절, 풍습 등을 소개하는 월령체 작품에 해당한다. 지문에서는 정월의 대보름, 이월의 한식일, 삼월의 단청절 등에 사람들이 하는 놀이나 풍습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④, ⑤ 이 작품은 각 월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을 시작할 때, ‘슬프(도)다 우리 부모~모르시나’와 ‘그달을 허송하니(고) 혹은 ‘그달

그름 다 지나고’를 연달아 배치하고 있다. 앞 구절은 당시 사람들이 즐기던 행사나 풍속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화자의 효심을 드러내는 구절이고, 뒤 구절은 앞에서 언급한 한 달이 어느새 다 지나가 버렸음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것으로,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이 현실 세계에서 인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을 얻을 수 없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충고하는 말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유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은 모두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행위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② ㉢은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한없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을 생각할 때,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의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한 줌 흙’ 되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투영되어 있다.

⑤ ㉠은 ‘일 년’의 시간을 넘어, ‘매일매일의 모든 시간’이라는 의미로 확장된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항시 지니고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C]는 ‘제비 새끼’, ‘호랑나비’, ‘청류’, ‘산화는 붉은 비단’, ‘세류는 푸른 실’과 같은 자연물을 제시하여 새봄을 맞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것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흥겨운 모습을 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D]는 ‘만백성 화합하는 경성가’, ‘태평성대’, ‘우레같이 소리’, ‘산호만세’와 같은 소재를 제시하여 태평성대를 이룬 임금과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C]에는 삼월 삼짇날에 사람들이 하는 풍습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D]의 사월 초파일에 도성에서 국가 행사가 따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C]에는 봄을 맞아 바쁜 농부들이나 봄 풍경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주로 나타난다. 일하러 가는 농부들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 농부들이 농사일이 바빠 봄이 온 것을 아예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④ [C]는 답청절을 맞아 기수에 목욕하고, 청류 이르러 시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D]는 관등절이 있는 사월에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D]가 함께 모여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C]에는 삼월을 맞은 제비 새끼와 호랑나비의 분주함이 나타나지만, 이는 아름다운 봄 풍경의 일부일 뿐이다. [D]에는 사월이 되어 ‘만백성 화합하는 경성가’가 불리는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만, 경성가를 부르며 놀러 다니는 주체로서 아이들의 모습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0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B]에는 ‘후인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D]에는 ‘만사 인간 짧은 날에 소년행락’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B]의 경우, ‘개자추’의 고사를 떠올리며 한식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해당 절기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 뿐, 적당한 때를 놓치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또한 [D]의 ‘타기행영~우지 마라’는 즐거운 꿈을 깨우지 말도록 하라는 의미로, 이 역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짧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와 [E]는 ‘항상 부모를 섬기고 효를 실천하라’라는 주제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화자는 [A]와 [E]에서 ‘부모 봉양 생각하라’, ‘부모 생각뿐이로다’와 같이 적극적으로 효의 실천을 강조하며 ‘사친’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② [B]와 [D]에는 중국의 고사를 바탕으로 한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B]에서 ‘개자추’는 춘추 전국 시대 진나라의 충신이자 한식날의 유래와 관련된 인물이고, ‘이영백’은 효심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인물이며, ‘적인걸’은 충직한 신하의 모습을 갖춘 인물이다. [D]의 ‘요’임금과 ‘순’임금은 태평성대를 이룬 성군으로 제시되고 있다. 화자는 중국 고사 속 인물들을 활용하여 당대인들이 중시했던 유교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③ [C]에는 삼월을 맞은 농부들이 ‘농구를 둘러메고 처처에 왕래 하’는 모습이, [E]에는 남과 북에 있는 이웃집(‘남린 북사’)에서 ‘보리타작’을 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각 시기에 맞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농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표현한 부분이다.

⑤ [A]와 [E]에는 대보름과 단오절에 하는 놀이나 행사로 달구경하기, 풍년인지 흉년인지 점치기, 그네 타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풍속이나 놀이를 모르고 지내시는 부모님의 상황을 떠올리며, ‘사친’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01 ②

02 ③

03 ③

04 ④

■ 이진유, 「속사미인곡」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영조 때 사대부인 이진유가 유배지인 추자도에서 지은 가사이다. 이처럼 유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가사를 일러 유배 가사라고 한다. 유배 가사는 보통 ‘연군의 정서’와 ‘유배 생활의 시련’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속사미인곡」은 다른 유배 가사에 비해 유배 생활의 시련이 보다 자세히 서술되고 있어, 조선 후기 가사의 사실화·서사화 경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가 있다. 작품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송강 정철의 ‘양미인곡’ 즉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계승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 유배의 노정과 유배객의 생활 및 심정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정철의 ‘양미인곡’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은 ‘서사-본사-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는 유배지까지의 여정, 나주에서의 유배 생활, 추자도에서의 유배 생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문에는 본사의 일부와 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죄 없음과 억울함, 임을 향한 그리움, 임의 사랑을 회복하여 그와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되어 있다.

주제 ▶ 유배 생활의 고통과 연군의 정서

구성 ▶

- 서사: 3년간 임을 떠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이유
- 본사 1: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에 유배형을 받아 유배지인 나주로 가는 여정
- 본사 2: 나주에서의 유배 생활과 나주 유배에서 깨달는 임(임금)의 은혜
- 본사 3: 추자도로 유배지를 옮기게 된 사정과 추자도로 가는 여정
- 본사 4: 추자도에서의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
- 결사: 임(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임금의 은혜로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화자는 ‘어육이야 바람쏘냐’, ‘제 방이 덥기 생각할까’, ‘못 본다고 상관하랴’,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꼬’와 같이 의문의 형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 먹을 것이 부족하고 겨울 추위에 시달리며 풍토가 달라 국화꽃도 볼 수 없는 유배지에서의 참담한 생활상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이 사용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A]에서 화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생활상에

대해 진술하고 있을 뿐, 부정적 세태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삼 년을 입을 떠나 해도에 유배되니’와 같은 구절에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해당 표현은 [A]에 있는 표현이 아니며, [A]에는 장소의 이동과 그에 따른 경관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에서 화자는 유배지의 척박한 생활 환경을 알려 주는 구체적인 생활상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을 나열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정해진 운명으로 여겨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은 [A]에는 나와 있지 않다.

⑤ ‘어육이야 바람쏘냐’와 같은 표현은, 어육을 과거에는 먹어 봤지만 지금은 어육은 고사하고 염장도 못 먹는 화자의 상황을 제시한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화자는 현재 겪고 있는 유배 생활의 고통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임이 모르실 리 없다는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의 앞뒤에 나오는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꼬’, ‘일월 같은 우리 임이 거의 아니 굽어볼까’, ‘날 살리신 이 은혜’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에게 임은 은혜로운 존재로서 의지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임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생활 여건이 결핍된 상황은 화자가 마주한 문제 상황 중 하나이다. 육지와 단절된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은 음식을 비롯한 기본적 생활 여건을 불충분하게 만든다. 아울러 겨울이라는 계절적 상황은 먹을 것 구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에서 자신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과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에는 집을 떠나 유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빈집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 뜰 안의 꽃이 방치되어 있을 것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본래 살던 집의 현재 상황을 짐작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은 해와 달처럼 밝은 지혜를 지닌 임이 화자 자신의 죄 없음과 임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알아주리라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⑤ ㉤의 ‘꿈’은 앞에서 서술한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입을 모시

는 꿈을 가리킨다. ㉔에서 화자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 그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을 다시 모시고 싶은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을 부채’ ㉔는 더 이상 주인이 찾지 않는 사물이다. 부채는 여름에 필요한 물건이며 서늘한 가을이 되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화자는 입과 헤어진 자신, 즉 입이 더 이상 찾지 않는 자신을 ‘가을 부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마름과 연으로 지은 ‘옷’ ㉕은 부용으로 지은 치마와 더불어 입을 위해 자신을 단장하려고 준비한 사물로서 입을 향한 화자의 애정과 정성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을 부채’ ㉔와 ‘옷’ ㉕을 통해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 결핍의 감정이 드러나지만 입을 원망하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을 부채’ ㉔와 ‘옷’ ㉕을 통해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 결핍의 감정이 드러나지만 입과 재회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체념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되레 화자는 ‘두어라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라고 말하며 입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④ ‘옷’ ㉕은 입을 향한 화자의 애정과 정성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입을 위해 정성껏 옷을 마련했지만, 그 옷으로 단장하여 입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서 오는 안타까운 심정이 ‘눌 위하여 단장할고’라는 표현에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옷’이 결핍의 상황에서 비롯된 슬픔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나 ‘가을 부채’ ㉔는 입과 헤어진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하기 위해 쓰인 사물일 뿐, 결핍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는 무관한 소재이다. 따라서 ‘가을 부채’가 결핍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을 부채’ ㉔는 입과 헤어진 자신의 현재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이지, 화자가 기대하는 미래의 긍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소재는 아니다. ‘옷’ ㉕은 입을 정성껏 모시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이고 입을 모시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바이므로, ‘옷’ ㉕이 화자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려는 노력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옥음은 컵가에 완연하고’라는 표현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작가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입을 모셨다’는 표현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어서 밤마다 임금을 모시는 꿈을 꾸는 뜻으로, 현실에서 겪은 일을 나타낸 것이 아니며 작가가 임금을 모셨던 옛일과도 무관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숫국에 떡’,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은 설날 명절에 고깃국도 못 먹고 맛없고 거친 음식밖에 먹을 것이 없는 작가의 처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표현을 통해 작가는 설날의 초라한 상차림을 자세히 묘사하여 자신이 유배지에서 겪은 시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와 같이 유배지에서 경험한 고난과 시련을 자세히 서술하는 것은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변모를 보여 주는 특징이다.

② 작가는 주 문왕이 행했던 것과 같은 어진 정치가 이 나라에서도 펼쳐지게 되면 자신이 반드시 임금의 어진 정치에 일조하는 신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작가 스스로가 훌륭한 정치에 필요한 가치 있는 인물임을 밝히려는 적극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이처럼 작가 자신이 임금에게 가치 있는 신하임을 밝히는 적극적인 모습은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변모를 보여 주는 특징으로 이해된다.

③ 작가는 ‘옛 잘못을 헤아리’면서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라고 하여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자신이 한 행동이 유배형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자신이 한 행동의 ‘근본을 생각하면 입 위한 정성’이라고 해명하면서, 비록 자신이 한 행동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 모든 행동의 동기와 의도는 임금을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뒤이어 ‘일월 같은 우리 입이 거의 아니 굶어볼까’라고 말하면서 임금이 작가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 이면에 있는 정성을 밝게 헤아려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보기>에 따르면 이와 같이 작가가 지난 일에 대해 반성하거나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전대의 유배 가사를 계승하는 면모로 이해된다.

⑤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라는 구절은 유배의 시련을 겪고 있는 자신을 구원해 줄, 문제 해결의 주체가 임금이라는 작가의 믿음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보기>에 따르면 연군의 감정이 임금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임금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변모를 보여 주는 특징으로 이해된다.

09 고전 시가

본문 71~73쪽

01 ②

02 ②

03 ⑤

21 작자 미상, 「몽금포 타령」

해제 ▶ 이 작품은 황해도 민요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민요이다. 작품에는 장연군에 있는 장산곶의 경치와 어항의 정경, 어부들의

생활이 묘사되어 있다. 장산곶에서 ‘곶’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돌출된 곳을 일컫는데, 장산곶의 북쪽 지점에서 몽금포가 있으며 절벽이 병풍처럼 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 > 장산곶의 경치와 어항의 정경

구성 >

- 1연: 배를 탄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
- 2연: 돌아오는 배에 대한 기원
- 3연: 여러 포구에 들리길 바라는 마음
- 8연: 임과 헤어진 상황으로 인한 외로움
- 9연: 몽금포의 정경
- 10연: 배를 탄 임이 돌아온다는 소식
- 11연: 만선으로 돌아온 임
- 12연: 떠났던 임이 돌아오는 상황
- 13연: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배의 모습
- 14연: 돌아오는 임에 대한 반가움

▣ 이종경, 「어부별곡」

해제 > 이 작품은 전체 6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자연과 벗하는 강호 생활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작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인물로 작품에는 이러한 작가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하지만 작가는 자신을 어부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일임을 드러내며 자신의 고뇌를 자연 속에서의 삶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주제 >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지향

구성 >

- 제2수: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자연 속에서 지내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
- 제3수: 세상의 시비와 거리를 둔 어부의 삶에 대한 긍정
- 제4수: 위국 충심을 내어 보일 수 없는 한계
- 제6수: 자연에서 한가롭게 사는 삶에 대한 지향

01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바람새 좋다고 돛 달지 말’라는 것은 ‘몽금이 개암포 들렀다 가’라는 것과 관련 있을 뿐, 화자가 이별로 인한 원망을 표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 난다는 것은 임이 탄 배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북이 울리는 포구의 활기찬 분위기를 보여 준다.
- ③ ‘몽금이 개암포 들렀다 가’라는 것은 배로 몽금포와 개암포에 들르라는 것으로 포구가 제한된 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 ④ ‘몽금포 백사장’에 해당화가 있고, 푸른 ‘솔가지’에 두루미가 앉아 있다는 것은 포구의 풍경이 시각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장산곶 마루에 새 소식 들’렸다는 것은 포구가 ‘정든 임 오’신 상황과 관련된 공간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여 준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임 실러 갈 적’에는 배가 ‘반돛’을 달고 ‘임 신고 올 적’에는 배가 ‘온 돛’을 단다는 것에서 화자가 임을 태우러 가는 배와 임을 태우고 오는 배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바다에 흰 돛은 쌍쌍이 좋으나’, ‘외로운 사랑엔 눈물만 겨워라’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쌍쌍이’ 있는 돛의 모습과 ‘외로운’ 자신의 상황을 동일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옮겨나 외거나’ 한 일을 ‘나도 내 일 모르노라’라고 하는 것에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 있을 뿐, 옳고 그름을 정해 주고자 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제세할 이 없을러냐’에는 세상을 구제할 사람이 없겠냐는 인식이 드러나 있을 뿐, 화자의 의무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산고수장’에 자연물의 속성이 드러나 있지만 높은 청산과 긴 유수를 ‘그 아니 좋을쏘냐’라고 하는 것에는 자연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을 뿐, 자연물의 속성이 인간의 삶과 대비되어 있지는 않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 ‘가는 임 아속타 속’태운다는 것은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입을 걱정하는 어촌 사람의 모습을 드러낸다. (나)에서 ‘중간에 망령되어 명리를 바라도다’는 과거의 자신을 성찰하는 작가의 모습을 드러낼 뿐, 자연에서 머물면서 속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고뇌하는 작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갈 길’이 멀고 ‘행선은 더’덜 때 ‘늦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는 것은 배 운항이 원활하도록 ‘늦바람’이 불기를 기원하는 상황을 드러낸다.
- ② (나)에서 ‘필부의 위국 충심을 내어 벌 데 없’다는 것은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나라를 위한 자신의 충심을 펼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뇌하는 작가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③ (나)에서 ‘산수 간 일한인되어 허물 없이’ 산다는 것은 ‘청산’과 ‘유수’에 만족하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작가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봉죽을 받고서 돌아’왔다는 것은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가 만선을 이루고 장산곶으로 돌아오는 어부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나)에서 ‘세상이 시비를 마라’라는 것은 속세를 떠나 살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모습을 드러내며, ‘어부 무삼 그르리’라는 것은 작가가 자신을 강호 생활을 영위하는 어부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10

고전 시가

본문 74~77쪽

01 ②

02 ②

03 ①

㉠ 작자 미상, 「유산가」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도시의 유희 공간에서 널리 가창되었던 12잡가의 하나로,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4음보 연속체를 기반으로 한 점으로 보아 가사 갈래에서 영향을 받은 잡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음성 상징어의 활용으로 생동감을 더하고, 대구나 열거, 비유와 같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은 점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제 >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하며 느끼는 즐거움

구성 >

- 서사: 봄을 맞은 산천 경치의 구경 권유
- 본사 1: 봄날의 화려한 경치가 지닌 아름다움
- 본사 2: 봄날 산의 장관과 폭포의 역동적인 모습
- 결사: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흥

㉡ 신고, 「백석정별곡」

해제 > 이 작품은 작가가 1677년경 백석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창작한 가사이다. 자연 속 은거 생활의 이상을 구현한 작품으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는 화평하고 즐거운 풍류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속세를 떠나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예찬하면서, 자연의 순환성과 거문고, 음주, 시문 등 예술적 향유를 통해 조화로운 이상 세계를 그리고 있다.

주제 > 백석정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

구성 >

- 서사: 백석정에 이르러 펼쳐진 절경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함.
- 본사: 산수를 즐기며 화평하고 즐거운 이상 세계를 추구함(수록 부분)
- 결사: 속세를 잊고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을 실천함.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에서 ‘석양이 고개에 걸려’를 하강적 이미지로, ‘은린옥적은 경면에 뛰노는고’를 상승적 이미지로 볼 여지가 있으나,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가)에서도 물이 ‘소쿠라지’는 모습을 상승적 이미지로, ‘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을 하강적 이미지로 볼 여지가 있으나,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나)와 달리 ‘괄괄’, ‘주르륵’, ‘살살’ 등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폭포수 물살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와 (나)에는 모두 공간의 이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연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드러난다. (가)에서는 ‘산천경개 구경 가세’, ‘천리 강산 들어가니’를 통해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후 산을 유람하면서 보는 봄날의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나)에서는 ‘붉은 난간에 기대앉아’에서 시작해 ‘돌길로 돌아가니’, ‘이기 낀 돌에 앉아’, ‘고요하게 거니니’ 등을 통해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는 백석정 주위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고 있다.

④ (가)는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기산 영수가 예 아니냐’ 등과 같이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설의적 표현으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공명을 다 잊으니 부귀인들 부러우랴’와 같이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설의적 표현으로 부귀와 공명을 부러워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는 ‘만산 홍록’, ‘창송취죽’, ‘도화 만발 점점홍’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붉고 푸른 색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봄날의 자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나)에는 ‘백암에 섰는 단풍’, ‘늪은 솔은 사시에 푸르렀다’, ‘철쭉과 살구꽃은 바람에 훑날리고’ 등에서 붉고 푸른 색채 이미지를 통해 자연 경물의 특징이 시각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물결에 비친 다리의 모습을 ‘무지개’에 빗대고, 흰 바위 위의 단풍을 ‘금병’, 즉 금칠을 한 병풍에 빗대어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지개는 원관념이 아니라 보조 관념에 해당하므로 물결에 비치는 무지개를 다리에 빗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탄의 노랫소리’와 ‘화평에 피리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기 낚는 늪은이’와 ‘소 먹이는 아이’의 모습이 펼쳐지는 평화로움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③ ‘석양이 고개에 걸려 만하이 한 빛일 때’ ‘돌길’과 ‘둔덕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의 모습과 푸른 버들가지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다채롭게 묘사하고 있다.

④ 낚시로 잡은 고기를 ‘회 쳐 놓고’, ‘연잎에 빛은 술’을 먹으며 자연 풍류를 즐기는 여유 있는 화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연하의 병’, 즉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들어 자연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는 태도를 긍정하고 ‘세사’는 ‘나 몰라라’ 하며 거리를 두는 화자의 태도가 대비되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가치를 두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죽장’을 짓고 ‘망해’를 신고, ‘단표자’를 들고 ‘천리 강산’으로 들어가는 화자의 모습은 화려한 산천의 경치를 가벼운 차림으로 즐기고자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부 허유’의 고사를 활용한 것은 화자가 감상하는 경치가 마치 ‘소부 허유’가 은거했던 자연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지, 화자가 ‘소부 허유’의 삶의 태도를 따르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에서 화자는 팔팔 흐르는 폭포수를 ‘수정림 드리운 듯’하다고 하고, 골짜기에 흐르는 물결을 ‘은옥같이 흘러지’는 것에 빗대며 물로 대유되는 자연 경물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물’로 대유되는 자연 경물을 이상적으로 제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나)에서 화자는 거문고를 연주하며 자연과 벗하고 풍류를 즐기는 삶을 무릉도원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연에 묻혀 은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가)에서 화자는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 구경 가세’라고 하며 ‘벗님네’를 부르며 봄날을 맞아 산천 구경을 가자고 하며 ‘천리 강산’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구경할 것을 제안하고, (나)에서 화자는 ‘홍진의 벗님네야 이 생애 웃지 마오’라고 하며 속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도화 만발 점점홍’ 즉, 붉은 도화가 여기저기 흩어져 피어 있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소쇄한 정자 속의 매화로 벗을 삼아’ 자연 속에서 지내고자 한다. 즉 ‘매화’인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1

고전 시가

본문 78~80쪽

01 ④

02 ①

03 ⑤

02 김상현, 「성패관천운」

해제 >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 끝난 후 청나라에 잡혀갔던 김상현이, 심양의 옥에 갇혀 있던 최명길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지은 한시이다. 오언 율시로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게 나타내고 있다. 일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시이다. ‘권’을 따르다가 ‘의’를 해치지 말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을 따를 것을 조언하고 있다. 제시된 지문은 『연려실기술』 제26권에서 가져왔으며, 김상현의 문집에는 「차강경권유김운」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최명길이 지은 「용전운강경권」을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주제 > 급한 상황에서도 권(權)보다는 경(經)을 따라야 함.

구성

- 기(1, 2행): 성공과 실패보다는 의로움이 중요함.
- 승(3, 4행):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음.
- 전(5, 6행): 권은 사람을 그르칠 수 있으므로 경을 따라야 함.
- 결(7, 8행): 급한 때라도 경을 따르려고 해야 함.

04 최명길, 「정차관군동」

해제 > 이 작품은 병자호란의 위기 속에서 척화론을 주장했던 김상헌을 청자로 삼아, 최명길이 쓴 한시이다. 오언 율시에 해당한다. 최명길은 ‘고요한 곳에서 못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체 상황을 바라보아야 원만한 귀결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의 판단이나 선택이 다르더라도, 그 본질은 둘 다 정도(正道)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된 지문은 『연려실기술』 제26권에서 가져왔으며, 최명길의 문집에는 「용전운강경권」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주제 > 서로 달라 보이는 행동이나 선택도 그 본질은 정도일 수 있음.

구성

- 기(1, 2행): 전체 상황을 바라보아야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음.
- 승(3, 4행):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도 그 본질은 동일할 수 있음.
- 전(5, 6행): 행동이나 선택은 달라도 속마음은 정도(正道)에 어긋나지 않음.
- 결(7, 8행): 말함도 침묵함도 하늘의 이치일 수 있음.

01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화자가 ‘그대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상대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발화이다. (나)의 화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천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상대의 생각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나)의 화자가 현재 상황에서 상대의 논리가 적절하지 않음을 깨우치게 하려고,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상대를 ‘이치에 밝은 선비’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를 수준 높은 대화가 가능한 훌륭한 인물로 인정하는 말이다. (가)의 화자는 상대의 의견 또한 ‘이치’에 닿아 있음을 인정하면서 조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대를 추켜올림으로써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진다.

② (가)의 화자는 상대가 지금의 상황을 ‘급한 때’로 인식하였음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울질을 삼가라’라는 조언 역시 상대의 급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두 사람의 속마음이 ‘정도와 어긋나’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서로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 ‘다름방정’, 자신의 주장

과 상대의 주장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⑤ (나)의 화자는 ‘말함도 침묵함도 각기 천기’라고 말하며 ‘말함’과 ‘침묵함’이 둘 다 타당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과 상대의 주장 모두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을 두고 개념 자체가 달라 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의 ‘윗옷과 아래옷’은 인간의 신체를 기준으로 각각 위에 입는 옷, 아래에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라 바꾸어 입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의 화자는 ㉡의 ‘끓는 물과 얼음장’, ㉢의 ‘털옷과 삼베옷’이 각기 달라 보이지만, 각각 ‘물’과 ‘옷’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같은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는 ㉠을 서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윗옷’을 아래에 입는 것이 불가능하고, ‘아래옷’을 위에 입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서로 바꾸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들’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는 ㉡과 ㉢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들을 서로 바꾸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③ (가)의 화자는 ㉠을 두고 서로의 차이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의 화자는 ㉡, ㉢을 두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가)의 화자나 (나)의 화자가 각각의 개념들의 차이를 극복하거나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가)의 화자는 ㉠을 두고 바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 또한 ㉡, ㉢을 각각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⑤ (가)의 화자가 제시한 ㉠을 ‘옷’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면, (나)의 화자가 제시한 ㉡, ㉢도 각각 ‘물’, ‘옷’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속맘이야 어찌 정도와 어긋나겠는가’라는 표현에는 겉으로 드러난 선택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 ‘정도’를 지향하는 것일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다. 하지만 (나)의 화자는 대의를 앞세운 신하들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 시국에 대한 판단 자

체가 달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화자와 그를 모욕한 신하들 모두 병자호란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동일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의를 앞세운 신하들이 (나)의 화자를 비난한 것은 시국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가 아니라 명분과 실리 중 명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성공과 실패는 천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의 패배보다 중요시되는 명분, 즉 조선이 지켜야 할 대의가 있음을 강조하는 말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경만은 마땅히 여러 사람이 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가)의 화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오랑캐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급한 때라도 저울질을 삼가라’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최명길의 강화 문서를 써서 오랑캐에게 화친을 요청하려 했던 것이 잘못된 일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고요한 곳에서 못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면 더욱더 전체 시국을 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말로 볼 수 있다.

01

현대시

본문 81~83쪽

01 ⑤

02 ②

03 ①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해제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창작된 시이다. 화자는 ‘빼앗긴 들’로 표상되는, 지금은 남의 지배를 받게 된 국토에 진정한 ‘봄’, 즉 광복이 찾아올지 물으면서, 국권 상실의 아픔과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국권 상실의 울분과 국권 회복에 대한 소망

구성 >

- 1연: 국권 침탈에 대한 인식
- 2, 3연: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끌리지만 답답한 심정
- 4~8연: 봄을 맞은 국토의 활기찬 모습과, 그에 대한 애정
- 9, 10연: 암담한 현실에 대한 깨달음
- 11연: 조국의 현실에 대한 재인식

㉡ 구상, 「초토의 시 1」

해제 > 이 작품은 6·25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바탕으로 창작한 열다섯 편의 연작시 중 첫 번째 시이다. 초토(焦土)는 불에 타서 검

게 그을린 땅을 이르는 말인데, 이는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우리 조국을 의미한다. 화자는 초토와 같은 조국의 현실에 낙담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려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극복에 대한 희망

구성 >

- 1연: 전후의 폐허 속 천진한 아이들의 모습을 봄.
- 2연: 전쟁의 비극을 인식하며 괴로움을 느낌.
- 3연: 젓더미 속에서 개나리를 발견함.
- 4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순수한 미소를 봄.
- 5연: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낌.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은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순박하고 강렬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아이들을 보고 ‘햇밭’이 눈이 부서 돌아선 것처럼 화자도 돌아선다는 의미이다. 화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공간과 대비를 이루는, 티 없이 환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슬픔, 미안함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일 뿐 현실을 달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달관한다는 것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상태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㉓은 자기만의 의지로 이 들뜬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는 화자가 ‘하늘’과 ‘들’에게 말을 해 달라며 던지는 물음들이다.
- ② ㉒은 간밤에 내린 비로 ‘보리밭’의 보리들이 깨끗이 씻긴 듯한 산뜻한 모습을 시각화하기 위해, 마치 ‘보리밭’이 ‘삼단 같은 머리를 감’은 것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 ③ ㉑은 도랑물이 흐르는 소리를 ‘젓먹이 달래는 노래’라고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보고 있는 우리 국토의 풍경에 모성적 이미지를 부여한 것이다.
- ④ ㉐은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아이들 모습을 ‘불타는 해바라기’에 빗댄 직유법이 사용된 시구로, ‘판잣집 유리막지’라는 말이 환기하는 공간의 누추함과 대비되는 아이들의 생동감, 생명력을 강조한 표현이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㉔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강가에 나와 있는 아이이므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잊은 채 봄날 국토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격에 빠져 ‘짚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화자 자신을 빗댄 말이다. 그리고 ㉒는 폐허에서도 개나리가 망울진 모습을 본 화자가 관찰한 또 다른 대상으로, ‘언덕을 내려 달리’며 ‘앞나가 빠져 / 죄 하나도 없’는 얼굴로 ‘미소’를 짓는 순진무구한

모습의 소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㉒는 ‘언덕을 내려 달리’고 있으므로 역동적 움직임을 보이는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㉓는 ‘짚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을 빗댄 것이므로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존재라고 할 수 없다.
- ③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라는 시구로 볼 때 ㉔는 화자가 자조의 대상으로 삼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㉒는 화자가 목격하고 희망을 발견한 대상일 뿐 자신이 동경하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④ ㉔는 화자가 자기 혼의 모습을 빗댄 대상이고 ㉒는 화자가 언덕을 보며 관찰한 대상이므로, 둘 다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⑤ ㉒는 ‘죄 하나도 없다’를 통해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㉔는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철없이 봄 풍경에 심취해 있는 자기의 혼을 빗댄 대상이지,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언급한 대상이 아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 ‘한 자옥도 썼지 마라’는 ‘바람’이 화자의 옷자락을 흔들면서 하는 말이고, ‘깎치지 마라’는 너무 재촉하지 말라며 화자가 ‘나비 제비’에게 하는 말이다. 이는 모두 봄날 국토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로부터 받는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따라서 이를 우리 민족 공동체가 상실된 국권을 되찾아 상징적 의미로서의 봄을 속히 맞이하기 위해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시구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의 ‘푸른 옷을 푸른 설움이 어우러’졌다는 말에서 ‘푸른 옷’은 봄날 우리 국토가 지닌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과 관련이 있고, ‘푸른 설움’은 그렇게 아름다운 국토가 실상은 일체에 ‘빼앗긴’ 상태라는 암담한 현실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질적인 인식의 공존은 부조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다리를 절며’ 걷는 화자의 모습이 언급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③ (가)의 1연에서는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마지막 연인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는 그 질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대답에는, 들을 빼앗긴 것으로 상징된 국권의 상실 상황에서 봄으로 상징되는 광복의 도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④, ⑤ (나)의 2연에서는 ‘그림자’가 ‘울상이 된’ 모습으로 ‘나의 뒤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는 화자가 느끼는 참담함과 절망감의 반영이다. 그러나 ‘개나리’와 ‘소녀의 미소’를 본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자신이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고 하였으며, 울상이던

그림자가 웃는 모습으로 바뀌고 뒤따르지 않고 앞장을 서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이는 ‘젯더미가 소복한 울타리’로 대표되는 초토 같은 우리 국토에서도 극복의 의지를 환기하는, 망울진 ‘개나리’의 생명력에 주목함으로써 암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감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2

현대시

본문 84~86쪽

01 ④

02 ③

03 ④

㉠ 정지용, 「오월 소식」

해제 ▶ 이 작품은 편지를 보낸 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낸 시로, 1927년 6월 「오월 소식」을 발표할 당시 시의 말미에 ‘1927. 5. 경도’라고 써여 있었던 것을 통해 정지용이 일본 경도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쓴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 비유적 표현 등을 통해 정지용만의 모더니즘적인 감성을 엿볼 수 있다.

주제 ▶ 편지를 보낸 그리운 이에 대한 그리움

구성 ▶

- 1연: 그리운 사람에 대한 화자의 기억
- 2연: 편지를 읽으며 느끼는 화자의 정서
- 3연: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 4연: 편지를 보낸 이를 찾아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
- 5연: 편지를 보낸 이에 대한 그리움

㉡ 김광균, 「와사동」

해제 ▶ 이 시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등장한 가스등을 소재로 현란한 도시의 야경 속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참신한 비유와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현대인의 비극적이고 공허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도시의 밤을 배경으로 삶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를 잘 드러내고 있다.

주제 ▶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불안 의식

구성 ▶

- 1연: 삶의 방향을 상실한 화자
- 2연: 도시 문명의 무질서함과 무생명성
- 3연: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비애와 절망감
- 4연: 고독하고 쓸쓸한 현대인의 모습
- 5연: 삶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는 ‘그립지 아니한가?’에서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답 ④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슬픈 신호나’에서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 외따른 섬’을 통해 외딴섬에 대한 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섬을 ‘찾아갈까나’를 통해 그리운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며, 멀리 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 같이 황혼에 젖어’를 통해 시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에 대한 화자의 인식 및 근대 도시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② (가)에서는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구나’를 통해 의인법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다.

③ (나)에서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은 도시의 밤거리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화자는 시 전반에서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비애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시적 분위기가 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에서도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리운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일관되게 나타나므로 시적 분위기가 변화하지 않는다.

⑤ (나)에서는 1연과 5연에 유사한 시구인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걸리어) 있다’를 배치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시의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고 있지 않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 화자는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는 먼 곳으로부터 은은히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이때 ㉠은 파도 소리를 비유한 표현으로, 또는 실제로 화자에게 들리는 어떤 소리가 오르간 소리처럼 들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리운 이로부터 소식을 듣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소리로 볼 수 있다. ㉡(‘아우성 소리’)는 화자가 낮은 거리에서 경험한 균중의 소리로, 화자에게 낯선 도시 문명에 대한 고독감을 불러일으킨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화자가 대상에 대해 느끼는 그리움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소리이므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는 화자에게 고독감과 소외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므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로 볼 수 없다.

④ ⑥는 화자에게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로, 화자가 맞닥뜨린 현실인 도시 문명을 견뎌 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③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는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소리이고, ⑥는 낯선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비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이다. 따라서 ④와 ⑥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거나 ‘섬 돌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 것은 회화적 이미지에 해당하지만, 풍경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나)에서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는 화자가 느끼는 도시에서의 공허함과 쓸쓸함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한 회화적 이미지를 통해 풍경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화자는 강화도에 교원으로 발령 난 이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순풍이 되어,’ ‘외따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이를 찾아가는 즐거운 상상을 하는 모습으로, 상상 속에서 발현되는 이미지와 함께 ‘로맨틱’과 같은 이국적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지용의 모더니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늘어선 고층,’ ‘신호기’는 근대 도시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로, 화자가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고독감,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오동나무꽃으로 불 밝힌,’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 소곤거리는’은 시각과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에서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길—게 늘인 그림자’는 시각을 촉각화한 공감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한 표현이다. 이처럼 (가)와 (나)에는 화자의 정서가 감각적 이미지로 구체화되어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미학적 언어로 낭만적 경향을 표현하거나 사상성을 앞세운 이전의 시와 구별되는 시인의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그리워하는 대상을 ‘페스타로치’와 ‘피꼬리 같은 선생님’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 도시의 고층 건물과 찬란한 불빛으로 뒤덮인 밤의 풍경을 ‘창백한 묘석’과 ‘무성한 잡초’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는 강화도에 교원으로 발령 난 이에 대한 정다움과 애정을, (나)에서는 삭막한 근대 도시의 풍경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3

현대시

본문 87~89쪽

01 ③

02 ①

03 ④

㉠ 김기림, 「연료」

해제 > 이 작품은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앞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는 시이다.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서른 남은 해’가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덧없음을 느낀다.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활력을 잃고 연료만 쌓이는 초라한 삶을 살아왔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에 화자는 ‘육지’로 상징되는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열렬한 삶을 살기 위해 ‘섬’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제 >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

구성 >

- 1연: 지나온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
- 2연: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한 채 쌓여 가는 연료
- 3연: 이상적 공간으로 가려는 소망과 의지
- 4연: 아름다운 이상적 공간의 모습
- 5연: 과거와 단절한 채 열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 박재삼, 「정릉 살면서」

해제 > 이 작품은 고혈압으로 쓰러졌던 시인이 건강을 회복한 후 정릉에 살면서 쓴 시이다. 화자는 바람, 햇빛, 실개천과 같은 자연을 통해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위안을 얻는다. 그리고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 자연 속에서 얻게 되는 삶의 위안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

구성 >

- 1연: 목숨의 운영을 잘해 보라는 바람
- 2연: 잘못 살아온 삶을 덮고 쓰다듬어 주는 햇빛
- 3연: 간장 안 웅덩이를 씻어 주는 실개천
- 4연: 소중한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는 자연물인 ‘바람’, ‘햇빛’, ‘실개천’을 의인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러한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 (나)에서 부사어의 사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사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가)에서 ‘~리라’라는 동일한 어미가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꽃은 맑기도 하리랴’에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나)에는 ‘~고 있고...’가 반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부분도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나)의 4연에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1~3연은 상이한 소재를 바탕으로 유사한 정서가 열거되고 있을 뿐 점층적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가)에서도 점층적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⑤ (가)에는, 화자가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지닌 의식의 세계를 중심으로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나)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적 소재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지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에는 꽃잎처럼 아래로 떨어지며 발아래 깔리는 하강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으며, 화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삶에서 느끼고 있는 초라함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갈매기’의 형상이 표현된 것이지만, ‘갈매기’는 ‘산호 핀 바다’와 ‘바다에 내려앉은 섬’을 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보조 관념일 뿐이다. 그러므로 ㉠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화자가 과거의 삶을 의미하는 ‘연륜’과 단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자는 자신의 지나온 삶과 단절한 채 불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을 통해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바람이 부는 자연 현상을 화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표현을 자연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을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에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화자를 둘러싼 자연물과 자연적 환경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을 뿐 미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가자’는 화자가 자신이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로 이행할 것을 스스로 독려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청유형 표현이다. 또 ‘또한’은 화자가 열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용된 시어로, 이 시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 중 열정적 태도를 지닌 사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의 ‘가자’나 ‘또한’이라는 시어가,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를 타인에게 확장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의 삶은 ‘꽃이파리’처럼 화려하게 피어야 하지만 휘날려 발아래 깔리어 있고, ‘구름’같이 피려던 화자의 뜻은 날로 굳어 연륜이 되고 있으므로, ‘꽃이파리’와 ‘구름’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자연물로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웅덩이’는 화자가 지나온 삶에서 경험했던 시름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화자의 고달팠던 삶의 여정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상징적 시어라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서른 남은 해’의 삶을 ‘초라한 경력’이라고 표현하였다. 또 (나)의 화자는 자신의 지나온 ‘서른여섯 해’를 ‘허술’하고 ‘잘못 살아온’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산호 핀 바다’에 있는 ‘섬’으로 가자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상상 속 자연 공간을 통해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의 화자는 ‘바람’, ‘햇빛’, ‘실개천’과 같은 실제의 자연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따뜻한 조언과 위안, 치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나)는 삶을 인식하는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비췌빛’은 ‘하늘’을 수식하는 시어이다. 그리고 화자는 ‘눈빛’을 ‘파도’에 적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췌빛’과 ‘눈빛’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시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금싸라기’와 ‘말갈계’는 각각 ‘햇빛’과 ‘실개천’과 관련된 시어로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시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4 현대시 본문 90~92쪽

01 ④ 02 ① 03 ④

가 이육사, 「꽃」

해제 > 이 작품은 극한의 현실 상황 속에서도 꽃이 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비 한 방울 나리잡는’, ‘뚝뚝 쓴도라’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나리라는 희망을 ‘저버리지 못할 약속’으로 노래하여 극한적 상황이 극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꽃’은 봄날의 희망과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넘어서 자유가 있는 미래, 조국 광복의 희망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과 의지

구성 >

- 1연: 극한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꽃
- 2연: 인고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를 기대함.
- 3연: 꽃이 피어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쁨

나 이성부, 「누룩」

해제 > 이 작품은 술을 빚을 때 쓰이는 발효제인 '누룩'을 의인화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역사를 진전시키는 민중의 저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누룩'은 알맞은 바람을 만나고 좋은 물을 만나면,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지만 물과 함께 덩달아 끓어올라 '춤', '기쁨', '해 솟는 얼굴'이 된다. 화자는 이런 누룩의 속성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억압적인 사회를 극복해 가는 민중의 모습을 구현하였다.

주제 >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민중의 저력

구성 >

- 1연: 누룩이 뜨는 까닭에 대한 인식
- 2연: 누룩이 겪는 시련과 고통
- 3연: 술이 되기 위한 누룩의 인내
- 4연: 발효로 술이 되어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누룩
- 5연: 발효되어 퍼지는 누룩과 술의 냄새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에서 직유의 방식으로 대상을 구체적 형상으로 제시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만 (나)에는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날이여', '~약속이여'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조국의 독립과 같은 희망적 미래에 대한 화자의 믿음과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지'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누룩'을 지칭함으로써 대상을 인격화하고 있다.
- ③ (가)는 '빨강계'에서 꽃의 강렬한 생명력을, '까맣게'에서 제비 떼가 날아오는 희망적 상황을 색채어를 사용하여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는 색채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가)의 '피지 않는가', (나)의 '알겠느냐', '들었느냐', '보았느냐'에서 의문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청자에게 대상의 속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가)와 (나)의 화자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각각 '꽃'과 '누룩'이라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척박한 현실에서도 빨강계 피어난다는 점에서 불의한 현

실에 처해 있는 화자에게 희망을 환기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은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나약한 존재이지만 다른 대상과 힘을 합쳐 새로운 희망을 이끌어 내는 존재라는 점에서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은 화자가 긍정하는 대상으로, 화자와 갈등하고 있지 않다. ㉡은 화자에게 연대의 가치를 일깨우는 존재이지만, 화자와 직접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은 화자에게 희망을 일깨우는 존재이기에 화자가 경계하는 대상이 아니다. ㉡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 ④ ㉠은 화자에게 희망을 일깨우는 존재이므로, 화자의 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은 화자가 그 속성을 예찬하고 본받고자 하는 존재이므로, 현재 이후 화자가 어떤 삶을 지향할 것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은 화자의 미래를 짐작하게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⑤ ㉠은 화자에게 희망을 일깨우는 존재이므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은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와 대립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는 누룩이 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누룩이 '춤'과 '기쁨', '해 솟는 얼굴'도 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군부 독재하의 불의한 현실 상황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비 한 방울 나리잖은 그때'는 생명이 살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화자가 처해 있는 일제 강점의 상황을 빗댄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일제 강점의 현실을 극한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제비 떼'는 봄의 전령사와 같은 소재로, 그것이 '까맣게 날라 오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화자가 봄과 같은 희망적 현실을 염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볼 때 조국 광복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 ③ '알맞은 바람'과 '살며시 더운'은 누룩이 발효되어 뜨는 환경적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누룩은 바람, 온도와 연대를 통해 비로소 발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화자는 억압받고 나약한 존재인 민중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의 '새벽'은 차고, (나)의 '칼벌'은 엄동설한 속에 보이는 것이니 모두 춥고 혹독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꽃 맹아리'와 '꽃피는 가슴'을 예견하게 하므로, 각각의 불의한 현실 상

황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 상황을 기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5

현대시

본문 93~95쪽

01 ⑤

02 ⑤

03 ①

㉠ 김규동, 「나비와 광장」

해제 ▶ 이 작품은 나비와 나비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을 통해 문명에 대한 비판과 인간성이 회복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흰나비’가 환기하는 백색의 이미지는 나비가 순수함을 간직한 존재임을 보여 주며, 나비는 지치고 상처 입었으면서 어떤 희망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존재로 형상화된다. ‘활주로’, ‘제트기’ 등과 같은 소재는 현대 문명과 관련된 소재로 전쟁을 연상시키며, 나비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마지막 연에서 이러한 현실에 맞서 대결하려는 나비의 모습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절망 속에서도 순수함을 지켜 내고자 하는 의지를 강렬하게 보여 준다.

주제 ▶ 현대 문명의 비정함과 대결 의지

구성 ▶

- 1연: 극한 상황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나비
- 2연: 절망적 상황에 처한 나비
- 3연: 폭력적 현실에 짓눌려 날개를 파닥이는 나비
- 4연: 희망적 미래에 대한 상상
- 5연: 현실에 맞서 대결하려는 나비의 의지

㉡ 이형기, 「민들레꽃」

해제 ▶ 이 작품은 민들레꽃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허무에 맞서는 의지를 그려 내고 있다. 민들레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해 피어나는 존재로 묘사된다. 삶이 외롭고 덧없다 하더라도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허무를 삶의 한 부분으로 끌어안는 민들레의 태도는 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 준다. 화자는 민들레처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존재도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어떤 자로서도 져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 허무에 맞서 피어난 민들레에 대한 예찬

구성 ▶

- 1연: 전력을 다해 노랗게 피어난 민들레
- 2연: 주어진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피어난 민들레
- 3연: 주어진 장소를 자기 자리로 받아들이고 피어난 민들레
- 4연: 뿌리 내리고 싹 틔우는 과정을 거쳐 닳새 동안 핀 민들레
- 5연: 노랗게 피었다가 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민들레
- 6연: 생의 허무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꿈꾸며 피어 있는 민들레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는 ‘흰나비’에서 색채 이미지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흰색의 이미지는 나비가 지닌 순수함, 연약함 등의 속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노랗게 노랗게 ~ 피어 있다’에서 색채 이미지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노란색의 이미지는 민들레꽃이 지닌 생명력, 강인함 등의 속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2연의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 3연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공의 조수’ 등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각 ‘심장’과 ‘조수’에서 환기되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6연의 ‘한 댛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고’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는 동일한 명사로 시행을 종결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5연의 ‘아주 노랗게 노랗게만 피는 꽃 /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에서 동일한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는 감탄사로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나)는 6연의 ‘아 민들레!’에서 감탄사로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어 민들레를 예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가)는 4연의 ‘하얀 미래의~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의~피고 있는 것일까’에서 의문형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진술을 통해 희망적 미래에 대한 기대나 회의감이 드러날 뿐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나)는 6연의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에서 의문형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진술을 통해 ‘꿈’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드러날 뿐,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지치고 상처 입은 나비가 머무르고 있으면서 ‘한 모금 샘물도’ 기대할 수 없는 공간으로 묘사되는 점을 고려하면, 나비가 좌절감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민들레가 ‘바위 새’나 ‘잡초 속’ 일지언정 ‘바로 내 자리’라고 받아들이는 공간이므로, 수용적 자세를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절망적 상황에 놓인 나비가 처한 공간이면서 허무함을 한기한다는 점에서, 나비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민들레가 자기 자리로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는 공간이므로, 민들레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과 ㉡에는 모두 나비나 민들레가 외부 대상과의 교감을 시도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은 나비가 머무르면서 ‘한 모금 샘물도’ 찾지 못하는 공간이므로 나비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은 민들레가 주어진 환경을 자기 자리로 받아들이고서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는 공간이므로, 민들레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은 ‘한 모금 샘물도 없’고 ‘투명한 광선의 바다’만이 시야에 들어오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비가 내적 갈등을 겪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민들레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어지나 민들레가 자기 자리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간이므로,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은 현대 문명이 지배하는 공간 속에서 비행하고 있는 나비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현대 문명의 거스를 수 없는 힘 자체를 나타낸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보기>를 참고할 때 한계 상황에 도달한 나비가 ‘아름다운 영토’를 향한 비행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현대 문명의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힘에 맞서는 의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의 ‘신도 기적도 이미 / 승천하여 버린’ 상황은 나비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보여 주며, 나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 한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나비의 모습을 통해 비극적 상황에서도 순수성을 지켜 내려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주어진 한계 그 안’은 민들레에게 주어진 공간적 제약을 나타내며, 민들레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순간적 존재로 묘사된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민들레의 모습을 통해 환경적 제약 속에서 살다가 언젠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운명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헛된 꿈’은 언젠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민들레의 개화가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 뗏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고’ 피어 있는 민들레의 모습을 통해, 허무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⑤ (가)의 ‘이즈러진 날개’는 미성숙한 존재인 ‘어린 나비’가 상처 입고 훼손되었음을 보여 주며,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표현은 나비의 연약한 속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전력을 다해 셋노랑게 피어 있다’는 표현은 ‘찌그만 것’이 가리키는 민들레의 색을 부각하며,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표현은 민들레의 작지만 강인한 속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06

현대시

본문 96~98쪽

01 ③

02 ③

03 ②

㉠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해제 >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난 후 4·19 혁명 당시를 돌아보며 그 사이 혁명 정신이 퇴색된 것에 대한 탄식을 드러낸 시이다. 1960년 10월경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책과 씁쓸함 속에서도 좌절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주제 > 혁명 정신이 퇴색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래에 대한 기대

구성 >

- 1연: 방을 바꾸고 좌절된 혁명을 떠올리는 ‘나’
- 2연: 열정을 품었던 과거 그리고 이제는 달라진 ‘나’
- 3연: 좌절과 실망을 재산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나’
- 4~6연: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와 기대감

㉡ 황동규, 「달밤」

해제 > 이 작품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상상하며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형상화한 시이다. 시적 화자는 자문 자답의 형식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자신이 품고 있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달빛’, ‘구름 개인 들판’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어둡던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구성 >

- 1~5행: 과거를 돌아보며 삶을 성찰하는 ‘나’
- 6~9행: 외로움이 아닌 길을 걸겠다고 다짐하는 ‘나’
- 10~12행: 진취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의지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안 바꾸어 버렸다’라는 1, 3연의 시구를 4연에서 변주하여 언급하며, 화자의 정서 전환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기억 속 상황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에는 사실적 묘사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녹슬은 펜’, ‘달콤한 의지의 잔재’, ‘쓰디쓴 담뱃진 뱃새’라는 표현은 시각·미각·후각을 활용한 감각적 이미지로, 좌절과 환멸을 느끼는 화자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의 ‘얼은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 ‘얼음을 밟으며’, ‘월빛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이라는 표현은 시각·촉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독하지만 성숙에 이른 화자의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가)는 ‘방’을 반복하며 화자에게 혁명의 열정이 있던 과거 공간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들판’, ‘달빛’을 반복하며 화자가 깨달음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에 드러난 명령형 어미를 통해 화자가 과거 가지고 있던 혁명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던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나, (나)에는 명령형 어미가 보이지 않는다.

⑤ (나)에서는 마지막 행에서 ‘달빛 달빛’이라는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와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그와 같은 구절이 보이지 않는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화자가 부르던 모든 노래를 남기고 온 공간으로, 그 방의 벽에 남아 있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들이 ‘기슴’이고 ‘사지’였던 것으로 진술이 되고 있으므로, 과거 화자가 증시하던 가치들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기 위해 제시한 공간으로,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한 뒤 ‘이제’ ‘외로움이 아닌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얼음을 ‘두 팔 들고’ ‘달빛’을 받으며 밟겠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현실을 수용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화자가 과거를 떠올릴 때 중요하게 떠오르는 노래, 말들이 담겨 있는 공간이므로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에서 화자의 슬픔은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을 화자의 슬픔 극복 의지와 관련짓기는 어렵다.

② ㉠을 화자가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으나 그리워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에 다른 사람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지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④ ㉠이 화자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가로막았는지 여부는 시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은 과거와 달리 밝아진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나 시 속에 화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장애물을 극복하였는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두 시 모두 화자의 세속적 가치 추구 혹은 세속적 가치와의 거리 두기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 ㉡을 세속적 가치와 관련지어 이해하기 어렵다.

0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가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 ‘가벼움’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역사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과거 자신이 지향해 오던 가치들을 실현해 내지 못했음을 알면

서도, 이 실패에서 오는 실망을 기억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과거의 불완전함을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의 가슴을 아직도 울리고 있는 것은 과거에 지향하던 이상, 이상적 가치들에 대한 기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헛소리처럼 느끼기도 하고 잊기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삶이 과거의 이상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③ (가)의 화자는 자신이 과거와 크게 달라져 있음을 낙서, 기대, 노래를 잃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기쁘고 풍성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삶을 희망적 태도로 바라보고 자아를 모색하는 화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화자가 자신이 이제까지 생각해 온 것,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것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화자는 ‘누가 와서 나를 부’르는 상황을 가정하며 자문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보여 주게 될 다른 모습을 그려 보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의 모습을 자문자답을 통해 돌아보며 정체성 회의 끝에 얻게 된,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07 현대시 본문 99~102쪽

- 01 ②
- 02 ④
- 03 ②
- 04 ④

㉠ 조지훈, 「눈 오는 날에」

해제 > 이 작품은 삶의 값진 보람과 빛나는 자랑을 뒤로 하고 무념히 쇠락해 가며 비애를 느끼던 화자가 눈이 내리고 쌓이는 자연 현상을 바라보며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찾아 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고요히 눈이 내리고 쌓이는 공간의 분위기를 통해 경건하고 차분한 시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애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혼을 지키며 포근함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주제 > 눈을 바라보며 느끼는 심리적 위안과 평화

구성 >

- 1연: 창에 기대어 밖을 바라봄.
- 2연: 새하얀 눈이 내려 쌓임.
- 3연: 삶의 보람과 자랑이 쇠락해 감.
- 4연: 허망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눈을 바라봄.
- 5연: 마음에 찾아온 고요와 안정
- 6연: 포근한 눈을 통해 느끼는 삶의 위안

나 이수익, 「유등제」

해제 > 이 작품은 세상살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유등제라는 의식을 활용하여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강가의 어둠 속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등불을 흘려보내는 유등제를 보고 싶다는 소망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설움과 번민,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어둠과 대비되는 유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유등제의 모습을 제시하고,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

구성 >

- 1연: 눈물의 제의, 유등제를 보고 싶은 소망
- 2연: 세상의 온갖 설움을 유등처럼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
- 3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경건하게 치러지는 유등제
- 4연: 슬픔을 떠나보내는 축복의 제의를 보고 싶은 소망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3연에서 추상적 대상인 '보람'과 '자랑'을 '모조리 불사르고'라는 표현을 통해 구체화하며,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를 통해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눈이 내리는 자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상의 성질이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 ③ (나)의 4연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어구가 도치되어 유등제를 보고 싶어 하는 화자의 정서가 부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갈등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에 대상의 움직임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속성을 나타낸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가)에서는 화자의 심리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정 시어의 사용을 통해 시상의 반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나)에는 유등제를 보고 싶어 하는 화자의 정서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시상의 반전이 나타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에서 '불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불빛'이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빛'을 일상의 체험 속에서 발견하게 된 희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불빛'은 화자가 유등제라는 가정적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뇌와 고민을 떠나보내고자 하는 수단이지만, 화자가 일상의 체험 속에서 발견하게 된 희망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의 '꽃다발'은 눈이 내려 쌓이는 형상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내려 쌓이는 눈을 아름다운 꽃다발과 같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㉒에는 고요함 속에 호젓한 폴폴리 소리가 어우러지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경건하고 차분한 시적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 ③ ㉓에 드러난 화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번뇌와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 유등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과 같이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⑤ ㉔에는 '차마'라는 시어를 통해, 연등을 띄운 채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형상화되어 있다.

0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는 자신의 보람과 자랑이 모두 사라져 버리는 절망감을 느꼈던 화자가, 절망을 포근한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B]에는 화자가 자신의 번민과 고통을 떠나보내고 싶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을 뿐 이러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전환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새롭게 지각하게 된 삶의 교훈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또 [B]에서도 화자가 새롭게 지각하게 된 삶의 교훈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B]에는, 화자가 자신의 번민과 고통을 유등제의 연등처럼 떠나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을 뿐 화자의 의식이 과거의 상태로 회귀하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 [A]에서 화자의 의식이 과거의 상태로 회귀하는 모습이 드러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A]에는 자신의 보람과 자랑이 모두 사라져 가는 것에 괴로워하던 화자가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B]에는 화자가 자신의 번민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의 심리가 안정된 상태를 회복해 가는 양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A]에서는 절망을 눈처럼 포근한 것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이, [B]에서는 유등제의 연등처럼 자신의 번민과 고통을 떠나보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자의 모습과 소망이 화자가 소망하고 있는 이상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 강설과 적설이라는 시적 상황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화자가 위안을 얻고 있지만, 강설과 적설은 모두 끊임없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유등제'는 삶의 고통을 '불귀의 하늘'로 전함으로써 화자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을 떠나보내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유등'이 '강가'로 돌아오지 못하므로 삶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는 못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눈이 내리고 쌓이는 상황에서 마음속 고요와 포근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강설과 적설이라는 자연 현상은 화자의 삶의 고통을 위안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나)의 화자는 해 저문 강가에서 유등제를 통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므로 유등제라는 의식은 화자가 느끼는 삶의 고통을 위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지나온 삶 속에서 가지고 있던 보람과 자량이 모두 사라지는 허망함을 느끼는 와중에 눈이 내리자 마음속 평안을 찾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유등제를 통해 그동안 삶 속에서 느꼈던 세상의 온갖 설움을 떠나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의 '빛나는 자량을 모조리 불사르고'와 '허망한 시공', (나)의 '세상의 온갖 설움'은 모두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내 외로운 영혼', '내 혼' 등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화자 자신의 정서와 내면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의 화자는 유등제를 통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개인적 소망을 드러내면서 유등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심리를 추측하며 '수천, 수만 개의' 아득한 '행렬'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 의식을 확장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절망을 오히려 포근하다고 표현하였고, (나)의 화자는 유등제를 슬픈 의식이지만 축복의 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된 표현은, 두 작품의 화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고통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 내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8 현대시

본문 103~105쪽

01 ①

02 ④

03 ③

21 신동집, 「포스터 속의 비둘기」

해제 > 이 작품은 비둘기가 인쇄된 포스터에서 연상한 내용을 바

탕으로 현대인들의 삶을 그려 낸 시이다. 포스터는 인위성을 띤 소재로 현대 문명과 관련이 있으며, 비둘기의 자유와 생명을 빼앗는 획일화된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비둘기는 포스터 밖에서 노닐던 전과 달리 더 이상 날지 못한 채 포스터 속에 적응하고 안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자유를 잃은 채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현대인들의 비극적 처지를 우의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 자유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삶

구성 >

- 1, 2행: 포스터 속 비둘기의 모습
- 3, 4행: 비둘기가 가진 습성의 변화
- 5~9행: 과거 비둘기가 자유롭게 노닐던 공간
- 10~12행: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포스터 속 공간
- 13~19행: 자유와 생명력을 상실한 포스터 속 비둘기
- 20~23행: 복사된 포스터 속 비둘기들의 획일적인 모습

24 최승호, 「대설주의보」

해제 > 이 작품은 폭설이 내리는 산골의 풍경을 통해 억압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그려 낸 시이다. 눈은 '해일', '군단', '계엄령' 등과 같은 시어와 결합하여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거대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굴뚝새는 이러한 눈의 위협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서둘러 몸을 숨긴다. 이 시가 1980년대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묘사는 군부 독재 아래의 폭압적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굴뚝새는 이러한 억압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삶을 이어 가는 민중의 모습을 환기한다.

주제 >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구성 >

- 1연: 눈보라 속을 날아가는 굴뚝새
- 2연: 거세게 몰려오는 눈보라
- 3연: 위협을 피해 몸을 감추는 굴뚝새
- 4연: 모든 것을 파괴할 듯 몰아치는 눈보라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는 추측을 드러내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있지 않다. (나)는 2연의 1행과 2행, 4연의 1행과 2행을 '-(으)ㄴ 듯'으로 끝맺으면서 추측을 드러내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눈이 내림으로써 벌어질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부각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는 인칭 대명사 '나'와 '그'를 활용하여 비둘기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인칭 대명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는 색채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다. (나)는 '백색'과 같은 색채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에는 직유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는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눈보라가 환기하는 역동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는 ‘비둘기는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있다’,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등에서 현재형의 진술을 활용하여 화자가 포스터 속에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 상황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등에서 현재형의 진술을 활용하여 굴뚝새가 눈보라를 피해 움직이는 상황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지붕마루’를 노닐던 비둘기가 거쳐하던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비어 버린’ 채 ‘비바람에 털리며 삭고 있’으므로, 비둘기가 머무르다가 떠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굴뚝새가 ‘굵은 눈발’과 ‘그 어디에’ 있을지 모를 ‘부리부리한 솔개’의 공포로 인해 산에서 쫓겨 와 ‘서둘러’ ‘몸을 감’추는 공간이므로, 굴뚝새가 머물러 숨기 위해 찾아든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비어 버린’ 채 ‘비바람에 털리며 삭고 있’으므로 비둘기의 부재를 확인하게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눈보라 속으로 날아’가던 굴뚝새가 위협적 상황을 피해 몸을 감추는 곳일 뿐, 굴뚝새의 실재가 밝혀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은 비둘기가 ‘포스터 속에 들어앉’기 전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생명력을 발휘할 때 머물던 곳이므로, 비둘기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굴뚝새가 위협적 상황을 피해 몸을 감추는 곳일 뿐 굴뚝새의 가치가 부정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은 비둘기가 ‘포스터 속에 들어앉’기 전 자유롭게 살아가던 터전이므로, 비둘기에게 불안을 겪게 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은 굴뚝새가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 조성하는 위협적 상황을 피해 몸을 감추는 곳이므로, 굴뚝새에게 안정을 찾게 해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은 ‘비어 버린’ 상태에 있으며 비둘기에 대한 연대감을 환기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은 ‘부리부리한 솔개’와 대비되는 ‘쪼그마한 솟덩이만 한’ 굴뚝새가 위협적 상황을 피해 몸을 감추는 곳이므로, 굴뚝새에 대한 연민을 환기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를 참고하면 (가)에서 ‘한때의 지붕마루’는 현재 ‘날아

볼 하늘이 없’는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있는 비둘기가 자유롭게 노닐던 과거의 공간이며, 자유가 상실되기 이전의 상황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깊은 백색의 골짜기’가 굴뚝새를 쫓기게 하는 원인임을 고려하면 골짜기 밖이 아닌 골짜기 내부가 자유가 억압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깊은 백색의 골짜기’가 자유가 상실되기 이전의 상황을 환기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포스터’는 현대 문명 속에서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이다. ‘수많은 복사’는 똑같은 모습의 비둘기가 대량 인쇄된 포스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를 참고하면 현대 문명의 획일성을 환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눈보라의 군단’과 ‘백색의 계엄령’은 ‘군단’과 ‘계엄령’의 군사적 의미와 작품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군부 독재를 연상시키며,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텅버’들면서 ‘등산객들’의 길을 잃게 하고 ‘외딴 두메 마을’의 길을 뚫을 수 있는 압도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묘사는 군부 독재의 폭력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를 참고하면 (가)에서 ‘비둘기가 날아 볼 하늘이 없다’는 것은 포스터 속 비둘기가 처한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자유를 잃고 현실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처지를 보여 준다. (나)에서 ‘쪼그마한 솟덩이만 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는 상황은 폭압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 처한 굴뚝새의 처지를 나타낸 것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통받던 민중의 처지를 보여 준다.

⑤ <보기>를 참고하면 (가)에서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라는 말은 포스터 속에서 자유와 생명력을 상실한 비둘기가 존재 의의도 함께 상실하고 말았다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며, 이 말에는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부자유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는 것은 눈보라 속을 날던 굴뚝새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상황을 보여 주며, 눈보라가 군부 독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떠올리는 말에는 공포를 조장하여 자유를 억압하던 당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09

현대시

본문 106~108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③

가 이성복, 「그 여름의 끝」

해제 ▶ 이 작품은 폭풍을 이겨 내고 붉은 꽃들을 피워 낸 '백일홍'의 모습을 통해 절망의 극복을 형상화한 시이다. 여러 차례의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여름을 견딘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면서 화자 역시 절망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즉 백일홍과 화자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절망을 극복해 가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서로 대응되고 있다.

주제 ▶ 생명력 넘치는 백일홍을 통한 절망 극복 의지

구성 ▶

- 1연: 폭풍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운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
- 2연: 시련과 절망에 처한 화자
- 3연: 백일홍의 강한 생명력을 보며 절망을 극복한 화자

나 김명인, 「그 나무」

해제 ▶ 이 작품은 병들고 늦된 대상인 '그 나무'를 바라본 화자가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성찰하게 되는 시이다. 봄을 맞아 한창 꽃을 피운 다른 나무들과 달리,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를 본 화자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느라 남들에 비해 늦은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동질감을 느낀다. 화자는 늦되고 병든 그 나무가 '푸릇한 잎새'를 매달고, 시간이 지나 '가난한 소지'를 지퍼 올리기를 기대한다. 이는 곧 나무와 동일시되는 자신의 삶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 늦된 '그 나무'에서 느끼는 연민과 동질감

구성 ▶

- 1~4행: 늦된 '그 나무'를 발견함.
- 5~11행: '그 나무'에 대한 연민
- 12~18행: '그 나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봄.
- 19~22행: '그 나무'에 대한 기대감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는 색채어 '붉은'을 활용하여 백일홍이 지닌 강인한 생명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색채어 '푸릇한'을 활용하여 무성한 잎새를 매달고 서 있을 나무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을 통해 화자가 처한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장난처럼'이라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실제로는 결코 절망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와 (나)에서는 명시적인 청차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차를 호명하여 말을 건넌으로써 친근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는 '쏟아지는 우박처럼'을 통해 직유적 표현이 사용되었고, 나무에 매달린 붉은 꽃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직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에서는 '넘어지면 매달리고'를 통해, (나)에서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를 통해 의인화의 방식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은 다른 꽃나무에 비해 시기는 늦었지만, 그 나무가 가지마다 푸릇한 잎새를 매달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아울러 그 나무와 동일시되는 화자 역시 늦깎이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무를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은 화자가 관찰한 백일홍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 차례의 폭풍을 강인하게 이겨 낸 백일홍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관찰을 통해 알게 된,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낸다.

② ㉔은 폭풍의 시련과 고통을 견뎌야 했던 백일홍과 마찬가지로, 폭풍의 한가운데서 시련과 고통을 견뎌야 했던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자가 백일홍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드러낸다.

③ ㉔은 꽃이 활짝 피었다 진 벚꽃과 달리, 꽃 한 송이도 피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늦된 그 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자가 벚꽃과는 다르게 그 나무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④ ㉔은 화자가 병든 그 나무를 보면서 남들에 비해 늦은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그 나무에서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0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은 여러 차례의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강인하게 견뎌 낸 백일홍이 맺은 결실을 나타내고 있고, ㉔는 늦된 나무가 피우게 될 꽃으로, 늦된 나무가 맺을 결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와 ㉡ 모두 백일홍과 늦된 나무의 희생정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② ㉠와 ㉡ 모두 백일홍과 늦된 나무가 내재하고 있는 상실의 고통을 나타내지 않는다.
- ③ ㉠는 백일홍의 강한 생명력이 이루어 낸 결실을 의미하므로 즐거움을 전달한다고 볼 수 없고, ㉡는 늦된 나무가 피우게 될 꽃에 대한 기대감을 의미하므로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에서 백일홍의 강한 생명력을 보며 화자가 절망을 극복하고 있으므로 화자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로 볼 수 있지만, ㉡에서 늦된 나무를 화자에게 결핍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볼 수 없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가난한 소지'는 늦된 나무에 물든 단풍을 비유하는 동시에, 화자가 이루어 낼 결실을 의미한다. 이는 늦은 나무와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무와 화자가 모두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봄'을 지나 '여름도 지'킬 때야 '가난한 소지'를 '지퍼 올릴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화자가 타자인 나무와 같이 소외된 처지의 자신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화자는 '백일홍 역센 꽃들이'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에 '나의 절망은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타자인 백일홍에 주목하여, 백일홍을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나)에서 화자는 늦된 나무가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고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울'을 보며, 그러한 나무의 모습에서 '제자릴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이를 통해 화자는 나무에게서 동질감을 느낀 것을 계기로 타자와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무사'한 '나무 백일홍'과 (나)의 '벚꽃 가'에서 '발견'한 '늦된 그 나무'는 모두 화자가 자신과의 동일성을 발견한 타자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타자와의 심리적 동일시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한편,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가)의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은 '나'는 절망에 굴하지 않고 이를 이겨 났다는 점에서 폭풍에 쓰러지지 않고 붉은 꽃들을 매단 나무 백일홍과 유사하다. 그리고 (나)의 '난만한 봄길 어디'를 '헤매고 다녔던' '나'는 '꽃철이 지난 줄도 모르'고 '가지 가득 명울을 매달고 있는 늦된 나무'처럼 시기가 늦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자연물인 타자에게서 자신과의 연관성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현대시

본문 109~111쪽

01 ④

02 ①

03 ④

04 ④

㉠ 오세영, 「원시」

해제 > 이 시는 사랑과 이별에 대한 원숙한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시의 제목인 '원시(遠視)'는 가까운 물체는 흐릿하게 보이고, 먼 물체는 선명하게 보이는 눈의 상태를 뜻하는 말로, 화자는 이를 통해 이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역설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이와 같은 태도는 '늡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원숙해지는 화자의 내면적 성숙을 보여 주는 것이다.

주제 > 사랑과 이별에 대한 원숙한 깨달음

구성 >

- 1~6행: 멀리 있는 것이 아름다운 이유
- 7~11행: 이별의 의미에 대한 인식
- 12~19행: 원숙함에서 오는 이별에 대한 깨달음

㉡ 손택수, 「차심」

해제 > 이 시는 찻잔에 생기는 '차심'을 보며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잔금'이라는 부정적 대상이 오히려 그릇을 단단히 조여 주고 병균을 막아 주는 '차심'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서로 성숙하고 단단한 관계로 발전하는 인간관계를 소망하고 있다.

주제 > 상처와 고통 속에서 성숙하고 단단해지는 인간관계를 소망함.

구성 >

- 1~3행: 찻잔에서 차심을 발견함.
- 4~6행: 차심이 생기는 과정
- 7, 8행: 차심의 긍정적 기능
- 9, 10행: 차심에 대한 화자의 생각
- 11~15행: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도 차심이 생기기 바람.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나)에서는 '너'를 청자로 지칭함으로써 시의 청자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은 ~다'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만 (나)에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나)에는 '조여 준다고……',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에서 종결되지 않은 문장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에는 종결되지 않은 문장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 ③ (가)의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에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는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며, (나)에는 명령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⑤ (가)에는 ‘무지개’, ‘별’, ‘벼랑에 피는 꽃’과 같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이 열거되고 있으나, (나)에는 속성이 유사한 대상들의 열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화자가 멀리 있어 아름답다고 느끼는 대상일 뿐, 가까이 두고자 하는 대상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돋보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곧 나이가 들어 노안이 왔다는 것이므로, ㉠은 나이 들을 인식하게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③ 화자가 ‘차심’을 ‘물이끼’로 착각했으므로, ㉠은 ‘차심’에 대한 화자의 잘못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뜨거운 찻물’은 그릇의 ‘잔금’을 ‘차심’이 되게 해 주는데, ‘차심’은 병균을 막아 주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 주므로, ㉠은 대상의 가치를 변화하게 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차심’의 특성에 대해 듣고, 이를 바탕으로 ‘차심’이라는 말에서 이별의 상처와 고통을 다스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새로운 의미인 ㉠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0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C]는 ‘차심’의 긍정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D]에서 ‘차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제시되어 있다. ‘차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다른 대상으로 확장되는 것은 [E]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화자는 ‘차심’이라는 대상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B]에 제시되어 있다.

② [A]에서 발견한 ‘차심’의 효과는 병균을 막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 주는 것인데, 이를 [C]에서 나열하고 있다.

③ [B]와 [C]를 통해 ‘차심’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효과를 알게 된 화자는 [D]에서 고통을 다스려 그릇을 더욱 단단하게 해 주는 ‘차심’에 대해 ‘차의 마음’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⑤ [A]~[D]에 제시된 ‘차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E]에서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 적용하여,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염원하고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차심’은 차를 내리는 과정에서,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려

만들어진 ‘잔금’에 뜨거운 찻물이 스며들어 만들어진 것이지만 ‘차심’이 ‘불가마 속의 고통’으로 생긴 ‘잔금’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에 각각 제시된 ‘이별’과 ‘갈라진 너와 나 사이’는 모두 화자가 다른 대상과 헤어졌거나 갈등하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② ‘멀리 있는 것은 / 아름답다’는 인식에 따르면, 화자와 사랑하자는 존재가 떨어져 있는 상황, 즉 이별 역시 아름답다고 인식된다. 이는 화자가 이별을 서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③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대상이 멀리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되는데, 오히려 멀리 있다는 사실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인식은 모순되는 것이므로 역설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은 오랜 세월 ‘차심’에 뜨거운 찻물이 배어들어 차 맛이 나는 것이므로, 이는 ‘불가마 속의 고통’으로 생긴 잔금이 뜨거운 찻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며 만들어 낸 맛이라는 점에서 고통의 경험을 내면화해서 성숙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

현대시

본문 112~115쪽

01 ①

02 ⑤

03 ④

㉠ 고재중, 「면면함에 대하여」

해제 > 이 작품은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생명력을 이어 가는 느티나무의 모습을 중심으로, 시련을 이겨 내며 삶을 이어 가는 의지와 생명력을 ‘면면함’으로 노래하고 있다. ‘면면함’은 끊어지지 않고 꼭 이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민중의 삶의 의지와 관련된다. 화자는 삭풍과 상처의 겨울을 견디고 나무가 다시 초록빛 광휘를 뿜어내며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하여, 붕괴될 위기의 농촌 공동체의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농민들이 나무의 생명력을 통해 희망을 얻고 있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주제 > 시련을 이겨 내고 생명력을 이어 가는 나무의 모습을 통한 인간 존재의 의지

구성 >

- 1, 2연: 겨울의 시련을 견디는 느티나무의 고통과 생명력
- 3연: 붕괴 위기의 농촌 공동체의 현실과 이를 지켜 내려는 농민들의 의지

- 4연: 겨울을 이겨 내고 생명력을 되찾은 느티나무의 모습
- 5연: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희망을 얻는 농민들의 모습

나 송수권, 「며느리밥풀꽃」

해제 > 이 작품은 '며느리밥풀꽃'을 소재로 설화 속 며느리의 한과 고통을 민중의 삶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며느리밥풀꽃은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디던 며느리가 밥알을 훔쳐 먹었다가 시어머니의 매질로 죽고, 그 허끝에 달린 밥알 두 알의 형상과 유사한 형태로 꽃이 피었다는 설화를 지니고 있다. 시의 화자는 가난과 핍박 속에서 서럽게 살았던 설화 속 며느리의 삶을 통해, 시련과 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 가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 며느리밥풀꽃 설화를 통해 떠올린 서러운 민중의 삶

구성

- 1연: 풀꽃들과 여러 섬의 나열을 통해 연상한 민중의 삶과 터전
- 2연: 며느리밥풀꽃 설화 속 며느리의 서러움과 애환
- 3연: 과거의 억울함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과 연민의 정서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는 '너 들어 보았니', '~던 소리', '저렇게 생생한(생생히)', '왜 ~겠니' 등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시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으스러지는 꽃', '일으켜 세우는 꽃', '추스림 끝에 피는 꽃'에서 '~는 꽃'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에서는 '푸르른 울음소리'와 '초록의 광휘'에서 녹색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고, (나)에는 '흰 쌀밥'에서 흰색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으나,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가)와 (나) 모두 부분을 통해 전체의 속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시적 배경의 의미를 부각하는 것도 아니다.
- ④ (나)에서 '며느리밥풀꽃'의 설화를 떠올리고 있으나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⑤ (가)에서는 '삭풍 되게는치고', '지난 겨울' 등에서 겨울의 이미지와 대비하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생생한 초록의 광휘' 등에서 봄의 이미지를 드러내며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1연에 여러 꽃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바탕으로 봄의 계절감을 느낄 수 있으나, 중심 소재인 '며느리밥풀꽃'은 '울음도 지쳐 / 추스림 끝에 피는 꽃'으로 '햇빛 기진하면은 허 빼물고' 피는 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사용해서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의 '울음'은 '초록의 광휘'가 지닌 색채 이미지와 연결하여 희망적인 의미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고, ㉡의 '울음'은 '그 울음도 지쳐 / 추스림 끝에 피는' 며느리밥풀꽃의 설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러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봄을 배경으로 하므로 '지난 겨울'에 대한 회한의 의미를 형상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은 며느리밥풀꽃의 설화와 관련하여 눈물을 흘리며 견디는 인고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설화 속 며느리의 한과 관련되므로 절망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은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울음이기 때문에 억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과 관련하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는 겨울의 추위와 관련하여 인고의 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결실의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은 '나를 잉태할 적 입덧 나고'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지 생명력의 이미지와는 관련이 없다.
- ④ ㉠은 생명력과 관련되므로 타인을 향한 교훈적 의미를 환기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애련은 슬픈 사랑의 정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애련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그중에서도 우리 설움 / 햇물까지 녹아흘러 / 밟으면 으스러지는 꽃'은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핍박받는 민중의 처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끈질기게 저항하거나 희망을 찾아내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의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이농 현상에 대한 현실 인식과 관련하여,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을 척박한 농촌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나무의 의연함은 현실을 이겨 내려야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에서 농촌을 배경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나무를 '한참씩이나' 쳐다보는 것은, 고단한 현실 속에서 상처를 딛고 살아가는 나무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나)에서 여러 풀꽃의 이름을 떠올린 것은 민중의 모습을 연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섬의 의미는 민중의 삶의 터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것들이 지닌 끈질긴 생명력과 관련한 민중의 삶을 환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나)에서 '허끝에 감춘 밥알 두 알'은, 옛날 며느리가 밥이 잘

익었는지 확인하려 밥알을 입에 넣었다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아 죽은 후, 밥알을 문 꽃으로 피어난 머느리밥풀꽃의 설화를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러움을 견디고 끈질기게 삶을 이어 가는 민중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1

고전 산문

본문 116~119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④

■ 이현기, 「포천이문」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문인 이현기의 문집 『기리총화』에 실린 한문 단편으로, 소설적 경향을 보여 아담계 소설로도 분류된다. ‘포천에서 전해진 기이한 이야기’를 기록하되, 당시 정세와 북벌론에 대해 현실적인 시선으로 비판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인공인 정태화는 실존 인물로, 효종, 현종 때 거듭 영의정을 지낸 바 있다. 작품의 전반부는 조선의 개국 공신인 하륜의 훈령이 정태화를 찾아와 자신의 묘를 이장해 달라는 청원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후반부는 자신의 숙원을 해결해 준 정태화에게 사례하기 위해 찾아온 하륜의 훈령과 정태화의 대답이다. 작품의 주제 의식은 작품 후반부에 드러난다. 둘 사이의 대담에서 정태화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 대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는 이른바 ‘북벌’의 타당성에 대해 묻고, 하륜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북벌론의 허상을 통렬히 지적한 다음, 국정 쇄신의 방책이 올바른 인재 등용에 있음을 강조한다. 대답의 화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민감한 정치적 주제여서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역사 속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서로 대담케 함으로써 논란을 비켜 가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 작품이다. 판본에 따라 제목이 ‘포주이문(洮州異聞)’이라고 된 것도 있는데 ‘포주’는 지금의 경기도 포천을 가리킨다.

주제 ▶ 북벌론의 허상과 올바른 인재 등용의 중요성

전체 줄거리 ▶ 정태화(정 공)가 포천 현감으로 부임한 날 밤에 귀신이 찾아왔는데 그는 개국 공신 하륜(하 공)의 혼백이었다. 하 공이 폐허가 된 자신의 묘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자, 정 공은 임금에게 사정을 아뢰어 하 공의 묘를 이장해 깨끗이 단장한 다음, 하 공의 후손에게 비옥한 토지를 주어 조상의 묘를 잘 관리하도록 한다. 정 공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하 공이 찾아오고, 정 공과 하 공은 서로 대화를 나눈다. 정 공이 명나라 부흥을 위한 북벌의 길흉을 묻자, 하 공은 큰 절개와 대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지만, 속으로는 오랑캐(청나라)를 두려워하면서 명성을 얻기 위해 겉으로만 북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울러 천시(하늘의 운세), 지리(전쟁 때 지리적 조건의 우열), 인사(인적 자원의 우열)에서 조선이 오랑캐에 비해 열세인 것을 근거로 들어 북벌론을 실현 불가능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한다. 정 공이 다시 하 공에게 국가의 폐단을 바로잡고,

국정이 잘되게 하는 방안을 묻자, 하 공은 훌륭한 인재를 잘 가려 쓰면 나라가 잘 운영될 것이라고 답한다. 대화를 마친 후 하 공은 표연히 떠난다. 정 공은 훗날 공명을 드날리고 그 후손도 번성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정 공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하 공은 ‘조정 신하들이 큰 절개를 지키고자~최후의 절전을 벌이다 변방에서 죽는다면 죽어도 이름이 남을 것이요 나라의 명맥이 끊어져도 영예로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 공은 조정 신하들이 전쟁을 벌이다가 죽게 되어도 그것이 절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저승에 조물주가 있느냐는 정 공의 질문에 하 공은 ‘저승의 일은 누설할 수 없’다며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 공이 하 공과의 대화를 통해 조물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하 공이 정 공에게 ‘저승의 보답을 두터이 받아 수명이 한 등급 연장될’ 것임을 알려 주기는 하지만, 저승에서의 벼슬을 높여 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정 공은 ‘우리나라의 법이 지극히 훌륭하나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훌륭한 법은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정의 폐단이 생기는 까닭을 훌륭한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이 오래되면서 초래된 다른 요인들에서 찾고 있다.
- ④ 하 공은 ‘사또는 정신이 탁월해서 보통 사람에 비할 바 아니니’라고 말하며 정 공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죽은 뒤 그 넋이 남아 있는 기간을 놓고 자신과 정 공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하 공의 넋은 사후 500년을, 정 공의 넋은 사후 100년을 남아 있을 것이므로, 죽은 뒤 넋이 남아 있는 기간은 하 공이 정 공보다 길다.

02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B]에서 하 공은 ‘중화의 운은 차츰 쇠하고 북방의 운은 왕성’하다고 말하며 천시가 청나라에 유리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청나라가 ‘천험의 요새’인 산해관을 지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군량을 수송하는 길도 끊어지고 후퇴해 돌아올 길도 가로막히면 수레 한 대라도 귀국할 수 있겠소?’라고 말하며 지리 또한 청나라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 공이 천시와 지리가 청나라에 유리한 것을 근거로 들어, 청나라와의 전쟁이 유리하다고 한 정 공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하지만 하 공은 ‘우리 군대의 진법은 고작해야 장사진뿐’이고 우리 군의 ‘용렬한 장

수와 나약한 병사들'은 적을 보면 도망갈 생각부터 한다고 말하면서,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기에는 국내의 조건도 불리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의 조건(백만의 정예 군대, 넉넉한 군량미)이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기에 유리하다고 한 정 공의 견해에 하 공이 동의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명나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의리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정 공이 청나라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이유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곧이어 정 공은 하 공에게 '군사를 일으켜 청나라의 죄를 묻고~이 일의 길흉이 어땠겠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여기서 정 공이 대의명분을 위해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적절할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A]에서 하 공은 명나라와의 대의명분을 위해 진심으로 싸운다면 비록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고 나라를 잃어도 영예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는 정 공의 생각에 하 공도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곧이어 하 공은 대의를 내세우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개인의 명성과 이익만 좇아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③ [B]에서 정 공은 국내의 조건으로 백만의 정예 군대와 넉넉한 군량미를 갖출 수 있는 점, 국외의 조건으로 명나라 유민과 오삼계 군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들어, '만전지책'(실패의 위험이 없는 아주 안전하고 완전한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며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나라에 승산이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⑤ [C]에서 정 공은 하 공의 설명을 듣고 나서 '참으로 말씀하신 그대롭니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한다. 아울러 '화의를 고수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논의의 사안인 '북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자신의 관점으로 정립한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정 공이 백성들이 입을 피해를 없애고, 국정을 쇠신하기 위한 방안을 묻자, 하 공이 대답한 말을 가리킨다. ㉠에서 하 공이 국정 쇠신의 방안으로 강조한 것은 '올바른 인재 등용'이다. 이는 '용렬하고 게으른 종을 도태시키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자를 그 자리에 대체하면 모든 일이 잘 돌아가게 될 거요.'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하 공은 권세가의 집안일에 빚대어 나라의 경영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 하나가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한 가지 일에 폐단이 생기고, 중 여덟 명이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여덟 가지 일에 폐단이 생기고.'라고 말한다. 이는 나랏일의 각 분야에 부지런하고 역

량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가장 중요한 분야의 일이 잘 관리되면 나머지 분야의 일도 잘 운영된다는 뜻에서 한 말로 보기는 어렵다.

③ 하 공은 무능하고 나태한 자는 도태시켜 일을 맡기지 않고, 유능하고 성실한 자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집안과 나라가 잘 운영되려면 일하는 자에 대한 신뢰보다 엄격한 신상필벌(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줌.)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④ 하 공은 '부유한 권세가에 노예가 많아'도 종들이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않으면 폐단이 생기지만, 집안의 가장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종을 잘 뽑아 일을 맡기면 '모든 일이 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올바른 국정 운영의 관건은 국가 재정이 풍부해 나랏일을 할 사람을 많이 뽑는 것보다 적절한 인재 등용에 있다는 하 공의 생각을 알 수 있다.

⑤ 하 공은 집안의 가장이 '용렬하고 게으른 종을 도태'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국가 경영에 적용하면, 이 말은 임금이 직접 무능하고 나태한 신하를 엄중히 가려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금이 인재를 가려 쓰는 일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나랏일을 맡은 사람들과 경쟁하게 하여 게으른 자는 도태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작품에서 정 공의 목소리를 통해 북벌론에 대한 긍정의 논리가 제시되고 하 공의 목소리를 통해 북벌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시되지만, 상반된 이 두 견해는 작품에서 동등하게 다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그 중점이 하 공의 목소리에 놓여 있다. 이는 북벌론에 대한 정 공과 하 공의 문답이 정 공의 '참으로 말씀하신 그대롭니다. 화의를 고수해야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으로 마무리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쟁점과 관련한 상반된 견해를 대등하게 다루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를 참고하면, 북벌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었으므로 그것을 현실의 실존 인물이나 작가 자신의 목소리로 제시했다면 논란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작가가 비현실적 존재인 귀신의 목소리를 빌려 북벌론의 허상을 비판한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수반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서사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제목에 '이문(異聞)', 즉 '기이한 소문'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은 작품의 주된 소재가 귀신과 인간의 만남과 대화라는 비현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하 공과 정 공은 당대에 높이 평가되었던 역사상 실존 인물이

며, 작중에서는 지혜롭고 탁월한 정신을 지녀 죽은 뒤에도 낯이 오랫동안 흠어지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은 인물 설정은 두 인물을 신뢰할 만한 인물로 형상화하며, 결과적으로 두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되는 북벌론에 관한 작가의 견해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⑤ 마지막에 사라져 자취를 감추는 인물,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인물의 목소리를 빌려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고전 소설에서 현실 사회의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작품에서도 작가는 마지막에 사라지는 인물인 하 공의 목소리를 빌려 북벌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현실의 민감한 정치적 주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어, 그러한 주제를 다룰 때 수반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이야기 전략이다.

02

고전 산문

본문 120~124쪽

01 ①

02 ④

03 ⑤

04 ③

■ 작자 미상, 「왕수재취득용녀설」

해제 > 이 작품은 『고소설』이라는 소설집에 수록된 작자 미상의 소설로, 제목은 '왕수재가 용녀와 결혼한 이야기'라는 의미이다. 이 작품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거터지 설화'를 서사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데, 왕수재가 승천하려는 용을 방해하는 늙은 여우를 죽여 준 대가로 용녀(龍女)를 아내로 맞이해 고려 태조 왕건을 낳았다는 신화적 내용과 바다에 옷을 던져 가라앉히는 장면, 요괴와의 대결 장면 등 익숙한 설화들이 이어지면서 서사적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전통적 설화를 전승하며 변용한 작품으로 고려 태조 왕건이 용의 후손이라는 신성성을 부각한 소설로 볼 수 있다.

주제 > 왕수재의 영웅적 능력과 활약상

전체 줄거리 > 고려 태조 왕건의 아버지인 왕수재는 어려서 돌림 병으로 부모를 잃게 되고, 이웃에 사는 부인이 왕수재를 거두어 기른다. 스무 살이 된 왕수재는 영웅적 자질을 보이며 뛰어난 활 솜씨도 지니게 되고, 사절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 남경을 향해 출발한다. 바다를 건너던 도중,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변고가 일어나고, 왕수재는 해신이 꺼리는 부정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일행과 떨어져 홀로 섬에 남게 된다. 이때 서해 용왕의 아들인 노인이 나타나서 왕수재에게 자신의 승천을 방해하는 삼천 년 묵은 구미호를 죽여 달라고 부탁한다. 처음에 활을 쓰는 데 실패했던 왕수재는 결국 활을 쏘아 여우를 죽이고, 노인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왕수재에게 자신의 딸(용녀)을 아내로 준다. 육지로 돌아온 왕수재는 송악산 아래 집을 짓고 큰 부자가 되고, 아내는 미래에 나라의 주인이 될 왕건을 낳는다. 그 뒤 용의 자손으로 인간 세상에서 생활하며 건강이 나빠진 아내는 왕수재에게 치료를 위해 가끔 변신을 해야 하니

자기 방을 출입할 때 미리 통지를 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던 어느 날 왕수재는 실수로 통지 없이 아내 방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용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 대한 정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자 아내는 왕수재가 신의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떠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상사는 '이는 필히 해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당장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뱃사람의 말을 옳게 여기고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상사는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해신의 장난 때문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뱃사람들은 왕수재의 말을 듣고 부정한 자를 찾기 위해 노력할 뿐, 자신의 일행 중에 해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③ 왕수재는 일행 중에 부정한 자가 있으므로 각자 옷깃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져 부정한 사람을 찾아내자고 제안할 뿐, 상사의 말을 듣고 부정한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낸 것은 아니다.

④ 노인은 왕수재에게 귀신같은 활 솜씨로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탁할 뿐, 왕수재에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구해 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지는 않았다.

⑤ 노인은 왕수재에게 자신이 부인과 싸우는 틈을 노려 부인의 명치를 쏘라고 했으나 왕수재는 부인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 차마 활을 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노인과 부인은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낸 뒤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갈 뿐, 부인이 노인과의 대결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02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B]에서 노인은 왕수재의 활 솜씨를 근거로 삼천 년 묵은 구미호를 물리쳐 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는 왕수재가 상사의 능력을 근거로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왕수재는 '중국 수도의 장려한 모습을 보고 대장부의 울울한 심사를 풀고 싶어서' 배에 탔다고 밝히고 있을 뿐, 자신의 과거 업적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상대방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도 않다. [B]에서 노인은 자신이 섬에 천 년 넘게 살았다는 점과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는 구미호와 일전을 벌인 과거의 일을 언급하며, 구미호에 대항하기 위해 수재의 활 솜씨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 자신의 과거 업적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서 왕수재는 사신 일행이 만리 길을 무사히 다녀와서 임금의 명을 욱되어 하지 않길 바라고 있을 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B]에서 노인은 왕수재에게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을 뿐, 왕수재에게 일어날 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③ [A]에서 왕수재는 자신의 운명을 언급하며 배를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을 뿐, 상대방이 겪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 노인은 자신의 운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상대방이 겪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 않다.

⑤ [A]에서 왕수재는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찌 감히 억지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이 바다로 뛰어드는 선택을 한 불가피함을 상사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나 [B]에서 노인은 왕수재에게 자신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를 청유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다.

03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바다 위를 마치 평지 밟듯이 다녔다’는 것은 노인이 지닌 비범한 능력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일 뿐 초현실적인 대상에 비유한 것은 아니다. 또한 ⑥은 노인이 여우와 대결을 펼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일 뿐 노인이 여우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①에서는 ‘목욕재계하고’, ‘제문을 지어 고한 뒤’,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와 같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상사의 행위를 열거하여 배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상사의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①에서는 다른 사람의 옷과 달리 왕수재의 옷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을 ‘곧바로’, ‘유독’과 같은 부사어를 사용하여 제시하며 왕수재의 옷이 지닌 특별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③ ③에서는 ‘종소리’, ‘북소리’, ‘피리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나열하며 노인과의 대결을 위해 여우가 출현할 조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④에서는 여우가 등장하는 모습을 ‘임금이 출입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으며, ‘수재가 몸을 숨기고 바라보니’와 ‘보는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구절을 통해 왕수재가 여우의 모습에 놀라워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과 ㉡ 모두 노인의 말을 통해 거타지와 왕수재가 섬에 남겨진 이유가 활을 잘 쏘는 것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지는데, ㉠에서 거타지가 섬에 남겨진 이유를 말해 준 노인은 서쪽 바다의 신으로, 그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중을 활로 쏘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 왕수재가 섬에 남겨진 이유를 말해 준 노인은 서해 용왕의 아들로, 자신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기 위해 구

미호를 처치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부탁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이 섬에 남겨진 이유가 지상에 있는 대리인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교체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는 활 솜씨가 뛰어난 거타지가 중을 활로 쏘자 중이 늙은 여우로 변해 땅에 떨어져 죽게 된다. ㉡에서는 노인이 왕수재에게 귀신같은 활 솜씨로 자신을 괴롭히는 여우를 활로 쏘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주인공이 지닌 영웅적 능력은 활을 잘 쏘는 것이고, 그 주인공의 능력은 ㉡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 ② ㉠에서는 거타지가 서쪽 바다의 신의 부탁을 받고 그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중을 활로 쏘자 중이 늙은 여우로 변한다. ㉡에서는 서해 용왕의 아들이 왕수재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여우를 활로 쏘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주인공에게 도움을 청하는 존재를 괴롭히는 대상의 정체는 여우이다.
- ④ ㉠에서는 당나라로 가는 거타지가 탄 배가 풍랑으로 인해 항해를 할 수 없게 되고, ㉡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왕수재가 탄 배가 ‘하늘엔 바람 한 점 없고 바다엔 작은 파도 하나 없는데’ 사흘 동안이나 나아가지 않아 항해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의 주인공이 향하는 목적지는 ㉠과 마찬가지로 중국이지만, ㉡의 주인공이 항해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과 달라졌다.
- ⑤ ㉠에서는 선원들의 이름을 쓴 나뭇조각을 물에 던진 후, 물에 가라앉은 나뭇조각에 이름을 쓴 선원이 섬에 남게 되고, ㉡에서는 이름을 쓴 옷을 물에 던진 후, 물에 가라앉지 않는 옷에 이름을 쓴 선원이 배를 떠나게 된다. 따라서 ㉠에서 이름을 적은 사물을 물에 던지는 행위는 ㉡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주인공이 배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과 달라졌다.

03 고전 산문

본문 125~128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②

■ 작자 미상, 「서해무릉기」

해제 > 이 작품은 주인공이 여러 시련을 극복하고 혼사를 성취하는 과정을 그린 고전 소설이다. 남녀 주인공은 부모가 배필을 정하는 사회적 관습을 어기고 친척 간에 혼인을 하려 해 혼사 장애를 겪는다. 이후 남주인공은 도적에 의해 신부가 납치되어 또 다른 위기에 처하지만 신부를 구함으로써 이를 극복한다. 이 작품은 제도 및 관습을 넘어 결연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현세적 인간 의식이 나타나며, 두 남녀가 결연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주제 > 남녀 간의 간절한 사랑

전체 줄거리 > 전주의 명공 유현중의 아들 유연은 부친의 명으로 영흥에 사는 친척 최 공을 문병하러 갔다가 최 공의 딸 최월혜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하지만 유연과 최월혜는 인척 관계였기에 혼인하기 어려워 유연은 상사병을 앓게 된다. 유연의 상태가 악화되자 유연의 부모는 할 수 없이 두 사람을 혼인시킨다. 혼살날 밤, 갑자기 쳐들어온 도적 무리에 의해 유연은 신부 최 씨를 빼앗기게 되고, 최 씨를 잊지 못한 유연은 부모에게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나며 10년을 기한으로 최 씨를 찾고자 한다. 도적은 최 씨의 용모와 덕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내로 삼기 위해, 최 씨를 자신의 근거지인 서해무릉으로 데려갔으나 역지로 혼인을 치르지 않고 역시 10년을 기한으로 최 씨의 회심을 기다린다. 유연은 3년 동안 최 씨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서해무릉에 닿고, 금산사 부처의 도움으로 최 씨를 되찾아 완전한 결연을 이룬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정 부인은 최 씨를 불러 자기 아들인 장군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말을 듣고 최 씨가 '더욱 죽는 것이 마땅하옵니다'라고 하자, '최 씨의 뜻이 한결같음을 보고 크게 근심하였다'라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유생은 '큰 섬'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데, 유생이 섬에 대해 묻자 사람들은 '이곳은 서해무릉이라는 곳'이라고 하며 섬에 대해 말해 주면서 유생에게 '다투어 양식을 주'었다고 하였다.
- ② 최 씨가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한 후 '계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와 보니' 거기에 '흰옷을 입은 여승'이 있었다고 하였다.
- ③ 최 씨는 유생의 '낮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라고 하였고, 유생이 '풍상과 천신 만고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 ⑤ 최 씨는 밖으로 나와 '장원을 향하여 축원을 올리'면서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저의 이 모습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주'고, '유생과 저의 쇠잔한 목숨을 구해' 달라고 빌었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서는 정 부인이 '소저가 여기에 이른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사이 제 자식이 오히려 소저를 폄박하지 않은 것은 이로써 소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청춘이 이제 저물어 가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않'다고 하며 상대가 처한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또한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 기름이 이치에 맞'으니 '고집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상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B]에서는 '금산사 부

처'가 '네 지아비의 정성에 감동하여'라고 하며 자신이 상대에게 하는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바빠 나가 달아날 기약을 정하여라'라고 하며 상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정 부인이 '소저가 여기에 이른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다고 하며 상대의 과거 행적을 밝히고 있으며,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 기름이 이치에 맞'다고 하며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B]에서는 '금산사 부처'가 '네 지아비의 정성에 감동하여 두 사람을 돕노라.'에서 상대를 돕고자 함을 드러낼 뿐, 상대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② [A]에서는 정 부인이 최 씨의 정체를 추론하고 있지 않다. [B]에서는 '여승'이 '금산사 부처'라고 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상대에게 느낀 측은지심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 ③ [A]에서는 '우리 아들의 청춘이 이제 저물어 가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않으니 혼례를 이루어 길이 복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에 자기 아들과 최 씨가 혼인하기를 바라는 정 부인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최 씨가 장군과 혼인을 하려 하지 않는 점을 상대가 저지른 행위로 볼 때 '고집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B]에서는 '금산사 부처'가 '두 사람을 돕노라'라고 하며 자신이 상대의 안위를 위해 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을 뿐, 상대가 자신의 안위를 돌봐 준 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⑤ [A]에서는 정 부인이 자기 아들을 언급하고 있고 자기 아들과 최 씨가 결혼하길 바란다는 점에서 정 부인과 상대의 관계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 부인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않으니 혼례를 이루어 길이 복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 기름이 이치에 맞'다는 것에서는 정 부인의 입장에서 상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B]에서는 '금산사 부처'가 최 씨가 자신에게 한 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최 씨는 '한 여승이 밖에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장지문 밖에 한 여승이'와 있다는 계선의 말에 '꿈속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놀라워하'며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하였다. 이를 통해 '꿈'은 최 씨가 계선이 하는 말에 따라 여승을 보러 나가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꿈'을 꾸기 전에, 최 씨는 '자나 깨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 ③ '꿈'을 꾸기 전에, 최 씨는 '밤낮으로 명철하신 하느님을 향하여 길게 탄식하며 지냈'다고 하였다.

④ 최 씨는 ‘꿈’을 꾸 뒤 ‘여승’이 와 있다는 계선의 말을 듣고 ‘어제 꿈속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놀라워’할 뿐 계선에게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지 않았다.

⑤ 최 씨는 ‘꿈’을 꾸 뒤 ‘한날 꿈속의 헛된 일인 듯 여겨져 몸과 마음이 모두 어지럽고 뒤숭숭한’ 상태라고 하였으므로, 최 씨의 마음이 불안감에서 안도감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최 씨는 비몽사몽 사이에 한 노승을 만나는데, 이 노승은 자신이 ‘금산사의 부처’라고 하며 ‘오시에 한 여승이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 씨는 꿈에서 깨어난 뒤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여승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이때, 여승은 유생이 여장을 한 것이다. 남녀 주인공이 혼사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비현실적 조력자는 여승이 아니라 ‘금산사의 부처’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유생은 ‘서해에 배를 띄워 대양을 방황하’다가 ‘배에서 내’린 후 ‘큰 섬’인 ‘서해무릉’에 닿는데, 이는 납치당한 신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유생의 여정을 보여 준다.

③ 유생은 ‘장군에게 쫓겨 나와 원혼에 숨어’ 있다가 ‘굴을 찾’아 ‘여기에 머물러 몸을 숨기고 마을에서 얻어 온 양식으로 연명하며’ 지냈다고 하였다. 이는 유생이 ‘장군’과의 대결 구도에서 열세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④ 장군이 ‘혼례를 치를 뜻이 다급하’다는 것과, ‘최 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신이 초조하여 빨리 죽고자 할 뿐’이라는 것은 유생과 최 씨 사이의 애정이 성취되는 데 있어 제삼자인 장군으로 인해 혼사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최 씨가 ‘여기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달라고 하며 ‘유생과 저의 쇠잔한 목숨을 구해’ 달라는 것과, 이러한 최 씨의 목소리를 듣고 유생이 ‘남자가 옛 정인을 아직도 그리워하거든 서로 만날 기약을 정해 알려’ 달라고 응답하는 것은 최 씨와 유생이 재회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완전한 혼사라는 애정의 성취는 남녀 주인공의 재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유생이 재회에 대해 언급하며 최 씨에게 응답하는 것은 애정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과 관련 있음을 보여 준다.

중심으로 한 가정 소설로, 여자 동서 사이의 알력과 복수, 고부 갈등, 형제간 갈등 등 다양한 가족 내 분쟁을 다루고 있다. 특히 중국을 배경으로 여자 동서들 사이에 벌어지는 가정 비극을 중심으로 두고 전개된다. 위 승상의 둘째 아들 위진의 부인 채 씨와 셋째 아들 위준의 부인 맹 씨는 큰아들 위윤의 부인 반 씨의 착함을 시기해 모해한다. 시모 양 부인에 의해 친정으로 쫓겨난 채 씨는 부친의 권세를 이용해 반 씨의 남편 위 상서를 유배 보낸다. 이 일로 양 부인은 병사하고, 채 씨가 반 씨를 음녀로 몰아가자 반 씨는 선계로 피신한다. 이후 반 씨의 아들 위흥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돌아와 가문에 얽힌 문제를 해결한다. 이 작품은 악인들의 개과천선보다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강조하며, 황제가 악인들을 처벌하고 훈계함으로써 가정의 비극을 마무리 짓는다.

주제 > 선인의 고난과 그 극복

전체 줄거리 > 절강 땅의 위윤, 위진, 위준 삼 형제는 각각 반 씨, 채 씨, 맹 씨를 아내로 맞이한다. 맏며느리 반 씨는 어질지만, 두 동서는 반 씨를 시기하고 모함한다. 시어머니 양 부인은 반 씨의 진심을 알고, 두 며느리를 꾸짖는다. 채 씨는 아버지 채영과 짜고 위윤과 반옥을 유배 보낸다. 양 부인은 이를 비통해하다 세상을 떠나고, 두 동서는 재산을 독차지하며 반 씨를 박대한다. 반 씨는 묘막에서 지내며 아들 위흥의 학업을 돕는다. 위진과 채 씨는 반 씨를 해치려 하고, 장생은 반 씨를 납치하나 반 씨는 투신자살한다. 그러나 선녀와 거북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이후 남편 위윤과 재회하고, 아들 위흥은 과거에 장원 급제해 출세한다. 위흥은 악인들을 처벌하고 가족을 복권시키며 부마가 되고, 위윤은 병부 상서, 반옥은 대사도가 되어 부귀를 누린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채 씨는 흥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는 것을 듣고 반 씨와 반 씨의 아들 위흥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다. 따라서 흥이 여막에서 공부한다는 사실을 위진에게 들은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채 씨는 친정으로 떠나면서 맹 씨에게 남아 있다가는 잔명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본부로 돌아가 있을 것을 권했다.

② 채영이 상소를 올리고 제신들 앞에서 위윤과 반옥을 포함하는 말을 할 때, 제신들은 ‘채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③ 상은 위윤과 반옥을 아꼈지만 채영의 모함을 듣고도 이들을 변호하는 신하들이 없어 할 수 없이 ‘위윤은 장사에 원찬하고, 반옥은 강동에 정배’한 후 탄식하였다.

⑤ 반 씨는 쫓기는 신세로 친정 동네에 들어가는 것을 꺼렸지만 아들 흥과 함께 친정을 찾아가서 어머니인 유 부인을 만나 서로 위로하였다.

04

고전 산문

본문 129~132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③

■ 작자 미상, 「반씨전」

해제 > 이 작품은 위씨 가문의 세 형제와 그 아내들 간의 갈등을

02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는 반희가 위윤과 반옥이 기군망상, 즉 임금을 속인 죄인이라는 채영의 상소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B]에서는 상이 채영의 상소를 보고 '위윤은 청렴 강직하고 반옥은 충실의 후예'라고 하며 부정적 평가를 받는 위윤과 반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B]에서는 [A]와 달리 부정적 평가를 받는 대상에 대해 인물이 느끼는 긍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반희가 자신이 본 상소의 내용을 위윤에게 전하는 내용이고, [B]는 상이 상소를 보고 난 후의 반응이다. 따라서 [A]와 [B]에는 모두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일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짐작하고 있지는 않다.
- ② [A]에는 상소 내용을 본 반희의 생각이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제시되어 있고, [B]에는 상소를 받은 상의 반응이 '통해하도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A]와 [B] 모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추측하여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A]는 반희가 본 상소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지 상대의 말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B]에서는 상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이 역시 상대의 말을 간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④ [A]에는 상대방에 대한 채 씨의 참언이 제시되어 있지 상대방에 대한 세간의 평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B]에는 위윤과 반옥에 대한 상의 평판을 바탕으로 참언에 대해 의아하게 여기는 상의 태도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세간의 평판을 기준으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㉓는 집에 불이 날 상황을 언급하며 반 씨와 위흥을 구하기 위해 어서 피하라는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반 씨 모자는 몸을 피해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게 된다. 이후 산에서 ㉔를 만나게 되는데, ㉔는 산중에서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하여 방황하는 반 씨와 위흥에게 줄 같은 것을 내어 주고 정신이 맑아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㉓는 반 씨의 꿈에 나타나 안 좋은 일이 곧 있을 것이니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 즉 서둘러 피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을 반복하여 어서 도망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㉓가 한 말을 ㉔가 반복하여 반 씨 모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반 씨는 비몽사몽간에 ㉓의 말을 듣지만, ㉓와 대화를 나누며 의문을 품고 있지는 않다.
- ③ ㉓는 문제를 일으킨 원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문제 상황을

피할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㉔는 인물들에게 '줄 같은 것들'을 주어 인물들이 이를 먹고 정신이 깨닫게지므로 문제가 해결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㉓가 알려 준 정보를 바탕으로 ㉔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은 아니다.

⑤ ㉓는 반 씨의 꿈에 나타나 재앙을 피해 산으로 가게 만들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인물을 현실적 공간으로 이동시켜 서사의 전환점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㉓가 반 씨 모자를 현실 세계에서 비현실 세계로 이동시킨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상은 채영의 상소를 보고 위윤과 반옥을 아끼지만 제신들이 모두 변백치 않아 하는 수 없이 둘을 유배 보내고 탄식을 한다. 그러나 선인인 위윤과 반옥을 유배 보내는 것을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채 씨가 친정으로 가면서 홀로 남겨진 맹 씨에게 '반 씨의 참소를 어찌 견디'겠냐고 말하며 잔명을 보전하려면 어서 본부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하고, 맹 씨 역시 이에 울며 화답하는 모습을 통해 선인인 반 씨와 두 동서 사이의 대립 상황을 알 수 있다.
- ② 채 씨가 친정으로 가서 눈물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권력이 있는 아버지인 좌승상 채영의 권세를 이용하여 반 씨를 비롯한 선인들을 위기로 몰아가는 모습을 통해 악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적 친분과 권력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채 씨가 남편인 위진에게 반 씨의 행동을 모해하는 말을 하고, 이를 들은 위진 역시 대로하여 반 씨 모자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동서 간의 갈등이 형제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위진이 창두 이십여 인을 보내 반 씨의 여막에 불을 질러 '반 씨 모자를 죽이려고' 한 것은 음모 모티브에서 악인의 음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음모로 인해 고난에 처했으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결국 죽지 않고 '외가 반부를 찾아'가 유 부인을 만나는 부분은 음모 모티브의 서사 구조에서 선인의 고난 극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5 고전 산문

본문 133~137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⑤

■ 작자 미상, 「현몽쌍룡기」

해제 > 이 작품은 작자, 연대 미상의 고전 소설로, 조용홍, 조용창

이라는 두 형제의 결연 과정과 영웅담을 묘사한 가문 소설이자 영웅 소설이다. 조씨 가문의 형성 과정과 영웅적 활약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두 쌍의 부부 관계를 대조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가부장제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제시한다. 소설의 뒷부분에서는 남성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을 통해 대외적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드러난다. 주인공 가문이 대내외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문 소설로 분류된다. 흔히 「조씨 삼대록」의 전편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주제 > 조 공자와 정 소저의 만남과 결연 과정에서의 위기 극복

전체 줄거리 > 송나라의 상국 조숙과 부인 위 씨는 신이한 꿈을 꾸고 두 아들을 얻는다. 두 아들은 금가락지와 은가락지의 인연을 각각 만나 혼인하고, 과거에 급제한다. 황제는 조용흥을 금선 공주와 결혼시켜 부마로 삼는다. 금선 공주와 박수관은 악독한 인물로 조씨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조용흥과 조용창은 거란의 침입, 반란과 모반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 집안의 분란을 해결한다. 조씨 형제가 큰 공을 세우며 대내외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조씨 가문은 화목함과 평온을 되찾는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조 공자 형제가 정 소저에게 처소를 제공하고 비복들에게 그것을 누설해 말라고 명령한 것은, 쫓기고 있던 정 소저를 안전하게 지키고 부모님께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이다. 조 공자와 정 소저는 이미 부모의 허락을 받은 사이이므로, 부모의 허락 없이 인연을 만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에는 조 공자 형제가 정 소저와 그의 시녀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장면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애정 소설에서 하늘이 정한 남녀의 인연이 이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② 조 공자 형제는 정 소저 일행이 남장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호기심이 생겨 그들의 과거 사정을 캐묻고 있다.
- ③ 조 공자 형제는 자신들이 조 상국의 자제임을 먼저 밝히고 있는데, 이를 알게 된 정 소저의 시비들 또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시비들의 고백은 이후 사건의 진행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④ 정 소저의 시비들이 정 소저의 과거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조 공자 형제는 정 소저의 절행과 성품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 소저에 대한 조 공자의 신뢰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이 글의 핵심 사건은 조 공자 형제가 우연히 구한 세 사람이 자신의 정인인 정 소저와 그의 시비들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즉 정

소저와 조 공자의 결연 과정에서 정 참정과 계모로 인해 발생한 혼사 장애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혼사 장애 갈등과 그 극복 과정을 드러내어 통속적 재미를 추구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조 공자 형제, 즉 용흥과 용창이 장자 승계권을 두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정 소저와의 만남 과정에서 자신을 따르는 시비와 비복들을 규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 ③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조 공자 형제 중 첫째 용흥이 금가락지의 인연인 정 소저를 만나는 과정이다. 정 소저가 계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던 것은 맞지만, 제시된 부분이 가문의 여인들이 기존의 윤리관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조 공자 형제 중 첫째 용흥과 정 소저가 결연 과정에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조 공자나 정 소저가 부모의 도움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는 양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정체를 감춘 미모의 여인이 등장하여 조 공자 형제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형제간의 갈등으로 가문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답 ⑤

03 인물의 성격, 유형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춘앵과 벽란이 목숨을 구해 준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면, 처음부터 조 공자 형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것이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정 소저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다가 추후에 조 공자 형제에게 정 소저의 정체를 밝히는데, 이는 자신들을 구한 사람 중 하나가 정 소저와 혼인을 약속한 조 공자(용흥)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춘앵과 벽란은 정 소저의 시비로서 두 공자를 믿고 소저의 위태로운 처지를 두 공자에게 털어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춘앵과 벽란은 조 상국의 자제와 정 소저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구원을 받은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 ③ 춘앵과 벽란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털어놓기 전에 정 소저를 만나,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정 소저의 의견을 먼저 묻고 있다.
- ⑤ 춘앵과 벽란은 조 공자 형제에게 정 소저의 사연을 털어놓으면, 정 소저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04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정 소저가 외가로 가지 아니한 것은 석공 어르신께서 정 참정이 자신을 박수관의 후실로 보내려고 한 것을 알게 되면, 석공 어르신과 정 참정이 크게 부딪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정 소저

가 정 참정이 석공 몰래 자신을 박수관에게 시집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 평장 부인을 찾아가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러한 정보의 격차로 인해 독자들의 긴장감을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정 소저는 조 공자 형제가 자신을 구해 준 것임을 춘앵과 벽란으로부터 알게 되었지만, 자기 집안의 허물을 알리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 ② 춘앵과 벽란은 조 공자 형제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정 소저에게는 자신들이 한 행동을 숨기고 있다. 정 소저와 독자 사이에 정보의 격차가 생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독자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 소저의 선택에 대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 ③ 조 공자 형제는 정 소저의 정체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이는 정 소저가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주는 요소가 된다.
- ④ 정 소저는 언젠가 절간에 의탁하러 갈 생각을 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 조 공자 형제와 떨어지게 되면 정 소저에게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독자들의 경우, 이후의 사건 전개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06

고전 산문

본문 138~141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⑤

■ 심의, 「대관재몽유록」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중종 때 심의가 지은 한문 소설로, '대관재기몽' 또는 '몽기'라고도 불린다. 꿈의 형식을 빌려 문인이 주도하는 문장 왕국을 설정하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는 정치 현실에 대한 불만을, 꿈속 세계의 문인 왕국을 이상 세계로 설정함으로써 해소하려고 한 작가의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설 문학이 본격화되지 않은, 창작 당시의 문학적 환경을 고려해 보면 독창성이 매우 강한 작품이다.

주제 ▶ 꿈속에서 문인들이 구성한 이상 세계를 경험함.

전제 줄거리 ▶ 현실 세계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문인인 '나'는 꿈속에서 천상 세계에 들어가 천자인 최치원의 총애를 받고 관직을 제수받는다. 규벽부를 관장하며 자신의 시문을 인정받고, 김시습의 난이 일어나자 달려가 휘파람을 불어 진압하는 큰 공을 세운다. 그리하여 천자로부터 높은 벼슬과 상을 받고 문벌을 이루어 부

귀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다른 신하의 탄핵을 받아 결국은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천자는 '나'가 다른 신하인 우승상 이규보를 항소하자 '그 아뢰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천자가 나의 항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천자는 오거서와 특진이라는 응분의 보상을 '나'에게 제공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군사를 부리는 용병술이 아닌 혼자 휘파람을 부는 것으로 김시습의 반란을 제압한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천자의 칭찬을 받아 '이로부터 위명이 날로 드러나고' 집안의 '문벌이 빛'나게 된다.
- ② '나'는 천자의 신임으로 공신이 된 후에 '많은 녹을 받아, 집안 재산이 넘'치는 부를 이루므로 빈궁한 삶을 이어 간 것은 아니다.
- ③ '나'는 공경 즉 높은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명함을 내고 보기를 청탁하'면 '신하 된 도리로 사사로이 교제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사양했으므로 높은 관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다.
- ⑤ 천자는 '나'를 탄핵하는 한림 선생의 상소를 불쾌히 여긴 것이지, '나'에 대한 불쾌함으로 한림 선생을 부추겨 '나'를 탄핵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02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문장가들이 모여서 잔치를 즐기는 사단에서 천자는 주인공인 '나'가 아니라 이하에게 '옥루기'를 외우게 하고 왕희지가 쓴 글씨를 벽에 걸게 하였다. 따라서 사단을 천자의 요구에 따라 주인공이 문장에 관한 재능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두보, 이백은 모두 타국(중국)의 옛 인물들이며, 사단은 꿈속 세계에서 이런 인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므로 환상성을 지닌 공간이다.
- ② 사단은 천자가 '날아오르기를 구름같이 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올라가 '매우 즐기'는 유희의 공간이다.
- ③ 사단은 '삼정승과 신하 몇 명'과 같은 지체 높은 사대부들마저 높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다리가 떨려 두려워서 엎드려 한 사람도 시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한계를 느끼는 공간이다.
- ⑤ 사단은 천자가 '두 천자는 문장으로 3백 편의 유작이 있고, 따르는 신하와 재자'들도 뛰어난 인물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과 두 천자의 처지를 비교하며 자신의 '신하 중 한 사람이라도 이들과 같이 재능이 있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부족함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공간이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주인공이 ‘머리를 섬뜩에 부딪치고 하직하’고 난 후 ‘돌아보아 생각’한 ‘집안 식구’는 현실로 되돌아가서 재회하게 될 인물이 아니라 탄핵으로 인해 이별을 맞게 된, 이계에서 이룬 가족을 가리킨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주인공이 ‘휘파람을 불’어 적병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일을 겪게 되고 상상의 동물인 ‘난새와 봉황이’ 나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은 이계의 환상 체험에 해당한다.

③ 주인공은 ‘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파’서 잠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주인공이 아픔을 느껴서 갑자기 잠에서 깬 것은 <보기>를 참고할 때, 몽유자가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문학적 장치에 해당한다.

④ 꿈을 깬 후 주인공의 ‘배가 복처럼 부풀어’ 오른 이유는 꿈속에서 이색이 ‘먹물 몇 말을 들어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꿈속 세상에서 겪은 일이 원인이 되어, 그것이 꿈 밖 세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두 세상이 연결된 증거에 해당한다.

⑤ 주인공은 배가 아파 잠에서 깨어나 ‘잔등은 가물가물하는데 병든 아내가 곁에 누워 앓는 소리를’ 하는 상황에 있게 된다. 이는 주인공이 꿈속 세계인 이계에서 돌아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현실 세계의 시·공간에 속한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초목의 산하를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것과, ‘조물이 공을 꺼리는 것’이 있음은 탄핵을 받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나’에게 임금이 한 말이다. 이는 『시경』의 영역을 넘어서서 조물이 공을 꺼릴 만큼 ‘나’의 문장 능력이 대단함을 말해 주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보기>에서 말하는 적대 세력과 동조 세력이 공존하여 권력의 대립과 암투가 벌어지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반영한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내린 상까지 받게 되는 ‘나’의 모습에는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쳐 왕에게 인정받고 싶은 선비로서 심의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벼슬길에 올라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나’의 모습은 사람과의 탄핵으로 이상을 펼치지 못한 심의가 현실에서 가졌던 정치적 포부를 실현하는 모습을 그려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가 이규보의 허물을 지적하며 항소를 올린 이유는 ‘문장이 경솔부박하며 나약하고 뼈대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문장에 나타난 잘못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한 고관에 대한 탄핵의 사유로

삼은 것과 그러한 행위를 천자가 인정하고 상까지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상적 공간은 문장이 중심이 되는 세계임을 알게 해 준다.

④ 천자는 탄핵을 당한 ‘나’에게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손에 술잔을 잡고’ 건넨다. 임금의 총애를 받다가 조정을 떠나게 된 ‘나’의 모습은 <보기>를 참고할 때, 사람과의 탄핵과 비난으로 벼슬길에서 좌절된 작가의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7

고전 산문

본문 142~145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①

■ 작자 미상, 「금방울전」

해제 > 이 작품은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 소설로, 부부였던 남해 용왕의 딸과 동해 용왕의 아들이 각각 금방울(금령)과 장해룡으로 환생해 온갖 고난을 이겨 낸 후 전생의 인연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그려 보인다. 금방울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뛰어난 능력과 활약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여성 영웅 소설의 면모를 보인다. 빼어난 능력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을 쟁취하는 금방울의 모습은 당시 소설의 주요 독자층이었던 여성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금방울의 역할이 해룡의 성장과 업적을 돕는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여성 주체의 독립성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한 한계도 드러난다. 아울러 금방울의 성취가 현실과 거리가 먼, 환상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 또한 이 작품의 한계로 언급된다. 이는 환상성과 신화성을 빌리지 않고는 주체적 여성의 영웅적 활약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만큼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 > 금령의 영웅적 활약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남녀의 사랑

전체 줄거리 > 중국 원나라 때 장원 부부가 꿈속에서 동해 용왕의 셋째 아들을 구해 준 인연으로 아들 해룡을 얻는다. 몇 해 후 장란이 일어나서 피란길에 도적에게 쫓기던 장원 부부는 해룡을 잃어버리고, 장삼이라는 도적이 어린 해룡의 영특한 모습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기른다. 이때 조계촌에는 효성이 지극한 막 씨는 사람이 살았는데 꿈에 신선들이 나타나, 남해 용왕의 막내딸(동해 용왕의 셋째 아들과 남해 용왕의 막내딸은 서로 부부였음.)이 억울하게 죽어 그 딸을 막 씨에게 점지해 주겠다고 말한다. 이후 귀신이 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잉태하여 낳았는데 아이는 금방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금방울은 신통한 능력을 지녀 어머니 막 씨를 도와 온갖 어려운 일을 해낸다. 이웃 마을의 목손이 금방울을 탐내어 훔쳐 갔지만 금방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목손의 모함으로 막 씨와 금방울이 옥에 갇히지만, 사또인 장원이 부인의 권유에 따라 그들을 풀어 준다. 장원의 부인이 잃어버린 아들 해룡을 그리워하다 병을 얻어 숨을 거두자 금방울이 보은초를 가져와 부인을 살린다. 이에 장원의 부인은 금방울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면서 ‘금령’이라는 이름을 지어 준다. 어느 날 금령이

족자 하나를 장원에게 주고 사라지는데 족자에는 과거 장원 부부와 해룡이 헤어질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한편 해룡은 양아버지인 장삼이 세상을 떠난 후 장삼의 아내인 변 씨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데 위기 때마다 금령이 나타나 구해 준다. 변 씨의 박해가 이어지자 해룡은 금령과 함께 집을 떠난다. 그런데 금령이 요괴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해룡은 지하국으로 내려가 요괴를 퇴치하여 금령을 구하고 납치되었던 금선 공주와 시녀들도 구한다. 공주를 구한 공로로 해룡은 벼슬을 받고, 금선 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된다. 해룡은 복흥노가 침범하자 대원수로 출전해 금령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위왕에 봉해진다. 이후 금령은 해룡에게 족자 하나를 남기고 장원의 부인과 어머니 막 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해룡에게 준 족자에는 어린아이가 난중예 부모를 잃고 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신선이 나타나 금령이 껌질을 벗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도록 하고, 해룡은 금령이 남기고 간 족자를 매개로 친부 모인 장원 부부와 재회한다. 금령은 해룡과 혼인하여 백년해로하다가 한낱한시에 승천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해룡이 어림군을 관리하며 국사를 돌보기 시작한 것은 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기 이전의 일이다. 이는 '해룡이 친을 입사와 ~ 어림군을 관리하며 다스릴새, ~ 국사를 극진히 살피더니, 어느덧 혼인날이 다다랐는지라.'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공주는 요괴에게 잡혀가서 고생을 하다가 해룡과 금령의 도움으로 구조되어 천자와 황후를 다시 만난다. 그러므로 천자와 황후가 요괴에게 잡혀갔던 공주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천자는 해룡에게 '(공주가)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죽히경의 건줄을 받들 것이니'라고 말한다. 이는 공주가 비록 부녀자의 이상형인 '임사'(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과 무왕의 어머니인 태사)에는 못 미치지만 해룡의 배필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천자가 공주를 해룡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사또는 족자의 그림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부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더니 전란 중에 잃은 지 십팔 년이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사또가 십팔 년 전 전란 중에 잃은 아들이 바로 어사, 즉 해룡임이 밝혀진다. 그러므로 해룡이 십팔 년 전에 전란의 와중에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사또는 잃어버린 아들의 신체적 특징으로 등에 복두칠성 모양으로 '일곱 개의 사마귀'가 있는 것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어사가 '실성통곡'함으로써 자신이 아들임을 암시하고, 이어서 '소자,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를 만나 뵈오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아들임을 밝힌다. 따라서 사또가 어사의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어사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2 소재의 가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남가일몽'(㉠)에서 깨어난 후 어사는 꿈 때문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잠들지 못하고 관가로 가 사또를 만난다. 그리고 사또와 대화하는 도중에 사또가 어릴 적 헤어졌던 자신의 부친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으로 촉발된 어사의 행위가 계기가 되어 인물 간 관계가 밝혀진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공주가 꿈 '꿈'(㉡)을 통해 해소되는 공주와 인물 사이의 갈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 이전에 발생한 공주와 인물 간의 갈등이 ㉠을 통해 해소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사또와 어사는 과거, 금령에게 받았던 족자 덕분에 서로 부자지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금령이 자신들에게 족자를 주었던 까닭을 이해하게 된다. '하늘이 우리를 보살피시어 금령에게 지시하여 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어사가 한 말도 바로 그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말은 금령이 하늘의 명을 받아 어사와 그 부모를 재회하게 하려고 어사와 사또에게 같은 모양의 족자를 주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사가 말한 '이 일'은 금령이 준 족자 덕분에 부모와 자식이 재회한 일을 뜻하며, 어사가 꿈에서 백발노인을 만난 일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에서 백발노인이 어사 앞에 나타난 것이 금령이 하늘의 지시를 받아 벌인 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꿈'(㉡)에 예언된 공주와 어사의 미래 모습은, 그 둘이 속세에서의 연분을 이루고 공주의 부모인 부황과 모후를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남가일몽'(㉠)을 통해 실현되는 일은, 사또와 어사가 서로 부자지간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을 통해 ㉡에 예언된 공주와 어사의 미래가 실현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공주의 '꿈'(㉡)에 나타난 선인은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 그 요괴를 잡고'라고 말하며, 공주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인물이 비범한 존재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어사의 '남가일몽'(㉠)에 나타난 백발노인은 어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인물(사또)의 비범한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래에 만나게 될 인물의 비범한 능력이 암시된다는 설명은 ㉠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나 ㉠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03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④는 가까이 있는 사또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보지 못하여 자식의 도리를 차리지 못하는 어사를 질책하고 아울러 어서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일깨우기 위해 한 말이다. 그러므로 어사, 즉 해룡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낸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환궁한 공주는 자신이 요괴에게 잡혀갔다가 구출되어 돌아오

기까지 겪었던 일들을 황후에게 자세히 이야기한다. 그 내용 중에는 ‘천지조화로 된 금령이 신통함이 기이하여 재주와 수단을 부리’었던 일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황후가 공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금령을 칭찬하면서 한 말이 ㉓이다. ㉓를 통해 황후는 금령의 능력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㉔ ㉕는 천자가 해룡이 세운 공로를 치하하면서 한 말이다. ㉖에서 천자는 해룡이 세운 공로를 자연물인 ‘태산’, ‘하해’와 비교하여, 그 공로가 태산보다 높고 하해보다 깊다고 말하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㉗ ㉘는 천자가 해룡에게 한 말로, ‘공주의 꿈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해룡과 공주가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천자가 거론한 ‘공주의 꿈 이야기’는, 앞서 공주가 황후에게 말한 꿈 이야기이다. 그 꿈은 공주가 요괴에게 잡혀가 있을 때 꿈 속에서 공주는 한 선인에게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라는 말과 함께 ‘동해 용왕의 아들이) 요괴를 잡고 같이 나아가 부황과 모후를 만나리라.’라는 말을 들었다.

㉙ ㉚는 자신의 족자와 똑같이 생긴 족자를 어사가 지닌 것을 보고, 사또가 이상하게 여겨 한 말이다. 이 말을 할 때 사또는 어사가 지닌 족자의 출처가 금령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보기>를 참고할 때 선인이 공주의 꿈속에서 말한 ‘동해 용왕의 아들’은 해룡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라는 선인의 말은 해룡과 금령의 인연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라 해룡이 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될 것임을 암시한 말이다. 그러므로 선인의 말에서 해룡이 금령과 맺은 전생의 인연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금령은 전생에는 용의 딸로 태어나 용의 아들과 결혼하고, 인간으로 환생해서는 해룡의 아내가 되는 여성이다. 여성인 금령은 신통한 능력으로 요괴를 퇴치해 나라의 근심을 없애고, 조화를 부려 해룡이 입신양명하게 만든다. 여성 주인공인 금령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나라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작품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등장하는 여성 영웅 소설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③ 금령은 신이한 능력으로 요괴를 처치하고 요괴에게 붙잡힌 공주와 시녀를 구함으로써 나라의 근심을 없앤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궁궐에서 황후에게 치하를 받는데 황후는 ‘다 네 덕’이라고 말하면서 금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 이처럼 여성이 큰 업적을 이루고 공적으로 인정받아 황실의 치하를 받는 장면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던 조선 후기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성취를 이루고 싶은 욕망을 상상의 차원에서 대리 만족케 하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령의 활약을 과거 여성 독자들이 지녔던 사회적 성취에 대한 욕망이 투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사또와 어사는 서로 똑같은 족자를 지니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되어 족자에 관해 대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또와 어사가 부자 관계임이 밝혀진다. 이 장면에서 비로소 과거에 금령이 두 사람에게 족자를 준 이유가 밝혀지는데, 금령은 전란의 와중에 헤어졌던 부모와 자식이 다시 만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헤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이 족자를 매개로 재회하게 되는 것에서 금령이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여성 영웅 소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여성 주인공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는 사회 활동이 제한되었던 당대 여성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여성 영웅 소설인 이 작품에서도 금령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여자의 모습으로 변하기 전, 즉 ‘신령스런 물건’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까지만이다. 그러므로 남들에게 여성으로 인식되지 않는 조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금령의 모습을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제한되었던 과거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8

고전 산문

본문 146~149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④

■ 작자 미상, 「적벽가」

해제 > 이 작품은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벽 대전의 내용을 재구성한 판소리게 소설이다. 원작 소설이 영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이름 없는 군사들의 이야기를 첨가하여 약자의 설움과 고통을 드러냄으로써 전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한편 원작에서 간사한 피가 많은 영웅으로 평가된 조조를 이 작품에서는 간사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허세와 위선으로 가득 찬 기득권 세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작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외국 문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대표작으로 꼽힌다.

주제 >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사들의 설움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

전체 줄거리 > 의형제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는 제갈공명을 모셔와 세력을 보강한다. 권력을 쥔 조조는 남쪽을 정벌하기 위해 백만 대군을 일으킨다. 조조의 군사들은 남정길에서 각자의 설움을 늘어놓는다. 조조의 선봉 부대는 제갈공명의 지략에 넘어가 전투에

서 패하고, 장비는 장판교에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다. 제갈공명은 오나라의 손권과 주유를 설득하여 조조와 적벽 대전을 벌이게 하고, 조조는 적벽 대전에서 대패한다. 퇴각하던 조조는 화용도에서 제갈공명이 보낸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여 겨우 살아 돌아간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조조의 군사들은 ‘키는 쥐방울만한 게 말소리는 똑똑하네. 쥐창자만 한 네 뱃속에는 무슨 설움 들었느냐?’라고 말하며 왜소한 체구를 지닌 화병을 놀리고 있지만, 곧이어 ‘말해 보아라. 들어나 보자.’라고 말하며 화병의 설움을 듣고 있다. 따라서 조조의 군사들이 체구가 왜소하다는 이유로 설움을 토로하려는 화병의 행위를 무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양편 전선 수백 척으로 수채를 만들고’와 ‘정중앙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를 통해 조조가 자신의 전선에 앉아 있다는 점을, ‘조조가 사방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공황하여 호기가 절로 난다.’를 통해 조조가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호기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주유와 노숙은 천시를 모르느냐. 내 군사 거짓 항복 네 복심이 되었으니 하늘이 도움이오.’라는 조조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집에 있을 적에 새끼 까치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꼬랑지에 공작 깃털 꽃고 반침대 놓아두고, 이것저것 먹이며 온갖 정성 다했제. 근디 급히 잡혀 오느라고 못 가지고 왔기에’라는 화병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들 머리 한칼에 베어 들어 깃발에 매달아 노래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게 대장부 바라는 바’라는 현결찬 풍채의 군사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련타, 그리운 마음에 녹아내리는 뺨골. 규방의 아나네가 낭군 그리워 꿈속을 배회하는 듯.’에서 옛사람이 지은 풍월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애고애고 설운지고.’를 통해 직설적인 감정 표현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일에 대한 조조 군사의 판단이 바뀌는 근거는 ㉔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에서는 ‘많이’와 ‘잡고’라는 어휘를 반복하고 ‘술’, ‘떡’과 같은 음식과 ‘소’, ‘돼지’, ‘개’, ‘닭’과 같은 동물을 나열하며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큰 잔치를 벌이는 조조의 행동을 부각하고 있다.

② ㉒에서는 ‘이때’라는 시간 표지와 ‘거동을 보소’라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조조가 만든 수채에 대한 묘사에서 수채의 정

중앙에 자리 잡고 앉아 있는 조조의 외양 묘사로 서술을 전환하고 있다.

③ ㉓에서는 ‘변고인가’라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한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쇠끝같이 나는 울음소리의 주인을 찾지 못해 의아해하는 조조 군사들의 반응을 전달하고 있다.

⑤ ㉔에서는 ‘울음’과 ‘웃음소리’라는 의미가 대비되는 어휘와 발음이 유사한 ‘개기환향’과 ‘소가환향’이라는 어휘를 활용하여 풍채가 현결찬 군사의 신세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조조 군사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그 까마귀 달 밝으니 새벽인가 의심하여 나무를 떠나면서 우나이다.’라는 장수들의 답을 들은 조조가 크게 웃었다는 점에서, 조조가 장수의 답을 듣고 크게 만족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는 노래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아까 울고 가던 까치가 나를 찾아온 내 까치지.’와 ‘경망한 승상님이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글만 지어 읊으시니’를 통해 화병이 말한 ‘글’이 조조가 지은 ‘노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내 마음 절통하여 어찌 살겠는가’라는 화병의 말을 통해, 화병이 조조가 지은 노래를 듣고 조조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조조가 사방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공황하여 호기가 절로 난다.’라는 구절과 ‘강남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교녀를 동작대에 데려다가 봄바람 맞으며 늪도록 즐겨 볼까 하노라.’라는 조조의 말을 통해 조조는 전쟁에 나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전쟁이 끝난 후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술잔 잡고 노래하니 인생이 얼마인고. 아침 이슬 같은 삶. 몇 날 남지 않았구나.’라는 노래의 구절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조조의 생각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좌우의 장군들이 화답하고 한참 서로 즐긴다.’라는 구절을 통해 조조의 장군들은 조조가 지은 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유복은 조조의 노래를 듣고 불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유복은 조조가 까마귀를 본 후 지은 노래에 대해 불길한 구석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에 조조는 자신의 흥을 꺾는 이유로 유복을 창으로 찌른다. 조조가 주유와 노숙, 유비, 제갈공명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복이 말한 ‘불길한 구석’은 조조가 전쟁에서 패할 것을 염려한 것으로, 조조가 말한 ‘내 속의 흥’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조가 지은 노래가 전쟁의 승패 예측을 두고 유복과 조조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화병은 ‘울고 가던 까치’가 자신의 까치인지 묻지 않고 ‘글만 지어 읊’은 조조에 대해 ‘경망한 승상님’이라 부르며 자신의 마음이 절통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조조의 교만함과 군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모습을 비판한 것일 뿐, 전쟁의 무의미함을 부각하는 것이나 조조가 벌이는 전쟁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를 통해 조조가 말한 전쟁의 정당성은 기존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조가 전쟁을 벌이는 표면적인 이유인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대장부의 큰 뜻’은 기존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에 해당한다.

② <보기>에서는 조조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는 모습에서 조조의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강남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교녀를 동작대에 데’리고 가겠다는 조조의 말은, 전쟁의 목적이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에 있음을 보여 준다.

③ <보기>에서는 자신의 부하를 대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조조가 지닌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흥을 꺾다는 이유로 부하인 유복을 창으로 찌르는 조조의 모습은 그가 지닌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를 통해 조조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것에는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를 바랐던 당대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랫사람 생각하지 않으니, 남은 것은 교만뿐’이라는 군사의 말은 부하들을 돌보지 않은 조조의 모습을 비판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부하들을 돌보지 않은 조조의 모습은 조조가 당대 사람들이 염원했던 지도자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체 줄거리 > 웅진골 웅당촌에 웅고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웅고집은 걸인이나 종이 와서 구걸을 하면 쫓아내는 등 심술이 사납고, 인색하며 남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수전노였다. 또한 노모가 병들어 냉방에 누워 있어도 불도 때 주지 않고 약 한 첩 쓰지 않는 불효자였다. 이에 보다 못한 월출봉 취암사의 한 도사가 웅고집을 혼내 주려 마음먹게 되고, 도사가 허수아비를 만들어 부적을 써 붙이자 영락없는 웅고집이 된다. 그 도사는 실용가가 잠시 나간 틈에 허용가를 실용가의 집에 보내어 사랑방에 앉아 하인들을 호령하게 하는데, 잠시 후 실용가가 들어와 실용가와 허용가 사이에 시비가 벌어진다. 하지만 도사의 신통술로 원님까지 허용가를 진짜로 판정 내리고 실용가는 하는 수 없이 걸식하는 신세가 된다. 실용가는 온갖 고초를 겪으며 자신의 삶을 비판하며 산중에 들어가는데, 그때 도승이 나타나 그를 만류한다. 그 도승은 취암사의 도사로, 실용가는 도사의 충고를 듣고 자신의 과거를 뉘우친다. 실용가가 도승의 말대로 부적을 몸에 붙이고 집에 돌아가자, 허용가는 다시 허수아비로 변하고 실용가는 개과천선하여 지낸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사또는 ‘하마터면 아까운 세간을 저놈에게 빼앗’길 뻔했다는 허용가의 말을 들었으며, 이후 실용가에게 ‘남의 세간 탈취하려’ 했다는 죄를 묻고 있다. 군노는 사또에게 실용가가 허용가의 세간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실용가는 ‘벌떼 같은 군노 사령’에 의해 ‘내쫓’기고 ‘하릴없이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대성통곡’하면서 ‘답답하다’고 하였다.

③ 허용가는 ‘득송하고 돌아올 제 의기양양’해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조롱’하며 실용가를 ‘흉악한 놈’이라고 하였으며, ‘희색이 만안하’다고 하였다.

④ ‘세상에 살아 무엇 하랴. 애고애고, 내 팔자야.’에서 실용가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용가는 ‘죽장 망헤 단표자로 만첩청산 들어’갔다고 하였다.

⑤ 실용가의 아내는 ‘옛집을 다시 찾아’온 실용가를 보고 ‘심히 대경실색하’였다고 하였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에는 ‘그새 허수아비 자식을 저렇듯 무수히 낳았으니, 그놈과 한가지로 얼마나 좋아하였는가’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 있지만, 앞으로 상대방이 겪을 수 있는 일을 예견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의 ‘하마터면 아까운 세간을 저놈에게 빼앗’기고 이런 일등 미색의 이렇듯 맛난 술을 못 먹을 뻔하였다.’라는 것에는 자칫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드러나 있고, ‘은혜 백골난망이로

09 고전 산문

본문 150~153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①

■ 작자 미상, 「웅고집전」

해제 > 이 작품은 못된 웅고집이 가짜 웅고집에게 쫓겨난 뒤 개과천선한다는 조선 후기의 판소리게 소설이다. 고집 세고 인색하며 불효막심한 수전노를 징계하고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학적 표현이 전반에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부를 축적해 지배 체제에 편승한 웅고집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변동하는 향촌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웅고집이 벌을 받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 갖춰야 할 도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주제 > 개과천선을 통한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소이다'에는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이 드러나 있다.

② ㉠의 '어려쁜 우리 아내 월하의 인연 맺어 일월로 본증 삼고 천지로 맹세하여 백 년 중사하겠더니'에는 대상과 함께했던 과거 상황이 드러나 있고, '독수공방 적막한데 입 없이 홀로 누워 전전반측 잠 못 들어 수심으로 지내는가'에는 대상의 처지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 있다.

③ ㉡의 '자네 얼굴 다시 보니 이런 좋은 일 또 있을까'에는 상대방과 재회하게 된 데 따른 소회가 드러나 있고,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 있다.

④ ㉢의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라도 무석이요 만사라도 무석'에서 자신의 잘못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고, '명령하신 도덕하에 제발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에는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밝히며 상대방의 선처를 구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실용가의 아내는 허용가를 자신의 남편으로 여기고 지내다가 허수아비들을 낳았는데, '좋아라고 괴로움을 모르고 길러 내'었다는 것을 통해 실용가가 다시 집으로 와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허수아비를 자식으로 여기고 열심히 길러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0삭이 차매 실용가 아내 몸이 곤하여 침석에 누워 해태하'였다는 것을 통해 허수아비는 실용가의 아내가 허용가와 지내며 낳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허수아비는 도사가 실용가의 자식들을 변신시킨 결과로 볼 수 없다.

③ '10삭이 차매 실용가 아내 몸이 곤하여 침석에 누워 해태하'고 '실용가 마누라 좋아라고 괴로움을 모르고 길러 내'었다는 것을 통해 도사가 실용가의 아내가 허수아비를 자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지만, 도사가 실용가의 아내에게 깨달음을 주려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실용가가 허수아비를 보고 '마누라, 그새 허수아비 자식을 저렇듯 무수히 낳았으니, 그놈과 한가지로 얼마나 좋아하였는가. 한상에 밥도 먹었는가?'라고 한 것을 통해 허수아비는 실용가와 실용가의 아내가 화해하는 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용가는 자신의 아내가 허용가를 남편으로 믿고 지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실용가의 아내는 허용가를 실용가로 믿었으므로 아내가 실용가를 그리워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실용가의 아내는 실용가가 다시 집에 왔을 때 '애고애고 좌수님, 저놈 천살 맞았는지 또 와서 지랄하고 들어오니, 이 일을 어찌하리까.'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실용가의 아내는 허용가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대근삼십도를 맹치하여 업문 죄목 하'자 옹고집이 '옹가 아니 오.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것을 통해 옹고집이 '곤장 밑에 죽을' 것 같아 거짓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도사가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하고 '불도를 능멸 할까.'라고 한 것을 통해 옹고집이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인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③ 실용가는 도사를 만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간 곳이 '고루거각 높은 집'이라는 것을 통해 옹고집이 부를 축적해 지배 계층과 같은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옹고집이 도사가 준 부적을 붙이고 집으로 돌아가자 허용가가 '짚 한 묶음'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 실제 옹고집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과정에 도사라는 신이한 존재가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실용가가 '모친께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였다는 것을 통해 개과천신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어짚을 칭찬하'였다는 옹고집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옹고집과 같은 인물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당대 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고전 산문

본문 154~158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②

■ 작자 미상, 「옥단춘전」

해제 ▶ 이 작품은 이혈룡과 김진희라는 친구 사이의 우정과 배신, 이혈룡에 대한 기생 옥단춘의 사랑과 신의를 그리고 있다. 양반인 이혈룡과 김진희는 함께 공부하며 출세하면 서로 돕자고 굳게 약속했지만 평양 감사가 된 김진희는 이혈룡의 집안이 몰락하자 이혈룡의 도움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한다. 옥단춘은 기생이지만 위기에 처한 이혈룡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이처럼 이 작품은 친구 간의 신의와 남녀 간의 신의, 양반 간의 신의와 신분을 초월한 신의 등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양반과 기생의 사랑, 암행어사가 된 남주인공의 출현 장면 등과 같이 내용 면에서 「춘향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된다.

주제 ▶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

전체 줄거리 ▶ 이혈룡과 김진희는 어린 시절 함께 공부하며 출세하면 서로 돕자고 굳게 맹세한다. 이후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해 평양 감사가 되지만, 이혈룡은 집안이 몰락하고 벼슬길에도 오르지 못한다. 이에 이혈룡은 김진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김진

희는 이혈룡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한다. 이를 지켜보던 기생 옥단춘은 이혈룡을 구출하고 그와 연분을 맺는다. 옥단춘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가 된 이혈룡은 걸인 행색을 하고 김진희를 찾아가는다. 김진희는 이혈룡이 옥단춘의 도움을 받아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둘을 죽이려고 한다. 이에 이혈룡은 암행어사로 출도하고, 김진희의 죄를 물어 벌을 준다. 이후 이혈룡은 우의정에 오르고 옥단춘은 정덕 부인에 봉해져 부귀를 누린다.

01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이혈룡이 암행어사인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 하는 말이다. 이는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 사이의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김진희에 대한 분노가 담긴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혈룡은 김진희에게 자신을 모르느냐는 질책 담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혈룡에 대한 서운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혈룡이 암행어사가 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옥단춘에게 과거도 보지 못했다고 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 ② 옥단춘은 이혈룡의 체면을 세워 주며 위로하기 위해 과거를 보지 못한 것이 운수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과거를 보지 못한 상황의 원인을 운명으로 돌리고 있다.
- ③ 옥단춘이 기생의 신분으로 인해 감사의 영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혈룡에게 말하며 평양 감사의 잔치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있다.
- ④ 나졸들이 남루한 행색을 한 이혈룡의 덜미를 잡아 끌어내리고 함부로 말하며 거칠게 대하고 있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북소리가 세 번 울리는 과정에서 옥단춘은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한다. 이러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사공들은 감사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빨리 물에 뛰어든 것을 강요하며 재촉한다. 마지막 세 번째 북소리가 난 후에 옥단춘이 뛰어들려고 행동을 하는 순간 이혈룡이 붙잡는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울리는 북소리는 감사의 명에 따라 옥단춘의 행동을 재촉하는 것으로 서사의 흐름에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북소리는 이혈룡이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평양 감사의 명에 따라 사공들이 울리는 것이므로 이혈룡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북소리가 거듭됨에 따라 기생 신분인 옥단춘의 이혈룡에 대한 신의와 사랑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북소리가 상하 계층의 뒤바

뀐 권력관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옥단춘의 승리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④ 옥단춘이 억울한 처지에 놓인 것은 맞지만 북소리로 인해 옥단춘이 오해를 받게 된 것은 아니다.

⑤ 북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옥단춘이 물에 뛰어든 것을 재촉하고 있으나, 옥단춘이 자신의 삶을 반복적으로 돌아보며 성찰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0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의 춘향이는 수청을 강요하는 사람(어사또)이 자신의 낭군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끝까지 항거를 하고, 향단에게 서방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시킨다. 이후에 어사또가 자신이 그리워하던 낭군임을 알고 기쁨의 웃음을 웃고 눈물을 짓는다. 하지만 [A]에서 옥단춘은 이혈룡이 암행어사라는 것을 모를 뿐, '낭군님'이라 부르며 이혈룡과 대화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낭군이 옆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감사의 명을 받은 사공들이 북을 치며 옥단춘에게 강물에 뛰어든 것을 재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기>에서는 어사또가 춘향을 시험하기 위해 수청을 강요하고 있으나 주변 인물들이 춘향에게 죽음을 택할 것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A]에서는 옥단춘이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기>에서는 춘향이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대를 비판하며 죽여 달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 ③ <보기>에서 춘향이 자신의 지조를 '충암절벽 높은 바위'와 '청송녹죽 푸른 남기(나무)'에 빗대어 강조하고 있으나, [A]에서는 옥단춘이 자신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 ⑤ [A]에서는 자신은 죽을지라도 이혈룡만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옥단춘이, <보기>에서는 서방님에 대한 절개를 끝까지 지키며 수청을 거부하는 춘향의 모습이 드러난다. 따라서 [A]와 <보기>는 모두 암행어사라는 신분을 감춘 남성 주인공 앞에서 자신의 낭군을 향한 여성 주인공의 변함없는 사랑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이혈룡은 신분을 숨기는 상황에서 초라한 행색에 대해 옥단춘에게 설명하고자 빗을 갠다고 가정 기물을 모두 팔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을 들은 옥단춘은 이혈룡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힘든 처지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에서 양반들이 내세우는 지배 논리의 허구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옥단춘은 천민인 기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혈룡의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호의를 베푸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혈룡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인간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③ 김진희는 평양 감사가 되어 화려한 잔치를 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오랜 친구인 이혈룡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비도덕적인 양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④ 신의를 저버린 김진희의 행동 앞에서 이혈룡이 '봉우유신 쓸데 없고, 결의형제 쓸데없다.'라고 자조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양반들이 내세우는 유교적 가치관인 신의가 실제 행위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이혈룡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한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옥단춘을 향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양반과 기생의 단순한 신분적 차이를 넘어 상호 연대의 관계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다.

11

고전 산문

본문 159~163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⑤

■ 이광정, 「김순부전」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이광정이 지은 전(傳)으로, 김순부라는 선비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무고 사건에 연루된 김순부와 그를 조사하는 진수 정양빈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당파 간의 갈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사건의 진행 과정과 갈등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인물 간의 대화를 그대로 노출하여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당시 지역 사회에 만연한 파쟁의 분위기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송사의 과정에서 보여 준 김순부의 능력과 유배지에서 쓴 문장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 송사 사건에 얽힌 김순부의 삶과 죽음(김순부의 현실 대응 방식과 비극적 삶)

전체 줄거리 > 안동에 사는 김순부는 충명함과 효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당시 권력을 가진 정파와 연계된 한 인물이 김순부의 집안을 향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누명을 씌우려 드는데, 김순부는 첫 번째 무고에 슬기롭게 대처해 가문의 신망을 얻게 된다. 진수 정양빈은 공을 세우기 위해 김씨 집안의 모임을 두고 다시 무고를 하는데, 김순부는 처음에는 슬기롭게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결국 3년여의 억울한 옥살이와 귀양살이를 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서 풀려난 김순부는 천연두에 걸려 비극적 삶을 마감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진수 정양빈은 '반란군에 빌붙었다가 사태가 실패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방백에게 돌아가 공을 세우기' 위해 '중인'의 말에 따라 김씨 가문의 회합을 문제 삼으려 하고 있다. 진수가 김순부에게 화를 내며 진상을 따져 물은 것은 공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김씨 집안사람들이 실제로 작당 모의를 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수 정양빈은 '반란군에 빌붙었다가 사태가 실패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는 다시 방백에게 돌아'갔던 인물이다. 진수 정양빈이 김씨 집안의 회합을 반란으로 몰려고 한 것은 공을 세워서 이러한 과오를 덮기 위해서이다.
- ② 김씨 집안사람들은 고발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제일 먼저 모임을 주창한 사람'이 순부라고 관청에 알린다. 이는 순부가 관리의 신문에 대응할 만한 인물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 ③ 김순부가 자신을 잡으러 온 포졸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진수 정양빈이 '상부의 명령도 없이' 선비인 자신을 잡아들이려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⑤ 진수 정양빈은 김순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책망하여 물을 것이 없어서' 순부를 풀어 준다. 김순부와 김씨 집안의 회합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02 인물의 성격, 유형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김순부는 자신이 앞으로 곤액을 겪게 될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병든 아들을 먼저 걱정하며 아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B]에서 김순부는 '문장과 유사를 대신 고발하'라는 지부의 회유를 거절하면서 같은 문중의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다. [A]와 [B]를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김순부가 자신보다 가족이나 가문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를 통해 자식을 사랑하는 김순부의 모습을, [B]를 통해 집안의 어른과 연소자를 보호하려는 김순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당한 권력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A]와 [B]를 통해 김순부가 자신의 안위보다 자식이나 일가친척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려는 계획적 면모를 부각하지는 않는다.
- ④ [A]를 통해 김순부가 '점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으나 드러나지 않지만, 점괘를 활용해 자신에게 닥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B]의 경우, 김순부가 스스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⑤ [B]를 통해 김순부가 집안의 손윗사람은 물론 연소자들까지 챙기려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순부는 연소자들의 희생을 모른 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03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작가는 마지막 논평에서 김순부의 행적이나 그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순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김순부의 행적이 이후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C]는 전계 소설이나 인물의 생애를 주로 드러내는 '전'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논평에 해당한다. 전계 소설이나 전에서 서술자의 논평은 곧 작가가 자신의 관점에서 인물을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서술자는 '10촌인 척이라도 오히려 짧아 보이는 수가 있고, ~ 세상일을 다 알 수는 없다.'라며 정점윤의 말을 인용한 뒤, 김순부의 삶을 두고 '짧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점윤이 한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④ 서술자는 김순부의 장점과 특징을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 ~ 주역점을 치는 것도 오묘했다.'와 같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를 두고 '평탄치 못한 기구한 삶이 ~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⑤ 서술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순부가 재앙을 만나지 않았다면 ~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김순부의 문장이 후세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지부가 김순부를 사면해 주려고 한 것은 그가 김순부의 당당한 태도와 그의 정연한 논리에 감탄했기 때문이다. 지부가 김순부를 두고 '남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맞지만, 김순부가 사면의 기회를 얻어 내기 위해 자기 스스로 '남인'이 아니라고 밝히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한 종인'이 '김상헌의 사원(청음사)'을 지은 본심은 '청음 김상헌을 사모하고 존경하여 배향하려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노력서 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한 종인'은 '서인 세력'과 '안동 사림'의 갈등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이다.

② '한 종인'은 진수에게 '서인 세력'의 총애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김상헌의 사원을 부순 사건'의 주모자를 밝혀내 처벌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③ '서인 세력'은 함정을 만들어 안동 사람들을 포함한 뒤, 겁박과 회유를 통해 그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여 하였다.

④ '안동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 '서인 세력'에 '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01 현대 소설

본문 164~168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해제 > 이 작품은 1934년 한 신문에 연재된 모더니즘 소설로, 작가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 작중 인물 구보가 집에서 나가 뚜렷한 목표 없이 광고, 종로, 화신 상회, 조선은행 앞, 경성역, 경찰서 앞 다방, 종각 뒤의 술집, 카페, 종로 네거리 등 경성 여기저기를 온종일 배회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구보는 이 과정에서 우울과 고독을 느끼며 행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인물 간의 갈등, 사건의 인과적 전개 등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소설들과 달리, 이 소설은 거리의 풍경과 주변 인물을 묘사하고, 구보의 내면 흐름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제 > 1930년대 소설가의 무기력한 내면과, 그의 눈에 비친 경성의 모습

전체 줄거리 >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 집을 나와 동대문행 전차에 올라탄 구보는 과거에 선을 봤던 여자를 보지만 모른 척한다. 다방으로 자리를 옮긴 구보는 차를 마시며 여행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후 구보는 경성역에서 애인과 함께 있는 중학교 동창을 만나고, 다방에서 시인이자 기자인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다방을 나온 구보는 동경에서의 옛사랑을 추억하고 오랜 벗에게서 편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종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구보는 이제 생활도 갖고 창작도 하리라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ㄱ. 인물의 의식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 진행되는 이 글의 문장들에는, 예컨대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같은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쉽표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 어순에 변화를 주거나 독자의 읽기 속도를 조절하면서, 인물이 지닌 의식의 전개 양상에 대한 정교한 서술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ㄱ은 적절하다.

ㄷ. 경성역 대합실에서 노파, 중년의 시골 신사 등을 관찰하는 부분을 보면 ‘~지 모르다’, ‘~을 깨다’처럼 추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다. 이는 모두 자신이 관찰한 타인에 관해 구보가 상상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ㄷ은 적절하다.

ㄹ. ‘전차 안에서’, ‘조그만’, ‘개찰구 앞에’는 모두 장면이 전환되는 문장의 첫머리를 소재처럼 처리한 것이다. 독자는 이를 통해 내용의 단락 구분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ㄹ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ㄴ. 이 글에는, 인과적으로 진행되며 갈등을 고조시키는 뚜렷한 사건이 없다. 이는 이 글이 구보라는 인물의 의식을 그대로 제시하는 이른바 ‘의식의 흐름’ 기법을 보여 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 글이 파국적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ㄴ은 적절하지 않다.

ㄷ. 이 글의 대부분은 구보의 상념 제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인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심화했는지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ㄷ은 적절하지 않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바제도씨병’ 환자라서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고 한 ‘사십여 세의 노동자’의 외양 때문에 그 근처까지 굴러간 복숭아를 즐기기를 단념하고 마는 것은 구보가 아니라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이다. 따라서 ㉔은 구보가 느끼는 혐오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에는 남대문 안에서 밖으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며, 그곳에서 본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계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어서 구보는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는 데 실패하고 고독을 느끼면서 경성역으로 가게 된다.

② ㉒에서 구보는 신장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찰 대상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하고,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낸다. 이는 병자에 대해 관찰한 내용으로부터 자신의 병증으로 이어진 구보의 연상이 드러난 것이다.

④ ㉓에서 구보는 개찰구 앞에서 서 있는 두 사내의 차림새를 관찰한 내용만으로, 그들이 금광 브로커라고 단정해 버린다.

⑤ ㉔을 보면 구보는 사내의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만 치면서, 속으로는 ‘꼭다점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와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 간의 연관 관계를 언제든 연구해 보리라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구보는 경성역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동창생을 만나고 그의 애인도 보게 되지만, 그녀가 ‘한 사내의 애인 된 티가 있’다고 느꼈을 뿐 호감을 느낀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하여 경성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경성역은 ‘오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고 느낄 정도의 장소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보의 기대를 배반한 장소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경성역을 가득 채운 군중을 관찰하다가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라고 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그네들은 저의 옆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경성역에서 본 사람들은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고, ‘남을 결코 믿지 않는’ 모습이었던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수많은 사람이, 심지어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황금을 찾는 일에 열광하는 ‘황금광 시대’에 대해 구보는 자기도 모르게 ‘무거운 한숨’을 쉰다. 그는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속물인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의 ‘천한 얼굴’을 새삼스레 쳐다보면서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라는 생각을 한다. 이를 통해 구보는 황금광 시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가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했던 것은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설의 ‘창작을 위하여’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같은 것을 느껴 보려는 까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구보는 전차 안에서 자신이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 고민하면서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만, 고독에 대한 상념에 젖거나 동전에 적힌 숫자들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부질없는 일을 하다가 결국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는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임을 깨닫는다. 이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행복을 탐색하는 구보의 여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

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조차 모르는 구보는 '문득, 대학 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연구실에서 정신병을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러 갈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평범한 일과를 보내는 남들과 달리, 산책 같은 배회를 하느라 목적도 없이 전차를 탄 구보에게는 친구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 '어떻든 한 개의 일일 수 있다'는 가치를 부여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③ 구보가 경성역에서 '그의 '대학 노트'를 퍼 들'려고 하는 것은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보는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사내를 보고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이는 소설 창작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보가 느낀 울적한 내면 심리를 언급한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구보는 작가 박태원의 분신이므로, 이는 곧 박태원의 심리가 투영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구보는 우연히 마주친 중학 동창생의 모습과 말투에서 느끼는 혐오에 가까운 감정을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하여 차를 마실 생각은 없'다고 하는 것,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그의 얼굴을 '친한 얼굴'이라 하고 그의 말을 '교양 없는 이야기'라 하는 것 등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는 그 사내가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로서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며 '자네' 소리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속물적 근성을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이고, 구보는 그 점에 대해 염증을 드러내는 것이다.

02 현대 소설 본문 169~172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⑤

■ **강경애, 「인간 문제」**

해제 > 이 작품은 지주에게 착취당하는 가난한 농민들의 삶,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후 노동자로서의 계급 의식을 각성하는 과정을 보여 주며 농민과 노동자의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소설 속에는 궁핍한 생활을 하며 지주 덕호에게 맞서다가 마을을 떠나는 '첫째', 그리고 그 이웃인 '선비'가 결국 농촌 마을을 떠나게 되는 과정, 도시에 터를 잡기 위해 노동자로 살며 쟁의 행위를 조직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다. 제목인 '인간 문제'는 착취당하는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인류의 과제임을 암시하며, 농촌의 착취 구조를 다룬 전반부와 도시 노동자의 착취 문제를 다룬 후반부로 나뉘어 전개된다.

주제 > 1930년대 노동자와 농민의 처참한 현실과 계급 의식 각성
전체 줄거리 > 정덕호가 지주로 있는 용연 마을에 살고 있는 '첫째'는 몸을 팔아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는 어머니 밑에서 배궁기를

밥 먹듯 하며 어렵게 살아간다. '선비'는 지주 정덕호 아래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덕호의 매질에 사망한 후 어렵게 살아가다가 결국 어머니마저 세상을 뜨자 어쩔 수 없이 덕호의 집에서 몸종으로 살아가는데, 덕호는 선비를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겁탈하고, 결국 선비는 용연 마을을 떠난다. 선비를 연모하던 첫째도 약덕 지주 덕호의 등쌀에 결국 마을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인천 부두 노동자로 자리를 잡고, 파업을 주도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는 삶을 살아간다. 선비 또한 마을을 떠나 일자리를 찾다가 인천 방적 공장의 노동자가 되는데, 마을 소꿉친구였던 간난이의 설득에 이끌려 노동자를 착취하는 공장주에 맞서 싸우다가 폐결핵이 악화돼 죽고 만다. 그리워하던 선비를 주검으로 만나게 된 첫째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인간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서술자는 개똥, 첫째를 비롯한 농민들의 내면을 서술하여 타자 날 덕호의 눈길과 말을 의식하는 긴장된 심리를 부각하는 한편 농민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덕호의 내면을 서술하며 둘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서술자는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인물의 내면까지 함께 묘사하고 있으며, 농민들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첫째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이를 서술자를 달리하며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개똥 등의 농민, 덕호의 내면을 드러낸 서술이 곳곳에 드러나 있으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대립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덕호의 행동에 담긴 의도, 개똥의 표정에 담긴 심리가 드러나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농민들의 단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풍헌 영감의 모습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의식하고 배려하여 말을 멈춘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놀라고 당황한 상황에서 큰 충격으로 말을 잊지 못한 것이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벼를 거두어 나락 더미가 쌓인 것을 보며 풍성하게 수확한 것에 기뻐하고 뿌듯해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벼섬이 점점 높이 쌓여 가는 것을 보며 총 수확량이 몇 섬이나 될지 기대하는 궁극한 마음에 모여드는 농민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벼섬을 쌓아 올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확량으로 집계되지

않는, 농민들이 남몰래 빼돌리는 벼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던 덕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벼의 수확량을 확인한 당일에 절반 가까운 양을 빼앗기게 되어 허탈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03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개똥이는 덕호로부터 벼섬을 빼앗기게 되자 당황하고 절망하고 있다. ‘개똥이는 덕호가 말하기 전부터 빗 말을 내지 않으려나? 하는 불안에 가슴이 조마조마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개똥이 ‘회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회계’를 마치자고 덕호가 말하는 것은 빛과 이자, 비룻값, 장리 빛을 계산하여 정리하자는 의미이다.

③ 유 서방은 덕호가 ‘회계’에 필요한 것을 쟁하여 명령하는 바에 따라 지시받은 만큼의 벼섬을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덕호는 타작을 마친 벼섬이 쌓여 있을 때 회계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갚아야 할 빛을 벼섬으로 환산하여 요구하고 있다.

⑤ 덕호는 개똥이의 반응을 보며 지금 이자를 쳐서 빛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도 영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서둘러 회계를 마치려고 하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덕호는 주재소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뜻하는 바에 따라 농민들을 더 감옥에 두게 할 수도 있고 석방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이를 두고 농민들의 토지 소유를 가로막는 계약 관계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개똥이 타작날 바로 벼섬들을 빼앗기는 것을 보며 첫째는 풍헌 영감이 입도 차압을 당했던 일을 떠올린다. 첫째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삽입하여 현재 개똥이 당하고 있는 일과 과거 풍헌 영감이 당했던 일을 나란히 제시한 것은 몰인정한 지주의 횡포에 고통받는 농민들의 삶이 부조리하며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가는 첫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불공정한 지주-소작인 착취 관계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드러난 장면이기도 하다.

② 이미 살림이 넉넉한 지주인 덕호가 생활고에 빗 탕감 시기를 늦춰 달라는 풍헌 영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입도 차압했던 일을 제시한 부분에서 지주 덕호의 몰인정한 면모를 볼 수 있다.

③ 덕호가 일꾼들의 석방을 요구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타작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다는 자신의 잇속과 관련된 판단이

다. 그 속내를 서술하면서도 겉으로는 농민들을 친자식처럼 여긴다고 말하는 덕호를 묘사한 것은 마을에서 선량한 어른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지주의 이중성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다.

④ 개똥 어머니가 ‘죽일 놈들’이라고 아들과 다른 농민들을 일컫는 것은 악덕 지주인 덕호 앞에서 오히려 그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행세를 해야 하는 개똥 어머니의 입장을 그려 내어 덕호가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지주와의 관계에서 농민들은 평등할 수 없는 절대적 약자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03

현대 소설

본문 173~176쪽

01 ①

02 ②

03 ②

04 ④

■ 채만식, 「치숙」

해제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나’의 눈을 통하여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옥살이를 하고 나온 아저씨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의 제목인 ‘치숙(癡叔)’은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으로 아저씨의 삶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나’의 관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비판의 대상인 아저씨는 사회적 모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식인이지만 정작 무능력하고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를 비판하는 주체인 ‘나’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긍정하며 자신의 영달만 추구하는 현실 순응형 인물로, 올바른 사회의식이 결여된 무지한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작가는 비판의 대상과 주체 모두 당대 사회의 문제형 인간임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 없이 인물의 대화와 주인공의 생각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며, 풍자적이고 반어적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제 ▶ 현실 순응형 인물인 ‘나’와 몰락한 사회주의자인 아저씨와의 갈등

전체 줄거리 ▶ 화자인 ‘나’가 오촌 고모부인 아저씨를 소개하고 있다. 아저씨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 지금은 폐병으로 앓아누워 있다. ‘나’는 대학교까지 나왔음에도 전과자가 되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아저씨와 그런 아저씨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아주머니를 답답하게 여긴다. ‘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상점의 종업원으로, 주인의 눈에 들어 자립하여 일본에 살고자 한다. 아저씨는 이런 ‘나’를 한심하게 여겨 비판하지만 오히려 ‘나’는 아저씨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며 힐난한다. 그러면서 ‘나’는 아저씨 같은 사람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01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아저씨는 모든 사람이 ‘이 제도의 이 세상’에 따라 상하가 구분되는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에 따라 살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밥 한 그릇’에 배부를 사람이 ‘밥 두 그릇’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분수’에 벗어나는 삶의 태도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저씨는 ‘나’가 ‘밥 한 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밥 두 그릇’을 추구한다며 ‘나’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주인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주인의 ‘신용’을 얻으려면 기꺼이 그의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 ③ ‘나’는 아저씨에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폴레옹처럼 ‘철전 팔기’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 ‘나’는 아저씨에게 ‘집안일’을 하라고 말하지만 ‘아저씨’는 이를 거부한다. ‘나’는 아저씨가 ‘그 것’을 중시하여 ‘집안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⑤ ‘이 한다는 소리’는 아주머니의 은공을 생각해 가정을 돌보라는 ‘나’의 제안에 대해 아저씨가 거부하는 말을 이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나’는 아저씨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02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아저씨는 ‘나’에게 ‘세상 물질’과 관련한 질문을 계속하는데, 이는 ‘나’가 지닌 ‘세상 물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또 [B]에서 ‘나’는 아저씨에게 아주머니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데, 이는 아주머니를 고생하게 만드는 아저씨의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의 ‘나’의 질문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아저씨를 조롱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지만, [A]의 아저씨의 질문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나’를 조롱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지 않다.
- ③ [A]의 아저씨의 질문에는 ‘세상 물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나’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B]의 ‘나’의 질문에는 아저씨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지 않다.
- ④ [A]의 아저씨의 질문과 [B]의 ‘나’의 질문은 모두 자기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활용될 뿐, 상대의 감추어진 본심을 파악하기 위해 던진 것은 아니다.
- ⑤ [A]의 아저씨의 질문은 자신에 대한 ‘나’의 지적이 부당함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지만 [B]의 ‘나’의 질문은 아저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활용될 뿐, 자신에 대한 아저씨의 지적이 부당함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아저씨는 ‘세상 물질’을 단순히 당대의 풍속이나 동향 정도로

만 파악하는 ‘나’에게 ‘세상 물질’이 역사적 흐름을 의미한다고 알려 준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해 아저씨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아저씨는 나폴레옹이 세상 물질에 순응할 때는 성공하였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실패하였다고 하며, ‘나’가 나폴레옹의 삶 중 성공했을 때만 보고 세상 물정을 거스르며 살려고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폴레옹의 도전 정신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저씨가 아니라 ‘나’이다.
- ③ 아저씨는 나폴레옹처럼 살려는 ‘나’를 비판했을 뿐, 나폴레옹이 세상 물질이 변한다고 믿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 ④ 아저씨는 나폴레옹이 세상 물질에 순응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나’에게 나폴레옹이 성공한 경우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 것으로, 세상 물질에 순응하여 성공한 나폴레옹처럼 살아가는 안 된다고 충고한 것은 아니다.
- ⑤ 아저씨는 ‘나’가 세상 물정을 거스려 살아서라도 사회적 성공을 하겠다고 한 것을 지적하였을 뿐, ‘나’가 세상 물정을 지배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아저씨는 아내가 자기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고생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고생하는 게 나’이 될 수도 있다며 아내의 고생을 외면하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한다. 이는 제 가족조차 돌보지 않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당대 지식인의 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일 뿐,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일제 식민 통치라는 사회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저씨는 ‘제 개성을 속여 가면서 끼적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다고 말하며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는 ‘나’를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저씨가 ‘생활’과 같은 물질적 가치보다 ‘개성’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나’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조선인의 자부심을 버리고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같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화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나’가 일제 식민 통치라는 비극적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현실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려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아저씨가 개인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루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루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개인이 원하는 바가 있어 ‘계획이나 기회’를 만들어도 제힘만으로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즉 ‘나’가 개인의 성공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잡으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⑤ ‘나’는 아저씨가 고생하는 아주머니의 은공을 나중에 갚겠다는 말을 하자 그가 ‘남’에게도 패를 끼치고 ‘세상’에도 해를 끼치는 부정적 인물이라고 판단해 가정과 사회를 위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아저씨를 매우 부정적 인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현대 소설

본문 177~180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④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해제 > 이 작품은 195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전쟁이 평화로운 농촌 마을과 그곳 주민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 준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마을은 나룻배만이 외지에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 수단일 정도로 세상과 고립된 공간이지만, 전쟁은 이런 마을의 청년들을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밖으로 고집어낸다. 주인공인 뱃사공 ‘배삼바우’는 자기 아들과 마을 청년들을 나룻배를 통해 전쟁터로 떠나보내고 전쟁에서 상처 입은 청년들을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거나 청년들의 전사 소식을 전하는 인물로,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그가 청년들을 전쟁터로 데려가려는 외지 사람들을 자신의 나룻배에 태우지 않으려는 행위는 무의미한 저항처럼 보이지만 힘없는 이가 보이는 세상에 대한 치열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주제 > 전쟁의 폭력성과 참혹성에 대한 폭로

전체 줄거리 > 배삼바우는 마을과 외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배를 모는 사공이다. 전쟁이 터진 얼마 후 삼바우는 자기 아들인 용팔, 양 생원의 아들이자 순녀의 남편인 천달, 모랑댁의 아들인 두칠을 배에 태워 전쟁터로 떠나보낸다. 그들이 전쟁터로 간 사이에 순녀는 아들을 낳았고, 모랑댁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삼바우는 마을 청년 동식과 수만도 배에 태워 전쟁터로 떠나보낸다. 설이 지나고 봄이 되자 갑자기 두칠이 눈을 잃고 도깨비처럼 변한 채 마을로 돌아온다. 두칠을 좋아했던 삼바우의 딸 갑분이는 그런 두칠을 보며 무섭기도 하고 서럽기도 한 감정을 느낀다. 시간이 흘러 천달의 아들 대열의 두 돌이 지난 가을의 어느 날 천달의 전사 통지가 배달된다. 마을 사람들은 양 생원과 순녀를 위로하며 천달을 장사 지낸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삼바우는 읍내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마을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기 위해 배를 타려 하고 있음을 직감한다. 그는 나룻배를 움직여 그들을 배에 태우지 않고 혼자 마을로 돌아간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서술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⑤은 초점화자인 삼바우의 눈에 비친 대상의 변화를 서술한 것으로, 이는 삼바우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①은 마을에서 나는 울음소리의 주체가 양 생원네 집 사람들을 제시하여 일어난 사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②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묘사하여 자식의 유골을 가지러 가는 그의 침울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④ ④은 삼바우가 힘 있게 배에 오르자 뱃머리가 솟구치는 역동적인 모습의 배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⑤은 삼바우의 생각을 직접 제시하여 그가 외지 사람들을 배에 태우지 않으려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밤새 마을에 부는 스산한 ‘바람 소리’는 천달의 죽음으로 무겁고 우울해진 마을 사람들의 심리를 청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또 양 생원이 천달의 유골을 가지고 돌아오는 강가의 강물과 하늘을 물들이는 ‘별건 불길’은 자식을 잃은 양 생원과 남편을 잃은 순녀의 울분에 찬 심리를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바람 소리’와 ‘별건 불길’은 시련을 당하는 인물들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감각적으로 드러낼 뿐, 시련 해소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바람 소리’와 ‘별건 불길’은 모두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할 뿐, 낭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④ ‘바람 소리’와 ‘별건 불길’은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뿐, 사건의 긴장감을 이완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⑤ ‘바람 소리’는 인물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상징할 뿐, 인물들이 겪는 외적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별건 불길’ 역시 인물의 괴로운 심리를 상징할 뿐, 한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궁둥이를 탁 치’는 것은 자기가 내린 결정이 매우 재치 있는 것이라고 여긴 삼바우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고의춤을 불끈 추켜올’린 것은 그 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①은 양 생원네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낼 뿐, 양 생원네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무시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② ②는 이미 배에서 내려 읍내로 가는 길에서 순녀가 보인 반응

으로, 남편의 유골을 가지러 읍내로 가는 순녀의 괴로운 심리가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③ ㉔는 삼바우가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인지 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행동이다.

⑤ ㉔는 자신들을 배에 태우지 않은 삼바우에 대한 두 사람의 분노를 나타내는 한다. 그러나 삼바우가 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며 적개심을 표출하지는 않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삼바우는 총을 맨 사람과 양복쟁이를 보고 그들이 마을 청년 중 누군가를 전쟁터로 데려갈 사람들이라고 직감하고,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곧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데, 자신이 마을 청년을 강 밖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여긴 삼바우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강 안과 강 밖을 매개하는 뱃사공의 역할을 해야 하는 괴로움을 나타내는 것일 뿐, 뱃사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삼바우가 천달의 유골을 가지러 가는 '양 생원네'를 배에 태우고, '읍내'로 가는 그들을 보며 '크게 한숨을' 쉰다. 이는 강 밖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에게 느끼는 삼바우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다.

② 삼바우가 돌아온 '양 생원이 안고 있는 상자', 즉 천달의 유골 상자를 '받아 들려고' 한다. 이는 전쟁의 피해자로서 그 참혹성을 몸소 겪은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③ 삼바우가 '총을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과 '양복쟁이'를 보고 그들이 강 안 사람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여겨 '가슴이 덜컥'한다. 이는 자신으로 인해 이전에 마을 청년들이 겪었던 것처럼 마을의 누군가가 또 강 밖 세계의 폭력성에 노출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드러낸 것이다.

⑤ 삼바우는 외지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 길을 끊어 버리고' 난 후 '이만저만 통쾌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마을과 강 밖의 세계를 단절하는 방식으로 소박하게나마 저항함으로써 강 안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 박경리, 「불신 시대」

해제 > 이 작품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작가 박경리의 자전적 소설로, 6·25 전쟁 이후 도덕성의 붕괴로 인해 혼탁해진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궁핍과 인간성의 상실은 작품 속의 종교계, 의료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불신'이 팽배한 시대 현실 속에서, 무기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 전쟁 이후의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분노와 고발

전체 줄거리 > 6·25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진영은 하나뿐인 아들 문수마저 잃는다. 문수의 죽음은 엑스레이도 찍지 않고 약도 챙겨 주지 않은 의사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아들 문수의 죽음으로 진영은 사회를 불신하게 된다. 상실감을 잊기 위해 진영은 종교에 매달리고자 하나, 그런 진영의 눈에 비친 타락한 종교계는 그녀에게 분노를 안겨 줄 뿐이다. 또한 폐결핵인 진영이 찾아가던 병원은 한결같이 엉터리에,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난무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진영의 돈을 떼어먹은 갈월동 아주머니는 사기로 인해 돈을 잃게 된 자신의 고민을 진영에게 털어놓는다. 진영은 이러한 시대의 문제에 지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에 분노를 터뜨린다. 사회의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 진영은 절에 맡겼던 문수의 위패와 사진을 불태우고 삶의 의지를 다진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울고 싶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 뒷산으로 올라간 진영은 산등성이에서 너절한 시가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 속에서 절과 예배당,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 조화를 깨뜨린 잡다한 생활을 발견한 진영은, 이러한 도시 속에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로수나 구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만으로 진영의 답답한 마음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진영이 도시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떠올리며 답답한 마음을 해소한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당초 극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연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하는 것이었다.'를 통해 진영이 폐결핵을 방치하여 다른 병까지 병발하는 바람에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Y 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속였고 S 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리고 H 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를 통해 진영이 방문한 병원 세 군데에서의 경험은 진영에게 병원을 불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진영은 병원에 가는 것을 중지하고 만다.

③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고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만 원을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원금 십만 환은 다 받은 셈인데'를 통해 아주머니가 진영에게 돈 십만 환을 빌렸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진영과 했던 약속을 지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

05 현대 소설 본문 181~184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①

패를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말했다.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를 통해 아주머니가 진영이 아들 문수의 위패를 절에 맡긴 것에 대해 탐탁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0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는 과거의 기억이 동시다발적으로 떠올라 진영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진영이 겪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부각하고 있다. [B]에는 산에 올라온 진영이 천막집에서 나온 소녀와 천막집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한 후, 전쟁 이후의 힘겨운 사람들의 현실 상황을 직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진영은 자신이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는 진영의 시각에서 느끼는 고통과 무서움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B]에는 힘겨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한 진영이 그들에 비해 자신이 나은 상황임을 깨닫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인 진영의 시선을 통해 그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을 뿐, 관찰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는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 처럼’과 같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B]에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의 팔’, ‘집들이 마치 진땀물 모양으로’와 같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B] 역시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③ [A]에는 진영의 의식 속에 과거의 기억이 동시다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B]에는 산등성이에서 바라다보이는 시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너절’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시가의 모습은 가난, 혹은 전쟁 후 혼란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시대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A]에는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를 통해 기억들이 동시에 떠오르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진영의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B]에는 진영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빈민굴, 시가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전쟁 이후의 사회가 지닌 모순과 도덕성의 붕괴 등으로 지친 진영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하고, 자신들

답 ⑤

을 홀대하던 절에 더 이상 아들의 사진과 위패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절에서 아들의 사진과 위패를 찾아와 이를 태우므로써, 시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타락한 시대와의 연결 고리를 끊는다. 위패와 사진이 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본 진영은 자신에게는 아직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남아 있음을 마음으로 새기며 아들의 사진과 위패를 태운 언덕을 내려온다. 이는 진영이 타락한 시대에 맞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은 진영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타락한 사회에서 진영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지 삶에 대한 의지이므로, 시대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볼 수 없다.

② 진영이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태운 것은 오랫동안 마음에서 버려던 일이었다. ㉠은 진영이 아들의 사진과 위패를 불태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 현실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③ ㉠은 시대에 맞서 진영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므로, 사람들에게 의해 상처받은 진영이 느끼는 비판적인 심정으로 볼 수 없다.

④ ㉠은 시대나 현실에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반항하겠다는 진영의 의지가 드러나므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진영이 느끼는 불안감으로 볼 수 없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진영은 폐결핵을 방치한 탓에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고통을 받다 환각을 겪으며 정신적인 아픔에 시달린다. 이를 통해 진영은 전쟁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수의 위패를 절에 맡긴 진영에게 ‘당신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겠수.’라고 무안을 준, 절의 중은 전쟁 이후의 속물적인 인간상을 반영하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전쟁 이후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상실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는 거리에서 가짜 주사약을 진짜라고 속이고 파는 상인들은, 전쟁 이후의 속물적인 인간 군상으로 도덕성이 붕괴된 전후 사회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환자의 치료를 도와야 할 병원에서 주사약의 분량을 속이고, 엉터리 의사가 진찰을 하고, 빈 약병을 파는 행위는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감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진영이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를 가짜 주사약을 태연히 진짜라고 속이며 파는 ‘상인 따위’와 같다고 인식하는 것은, 믿음을 얻어야 할 의사와 병원이 불신을 얻게 된 사회적 모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집을 나와 뒷산으로 올라간 진영은 황량한 산에서 군데군데 서 있는 천막집을 바탕으로 하나의 빈민굴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한다. 이는 삶의 터전을 잃고 경제적 궁핍을 겪은 이들이 한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전후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종교계마저 타락해 버린,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낀 진영은 절에 맡긴 아들의 위패와 사진을 찾아온다. 그리고 아들의 위패와 사진을 한참 바라보던 진영이 그것들을 태우고, '무참히 죽어 버린 추억'만이 본인에게 남아 있을 뿐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무참히 죽어 버린 추억'은 불신 시대가 진영에게 남긴 것으로, 전후 사회의 현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에게 느끼게 하는 삶에 대한 환멸로 볼 수 있다.

06 현대 소설 본문 185~188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⑤

■ 이병주, 「관부 연락선」

해제 > 이 작품은 유태림이라는 식민지 지식인 청년의 행적과 삶을 통해, 일제 강점, 해방, 6·25 전쟁이라는 우리의 현대사를 성찰하고 당시를 살아가던 지식인들의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유태림이라는 중심인물의 삶에 대해, '나'의 기억과 유태림이 쓴 수기인 '관부 연락선'을 교차하여 서술하는 방식과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과 구성 방식을 통해 일제 강점과 이념 대립의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당시의 시점과 1960년대의 시점에서 통합하여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지나온 역사를 통찰하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지식인의 비애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 해방 전후의 혼란한 사회적·정치적 상황과 지식인 청년의 고뇌

전체 줄거리 > 해방 후 '나'(이 선생)는 일본 유학 시절 대학 동문이었던 일본인 E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나'는 E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행방불명된 조선인 동문 유태림의 소식을 알려 주는 대신, 유태림이 쓴 수기 '관부 연락선'을 받아 보기로 한다. 유태림에 대한 '나'의 기억과 그의 수기 '관부 연락선'을 통해 유태림의 행적과 생각이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유태림은 C시 유지의 자제로 뺀어난 수재였지만 항일 운동에 휘말려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일본 대학으로 진학한다. 그는 일본 대학의 문학과에서 일본인 학생들과 교류하며 문학과 철학을 논하는가 하면 조국의 미래에 대해 번뇌하기도 한다. 유태림은 학생으로 징집되고 중국 전선으로 끌려간다. 중국에서 해방을 맞은 그는 조국으로 돌아오지만, 조국은 이미 극심한 이념 대립의 공간이 되어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유태림은 스스로 고향에 내려가 교편을 잡고, 이념 대립으로부터 청년 학생들을 지켜 내고 이끌어 간다. 하지만 유태림은 빨

치산에게 납치되어 행방불명이 되고, 질곡의 현대사를 살아가야만 했던 지식인 청년은 비극적 운명을 맞는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허봉도의 말에 따르면, 안달영은 대학 시절 사상 관계로 여러 차례 투옥된 적이 있으며 그런 이유로 나이가 많은데도 학생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허봉도는, 교양회 개최 장소를 빌리려는 안달영의 의도를 전담하기 위해 유태림을 방공호로 끌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안달영은 유태림에게 조국의 해방을 눈앞에 두고 돌맹이 한 개 치우는 노력마저 하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달영은 유태림이 자신이 개최하려는 교양회 장소를 빌려주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유태림은 창고 이용과 관련하여 허봉도와 시비를 벌이는 것이 보람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허봉도에게 생각할 여유를 달라면서 헤어졌다.
- ⑤ 유태림은 안달영에게 창고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며, 자신은 주이나 사상, 독립운동보다도 같은 부대에 있는 조선인 학생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02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는 '(중략)' 이후에 제시된 유태림과 안달영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내막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 인물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특정 사안에 대한 인물의 내면 의식이 일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물이 외부 세계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A]에는 서술자가 유태림과 허봉도 사이에 있었던 일과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지만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A]에 허봉도가 안달영의 과거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으나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A]에 허봉도가 유태림을 방공호로 끌어들여 창고 이용을 요청하는 사건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3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유태림은 독립운동이 반드시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해야 한다

는 안달영의 말을 듣고, 미합중국, 필리핀, 인도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며 그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유태림이 안달영과 허봉도에게 한 말 중 상대의 행동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만 상대에게 타협을 종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유태림은 안달영과의 대화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절대시하고 강요하는 그의 신념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달영이 가진 공산주의 신념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유태림과 안달영의 대화에서, 유태림이 안달영의 도덕적 결함을 언급하며 상대의 주장이 지닌 윤리적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유태림과 안달영의 대화에 등장하는 중심 화제로는 독립운동, 공산주의, 정체 등이 있지만, 유태림이 이러한 중심 화제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 글에서, 유태림이 안달영에게 그가 가진 신념에 대해 참견할 의사가 없다고 말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유태림은 안달영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그가 주관하는 모임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달영은 유태림이 모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간섭한 것이라고 항의하지만, 유태림은 모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부대에 있는 조선인 학병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태림이 안달영의 모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이데올로기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 혼란의 결과가 아니라 일본군에 소속된 조선인 학병의 생존에 관한 걱정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일본이 아직 패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병영 내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한 조선 독립에 대해 조선인 학병들이 교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 것은 당시가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음을 나타낸다.
- ② 유태림은 안달영에게 독립된 나라의 정체를 선택하는 것은, 먼저 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쟁취한 후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또 공산주의에 기반한 독립운동과 독립만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안달영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태림은 이데올로기적 획일성을 거부한 사상적 유연성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③ 유태림은 안달영에게 독립운동은 종교, 직업, 계급을 비롯해 이념이나 사상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독립에만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태림은 이데올로기에 휘말리지 않은 순수한 생각을 지닌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안달영은 유태림이 창고를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일말의 애국심이나 정의감도 없는 사람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기반한 독립운동과 나라의 독립만이 바르고 합당한 것임을 유태림에게 역설하며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07

현대 소설

본문 189~192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④

■ 박완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해제 > 이 작품은 전쟁과 분단으로 고통받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1970년대의 폐쇄적 사회 분위기와 당시 소시민들이 겪었던 시대적 아픔을 그려 낸 단편 소설이다. 월북한 식구를 둔 주인공 모녀를 향한 정보기관의 추적과 감시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분단 현실이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정신적,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주인공이 '틀니'에서 느끼는 무게와 통증에 대한 묘사는 당대 한국 사회의 제약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우회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 전쟁과 분단의 상황으로 고통받는 소시민의 삶

전체 줄거리 > '나'의 이웃에 사는 설희 엄마는 가난한 화가인 남편과 함께 살며, 형편이 나아지면 지체 장애가 있는 설희를 미국으로 데려가 수술을 받게 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 한편 '나'는 6·25 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오빠로 인해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나'와 가족들이 정보기관에 연행되고, '나'의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기관원은 '나'에게 오빠가 곧 간첩으로 남파될 것이라며 오빠에게 자수를 권하라고 종용한다. 그 후 설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틀니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집에 돌아와 틀니를 빼자 통증이 사라지지만, 잠시 후 문밖에 찾아온 월북 책 장수와 어머니가 대화하는 것을 들으며 그를 오빠로 착각하고는 다시 심한 통증을 느낀다. '나'는 그 통증이 틀니 때문이 아니라 설희 엄마에 대한 선망과 질투,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제약과 중압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는 '턱뼈가 부서질 듯한 동통'의 묘사를 통해 틀니를 한 '나'의 신체적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이 드러난다. [B]에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머니와 '사십 대의 남자'의 대화 소리 묘사를 통해 월북했던 오빠가 몰래 집을 찾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여기는 '나'의 심리적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이 드러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틀니’를 화자가 느끼는 사회적, 이념적 중압감을 함축하는 상징적 소재로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미래의 사건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B]에는 시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의 집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이 속한 시대적 맥락이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다.
- ② [A]에는 ‘차중’, ‘길’에서 ‘내 집 문 앞’으로의 공간 이동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작중 분위기가 전환되는 상황이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다. [B]에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머니와 남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오고 이에 ‘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이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다.
- ③ [A]에는 틀니를 한 턱에 통증을 느끼는 ‘나’의 내면 묘사가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이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다. [B]에는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서술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A]에는 과거형의 진술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물의 반성이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다. [B]에는 현재형의 진술이 나타나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 상황, 즉 집을 찾아온 남자와 어머니가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나’의 추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나’는 일류 치과에서 고가로 틀니를 맞추었고, 틀니는 ‘내 손바닥에서 거의 무게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나’는 자신의 아픔이 ‘틀니에서 기인한 아픔이 아니었던 것’임을 깨달았다고 밝힌다. 따라서 ‘나’가 틀니를 무거운 것으로 맞춘 탓에 그에 따른 신체 거부 반응으로 통증을 겪는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는 ‘간첩이 된 혈연과는 상봉이 몰고 올 사건과의 당면이 두려운 나머지’ 오빠가 ‘넘어오다 차라리 사살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③ ‘나’는 대문 밖을 찾아온 월부 책 장수를 오빠로 착각하고는 오빠가 ‘어머니에게 도리어 월부를 권하고 아니 협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 ④ 설희 엄마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으며, ‘나’는 그런 그녀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풍토가 주는 온갖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에 대해 ‘선망과 질투’의 감정을 지니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 ⑤ ‘나’는 외당숙에 대한 정보를 가진 ‘그’로부터 오빠가 ‘이복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곧 남파되리라는’ 소식을 듣고 단속을 받는다. 또한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외가’, ‘오빠가 알 만한 대소가’도 ‘그런 일을 당’한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㉔은 대문을 두들기던 사내가 월부 책을 사라고 졸랐다는 점을 밝히면서 그 처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어머니’의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정체를 오해했음을 밝히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월북한 오빠가 남파되어 집에 들릴 경우 어떻게 할지 묻는 ‘그’의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그’는 ‘나’의 오빠가 남파될 것이라는 첩보를 가지고 오빠의 주변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 ‘나’는 그런 ‘그’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그’의 ‘전능’함을 느끼고는 ‘신고’를 하거나 ‘자수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㉑은 ‘나’가 위세에 눌려 ‘그’가 원하는 바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㉒은 오빠가 집에 들릴 경우 자수를 시키겠다는 ‘나’의 말에 대한 ‘그’의 반응이다. ‘그’는 ‘나’의 말에 ‘잘 생각’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드러내고는, ‘아주머니만 믿겠’다면서 ‘나’가 말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환기하고 있다.
- ③ ㉓은 ‘어머니’가 집에 들른 오빠에게 자수를 권하더라도, 오빠가 ‘이 에미 말을’ 듣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염려를 드러내는 말이다. 따라서 ㉓은 ‘어머니’가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염려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㉔은 ‘나’가 턱에서 통증을 느끼다가 틀니를 뺀 직후 느끼는 현재의 편안감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갖 사는 어려움’에서 벗어난 설희 엄마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편안감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는 길에서 틀니를 해 넣은 턱에 통증을 느끼다가 집으로 돌아와 틀니를 빼내고는 ‘가볍다 못해 공중으로 등실 뜨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기분일 뿐, ‘나’는 불안을 느끼자 다시금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보기>를 참고하면 ‘나’의 이 불안은 사회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가 잠시 틀니를 빼낸다고 해서 이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볍다 못해 공중으로 등실 뜨는 듯’한 기분이, ‘나’가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다면 느낄 해방감을 보여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를 참고하면, 오빠에 대한 첩보를 바탕으로 오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신고나 자수를 종용하는 ‘그’는 권력 기관의 감시를 수행하는 인물이며, 이러한 감시는 분단 시대의 냉전적 사회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가 설사 내 딸 연이가 현이라고 했다면 아마 내 딸은 현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라는 서술은, 이러한 권력 기관의 감시가 딸의 이름에 대한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나’의 의식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를 참고하면, 월북한 식구를 둔 가족들에게 연좌제가 적용될 수 있었던 당대의 현실에서 ‘남편과 어머니’, ‘외가’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오빠가 알 만한 대소가가 다 한 번씩 그런 일을 당한’ 일은 월북한 식구를 둔 이들의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까지 감시를 당하던 당대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를 참고하면, ‘나’는 전쟁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는 사회 속에서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임을 파악할 수 있다. ‘십팔 평 블록 집 속의 안일’은 이러한 ‘나’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면서 지키려 하는 일상적인 행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하면, ‘나’는 이념 갈등에 따른 분단 상황에서 사회적 제약을 경험하면서 이념의 중압감을 깨닫게 되는 인물임을 파악할 수 있다. ‘어태껏 얼마나 교묘하게 스스로를 이중 삼중으로 기만하고 있었나를’ 깨달았다는 서술은, 이러한 ‘나’가 아픔의 원인을 직시하면서, 애써 외면한 채 살아왔던 이념의 중압감을 깨닫게 되는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08

현대 소설

본문 193~196쪽

01 ②

02 ②

03 ①

04 ③

■ 이문구, 「해벽」

해제 > 이 소설은 1970년대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한 어촌 마을이 몰락하는 과정을 통해 산업화로 인한 폐해를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속 사포곶은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어촌 마을로, 급변하는 산업화의 현실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 주는 공간이다. 미군 부대의 유입과 산업 지형의 변화를 둘러싼 권력 암투와 이해타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진투구는 인간을 소외시키고 타락시킨다. 작가는 이와 같은 70년대의 현실을 사실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다.

주제 >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몰락해 가는 어촌 마을의 비극

전체 줄거리 > 사포곶 어업 조합장인 조등만은 사포곶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출어세를 거두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그 노력이 좌초된다. 때마침 미군 부대가 마을에 들어오고, 이로 인해 사포곶은 타락한 공간으로 변한다. 마을에는 미군의 횡포로 인해 흉측한 일들이 벌어진다. 변화된 시류에 한몫을 잡으려는 부류들로 인해 조등만은 어업

조합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소유한 배마저 조난당한다. 간척 사업의 시작으로 사포곶은 폐항이 되고, 생계가 막막해진 조등만과 어민들은 어살을 놓으며 희망을 놓지 않는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의 서술 주체는 전지적 서술자이지만 [A]에서는 주로 인식의 주체인 ‘조’의 관점에서 ‘승산 꼭대기의 불빛’에 대한 그의 생각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의 서술 주체는 행위 주체인 ‘조’의 관점에서 그의 생각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을 뿐, ‘조’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③ [A]의 서술 주체는 전지적 서술자이고, 인식 주체는 작품 속 인물인 ‘조’이므로, 두 주체가 일치하지 않고, 서술 주체가 행위 주체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도 않다.

④ [A]의 행위 주체는 ‘조’이고 서술 주체는 전지적 서술자이므로, 두 주체가 구별되기는 하지만 서술 주체가 ‘조’의 과거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A]의 행위 주체는 ‘조’이고 서술 주체는 전지적 서술자이므로, 두 주체가 일치하고 있지도 않고, 서술 주체가 다양한 인물의 행위와 심리를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도 않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조’가 느끼는 불안감은 미군 부대로 인해 마을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뀔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자신의 지위가 무너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포곶의 능력과 지녀 온 저력을 가늠해’ 보겠다는 것은 사포곶의 능력과 저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태도이므로, ‘조’가 사포곶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의 앞부분을 보면, ‘조’는 정부가 어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은 정부나 기관의 역할에 대해 ‘조’가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조’가 마을의 몰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어살’을 맨 일인데, ‘어살’은 전통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장치로, 이를 통해 ‘조’는 결국 어부로서의 충실한 삶을 통해 마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⑤ 과거 마을의 중요한 직책들을 역임한 그가 ‘남의 눈’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은 ‘조’ 자신의 체면보다 마을의 문제 해결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03 소재의 가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㉔는 나라에 번고가 생겼을 때 올리던 것이고, ㉕는 '조'로 하여금 '공갈과 협박의 가면'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둘 다 '조'에게 불길함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㉖가 변화에 대한 일부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함축한 것일 수는 있으나, ㉔는 그렇지 않다.

③ ㉔는 과거 나라에 번고가 생겼을 때 올리던 것이므로, 문명의 불빛으로 보기 어렵다. ㉕는 미군 부대에 설치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명의 불빛'으로도, 또 '조'가 느끼는 것처럼 '야만스런 광채'로도 볼 수 있다.

④ ㉔는 평온함과는 거리가 먼 불빛이고, ㉕는 '조'와 같이 사람에게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불빛일 수 있다.

⑤ ㉔는 나라의 번고를 알리는 불이라는 점에서 상서롭지 못한 기운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고, ㉕는 경우에 따라 상서롭게도, 그렇지 않게도 생각할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사포곳의 변모와 그 후발증에 대해 무척 관심을 가진 것은 '조'이고, '조'가 이에 관심을 둔 것은 변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사포곳이 '미군들이 뿌릴 이질적인 풍속과 마주치면 어느 만큼이나 제 모습을 지키며 가꿀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미군 부대'는 외부 세력이고, 이것의 유입을 통해 '사포곳의 제 태깅이 점차 바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외부 세력으로 인해 전통적 어촌 마을이었던 사포곳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미군 부대의 유입과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해 '덕 불 궁리에 기대 건 사람'은 변화하는 시류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어민 구실도 제대로 못 해 본 채 갯물만 허거물쓰듯 커 온 몇몇 어민들'은 농촌 근대화라는 시류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들을 시대 변화에 도태되어 몰락해 가는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농촌 근대화로 인해 변화하는 현실에서 어민으로서의 삶을 고집하면 생활고가 가중될 것이라는 말은,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9

현대 소설

본문 197~201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①

■ 김원일, 「미망」

해제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부터 6·25 전쟁을 거쳐 분단에 이르는 격변기에 크나큰 상실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나'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상처를 보여 주는 소설이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나'의 '아버지'가 희생되고, 이 때문에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는 깊은 갈등과 불화가 생긴다. 역사적 질곡의 희생자라는 공통점을 가졌으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작품 결말 부분에 등장하는 '보도 연맹 가입증'은 '할머니'가 '아버지'에 얽힌 한을 끝내 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음을 알게 해 준다.

주제 > 현대사의 질곡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

전체 줄거리 >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에 살고 있다. 할머니는 고모네 집에 사시다가 그 집 사정이 어려워지자 옮겨 오셨고, 어머니는 울산에서 장사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큰아들인 '나'의 집으로 오시게 된 것이었다. 고부지간인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한 지난 다섯 달 동안 여섯 번이나 싸웠는데, 일단 싸움이 나면 할머니는 식사를 하지 않고 두 분은 잠도 함께 자려 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대립한다. '나'와 아내는 두 분의 싸움을 중재하려 애써 보지만 번번이 허사이다. 이러한 갈등은 오래전부터 쌓인 것으로, '나'의 아버지, 즉 할머니의 아들이자 어머니의 남편이 실종된 일과 관련이 있다.

갯마을에서 태어나 힘들게 살던 할머니는 열아홉 되던 해에, 상처한 서른한 살 홀아비와 혼인하며 모화로 온다. 할머니가 아들 둘을 잃은 후 얻은 영특한 셋째 아들('나'의 아버지)은 중학교 졸업 후 야학당을 개설하고 농민 운동을 시작해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는다. 결혼 후에도 농민 운동을 그만두지 않은 아버지가 해방 후에 좌익 활동을 하자 어머니는 자주 지서에 연행돼 고초를 겪지만,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두고 자기 딸인 고모네 집에 가서 지내다가 아버지가 자수한 후에야 집으로 돌아온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는 다시 중적을 감추고, 할머니도 다시 고모네로 간다. 그 후 어머니는 어린 '나'와 동생을 데리고 모화를 떠나 울산에서 살아 간다.

회사에서 일하던 '나'는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급히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냉랭한 말만 하지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갈치를 두 마리 사 들고 온다. 그러나 그사이에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통곡 후에 유품을 정리하던 고모는 할머니가 사십여 년이나 차고 다닌 비단 꽃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조그마한 사진이 붙은 '보도 연맹 가입증'을 발견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㉞는 서술자 '나'가 젓먹이 아기였던 때의 사건에 관한 서술이므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기억을 회상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발화를 직접 혹은 간접 인용했다는 표지가 없어서,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일을 회상한 서술과 표면적으로 구별되지 않을 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있었다 했다.'를 통해 타인에게 들은 내용을 간접 인용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 ③ 타인인 어머니의 발화가 직접 인용된 대목의 일부분이다.
- ④ 서술자 '나'가 직접 보고 들은 경험에 대한 회상이다.
- ⑤ 어머니의 행동을 서술자 '나'가 관찰한 것이므로,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고모가 한평생 호강도 못 해 보고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애달픈 감정이 북받쳐, 할머니가 당신의 딸인 자기네 집에 머무실 때와, 손자인 '나'의 집에 머무실 때 각각 사위와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힘드셨을 거란 말을 하는 것이다. 할머니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하는 짓까지 '알뎀뎀' 할머니가 그래도 '집에 오니까 반갑'더라는 과거 일에 대한 어머니의 진술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느꼈던 두 가지 모순된 감정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아버지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로, 모친께 불효하고 처자식을 버린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 있을 수가 없다는 원망을 토로한 것이다.
- ③ ㉣은 모화를 떠나 울산에 도착하여 '문전걸식 동냥질'을 할 때, 몸에 이가 끊고, 세수도 못 한 얼굴로, '찌든 이불'을 옷 대신 두르고 살았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 ④ ㉤은 자식들에게 '거칠고 매정'하며 '매질'도 하곤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나'가 '뜨겁게 이해하게 된' 변화에 대한 언급이다. 그 후 '나'는 어머니가 매를 때릴 때에도 '순종으로써 어머니의 한풀이를 달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남편이 실종되고 시어머니도 돌봐 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아

이 둘을 키우기 위해 '갈뱅이짓'을 비롯해 갖은 고생을 하던 어머니는 '오냐, 내가 이 두 자식을 질질이 키아서 옛말하고 살 때, 내 팔세한 이눔은 시상, 어데 두고 보제이. 내가 무명지를 깨물어 맹세하미 나를 젓도 읊는 쪼그라진 가슴팍에다 피로써 십자기를 그'리느라고 손가락의 살점이 날아간 상태이다. 따라서 '손가락'은 갖은 시련을 견디며 자식들을 보란 듯이 잘 키워서 언젠가는 이 모진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어머니의 독한 의지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손가락을 깨물며 맹세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미친놈으 서방. 그놈 믿고 자식들까지 싸질러가미 살은 내가 등신이지려.'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강한 원망의 태도를 보인다.
- ② 어머니는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의지를 다지며 깨문 '손가락'이 그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어머니가 극심한 이념 대립 때문에 염세적인, 즉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태도를 가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 ⑤ 어머니는 할머니와 갈등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어머니 손가락의 살점이 날아간 것은 아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지서 순경들이 거의 우리 집에 살다시피' 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타작매를 당하셨던지 온몸에 피멍이 들어 돌아'오곤 했던 것은 '남로당 모화책에 울산지부 조직부장책을 맡아 뛰'면서 집을 자주 비우는 아버지를 좌익 관련 수사 기관이 검거하려 했기 때문인데, 이때는 아버지가 보도 연맹에 가입하기 전이다. 보도 연맹의 예비 검속은 6·25 전쟁 발발 후의 일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③ '남로당 모화책에 울산지부 조직부장책을 맡아 뛰었'기 때문에 지서의 순경들에게 쫓기며 숨어 다니던 아버지는 '어디선가 모화로 돌아와 지서에 자수를' 했는데, 이는 좌익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도 연맹인강 먼강, 거게 가입해서 겨우 도망 안 탕기도 되는 살길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6·25 전쟁이 나자 아버지는 다시 '매칠 만에 온다 간다 말없이 사라지 뿌'리고 말았는데, 이에 관해 어머니는 '보도 연맹 가입자들을 예비 검속한다 카는 소문을 어데서 들은' 것 같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를 <보기>의 설명과 관련지어 본다면, 아버지가 사라진 것은 예비 검속에 의해 구금되어 고문을 동반한 취조를 당할 것을 예감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 ④ '지금도 이북 어데 자식이 살아 있겠거니 하'며 아버지를 하염없이 기다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고모가 유품을 정리할 때 '달

아빠진 비단 꽃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모서리가 닳은 그 증명서', 즉 보도 연맹 가입증이 나왔다.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보도 연맹원들을 법적인 공민의 지위에서 제외했음을 보여 주는 증명서이다.

⑤ 고모의 뉘두리에 따르면, 할머니는 아들이 '보도 연맹에 자수해서 재판도 받을 필요 없다'면서도 '대역적인 아들이라고 남한테 아들 말 한분 속 시원케 몬 해 보고' 살았다고 하였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만일 좌익 전향자를 계몽, 지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보도 연맹의 말이 온전히 지켜졌다고 할머니가 느꼈다면, 아들을 '대역적인'이라고 여겨 '남한테 아들 말 한분 속 시원케 몬 해 보고'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10 현대 소설 본문 202~206쪽

01 ⑤ 02 ① 03 ① 04 ②

■ 임철우, 「눈이 오면」

해제 ▶ 이 작품은 고향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총동적으로 길을 떠났다가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이 도시 개발로 사라졌음을 알게 된 주인공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로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상실감을 그린 소설이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주인공 '그'가 치매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고향 마을을 찾아 나서는, 일종의 여로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 어린 시절을 보낸 그곳에 당도했지만 마을을 밀어 버리고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주인공의 모습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현대인이 느끼게 되는 가치관 혼란과 부적응을 형상화한다.

주제 ▶ 산업화로 인해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전체 줄거리 ▶ '그'(찬우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가장이다. 몇 달째 봉급을 주지 않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진 '그'는, 두 달 전부터 자꾸만 고향 마을 '꼬두메'로 가자고 난데없이 외치는 등 치매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모시고 총동적으로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난다. '그'가 세 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 어머니는 홀로 어렵게 두 아들을 키웠다. 그런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꼬두메를 향해 밤새 달리는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도착한 '그'는 어린 시절의 그 마을이 아파트 단지로 뒤바뀌어 이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마저 찾을 수 없게 되어 망연자실해진 '그'가 묘 이장에 대해 알아보는 사이 어머니는 간곳없이 사라져 버린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는 '병든 개처럼'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그'가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느꼈던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고, [B]에서는 '그것', '그 잣고개', '거기' 등의 지시 표현을 활용하여 옛 고향 마을을 묘사함으로써 '그'가 기억하고 있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와 [B]에 '그'의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소재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A]의 '병든 개처럼'을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것이 공간에 얽힌 인물의 내력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고, [B]에는 과장된 표현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A]에는 기차 차창을 바라보며 뇌까리는 인물의 행동이 드러나 있으나 이것이 갈등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B]에서는 어머니의 행동을 언급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것을 두고 인물의 행적에 대한 요약적 서술이 드러난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 ④ [A]에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B]에서는 공간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목적이 부근에 왔으나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머니의 상황을 나타낸 문장이다. ㉠에서 '그'의 책임감이나 어머니의 탈진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에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하여 확인하는 것, '환상'이 아니라는 언급 등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지만 자신이 기억하던 모습과 너무 달라진 모습에 눈에 보이는 것조차 믿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다.
- ③ ㉢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아 고향 마을 꼬두메를 찾으며 같은 곳을 계속 헤매는 '그'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다.
- ④ ㉣에서 '그'가 온몸의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착오로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한 고향 마을에 자신이 이미 와 있다는 것, 그리고 고향 마을이 개발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그'가 허탈함을 느끼게 된 것을 나타낸 표현이다.
- ⑤ ㉤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무작정 고향으로 내려오는, 지나치게 총동적인 결정을 내렸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영똥하기 그지없'었다며 후회하는 '그'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해당 구절은 ‘그’가 고향과의 정서적 연결을 상실한 채 삭막한 도시에서 외롭고 불안한 생활을 해 왔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홀로 뒤처졌다는 언급이나 그 이유는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비포장도로에서 포장도로로 개발된 옛 마을의 도로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찾아온 고향 농촌의 소박한 마을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충동적으로 도시에서의 생활을 뒤로 하고 정서적 안식처를 찾아왔지만 그곳을 찾을 수 없게 된 ‘그’의 모습은 고향 마을로 돌아갈 수 없는 현대인의 상실감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③ 기억 속 지명에 의존하여 고향 마을을 찾아온 ‘그’는, 도착 후에야 기억 속 공간이 이미 소멸했음을 알게 된다. 이는 농촌 마을의 개발이 그 공간에 뿌리를 둔 개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 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고향을 상실한 개인들은 변화에 부적응하게 되고 소외감을 경험한다.

④ 아버지를 모셨던 묘지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보며 ‘그’는 고향집에 이어 아버지의 무덤마저 찾을 수 없게 되었음에 당황한다. 아버지의 무덤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개인이 고향에 정서적 뿌리를 두고 있음을 상징하는 곳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잃었다는 면에서 ‘그’가 국가 주도의 개발로 박탈감을 느끼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그’의 어머니는 고향 마을에 도착하고서도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반복해서 ‘우리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한다. 급격한 도시화로 ‘우리 집’이라는 정서적 안식처를 잃고 인지적 혼란을 느끼는 개인의 모습이 ‘우리 집’을 반복적으로 찾는 어머니를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04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분묘 이장 공고’는 묘가 들어선 공간의 철거, 시공 등을 이유로 묘를 옮겨야 함을 안내하는 공공 기관의 광고이다. 동사무소를 찾아가 공동묘지에 대해 물었을 때 ‘분묘 이장 공고’를 보지 못했느냐는 ‘사내’의 말을 듣고 ‘그’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분묘 이장 공고를 내고 아파트 시공을 시작했던 것을 국가 주도적 개발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가 자신의 의견 개진 기회를 잃은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그’는 공고를 보지 못했느냐는 말에 당황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뿐,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분묘 이장 공고를 동사무소의 ‘사내’가 낸 것이라는 언급은 찾

을 수 없다.

⑤ 분묘 이장 공고는 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지 고향을 떠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내’는 ‘그’가 묘를 잃은 것을 모르고 있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을 뿐, ‘그’의 고향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11 현대 소설 본문 207~211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③

■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해제 ▶ 이 작품은 어른이 된 서술자가 유년을 보냈던 동네를 방문하여 재개발 현장에서 어릴 적 사건을 회상하고, 사라져 가는 마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성장 소설이다. ‘나’는 과거 항아리를 깨뜨린 사건을 통해 세상은 자신과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게 된다. ‘나’에게 성장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주변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유년기 기억을 통해 깨달은 성장의 의미

전체 줄거리 ▶ ‘나’는 재개발이 시작되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추운 겨울날 잔치 항아리를 깨뜨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나’는 어느 날 새벽에 소변을 보러 나갔다가 공동 주택의 이웃 할머니의 잔치 단지를 깨뜨리고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한 나머지 깨진 단지를 눈사람 속에 숨겨 놓고 집을 나와서 방향한다. 괴로움에 고뇌하며 일부러 더러운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귀가하게 되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이 저지른 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나’를 대한다. ‘나’는 그런 세계가 낯설어 울음을 터뜨리고 성장하게 된다. 과거의 일을 회상한 ‘나’는 재개발 지역에서 ‘창이 형’을 만나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떠난 빈집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을 보며 자신을 지탱해 왔던 기억과 그 기반이 된 산동네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쁘드득거리는’, ‘푸드덕푸드덕’, ‘물컹물컹하게’, ‘무력무력’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곧 본인이 항아리 단지를 깨뜨리게 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과거 상황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물의 행동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건의 원인을 분석적으로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요약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물의 내면이 변화하고 있지도 않다.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물 내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다.

④ '낮은 툄신 밑에서 뽀드득거리는 소리'에서 눈이 쌓인 장면을, '이빨을 위아래로 서너 번 맞부딪치며'에서 추운 겨울날의 계절감을 느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독자의 긴장감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렵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서 '박탄-D 병의 밑바닥을 손으로 탁탁 두들겨 가며 쥐어짜서 '알싸한 액체'를 맛보았다는 것은, 어린아이인 '나'가 어른들이 먹는 피로 회복제를 맛본 경험을 말한다. 전후 맥락을 통해, '나'가 경험한 피로감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나'의 행동이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단지를 깨뜨리게 된 원인을 '빠루'로 보고, 마치 '마녀의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부분을 통해 어린아이다운 상상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에서 '너무 바뀌었어요.'라는 진술과,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어른이 된 '나'가 변화를 실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의 '어련히 잘 알아서 해 줄까.'라는 표현은 '나'가 '형'에게 신뢰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육체적 고단함'에서 비롯된 피로감과는 현격하게 다른 것이 맞지만, '맹렬한 위안'은 '나'가 기절이라도 한다면 받게 될지 모를 면죄부에 대한 것이지, 어른이 된 만족감을 느끼게 된 감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어린애답지 않게 몹시 피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듯하다'와, 문단 마지막 부분인 '그런 의미에서 그 피로감은 어른에게나 해당하는 피로였다.'에서 '나'가 어른들만이 느끼는 감각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② '피로감'은 단지를 깨고 난 후에 '나'가 느낀 감각으로 '동시에 그 피로감은 어쨌든 세상에 대한 것이라는 게 멍백해졌다.'를 통해 '나'가 현실적으로 느끼게 된 감각임을 알 수 있다.

④ '한편으로는 그 피로감은 몹시 물리치기 어려운 불길함을 품고 있었다.'와 '앞으로도 그 오랫동안 그 피로감을 떨쳐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지루한 예감이 그날 어슴푸레한 새벽에 덮친 절망감의 핵심이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문간통에서 두 번째 집구석에 사는 술주정뱅이 고물 장수 손님이 아버지의 노상 흐느적거리는 두 팔과 술 때문에 항상 짓물려져 있는 눈자위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저씨도 나처럼 피로해서 그랬을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이라는 생각은 경험자아의 착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한 아이다운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서술 자아는 과거 경험자아의 생각을 종합하여 성숙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서술 자아가 어른들이 자신을 위해 의도한 행동이라고 깨달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엄마한테 연탄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한 것은 과거 경험자아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아이다운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②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에애하게 얘기를 나누는' 장면은 경험자아의 시선에 비친 세계의 모습으로, 주인공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혼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혼돈에 빠지고 불안해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어슴푸레한 깨달음'은 과거 사건을 통해 경험자아가 느꼈던 것을 서술 자아가 종합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주인공이 눈물을 흘렸던 비애감의 원인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 주었다.'와 '그렇게 컸다.'는 과거 사건에 대한 서술 자아의 생각을 드러낸 진술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주인공이 성숙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1 극 · 수필

본문 212~216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④

■ 작자 미상, 「꼭두각시놀음」

해제 ▶ 이 작품은 우리나라 전통극 가운데 유일한 인형극의 대본이다. 전체 8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시된 지문은 제5막 '표 생'

원 거리' 중 후반부와 제7막 '평안 감사 재상 거리'의 전반부이다. 지배층의 부조리한 권력 남용과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을 이루며 특히 권위적인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담겨 있다. 재담에는 방언과 비속한 표현, 해학적인 언어가 사용되어 우리 전통 인형극의 대표적 특징인 골계미를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민중의 정서를 반영하면서 사회적 부조리를 웃음을 통해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제 ▶ 가부장적 제도의 모순과 지배층의 횡포 및 허위에 대한 비판과 풍자

전체 줄거리 ▶

- 제5막 표 생원 거리: 해남 양반 표 생원이 본처와 첩 사이에서 재산 분재 문제로 낭패에 처하자 박 첨지가 표 생원을 돕는다며 본처인 꼭두각시에게 불리하게 표 생원의 재산을 분배한다.
- 제7막 평안 감사 재상 거리: 평안 감사가 모친상을 당해 상여가 나가는데 상주는 오히려 좋아하며, 벌거벗은 흥동지가 상두꾼으로 불려 와 상여를 맨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돌모리집은 '유명한 표 생원' 가문의 여자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여 표 생원과 같이 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표 생원으로부터 큰부인에게 인사하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기대한 바와 다르게 '작은집이라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내가 적어도 용산 삼개~절은 웬 절이여?'라고 응수한다. 이를 통해 꼭두각시에게 인사하라는 요청에 돌모리집은 기대한 바와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자존심이 상해서 일단 거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표 생원이 돌모리집을 들인 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인이 어느덧 환갑이 넘고, 내가 연만 팔십에' 자식이 없다고 말한 것에서 표 생원이 꼭두각시보다 나이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 ② 꼭두각시는 돌모리집이 작은집, 즉 소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한 꼴을 보'게 되었다며 실망하지만, 곧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본부인으로서 권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다.
- ④ 박 첨지는 재산 분배를 위한 판결에 당사자인 표 생원이 '판결 좀 하여' 달라고 요구해서 개입하고, 상여꾼 구하는 일에도 상주인 평안 감사의 '상여가 나가다가~사 대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참여한다.
- ⑤ 평안 감사는 자신에게 '빨가벗었더라도 상여만 잘 메면 됐지. 무삼 잔말.'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흥동지의 잘못을 꾸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상여를~맨단 말이나?'와 같이 꾸짖고 그를 데려온 박 첨지까지 잡아들여 태장을 가한다.

02 대사의 특성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돌모리집이 '인사도 싫고 나는~큰마누라하고 잘 사소.'라고 말하며 표 생원과 헤어지고 떠나려고 하자 이에 표 생원은 함께 살면서 쌓아 온 정리(인정과 사람으로서 도리나 의리)를 내세워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즉 표 생원은 돌모리집이 꼭두각시에게 인사하기를 거부하면서 버티는 행동과 자신을 떠나려는 행동을 만류하기 위해서 ㉠과 같이 말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꼭두각시가 자신의 얼굴이 '깊은 산중에 도토리묵을 먹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자 표 생원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반박하면서 한 말이다. 이는 자신의 얼굴이 꼭두각시의 얼굴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꼭두각시가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얼굴이 '우툴두툴'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한 것이다.
- ② ㉡은 꼭두각시와 돌모리집의 상하 관계는 신체적 크기가 아니라 처와 첩이라는 표 생원과 관계에 기반하여 정해지게 됨을 선언한 말이다.
- ④ ㉣은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재산을 얻게 된 자기만족이나 홀가분함을 표현한 언사가 아니라, '개똥발 하루같이와 매운 짓독 깨진' 것 등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을 받게 된 꼭두각시가 자신이 원하던 만큼의 재산을 얻지 못한 채 허탈감을 가지고 떠나면서 한 말이다.
- ⑤ ㉤은 모친상의 슬픔을 견뎌 내기 위한 독백이거나 초상의 긍정적인 부분을 억지로 찾으려는 한 말이 아니라, 뒤에 노래를 부르는 행위로 미루어 보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방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한 말이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박 첨지가 '한 마을의 구장으로 잘 처리하겠'다면서 내린 매우 편파적인 결정은 <보기>에서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표 생원을 공격하여 상류 기득권층을 비천한 존재로 만드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박 첨지로 대변되는 관리의 위선과 무능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꼭두각시의 말인 '큰 집 작은 집을 어찌 가리겠소.'에서 거처를 뜻하는 '작은 집'과 소실을 뜻하는 '작은집'이라는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는 재담이 확인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집을 마련하여 표 생원과 정착하려고 했던 꼭두각시의 의지가 좌절되는 과정도 함께 나타난다.
- ③ 박 첨지는 평안 감사에게 흥동지를 '이상아릇한 놈'이라고 소개한다. 이렇게 박 첨지가 정상적이지 않은 인물인 줄 알면서도

홍동지를 상여꾼으로 천거한 것은 지배층인 평안 감사를 비롯하면서 공격하여 품위가 낮은 존재로 전락시키기 위한 풍자적 기법에 해당한다.

④ ‘주릿대학춤, 고드래뻬 텅거지’는 것은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상여 메는 것을 지체한 일로 그토록 가혹한 형벌을 우려해야 하는 것은 조선 후기 지배층의 부당한 횡포가 심함을 피지배층이 폭로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⑤ 평안 감사가 ‘대부인 상여인데 ~ 빨가벗고 땀병거리느냐?’며 체통과 격식을 따지자, 홍동지는 ‘빨가벗었더라도 상여만 잘 메면 됐지. 무삼 잔말.’이라고 반응한다. 이는 피지배층인 홍동지가 지배층인 평안 감사의 허위의를 비판하는 것이면서 그에 반항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제5막]에서 가구를 비롯한 세간은 인물의 대화에서 언급될 뿐 이므로 공연에서 소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제7막]에서 상여는, 극 중 ‘평안 감사의 모친 상여가 나’오고 있고 홍동지가 자신이 메게 될 상여의 냄새를 맡는 장면도 있으므로 소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문은 평안 감사의 대화인 ‘문안이고 문밖이고’에서 언어유희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공연 중에 문이 실내와 실외를 구분 짓는 소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5막]에서는 인물의 대사와 함께 <창>을, [제7막]에서는 인물의 대사와 함께 ‘양산도’ 등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모두 대잡이가 인형을 조종하면서 대사를 하고 노래도 불러야 하는 연희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해당한다.

② [제5막]에서는 표 생원의 처인 꼭두각시와 첩인 돌모리집 사이의 갈등에 따른 대결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제7막]에서 나타나는 대결 양상은 지배층인 평안 감사와, 피지배층인 박 첩지 및 홍동지의 신분과 계층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제5막]과 [제7막]에서 각 거리의 사건은 서로 다른 에피소드로서 줄거리가 내용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거리별로 개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박 첩지가 [제5막]과 [제7막]에 모두 등장함으로써 전체 작품 안에서 각 거리 간의 상관성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5막]의 끝부분에서 꼭두각시는 춤추며 퇴장한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대잡이가 인형을 춤추게 조종하면서 무대 아래로 내려 관객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연출될 것이다. 그리고 [제7막]의 앞부분에서 평안 감사가 박 첩지를 부르자 박 첩지가 등장하는데, 이는 <보기>에 따르면 무대 위로 박 첩지 인형을 올림으로써 관객에게 보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출될 것이다.

02

극 · 수필

본문 217~221쪽

01 ②

02 ③

03 ②

■ 차범석, 「불모지」

해제 ▶ 이 작품은 1950년대의 서울 중심가, 고층 건물에 둘러싸인 낡은 한옥에서 살아가는 최 노인 일가의 이야기를 통해 전후 사회의 모순을 형상화한 장막 희곡이다. 작품의 제목인 ‘불모지’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을 상징한다.

주제 ▶ 근대화의 과정에서 겪는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의 몰락

전체 줄거리 ▶ 제대 군인으로 실업자 신세인 큰아들 경수, 경수를 염려하는 어머니, 허영심 많은 배우 지방생 장녀 경애, 인쇄소의 식자공으로 가족의 생계를 떠맡고 있는 차녀 경운, 대학 진학을 앞둔 막내아들 경재 등 가족들과 함께 높은 건물에 둘러싸인 낡은 한옥에 살고 있는 최 노인은 집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 신식 결혼의 성행으로 인해 전통 혼례용 혼구를 대여하는 최 노인의 사업은 날로 기울어 간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을 팔자는 가족들과 달리, 최 노인은 집을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하지만 결국 최 노인은 집을 세놓기로 결심하는데, 경수는 집이 헐값에 팔리는 것으로 오해해 이를 막으려 하다가 최 노인과 충돌한다. 모든 불화의 원인이 돈에 있다고 생각한 경수는 총을 들고 나가 보석상을 털려다 미수에 그치고, 뒤늦게 날아든 취업 통지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배우 지방생 경애는 심사 위원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 충격을 못 이겨 자살하고 만다. 형사들에게 경수가 체포되어 떠난 후 경애의 시신을 발견한 최 노인은 비통하게 절규한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경재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바쁘면 어서 가라고, 설거지 끝나고 어머니가 대신 물을 길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엄마가 제일야! 우리 엄마가 님버원이지! 그 대신 내일 아침엔 식전에 다섯 지계 길을걸요, 어머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허리를 다친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은 지금 물 길으러 안 가는 대신 내일 더 많이 길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집 지니고 사는 것 자체를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 최 노인에게 경재는 ‘(못마땅한 낯으로) 다행으로 알 건덕지가 있어야죠.’라고 대꾸하고, 이에 대해 최 노인이 ‘(획 돌아서며) 뭐, 뭐야?’라며 화를 내려 하자 경운은 ‘(재빨리 공기를 수습하려 들며) 경재야, 한 번만 더 걸어 와! 물이 끊어지면 어떡하러구…….’라고 말한다. 따라서 ①은 아버지 최 노인과 동생 경재가 충돌하

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가 잠깐 자리를 피하게 하려고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경수는 자기네 집이 ‘중로 한복판’에 있는 데다가 ‘가계와 살림집이 붙었기 때문에 훨씬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백오십만 환’을 주겠다는 복덕방 영감의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과 같은 말을 한 것이다.

④ 이백오십만 환은 복덕방 영감이 매매 대금이 아니라 전셋값으로 최 노인에게 제시한 금액이었음이 후에 밝혀진다. 어머니가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환이란 말인가요?’라고 묻는 말에 최 노인이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백만 환은 받을 수 있어!’라고 답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복덕방 영감이 ㉠과 같은 말을 한 것은, 가게와 살림집을 합쳐 전셋값을 그 정도 매겼으면 후하게 주려는 것인데도 그걸 모르는 경수가 당치도 않은 요구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⑤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뭇 하러 복덕방은…….’ 이라고 말하는 경수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최 노인이 집을 팔려고 복덕방 노인을 불렀다고 착각했다. 따라서 ‘뭇 때문에 이 집을 팔’겠느냐는 최 노인에게 ㉡과 같이 묻는 것이다.

02 연극 연출의 방법과 효과 추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며’를 통해 드러나듯이 이 집에서 살았던 47년 세월을 아련하게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표정을 지어야 한다. 그러다가 [B]에서는 ‘벌어먹을 짓! (좌우의 높은 집을 쓰아보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높은 건물들이 자기 집을 둘러싼 현재 상황에 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러나는 표정으로 연기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는 최 노인이 오랜 세월을 함께 산 아내에게 사랑이 드러나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지만, [B]에서 최 노인이 아내에게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표정으로 연기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② ‘회한’은 ‘뉘우치고 한탄함.’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따라서 [A]의 최 노인이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B] 또한 앞일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과 무관하다.

④ [A]와 [B] 모두 최 노인이 자신에게 베푼 아내의 호의에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다.

⑤ [B]는 대사의 내용상 냉정하고 단호한 표정의 연기가 어울릴 수도 있지만, [A]는 그런 표정이 어울리지 않는 대사이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강 약방 주인이 오랜 이웃인 최 노인 일가에게 ‘친형제 일보다

더 알심 있게 약을 써 주’는 것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모습에 해당하며, 복덕방 영감이 ‘기본 문제’를 거론하며 흥정을 그만두는 것도 경수의 무례한 말에서 느낀 불쾌감을 표현한 것일 뿐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과는 무관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경운은 ‘누가 이따위 골목 구석에서 살고 싶어 살고 있니?’라고 말하고, 경제는 ‘아버지나 좋아하시지 우리 식구 중에서 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 최 노인과 달리 자식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떠나 새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 최 노인은 ‘싫은 놈은 언제건 나가라지! 절간이 미우면 중이 나가는 법’이라면서 ‘도깨비가 나간 노다지가 나간 제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집이라는 공간을 두고 벌어지는 가족 내 갈등을 엿볼 수 있다.

③ 서울 중심가 곳곳에서 집들이 ‘층층이 쌓아 올’라가는 것은 도시화·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양상에 해당하며, ‘샤벨뽀오드’가 유행했다는 것은 서구 문물의 유입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경수는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라는 말에 화를 내는 복덕방 노인에게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아들을 두고 어머니는 ‘넌 잠자코 있어! 용서하시우.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 까요…….’라고 말한다. 이는 언어에 대한 예의 규범 면에서 존재하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당시 사회의 혼란상이 마치 불모지와도 같았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최 노인이 ‘정성을 들여서 가꾼’ 화초들이 ‘흔한 햇볕도 안 드는’ 환경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 것은, 그의 집, 나아가 우리 사회가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과 같음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03 극·수필

본문 222~225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⑤

■ 윤대성, 「노비 문서」

해제 ▶ 고려 시대 노비 해방 운동이었던 ‘만적의 난’을 소재로, 1970년대 억압적 정치 현실과 관련해 지배층의 부도덕과 모순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노비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권위적 지배 체제와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모순적인 지배층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현실 사회의 독자들이 부조리한 현실을 인지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저항의 의지를 고양하는 데 기여한 작품이다. 민

속극의 요소와 코러스 등 다양한 형식과 기법을 활용하였다는 형식적 특징도 특기할 만하다.

주제 > 인간 존엄의 회복과 해방을 위한 투쟁과 좌절

전체 줄거리 > 여러 차례 몽골군의 침입을 받았던 고려 시대, 노비들을 혹독하게 부려 충주성 개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몽골군이 침입해 온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 소식을 들은 부호와 사대부, 관관들은 성안을 빠져나가고 충주성은 위기에 빠진다. 이에 노승은 노비들을 방랑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비군을 조직하지는 제안을 하고, 이자현 대감은 이를 허락한다. 노비들은 승리하면 방랑을 해 준다는 약속을 듣고 노비군으로 활약하며 몽골군을 격퇴한다. 노비들은 자유를 얻는다는 기대에 벅차오르지만, 이자현 대감을 비롯한 부사와 관관은 이를 배신하고 다시 노비들을 잡아들일 계획을 세운다. 분노한 노비들은 무력으로 항거하지만 실패하고 비극적으로 막을 내린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노승이 이자현 대감에게 규율을 세울 것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제안은 노비를 해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옳은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른 자에게는 벌을 주자는 내용이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자현 대감은 결단을 내리라는 노승의 말과 현재의 위기를 막기 위해 도리가 없다는 관관의 말을 듣고, 방랑을 조건으로 노비들을 싸움에 동원하지는 노승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다.

② 노승이, 나라가 왕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며 궁녀의 치맛자락에 둘러싸여 있는 왕을 위해 싸워 달라고 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하자, 부사는 노승의 말이 지나치다며 화를 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관관은 노비를 방랑했을 경우,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부호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특히 관노를 풀어 줄 경우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노비들을 싸움에 동원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도 후일이 걱정되지 않는 바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④ 이자현 대감이 노승에게 누군가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치세의 근본이라고 말하자 노승은 이 말을 듣고 노비를 배신하려는 것이 아닌지 이자현 대감에게 되묻고 있다. 그러므로 노승은 치세에 대한 이자현 대감의 생각을 경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관관은 노비들을 동원해 싸움에 승리한 이후의 일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에서, 이자현 대감은 싸움이 끝난 후 무기를 갖추고 있는 노비들을 다스릴 만한 군사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관관은 병기를 지급받아 싸움에 승리한 노비들을 통제하지 못하

게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이자현 대감은 노비를 다스릴 수 있는 군사가 아직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라와 왕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는 것은 ㉠을 바탕으로 추론한 관관의 걱정으로 볼 수 없다.

②, ④ ㉠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을 바탕으로 추론한 관관의 걱정으로 볼 수 없다.

⑤ 관관의 걱정은, 몽골군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노비들이 방랑된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걱정이다. 그리고 그 걱정은 무기를 갖춘 노비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몽골군이 재침입했을 때 노비들이 싸움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을 바탕으로 추론한 관관의 걱정으로 볼 수 없다.

03 연극 연출의 방법과 효과 추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이자현 대감이 노비들의 놀이를 금지한 조치 이후 자초지종을 물으려는 노승의 말이므로, 애절한 표정이 아니라 항의하는 듯한 표정이거나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연기를 하도록 주문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이어지는 노승의 말을 통해 노승이 아직 이자현 대감의 의도를 알지 못한 상황이므로 한탄하듯 연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노승이 이자현 대감에게, 노비들을 싸움에 동원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부분이다. ㉠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은 노비들을 싸움에 동원할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한 부분으로 고려 개국 이래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그러므로 ㉠은 단호한 표정과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연기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은 노비를 방랑하지는 노승의 말을 듣고, 관관이 보인 반응이다. 관관은 노비를 방랑하는 것은 개국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며 그러한 조건이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그 부당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항의하듯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은 관관과 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비의 방랑을 약속하는 노승이 최종 결정을 내릴 이자현 대감에게 결단을 재촉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은 이자현 대감을 똑바로 응시하며 재촉하듯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은 이자현 대감이, 노비들을 힘이나 신분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인과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노승의 제안을 부정하며 건넨 말이다. 특히 이자현 대감은 노승의 생각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하며 자신의 생각을 노승에게 강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진 노승을 훈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 따르면, 노비 해방에 실패하는 내용을 본 관객들에게 전파된 패배주의와 허무 의식이 사회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작품이 검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검열은 1970년대 비민주적, 반인권적 사회 구조와 분위기를 비판하려는 이 작품의 공연을 제한하려는 군부 독재 정권의 억압적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판관과 이자현 대감이 이 작품이 검열되는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자현 대감은 노비와의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려는 인물이므로, 1970년대 민중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했던 모순된 지배 세력에 대응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② 노승의 말을 통해 이 글의 배경이 되는 고려 시대에 노비들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노동을 착취당하며 마치 상품처럼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비는, 이 글이 창작되었던 1970년대에 노동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던 민중들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글은 1970년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현실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노비들이 지배 세력의 배신으로 인해 약속받았던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해방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1970년대 이 작품을 접하게 된 민중들로 하여금 모순된 지배 세력에 의한 억압적 정치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현실 비판적 태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부사는 나라와 왕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말을, 이자현 대감은 국가 대사나 고을의 다스림에는 충성이 요구된다는 말을 하며 비민주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은 이 글이 창작되었던 1970년대 지배 세력의 비민주적 의식이 문학적 표현 방식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길을 택한다. 시나리오 「역마」는 이러한 원작의 중심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원작에는 없는 주변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새로운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성기와 옥화가 겪는 만남과 이별의 개연성을 높인다. 또한 영상 기법과 음향 효과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와 갈등의 전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 운명의 수용과 이를 통한 생의 의지 회복

전체 줄거리 > 화개 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옥화는 쌍계사 승려였던 법운과 하루 인연을 맺었다가 파계승이 된 그를 떠나보낸 일이 있다. 옥화는 아들 성기가 타고났다고 하는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성기를 쌍계사에 보내 중으로 생활하게 하고, 이후 성기의 청에 따라 장이 서는 날에는 책 장사를 하도록 허락한다. 하루는 체장수 오동운이 딸 계연을 데리고 옥화의 주막에 들른다. 동운은 원래 소리꾼으로, 예전에 화개 장터에 와서 옥화의 어머니인 소향과 하룻밤 인연을 맺은 일이 있다. 옥화는 동운이 잠시 떠난 사이 계연을 맡아 주기로 하고, 절에서 돌아온 성기가 계연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는 둘이 맺어져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던 어느 날 옥화는 계연의 왼쪽 귀에서 자기와 같은 곳에 난 사마귀를 발견하고, 무당을 찾아가 동운이 자신의 친부이며 계연이 이복동생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동운이 돌아오자 옥화는 계연을 떠나보내고, 뜻하지 않게 이별을 겪은 성기는 앓아눕는다. 옥화는 죽을 지경에 처한 성기에게 계연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놓고 성기는 점차 회복한다. 봄이 찾아오자 성기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옛장수가 되어 길을 나선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성기가 집에 오는 것을 보고 계연이 애걸하듯 성기를 바라보는 점을 고려하면, 동운은 성기가 집에 오기 전부터 혼자서가 아니라 계연과 함께 길을 떠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계연은 옥화네 집에 머무르는 동안 성기와 만나면서 성기에게 ‘요즘은 어찌자고 만날 절에만’ 있느냐고 하고는, ‘보고 싶어’ 죽겠었다면서 그를 그리워했던 심정을 드러낸 바 있다.

② 동운은 ‘짐을 지고 일어서며’ 옥화와 작별 인사를 하는 도중에 ‘그때 뛰어 들어오는 성기’를 대면하고서 옥화에게 ‘아들이 참 잘 생겼’다는 말을 한다.

④ 계연은 동운과 함께 옥화네 집을 떠났으며, 성기는 ‘옛목판’을 메고 길을 나서면서 ‘세 갈래 길 한복판’에서 ‘계연이가 떠나간 구레 길 쪽’이 아니라, ‘하동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⑤ 옥화는 ‘앓아누운 채 굵어 죽을 결심을’ 한 성기가 ‘미음을 먹’으며 살아갈 의지를 되찾는 것을 본다. 그리고 성기에게 ‘왕년도 쪽으로 가 보고 싶’은지,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 것인지를 묻고, 성기가 두 질문 모두에 거부 의사를 표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다.

04 극·수필

본문 226~229쪽

01 ③

02 ②

03 ③

■ 김동리 원작, 최금동·김강윤 각색, 「역마」

해제 > 이 작품은 김동리의 소설 「역마」를 원작으로 하여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원작에서 주인공 성기는 역마살을 타고났고 어머니 옥화의 바람에 따라 역마살에서 벗어나기 위한 삶을 살았지만, 사랑에 실패하면서 결국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고 소리대로 살아가는

02 연극 연출의 방법과 효과 추리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옥화는 성기에게 동운의 행적에 대해 말할 뿐 성기가 모르던 계연의 행적을 말하지 않았으며, 성기가 ㉠과 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옥화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옥화와 동운의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계연이 떠나게 된 상황 때문이다. 또한 계연이 성기를 반기고 애걸하듯 성기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성기 역을 맡은 배우가 계연에게 의혹과 원망이 드러나도록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성기와 옥화의 이별을 원치 않는 계연은 동운이 자신을 데려가려 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기다리던 성기가 옥화네 집으로 뛰어 들어오자 ㉠과 같이 행동한다. 따라서 계연 역을 맡은 배우에게, 성기에 대한 반가움과 성기가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옥화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 ‘옛편 하나만 맞춰’ 달라는 성기의 대답을 듣고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대한 반응으로 ㉡과 같이 행동한다. 이어서 성기의 의중을 확인한 옥화가 ‘끄덕이고 한숨 쉬어’ 말하는 것을 고려하면, 옥화 역을 맡은 배우에게 성기의 의중을 확인하려는 표정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병을 앓던 성기는 계연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안 후 차차 병에서 회복하면서, 역마살을 없애기를 바라는 옥화의 기대와 달리 자신이 택한 떠돌이 옛장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성기가 병에서 회복하여 스스로 택한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을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성기 역을 맡은 배우에게 생기를 되찾고 흥분해진 모습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옥화는 역마살을 풀게 하려던 성기가 이별의 아픔을 겪은 후 옛편을 맞추어 떠돌아다니겠다는 마음을 드러내자, 결국 성기의 바람을 받아들여 ‘시뻘게진 눈으로’ 성기를 배웅하면서 ㉣과 같이 행동한다. 따라서 옥화 역을 맡은 배우에게 아쉬움과 슬픔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S#149. 강변(회상)’에 성기와 계연이 겪은 사건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기가 ‘S#150. 강변(현실)’에서 눈물을 닦고 ‘S#151. 옥화네 집 방 안’에서 마음을 먹고 옥화에게 옛편을 맞추어 달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장면에서 성기의 내면적 혼란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S#148. 강변’에는 현재 ‘얼어붙은 강’이 과거 성기와 계연이 대화를 나누었던 때의 모습으로 ‘서서히 풀리’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으며, 장면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당시 성기와 계연의 대화 내용이 이펙트 기법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강의 상태 변화와 이펙트 기법은 현재에서 과거로의 시간의 전환을 드러내면서 과거 성기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② ‘S#149. 강변(회상)’에 나타난 성기의 회상은 앞 장면에서 화면을 바꾸어 과거 성기와 계연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보여 주며, 이를 통해 기쁘고 설레는 성기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별 후 슬픔에 빠져 있는 성기의 현재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S#148. 강변’, ‘S#150. 강변(현실)’과 구분되는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되어, 현재와 대비되는 성기의 심리 상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S#153. 삼거리’에 나타난 이펙트 기법은 옥화가 성기를 배웅하는 장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역마살을 가진 성기의 앞날에 대해 혜초, 소향과 대화하던 옥화의 회상 내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S#153. 삼거리’에서 ‘절에 맡긴다고 역마살이 풀리는 건 아’니며 성기의 ‘가슴에 남달리 꿈이 많’다는 혜초의 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기가 ‘절에서 배겨 내려’ 했음에도 역마살을 풀지 못하고 ‘S#154. 길’에서 떠돌이 옛장수가 되겠다는 자신의 소망을 좇아 ‘가벼운 발길’로 길을 떠나게 되는 상황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

극 · 수필

본문 230~233쪽

01 ⑤

02 ①

03 ③

04 ④

■ 류장하, 「꽃 피는 봄이 오면」

해제 ▶ 이 작품은 2004년에 개봉했던 동명의 영화 시나리오로, 현실에 좌절한 사람들이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희망과 꿈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패한 연주자인 현우와 꿈꿀 수 없는 미래조차 없는 쇠락한 탄광촌의 아이들이 서로의 암울한 현실을 보듬어 주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 희망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작품은 이와 같은 인물들의 성장의 과정을 기울과 겨울을 거쳐 봄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여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제 ▶ 따뜻한 인간애를 통한 희망의 회복

전체 줄거리 ▶ 교향악단 연주자를 꿈꾸던 트럼펫 연주자 현우는 현실의 벽에 부딪쳐 오랜 연인이었던 연희를 떠나보내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강원도 도계 중학교의 관악부 임시 교사로 부임한다. 쇠락한 탄광촌의 중학교 관악부는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강제 해산해야 하고, 현우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음악에 대

한 열정을 꽃피우는 아이들에 감화되어 함께 대회 준비에 몰두한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국 대회에 출전하지만 결국 우승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며 현우와 아이들은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을을 떠난 현우는 헤어졌던 연인 연희에게 전화를 하고 다시 봄을 꿈꾼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용석은 자신이 광부 집 자식이라고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님에 대한 인식이지, 자신이 광부의 자식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현우가 '음악만 하는 사람이랑은 못산다며.'라고 말하자 '누가 음악하지 말래? 학원에서 애들도 가르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라고 대꾸하는 것을 통해 연희는 현우가 학원을 통해 현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꿈을 좇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그냥 반대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라는 현우의 말을 통해 용석이 음악을 하는 것을 용석 아버지가 반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선생님 봐. 여기 와서 이려고 있잖니?'라는 말은 현우가 자신의 꿈인 연주자가 되지 못하고, 외진 탄광촌에 선생으로 와 있는 자신의 상황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④ '상고 가서 장사하면 돈 잘 벌잖아…….'라는 현우의 말에, '그런 게 뭐 중요해요.'라고 말하는 것은 용석이 돈을 잘 버는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02 대사의 특성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용석 아버지를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치켜세워 줌으로써, 용석을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라는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작품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용석 아버지가 유명한 연주자였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A]에서 현우가 이를 폭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A]에 용석 아버지가 용석에 대해 언급한 말을 옮긴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 ④ 용석 아버지가 훌륭한 연주자였다고, 그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용석의 음악적 재능을 확인시키려고 한 말은 아니다.
- ⑤ [A]에 용석 아버지와 현우의 처지를 비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S#5에서 현우가 준 목걸이를 연희가 판 것은 현우와의 관계가 이어 가기 어려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S#74에서 수정이 용석에게 무엇을 사 달라고 하는 것은 용석에 대한 애정과 관심 때문이므로, 두 행위가 유사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S#5에서 현우와 연희의 갈등은 연희가 현실을 위해 음악만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우가 이를 외면해서 생긴 것이고, S#74에서 용석과 수정의 갈등은 돈이 없는 용석에게 수정이 무엇인가를 자꾸 사 달라고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때, 두 갈등은 모두 금전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S#5에서 현우는 연희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과 타협하지 못해 연희를 붙잡지 못한다. S#74에서 용석 또한 현실과 타협하지 못해 수정과 헤어지려 하지만 현우는 연희를 책임지지 못한 자신의 모습과 용석의 모습이 닮아 있음을 알고 자책하는 마음에 흥분을 하는 것이다.
- ④ S#5에서 현우는 음악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S#74에서는 용석에게 현실을 위해 음악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이 두 모습은 음악과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상반된다.
- ⑤ S#5에서 연희가 현우에게 연주를 부탁하는 것은 현우에 대한 애정 표현이고, S#74에서 용석이 수정에게 나팔을 불러 준 것은 수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둘 모두 상대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04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안대가 용석의 한쪽 눈을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 안대는 소품의 종류와 배치를 활용한 미장센이다. 또한 안대가 용석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용석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기보다는, 한쪽 눈을 가려 생활에 불편함을 갖게 된 모습을 통해 음악을 하고자 하는 용석에게 장애가 생겼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현우와 연희는 서로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연희의 노랫가락이 다음 소설로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연희 역을 맡은 배우의 연기를 바탕으로 한 미장센으로, 이를 통해 나아가지도 헤어지지도 못한 채 이어지는 현우와 연희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연희는 현실적인 문제로 현우와의 결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현우는 연희의 바람을 알지만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별이 다가온 현우와 연희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우와 헤어지는 연희가 들어가는 낯선 아파트 현관은 현우와 연희의 위태로운 관계를 암시하는 미장센으로, 공간적 배경과 조명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사랑하는 연희를 붙잡지 못한 채 보내 준 현우의 심리를 고려할 때, 연희가 바라보는 '링거를 하나 매달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나무'는, 소품의 종류를 활용하여 오로지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현우의 상황을 상징하는 미장센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용석은 음악이 좋아 음악을 계속하고자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눈이 내렸다 그쳤다 하는 시·공간적 배경은 용석의 불안정한 상황을 나타내는 미장센으로 이해할 수 있다.

06 극·수필 본문 234~237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⑤

■ 김금원, 「호동서락기」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여성 문인 김금원이 34세 되던 해인 1850년에 펴낸 한문 기행문으로, 현전하는 여성의 기행 신문 가운데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호동서락기'라는 제목은 '금호 사군(현재 단양군과 제천시에 해당하는 지역)과 관동 지역, 관서 지역과 낙양(한양)을 여행한 기록을 뜻한다. 글쓴이의 여정은 '금호 사군 → 금강산과 관동 팔경 → 한양 → 관서 지역 → 한양'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다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글쓴이가 혼인 이전에 남장을 하고서 금호 사군, 금강산과 관동 팔경, 한양을 유람한 기록이 작품의 전반부를 이룬다. 남장을 그만두고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와 혼인을 한 후 의주 부윤이 된 남편을 따라 관서 지역을 유람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벗들과 함께 시를 즐기며 지내는 삶에 대한 기록이 작품의 후반부를 이룬다. 이 작품의 특징적 면모로는, 여행이라는 소재를 매개로 하여 조선 시대 여성에게 가해졌던 차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점, 색채어를 비롯한 감각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점, 여행지와 관련된 인문 지식을 풍부하게 언급하는 현학적 글쓰기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여느 여행기와 달리 여정과 관련한 구체적 날짜나 머물렀던 숙소, 가는 길 등에 대한 사실 정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인데, 이는 글쓴이가 처음 여행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이 작품을 썼던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주제 > 여러 경승지를 유람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얻은 견문과 그에 대한 감상

구성 >

- 처음: 여성으로서 여행을 결심한 이유
- 중간 1: 14세 때 남장(男裝)을 하고 첫 여행지로 금호 사군을 유람한 기록
- 중간 2: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면서 얻은 견문과 그에 대한 감상
- 중간 3: 한양을 유람하면서 얻은 견문과 그에 대한 감상
- 중간 4: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온 후 남편을 따라 관서 지역을 유람한 기록
- 끝: 한양으로 돌아온 후 삼호정에서 벗들과 시를 지으며 지내는 삶, 자신의 여행 경험을 글로 써서 남기려는 이유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글쓴이는 여성으로서 답장 밖을 나서 여행을 하려는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자의 제자였던 증점의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음풍농월하겠다고 한 증점이 스승인 공자에게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두루 돌아보고자 하는 자신의 뜻도 성인인 공자가 계신다면 마땅히 동의하셨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여행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여성의 답장 밖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던 당대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글쓴이가 꿈과 환상을 통해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글쓴이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부모님께 여러 번 간청하여 겨우 허락을 얻어 낸다. [A]에서 부모님의 허락을 얻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글쓴이가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다고 해석될 만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아울러 부모와 갈등을 빚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글쓴이가 후회의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도 [A]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④ 글쓴이는 '처지대로 분수에 맞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옳은가'라고 말하며, 주어진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분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당대의 통념을 거슬러 자신이 꿈꾸었던 여행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주어진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체념적 태도를 보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글쓴이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예상하는 내용은 [A]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글쓴이는 대궐의 상서로운 모습과 시내의 변화하고 유희적인 정경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성안의 풍경에 대해 ‘성안을 두루 돌아보니 비로소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에게는 대궐의 모습도 시내의 정경도 모두 마음에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궐과 시내를 비교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시내의 유희적 분위기에 대해 ‘실로 밝은 세계의 태평한 기상’이라고 말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내의 유희적 분위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신이 조망한 한양의 지형을 자세히 묘사하기 위해 글쓴이는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린 듯’, ‘칼날이 서고 깃발이 펼쳐진 것 같기도 하다’, ‘책상을 마주한 듯’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북으로~웅장하게 누르고, 남으로는~서 있으며’, ‘왼편으로는~동쪽 성곽을 에워싸고 오른편으로는~서쪽 끝을 받치고 있다’와 같이 대구도 사용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한양의 지리적 조건에 대해 ‘기세가 웅장하고 물산이 풍성하니’, ‘굳건한 천연의 요새요 땅이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땅이니 누가 날아서 강을 건너올 수 있겠는가’라고 영탄적 어조로 진술하면서 경제와 안보의 측면에서 한양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세검정을 찾아가 시냇가 바위 위에 지어진 정자를 보고 ‘설계가 정교하고 깔끔했다.’라고 말하며 건축물의 조형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바위 사이로 흐르는 개울물은 물살이 몹시 빨라서 폭포에 가깝고, 푸른 산이 환히 비쳐 책상 위에 쌓인 듯했다.’라고 말하며 세검정 주변의 자연 풍경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실 같은 길을 따라 삼계동으로 가니’, ‘백석실에 올라가니’, ‘길을 돌아 산골짜기로 들어가니’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㉔에 해당하는 장면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 그리고 글쓴이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접하게 되는 건축물과 자연 풍경을 ‘흰 돌’, ‘꽃잎이 눈처럼 떨어져’와 같은 시각적 심상과 ‘향기 나는 채소’와 같은 후각적 심상 그리고 ‘온갖 새가 지저귀고 물은 바위 사이로 줄줄 흐르고’와 같은 청각적 심상을 두루 사용해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더욱 깊고 그윽하게 느껴졌다’, ‘마치 유우 석의 시의 현도관의 뜻을 보는 것 같았다’, ‘그 빼어난 경치를 따라 그리기도 어려울 것 같았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주관적 감상 또한 드러내고 있다.

0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㉑의 ‘부평초’는 ‘멀리 노닐기를 일삼는’ 화자의 모습을 자연물

에 빗댄 표현이다. 따라서 ‘부평초’가 유람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㉒의 ‘나막신’은 화자가 신고 있는 신발이다. 화자는 ‘나막신 팔랑팔랑 날개 돋은 듯 가볍네’라는 표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막신’이 화자의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라는 설명도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의 ‘서울의 바람과 안개도 조만간 걷히리라’라는 구절은 화자가 다음 여행지인 한양을 향해 가면서 한양의 바람과 안개가 걷혔으면 하는 자신의 기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㉑의 ‘안개’는 화자가 바라보면서 흥취를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㉒에서 화자는 ‘괴로운 심사’를 ‘다 씻어 내니’ 온 산에 가득한 안개 끝이 없구나’라고 말한다. 여기서 ‘안개’는 화자의 마음속 괴로움이 사라진 후 눈에 비친 자연 풍경으로, 화자의 내면 상태와 조응하는 자연물이다. 따라서 ㉒의 ‘안개’는 화자가 흥취를 느끼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② ㉑의 ‘산’은 화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고, ㉒의 ‘산’은 화자의 눈에 비친 자연 풍경 중 하나이므로, ㉑과 ㉒의 ‘산’ 모두 삶의 성찰과는 무관한 공간이다.

③ ㉑의 ‘흐르는 물 따라가니’는 유람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형상화한 것이다. ㉒의 ‘다 씻어 내니’는 화자 내면의 ‘괴로운 심사’가 사라졌음을 나타낸 표현이다. 따라서 ㉒의 ‘다 씻어 내니’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㉑의 ‘흐르는 물 따라가니’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⑤ ㉑의 ‘뭍출 줄 모르네’는 자연에서 노니는 일에 대한 화자의 지극한 만족감을 나타낸 표현이다. 자연을 유람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 유람을 뭍출 수 없다고 ㉑의 화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㉑의 ‘뭍출 줄 모르네’가 자신의 과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㉒의 ‘끝이 없구나’는 화자의 눈에 비친 자연 풍경(산에 가득한 안개)을 묘사한 표현이므로, 이 구절이 화자가 바라보는 자연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글쓴이는 탕춘대의 성채가 견고한 모습을 보고, 탕춘대를 축조한 선왕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글쓴이는 선왕의 뜻을 ‘짐작’만 하고 있을 뿐 탕춘대를 축조한 선왕의 계획이나 의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옛글이나 역사 정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질고 지혜로운 성품’과 지각 능력(‘귀와 눈’)은 하늘이 준 것이고,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사회적 규율과 관습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글쓴이는 ‘하늘이 준 것’과 ‘인간이 만든 것’을 비교하면서 ‘하늘이 준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 논리에 근거하여 글쓴이는 ‘하늘이 준 것’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등이 있지 아니하므로, 여행을 하는 데에도 남녀의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아울러 여행의 이유가 ‘산수를 좋아하고 즐기며 견문을 넓히’는 데 있다고 말함으로써 여행의 의미를 산수 유람의 욕구 충족과 체험을 통한 배움에 두고 있다.

② 여성이라면 ‘깊은 담장 안에서 문을 닫아걸고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조선 시대 여성의 삶을 제약했던 사회적 규율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지 반문하며 여성의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는 사회적 규율과 통념이 옳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부각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사회적 규율에 대한 글쓴이의 의문 제기로부터 그 규율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인식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글쓴이는 한양의 형세를 조망하면서 국방의 측면에서 한양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설명하고 그와 관련해 ‘수양계’와 ‘당태종’의 옛일을 언급한다. 아울러 백석실 계곡의 바위에 새겨진 글씨를 보면서 당나라 때 시인 유우석의 시를 떠올린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여행지와 관련해 다양한 인문 지식을 제시하는, 이 작품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색채어를 활용해 대상을 감각적,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호동서락기」에서 발견되는 표현상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다. 작품에 쓰인 ‘붉은 수레바퀴, 푸른 말발굽’과 같은 표현들은 색채어를 활용해 시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부분들로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구성 >

- 처음: 제왕들이 작고 소박한 궁궐에서 살다가 크고 장대한 궁궐에서 살게 된 과정과 이유를 언급함.
- 중간: 해갑와가 작지 않은 이유를 설명함.
- 끝: 벗이 학문과 사업에 힘써 나라에 등용되기를 바람.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제왕의 거처를 두고 ‘작은 줄을 모르면 큰 것이’ 되고 ‘그 크음을 알지 못함은 이것을 작다고 여김이니’라고 한 것에서 집이라는 일상의 사물에 대해 상대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대상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해 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옛날 제왕들이 거처를 마련하는 행위에 대해 후대로 갈수록 제왕들의 거처가 점점 장대하고 화려하게 변하는 과정을 점층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정치권력이 개선되는 과정을 밝힌 것이 아니라 권력의 양상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작고 누추한 궁전과 장대하고 화려한 궁전의 두 가지 양상을 대조하고 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초라하더라도 큰 정치를 하는 것과 같은 내적인 가치는 얼마든지 훌륭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로부터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가치가 조화로우야 함을 강조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글쓴이는 ‘선비를 업으로 삼아 살면서~성인이 되는 것 또한 바랄 수가 있’고 나아가 ‘하늘과도 합치될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마다 가진 재능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본분을 지킨다거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자족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어찌해야 넓은 집~할 수 있을까?”에서 성현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에 담긴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선비들이 삶의 지표로 삼아 지켜 나가야 할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02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글쓴이는 선비에게 학문과 사업이 모두 중요하지만, 사업보다 학문을 ‘급선무로 삼’고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해갑와는 글쓴이의 ‘벗 흥언명’이 ‘호수의 구비에다’ 짓고 소유한 집으로 작고 ‘몇 아름의 띠풀로 지붕을 덮고 몇 개의 서까래를 엮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화려함보다 소박함의 미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② 글쓴이는 해갑와를 매개로 ‘성인이 되고서도 스스로를 게딱지

07 **극·수필** 본문 238~240쪽

01 ③ **02** ④ **03** ③

■ **김석주, 「해갑와기」**

해제 > 이 작품은 글쓴이가 그의 벗 흥언명이 마련한 집을 기념하여 지은 한문 수필이다. 흥언명이 자신의 집이 보기에 작고 보잘것 없어 ‘해갑와(게딱지처럼 작은 집)’라고 이름한 것에서 비롯된 생각을 기문 형식으로 나타낸 글이다. 글쓴이는 집의 외형이 작다고 해도 그곳이 크다고 생각하면 제왕의 사업을 펼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벗이 뜻을 크게 품고 학문과 사업에 힘써서 나라에 등용되어 큰 업적을 남길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주제 > 벗이 새로 지은 집에서 학업에 전심하여 나라에 크게 쓰이기를 기원함.

로 본다면 하늘과도 합치될 수' 있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며 해갑와를 군자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보여 주는 수단으로 여긴다.

③ 글쓴이는 벗 홍언명이 '집이 작은 것을 염두에' 두고 세속의 말에 따라 집 이름을 '해갑와'로 지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에 글쓴이는 해갑와를 소재로 하여 선비가 가진 집의 본질이 학문과 사업에 힘쓰는 데에 있음을 밝히면서 벗에게 집의 외형적 크기를 따지는 세속적 시각에서 벗어나 집의 본질에 주목하도록 권한다.

⑤ 글쓴이는 '스스로를 계막지로' 봄으로써 선비가 성인이 될 수도 있고 하늘과 합치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글쓴이가 해갑와를 그 집의 주인인 벗과 동일시된다고 간주함으로써 선비의 가치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해 말하는 매개물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글쓴이는 가난한 선비에게 집이란 '작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크게 여김으로써 '노래와 춤, 관현악기, 금수와 꽃과 풀을 쌓아둠' 없이 '도서와 문사로 옛 성현을 사모하며 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집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귀와 눈을 즐겁게 하'려는 '그 욕심을 능히 다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인간의 욕심이 무한함을 지적하고 '금을 알지 못'하는 삶을 경계해야 한다는 통찰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이 글은 글쓴이가 '벗 홍언명이 호수의 구비에다 집을' 지은 일을 소재로 삼았으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글쓴이는 홍언명의 집을 '비록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은 없'었지만 상상을 통해 집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속성이 '옛날의 제왕이 견디며 살던 곳'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홍언명이 '집이 작은 것을 염두에 둔 것'을 알고 역설적 논리를 통해 해갑와가 외형은 작을 수 있으나 그 본질은 결코 '작지는 않은 셈'이라는 점을 밝히며, 그가 스스로를 계막지로 봄으로써 학문과 사업에 충실하고, '나라에 등용되'어 '빈한한 선비들을 감싸 주는 바탕을 얻'는 인물로 성장해야 함을 교훈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선비들이 '스스로를 계막지로' 보면서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 즉 반드시 커야만 하는 학문과 사업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벗 홍언명이 성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합치됨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08

극·수필

본문 241~243쪽

01 ④

02 ③

03 ④

■ 이상, 「산촌 여정」

해제 > 이 작품은 글쓴이가 평안남도 성천에 머물며 체험한 산촌의 풍물과 정취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산촌에서의 체험과 정서를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참신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다채롭게 드러낸다. 특히 도회적 감각을 바탕으로 산촌의 자연물을 근대적이고 미국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점에서 글쓴이의 개성을 느낄 수 있다.

주제 > 도시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산촌의 정경과 정서

구성 >

- 처음: 산촌의 밤 정경과 객주집 방에서의 상념, 가족에 대한 걱정(수록 부분)
- 중간 1: 즐겁게 꿈을 꾸고 싶은 마음과 화단의 식물을 보며 느끼는 감상, 도시에 대한 그리움(수록 부분)
- 중간 2: 산촌의 이곳저곳을 걸으며 마주친 풍경,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생각
- 끝: 객주집 방으로 돌아와 떠올리는 도회에 대한 향수와 질병, 가족들에 대한 근심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도회지의 석간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봉선화 중에는 흰 것도 섞였습니다.' 등에서 후각적,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산촌의 밤의 풍경 → 그 속에서 느끼는 정서 →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 가난한 식구들을 본 꿈 → 아침에 잠에서 깨어 바라본 화단의 식물들'에 대한 서술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산촌에서 겪은 일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그 연둣빛 색채로', '새빨간 잠자리', '흰 봉선화' 등 색채어를 활용하여 글쓴이가 산촌에서 본 자연물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공기는 수 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를 통해 자연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산촌의 밤의 정경을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도회에 남기고 온', '그 도회지의 석간과 같은',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도회에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등과 같은 도시인의 정서를 바탕으로, '향기로운 MJB의 미각', '파

라마운트’, ‘그라비아’ 등 이국적 느낌을 주는 소재를 사용하여 산촌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꾸던 ‘나’는 어느 순간 꿈에서 가난한 식구들을 보고 가족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에서 깨게 된다. 따라서 ⑥는 ‘나’가 다양한 종류의 꿈을 꾸는 공간으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꿈을 즐겁게 꾸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산촌에 있는 ‘나’와 달리 가족들은 도시에 있으며, 도회에 남겨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서 본 ‘나’는 가족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에서 깬다. 따라서 ④는 ‘나’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② 산촌에서 이십여 일 머무른 ‘나’는 MJB의 미각을 잃어버렸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산촌에서 듣는 베짚이의 소리를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와 ‘이발소 가위 소리’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을 통해 ③는 ‘나’가 익숙한 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나’는 별이 도회보다 산촌에서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온다고 인식하며, 하도 조용하여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 같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⑥는 ‘나’가 ③에서 접한 대상을 색다르게 느끼게 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중략) 뒷부분에서 ‘나’는 진중일 화초만 보고 놀거나 온갖 근심을 문지르고 즐겁게 꿈을 꾸고 싶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⑥는 ‘나’가 ③에서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근심 없이 놀고 싶다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를 통해 이상이 폐병을 앓고 있을 때 성천에서 요양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처지는 [A]의 ‘인간은 병석에서도 생각한다. 아니 병석에서는 더욱 많이 생각하는 법이다.’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글에는 ‘나’가 병을 앓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제시되거나, 병으로 인해 성천에서 휴식을 취하는 ‘나’의 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 ‘나’는 성천에서 바라보는 밤의 풍경과 가족에 대한 걱정, 식물을 보며 느끼는 감상 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A]에서는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해서 죽겠을 만치 길다.’, ‘답답한 하늘~답답한 풍경’을 통해 ‘나’가 성천에서 무료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글에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답 ③

답 ④

수 있을 것 같습니다.’를 통해 성천의 밤하늘을 밝히는 별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A]에는 ‘어서—차라리—어두워 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를 통해 어두워지기 전의 풍경만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글에서 ‘정 형! 그런 석유 ~ 생각이 납니다.’를 통해 ‘나’가 성천에서의 생활을 특정 인물인 ‘정 형’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A]에서는 ‘나’의 성천 생활을 특정 인물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다.

⑤ 이 글에서는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를 통해, [A]에서는 ‘이 마을에는 신문도 오지 않는다.’, ‘도회의 소식을 무슨 방법으로 알라?’를 통해 ‘나’가 도회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01 갈래 복합

본문 244~249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③ 05 ④ 06 ④

㉠ 김창협, 「산민」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한시이다. 백성들이 편안한 평지에서 삶을 포기하고 이웃도 없는 산골에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된 원인, 그리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어 고달픈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모두 가혹한 수탈을 일삼는 관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산골에 사는 아낙의 목소리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 산골과 평지라는 두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작품은 양반이 지은 것이지만, 백성의 문제를 직접 다루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에 무심하고 관념적인 가치만을 예찬하던 기존 양반 시가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 관리들의 횡포로 인한 백성들의 고달픈 삶

구성

- 기(1~4행): 산골 부인의 인정 있는 모습
- 승(5~8행): 산골의 고달픈 삶
- 전(9~12행): 산골 생활의 외로움과 어려움
- 결(13~16행): 관리들의 횡포 비판

㉡ 작자 미상, 「함강정가」

해제 ▶ 이 작품은 1792년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현실 비판 가사로, ‘함강정선유가(含江亭船遊歌)’라고도 불린다. 이 작품은 당시 전라 감사인 정민시가 순시를 나와 적성강 부근 함강정에서 여러 고을 수령을 모아 놓고 호화로운 뱃놀이를 하느라 온갖 민폐를 끼친 일을 고발한 노래로, 이 가사가 한양 송례문에 걸리고 궁중에까지 알려지면서 관련자들이 유배당한 일이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합강정가」는 전라도 지역의 현실적 모순을 고발함으로써 지방 민심을 대변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제작 연대가 분명하고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까닭에 당대 사회상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이 작품은 문제 상황을 직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모순된 사회 구조에서 파악해 지식인 계층이 가진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 백성을 돌보지 않는 위정자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의로운 선비가 없음에 대한 한탄

구성 ▶

- 서사: 순시 나온 감사가 백성 걱정은 하지 않고 뱃놀이에 정신이 팔림.
- 본사 1: 감사에게 아부하느라 수령들이 백성을 수탈하여 잔치 준 비를 함.
- 본사 2: 잔치 준비로 고통받는 백성의 처지를 하소연함.
- 결사: 감사의 비행을 간할 의로운 선비가 없음을 개탄함.

㉠ 이침, 「응계설」

해제 ▶ 이 글은 사냥용 매를 담당하는 ‘응방’의 폐지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을 담고 있는 글로, 백성을 돌보지 않는 임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수많은 사람이 응방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고작 닭 한 마리의 울음 때문에 응방을 혁파한 임금에 대해, 백성을 자식처럼 대해야 하는 임금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글쓴이는 응방의 폐해가 심각할 때는 임금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간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글쓴이의 비판은 백성을 위한 위정자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 백성을 돌보지 않는 임금에 대한 비판

구성 ▶

- 처음: 매의 먹이로 주었던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임금이 응방의 혁파를 지시함.
- 중간: 응방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과 임금이 응방을 폐지한 까닭
- 끝: 백성을 돌보지 않는 임금과 이러한 임금에게 간언을 하지 않은 신하에 대한 비판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는 인간에게 친숙한 ‘개와 닭’이 산골짜기의 비탈에서 서성대는 모습을 제시하며 백성들이 관리들의 횡포를 피해 산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인간에게 친숙한 ‘닭과 개’가 ‘사방 부근 십 리 안’에 멸종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가혹한 수탈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매의 폐단을 말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인간에게 친숙한 ‘닭’의 울음소리와 비교하며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다) 모두 범접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경외감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가)는 ‘개’와 ‘닭’, ‘무서운 호랑이’와 같은 자연물이 드러나 있지만 인간의 속성과 대비되지 않으며 현실 극복의 가능성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큰 물고기’, ‘닭’과 ‘개’와 같은 자연물이 드러나 있지만 현실 극복의 가능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는 ‘닭’과 ‘매’와 같은 자연물이 드러나 있지만 인간의 속성과 대비되지 않으며 현실 극복의 가능성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 ④ (나)는 ‘때는 구월 이십삼일’, ‘성절일’에서 시대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고, (다)는 ‘충혜왕 때’라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낸 후, ‘응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백성들과 임금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간언을 하지 못하는 신하들의 모습 등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는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나)는 관찰사가 가을 순행을 하기 전에 홍수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모습과 관찰사 가을 순행으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다)는 충혜왕이 유배를 가기 전과 달리 충혜왕이 유배를 간 후 응방이 혁파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지만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가)에서는 두메산골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D]의 ‘가고파도 고을 관리 너무 무서워’는 부부가 ‘두메산골’에서 사는 이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A]에는 화자가 초가집 안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밥상을 대접받는 모습만 제시되어 있을 뿐, 화자가 부부를 찾아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의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와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는 ‘부인’의 대답을 통해 [A]에서 ‘바깥어른’ 대신 ‘부인’이 자신의 집을 찾은 화자를 맞이한 이유를 알 수 있다.
- ③ [B]의 ‘아침에 쟁기 들고’와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를 통해 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C]에서는 ‘뜬은 콩잎 광주리에 반도 안 된다’를 통해 농사를 짓는 대상이 ‘콩’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④ [B]의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를 통해 척박한 토양이 부부의 힘겨운 삶의 원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C]의 ‘숲속에는 무서운 호랑이 많아’를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인 ‘호랑이’의 존재 역시 부부의 힘겨운 삶의 원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⑤ [B]에서 화자는 ‘부인’에게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라고 물으

며 ‘바깥어른’이 집에 없는 것을 궁금해하고 있으며, [D]에서 화자는 ‘부인’에게 ‘이곳이 뭐가 좋다고 / 척박한 두메산골’에서 살고 있는지를 물으며 부부가 ‘두메산골’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아해하고 있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㉓에서는 ‘먹을 복 좋은 우리 감사’와 ‘출세 운 좋은 우리 감사’라는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백성의 어려움을 돌봐야 하는 관찰사로서의 임무는 등한시하고 하급 관리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관찰사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을 뿐, 순시를 나온 ‘감사’가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에서는 ‘구경 가세’라는 구절을 반복하며 ‘감사’를 맞이하는 행사가 ‘합강정’에서 열리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㉒에서는 ‘무논’과 ‘목화밭’과 같이 농사와 관련된 공간을 언급하며 백성들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는 ‘감사’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㉔에서는 ‘많이 주면’과 ‘적게 주면’, ‘무사하고’와 ‘트집 잡네’와 같이 상반된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사용하여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순령수’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㉕에서는 ‘~게 되면 ~리라’와 같은 가정적 진술을 통해 ‘감사’가 신하로서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교적 가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0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홍수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이 관찰사 가을 순행 기다림은 / 가을걷이 부족함을 채워 줄까 해서인데’라는 구절을 통해 ㉓는 생활고의 해결 방안으로 백성들이 기다렸던 행사라는 점을, ‘지나는 곳마다 죄를 묻는 폐단 있네’라는 구절을 통해 ㉔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의 ‘집에서 기르며 먹이고 밭의 곡식이 짓밟혔다. 매의 폐단을 말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어찌 닭 한 마리의 울음소리 정도에 그쳤겠는가.’라는 구절을 통해 ㉕는 백성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여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관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돌을 깨서 강 막는 데 한 달이나 걸렸구나’와 ‘산을 뚫어 길 낼 때에 민가 무덤 옮겼구나’, ‘음식 거마 장막 온갖 채비 밤낮으로 준비하고’라는 구절을 통해 ㉓는 백성들이 오랫동안 준비하여 진행한 행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㉕는 매의 먹이로 준 닭이 거의 죽어 가는 와중에도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울었다는 말을 듣고, 충혜왕이 측은하게 여겨 조정에서 논의해 혁파되었다.

답 ④

따라서 ㉖가 백성들이 오랫동안 호소하여 혁파된 관청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구경 가세 구경 가세 합강정에 구경 가세’와 ‘홍수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이 관찰사 가을 순행 기다림’이라는 구절을 통해 ㉓는 관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하는 행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의 ‘매의 폐단을 말하는 사람들의 호소’라는 구절을 통해 당시 백성들이 ㉕의 혁파를 주장했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㉖가 관리들의 요청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나)의 ‘관찰사 부임 뜻밖이나’라는 구절을 통해 백성들은 관찰사가 부임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㉓가 백성들이 요구했던 행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다)의 ‘매의 폐단을 말하는 사람들의 호소’라는 구절을 통해 백성들이 ㉕의 폐단의 시정을 요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사람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나)의 ‘홍수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이~지나는 곳마다 죄를 묻는 폐단 있네’라는 구절을 통해 ㉓는 관리들에 대해 백성들이 억울함을 표출하는 계기가 아닌, 백성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행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의 ‘임금이 감동하고 나라에서 관청을 폐지했다’라는 구절을 통해 ㉕의 유지와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리가 아닌 임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㉖는 관리가 아닌, 임금에 대해 백성들이 울분을 표출하는 계기가 되는 관청이라고 볼 수 있다.

0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의 글쓴이는 제선왕에게 ‘어진 정사를 펼치라’고 당부했던 맹자의 말과 백성들을 ‘어린아이를 돌보듯 하라’는 『서경』 「강고」의 구절을 인용하며 옛사람들이 당부한 정치의 실현을 염원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나라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임금이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면서 잘 먹여 다스려야 한다고 당부하며, 임금다운 태도를 지니기를 염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람의 마음은 남이 하는 말에는 어둡지만 자기가 믿는 데는 밝은 법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은 (다)의 글쓴이가 비판하는 태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보기>의 화자는 임금과 신하, 백성다운 태도를 지닐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태도를 당부하고 있지는 않다.

② (다)의 글쓴이는 한 마리의 소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면서도, 어진 정사를 펼치라는 맹자의 말은 살피지 못한 제선왕의 고사를 제시하며 ‘사람의 마음은 남이 하는 말에는 어둡지만 자기가 믿는 데는 밝은 법이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의 화자는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 나라 안이 태평할 것이’라 말하며 자신의 신분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다)의 글쓴이는 맹자의 말과 『서경』 「강고」의 구절을 통해 임금 이 백성을 돌보는 정치의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대의적인 명분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의 화자는 임금이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백성을 돌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나라를 돌보는 것처럼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⑤ (다)의 글쓴이는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정성을 다해 키우는 것처럼 임금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아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서경』 「강고」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의 화자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임금이 백성을 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 백성을 대하는 임금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우리 임금님 어진 마음 밝은 촛불 되게’ 해 달라며 ‘하느님’께 기원하는 것은 화자의 발화를 통해 임금과 관리들이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보살피기를 바라는 작가의 소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나라’에 ‘인간 세상에 남은 액운’이 미치는 것은 관찰사의 가을 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물고기까지 고통받는 현실을 나타낸 것일 뿐, 작가가 추구하는 사회상을 제시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부인’이 ‘저 너머 평지가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것과 (나)에서 백성들이 ‘하릴없이 떠도’는 신세가 된 것은 각각 ‘고을 관리’와 관찰사의 순행을 준비하는 ‘각 읍 관리’ 때문이다. 이는 (가)와 (나)의 작가가 지배 계층을 비판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② (가)는 화자와 ‘부인’의 대화를 통해 부부가 두메산골에 사는 이유가 무서운 고을 관리 때문이라는 점을 드러내며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글쓴이의 논평을 통해 백성을 돌보지 않는 충혜왕과 그러한 충혜왕에게 신하로서 간언을 하지 않은 관리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에서는 ‘인자한 우리 임금 곡식 한 묶음도 모래 덮일까 염려하는데’라는 구절을 통해 임금이 백성을 돌보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나)의 임금은 비판의 대상이라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다)의 글쓴이는 ‘임금이 한창 매를 좋아할 때는 용방이나 비간과 같은 충신이 조정에서 간쟁했다 하더라도 필시 성을 내며 죽여 버렸을 것’이라고 말하며 충혜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신하들의 간언도 듣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다)의 충혜왕은 (나)의 임금과 달리 비판의 대상에 해당한다.

⑤ (나)의 화자는 관찰사의 순행으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과거장서 재주 겨루는 유생들’을 향해

‘의로운 선비 하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신하들이 충혜왕에게 용방을 혁파하라고 간언을 하지 않은 이유가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두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지배 계층의 모습을 비판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2

갈래 복합

본문 250~255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④

05 ⑤

06 ⑤

㉠ 작자 미상, 「계녀가」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시대에 쓰인 규방 가사로,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예의범절에 관해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훈서의 내용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부녀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전하면서 딸이 이를 쉽게 익혀 실천하기를 바라는 친정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

주제 > 시집가는 딸에 대한 걱정과 부녀자의 도리에 대한 권계

구성 >

- 서사: 시집가는 딸에 대한 걱정
- 본사: 시집에서 지켜야 할 부녀자의 도리
- 결사: 시집살이에 대한 권계와 당부

㉡ 정약용, 「상론」

해제 > 『여유당전서』에 실려 있는 논변류 글로, 용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태에 대한 경계의 뜻을 담고 있다. 작가는 사람이 무리에 따라 익히는 것이 다르고, 익히는 것에 따라 성품이 달라지며,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 상이 변하게 된다고 하며 상을 보고 익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비판한다. 작품에는 상을 믿었을 때 야기되는 폐해나 여러 사례를 통해 논지를 강화하는 서술상의 특징이 드러난다.

주제 > 타고난 관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계

구성 >

- 처음: 익히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상
- 중간: 여러 사례를 통한 통념에 대한 비판
- 끝: 통념에 따른 폐해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귀타고 안을 받아 버릇없게 하지 말고’와 ‘밧다고 과장 주어 정신없게 하지 말고’, ‘더위에 농사지어’와 ‘추위에 물을 끼려’, ‘꾸짖어도 악언 말고 치나마 과장 말고’ 등 대조적 상황을 제시해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서당의

무리', '시장의 무리', '목동의 무리', '강패나 마조 같은 무리'를 대조하고, '학문을 익힌 사람'과 '이를 익힌 사람', '힘을 익힌 사람', '악을 익힌 사람'을 대조하여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아해야 들어 봐라'에서 '아해야'와 같이 구체적 청자를 호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통해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에는 구체적 청자를 호명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가)와 (나)에는 사물에 의탁하여 경험한 일로부터 받은 감흥을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에는 대상을 의인화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나)에는 '세상에는 진실로 재덕을 충분히 간직하고도 앓궁하여 그 재덕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을 우대했다라면 이 사람도 재상이 되었을 것'에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에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드러낸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화자는 노비에 대해 '귀천은 다르나마 혈육은 한가지라'라고 하며 '꾸짖어도 악언 말'고 '명분을 받게 하여 기수를 잃지 마라'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노비를 대우하되 귀천을 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는 '진지를 차릴 적에는' '식성을 물어 가며 반찬을 맞게' 해야 한다며 시부모님 봉양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내 방에 돌아 나와 일손을 바빠 들'여야 한다고 하며 여성이 자신의 생활 공간인 규방에서도 부지런히 가사 노동을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③ 화자는 '두세 살 먹은 후'의 자녀를 '귀타고 안을 받아 버릇없게 하지 말'라고 하며 어머니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치산을 하'는 일과 관련해 '헌 의복 기워 입고 잡음식 먹'으라고 하며 재산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남의 집'은 대상이 '더욱 조심'해야 하는 곳으로, 화자는 '남의 집'에 대해 대상이 '웃음을 과이하여 이뿌리 나게 말고',

'웃귀를 매게 하여 속웃을 나게 말'아야 하는 장소라고 여기고 있다. (나)에서 글쓴이는 '거처'는 '기질을 변화시킨다'고 하며 '거처'에 대해 대상이 지닌 '기질'이 달라지는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우마'는 '아해'가 타는 것으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 아니고, (나)의 '임금'은 글쓴이가 예시로 든 인물로 글쓴이와 동일시되는 대상이 아니다.
- ② (가)의 '상전'은 노비와 대상의 관계에서 대상을 직접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비유적 표현이 아니다. (나)의 '백만장자'는 부유해진 대상의 상황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양반'은 '고하 말'아야 할 대상일 뿐 화자는 '양반'에 대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나)의 '악을 익힌 사람'은 패망한 경우를 나타낼 뿐 글쓴이는 '악을 익힌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가)의 '이 책'은 '옛글에 있는 말과 세정에 담은 일'로 만든 것으로 화자가 이를 통해 시련을 극복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의 '서적'은 '눈동자가 빛나'는 아이를 위해 부모가 사들이는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고 있지 않다.

0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글쓴이는 [A]에서 '우리가 나누어짐으로써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진다고 하면서, [B]에서 '서당의 무리', '시장의 무리', '목동의 무리', '강패나 마조 같은 무리'를 예로 들어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 상도 변하게 된 구체적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가 [A]에서 언급한 '형세는 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인식은 앞뒤의 맥락으로 볼 때 [B]에서 사람들이 '그 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익히는 것이 저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관련되므로, 글쓴이의 인식과 사람들의 생각이 상통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글쓴이가 [A]에서 언급한 '설을 하는 사람'은 '상'이 '익히는 것으로 인하여 변화'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형국이다 유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글쓴이가 [B]에서 언급한 '그 상의 변한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A]의 '설을 하는 사람'과 [B]의 '그 상의 변한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글쓴이가 비판하는 대상이므로, [A]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과 달리 [B]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 ③ 글쓴이가 [A]에서 언급한 '아주 어린 아이'는 '용모를 보면 예'뽀뽀 아직 익힌 것이 없는 상태를 이르는 것이다. [B]의 '상이 아름답'다운 경우는 글을 익혀 상이 아름다워진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통해 익히는 것에 따라 상이 달라짐을 언급하고 있

을 뿐, ‘아주 어린 아이’와 ‘상이 아름답’다운 경우를 연관 짓고 있지 않으며 ‘상이 아름답’다운 경우에 대해 예찬하고 있지도 않다.

⑤ 글쓴이가 [A]에서 언급한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짐으로써 상도 이로 인해 변하게 된다’는 것은 익히는 것에 따라 상이 달라짐을 나타낸 것이다. [B]에서 ‘익히는 것이 오래됨으로써 그 성품이 날로 옮겨 가게 되’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서, 상이 이로 인해 변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익히는 것에 따라 상이 달라짐을 나타낸 것이므로 [A]의 주장이 [B]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05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가르칠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스승의 평가로 ‘더욱 공부에 힘쓰고 날로 더 부지런하게’ 되는 경우를 보여 주며, ㉡은 ‘부자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평가와 ‘부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인의 평가로 ‘더욱 힘쓰고 날로 부지런하여 사방으로 장사를 다’니는 경우를 보여 준다. ㉢은 ‘부모와 사장들은 양성하고 협조하는 것을 모두 위와 반대로’ 하여 ‘자기 몸을 귀하고 부하게’ 하지 않는 경우를 보여 주므로, ㉠, ㉡, ㉢ 모두 성장하는 데 있어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영향을 준 경우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더욱 공부에 힘쓰고 날로 더 부지런하게 된다’는 점에서 근면한 태도로 생활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이 아이는 더욱 힘쓰고 날로 부지런하여 사방으로 장사를 다닌다’고 하였으므로 천성으로 인해 게을리 생활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② ㉠은 ‘붓·먹·연분·서판을 더욱더 주’는 스승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부모와 사장들이 ‘양성하고 협조하는 것을 모두 위와 반대로’ 하여 ‘자기 몸을 귀하고 부하게 할 수’ 없는 경우를 보여 주므로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③ ㉠과 ㉡은 모두 ‘그 상으로 인하여 그 형세를 이루고, 그 형세로 인하여 그 상을 이루게 된’ 경우를 보여 준다.

④ ㉢은 ‘자기 몸을 귀하고 부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스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를 보여 준다. ㉠은 ‘더욱 힘쓰고 날로 부지런하여 사방으로 장사를 다닌다’고 하였으므로 스스로 노력을 다하여 성공을 이룬 경우를 보여 준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작가는 ‘옛글에 있는 말과 세정에 담은 일’을 기록하여 ‘책을 매서 경계’한다고 하며 딸이 통념에 따라 부녀자로서의 도리를 지키기를 바라고 있다. (나)의 작가는 ‘재덕을 충분히 간직’

하였지만 ‘액궁’하여 ‘그 재덕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람은 ‘상’에 허물이 있다고 여겨져 ‘우대’받지 못한 이를 가리킬 뿐 작가가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작가는 ‘내일이 신행’인 딸을 생각하며 ‘이 심사 갈밭없’다고 함으로써 딸을 걱정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부모께 떠’나 시가로 들어가는 딸에게 ‘경계할 말’이 많다고 하며 조언을 하고 있다.

② (가)의 작가는 ‘시가로 들어가’는 딸에게 ‘문밖에 사관할 제 세수를 일찍’ 한 뒤 ‘문밖에서 절을 하고 가까이 나와 앉아’ ‘방이나 답사온가 잠이나 편하신가’ 물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시집살이를 할 때 머느리로서 해야 할 일로 부녀자로서의 올바른 품행을 드러낸 것이다.

③ (나)의 작가는 ‘그 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저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며, 운명론적 태도로 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다.

④ (가)의 작가는 ‘맹자의 어마임도 맹자를 기르실 제’ ‘이사를 세 번 하여 학교 곁에’ 살았다는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자녀를 올바르게 키운 이상적인 여성의 전례를 전하고 있다. (나)의 작가는 ‘용모로써 사람을 취’하지 않은 ‘공자’를 ‘성인’이라고 하며 ‘상’을 토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사례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03 갈래 복합

본문 256~260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5 ③ 06 ②

㉠ 이항복, 「하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

해제 > 이 작품은 이항복이 시 짓기의 고됨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대해 진솔하게 서술한 수필이다. 시는 단순히 글재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사유의 움직임들 통해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글쓴이는 시인이 되어 겉모습을 꾸미려는 이들을 경계하며, 진심과 수고를 바탕으로 한 시 창작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주제 > 시 창작의 어려움과 그에 담긴 진정성의 가치

구성 >

- 처음: 시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언급함.
- 중간: 진정된 시 창작의 어려움과 그 가치가 왜곡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함.
- 끝: 생각이 움직이면 시를 이루고, 시를 읊다 보면 다시 생각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를 좋아하고 귀히 여길 만한 것
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4 이창동, 「시」

해제 > 이 작품은 이 시대의 시 쓰기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물으면서 미와 윤리의 문제를 탐구하는 영화 시나리오이다. 중학
생 손자와 살아가는 평범한 할머니인 미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시를 쓰고 싶어 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자살한 여
중생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미자의 삶은 부조
리한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시 쓰기라는 모순 가운데 놓인다. 이 작
품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
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
게 된다.

주제 >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의 시 쓰기가 지닌 의미

전체 줄거리 > 딸이 말긴 중학생 손자와 살아가는 미자는 손자가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는 평범한 할머니이지만,
아직도 레이스 달린 모자를 즐겨 쓰고 꽃을 좋아하며 시를 쓰고 싶
어 하는 감성적 인물이다. 시 창작 강의의 수강생이 되어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여중생의
죽음에 자신의 손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노인의
간병으로 생활비를 벌며 쓰는 가난한 처지에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괴로워함과 동시에 어린 소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 시 창
작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 미자는 그 여학생을 애도하는 추모의 시
를 발표하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01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글쓴이는 생각이 움직여 시가 되고, 이렇게 창작된 시를 읊다
보면 생각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며 생각과 시가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이 맑지 않으면 생각이 깊어질
수 없다고 하였을 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각이 깊어진다고 언급
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시란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귀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물음을 시작으로 시에
관한 생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좋은 시를 보면 문득 기
뻐하였으니 마치 병이 나서 술을 절제하는 사람이 문득 술 생각이
나는 것 같’다고 하며 시에 대한 애정도 드러내고 있다.
- ② 글쓴이는 시인과 광대를 풀벌레 같은 존재라고 하며 생각을 소
리로 표현하는 존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주로 사람을 기쁘
게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인의 생각을 담아낸 시가 사람의 정
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글쓴이는 허균이 불교의 말을 더욱 믿어 시를 장식한다고 하
며 이러한 태도는 좋은 벼를 뽑아 버리고 잡초를 키우는 것과 같
다고 하며 비판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소리 내는 것을 힘들과 편안함으로 나누어 벌레, 광
대, 시인을 비교하고 있다. 때가 되면 자동으로 우는 벌레, 입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한 광대와 달리 시인은 온 감각과 감정을 부
지런히 힘써 소리 내는 수고로움을 통해 시를 창작한다고 말하며
시 창작 과정에서 시인이 겪는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

02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속을 태운다는 것은 내면에서 감정이 일어난다는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마음속에서 감정이 일어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치 내면의 생각이 움직여 시를 읊게 되는 상황으로 드러나는 것
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시란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난 움직임이 겉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을 통해 어떤 자극으로 인해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
다고 보는 글쓴이의 생각은 알 수 있지만, ㉠이 인간이라면 누구
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② ㉠을 통해 생각이 움직여 읊게 되는 것이 시라고 보는 글쓴이
의 생각은 알 수 있지만, ㉠이 시가 타인에게 받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언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③ ㉠을 통해 시를 읊는다는 것이 마음의 한가운데가 건드려져 밖
으로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는 글쓴이의 생각은 알 수 있지
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함축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시
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④ ㉠을 통해 어떠한 자극이 주어져 그것으로 인해 생각이 바깥으
로 드러나는 것이 시를 읊는 것이라는 글쓴이의 생각은 알 수 있
지만, ㉠이 외부의 자극과는 무관하게 내적으로 사유하는 힘이
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김 시인이 미자에게 시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 찾아가서 빌어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시상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의
내용이 보편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갖게 하기 위해 독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생각을 물에, 시를 얼음에 비유하며 시 창작을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도로 물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
고 보는 글쓴이의 생각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시란 시인의 생각
이 언어로 형상화되어 보편적인 의미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이라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② (나)에서 김 시인이 미자에게 시상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있다고 말하며 ‘설거지통 속’에도 시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일상적 경험 속에서도 시상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 개별적 체험이 시의 소재가 되어 독자들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주는 시의 창작과 수용 과정을 설명한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④ (가)에서 글쓰이는 시인이 생각을 짜내어 겨우 한 구를 완성한다고 말하며 시를 창작하는 것은 ‘오장육부를 힘들게 만들어 부지런히 짓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나)에서 미자는 시상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질문하며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시 창작 과정에서 시인의 고뇌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⑤ (가)에서 글쓰이는 마음이 맑지 않으면 생각이 깊어질 수 없고, 깊이 않은 생각으로 창작된 시는 독자를 감동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 김 시인은 시를 쓴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 심미적 즐거움과 정서적 울림을 경험하게 하는 시를 쓰기 위해서는 ‘맑은 마음’을 갖추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작중 상황의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강의 주제는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한 것이고, 김 시인이 시상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미자가 이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한 것에 대해 김 시인이 ㉠과 같이 반응한 것으로, 강의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쓰이는 사물이 똑같지 않은 것, 즉 평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지니며 사물이 똑같지 않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손가락을 깨물어 맹세하여 시에 대해 말하기를 기피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술을 절제하는 사람이 문득 술을 생각하는 것에 빗대어 시를 말하는 것을 기피하던 글쓰이가 문득 시를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시에 대한 애정을 억누를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미자가 시상을 찾는 방법에 대해 김 시인에게 질문을 했고, 김 시인의 답을 들은 후에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자가 김 시인의 말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이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미자는 시 창작과 관련하여 김 시인에게 질문을 하고, 김 시인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므로 시를 잘 창작하고 싶어 하는 미자의 마음이 드러난 표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05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S#21에서 김 시인은 시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다고 강의했다. 이후 S#92~S#94에서 오프 사운드로 제시되는 미자의 시를 보면 노을, 숲의 새소리, 장미, 바람 등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시를 창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S#92에서 시를 읽는 미자의 목소리가 오프 사운드로 들리고 있으나 미자가 김 시인과 함께 시를 창작하고 낭송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는다.

② S#21에서 강의를 들으며 미자는 김 시인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고, 계속되는 질문에 김 시인이 약간 짜증 나는 것을 참는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다른 수강생과 미자의 갈등 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S#92에서 미자의 딸인 수옥은 미자의 집에 와서 미자가 집에 없음을 알고 전화를 건다. 하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 미자가 남긴 시를 읽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는다.

⑤ S#21에서 김 시인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대상, 즉 살아 있는 생명체에 시를 빗대어 수강생들에게 시 창작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상에 빗대어 수강생들에게 시 창작 방법을 설명한 것이지, 시와 관련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시 창작 방법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06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S#92에서 미자의 집에 찾아온 수옥은 현관 입구에 들어서며 미자를 부르는데, 미자의 부재를 확인하고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 미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애태우며 울부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미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난 후 수옥이 미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수옥이 애태우며 울부짖는 표정으로 연기하도록 해야겠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S#92에서 미자의 아파트 안 싱크대 위의 창문에서 햇살이 들어오고,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므로 미자의 아파트 안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 줄 때 텅 빈 집 안을 화면에 비추면서 집 안의 고요함을 부각해야겠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③ S#93에서 누군가의 시점으로 보이는 나무가 화면에 담기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상황을 틸트다운하여 보여 주고 있으므로 나뭇잎의 흔들림이 잘 보이도록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이동시키며 나무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야겠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④ S#93에서 나무 옆의 미자가 앉았던 자리에 동네 할머니가 앉아 나무를 올려다보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훌라후프를 하며 놀

고 있으므로, 화면에 나무의 모습에서 나무 옆에 앉아 있는 할머니의 모습과 아이들이 홀라후프를 하는 모습까지 담기도록 카메라의 시선을 이동하며 촬영해야겠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⑤ S#92부터 S#94까지 오프 사운드로 시를 낭송하는 미자의 목소리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화면 밖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미자가 낭송하는 시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오디오의 통일성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04 갈래 복합 본문 261~266쪽

01 ④ 02 ① 03 ④ 04 ② 05 ③ 06 ④

㉠ 허난설헌, 「규원가」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시대 규방 가사 중 하나로, 집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담고 있다. 화자는 남편과 함께 한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노래를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 외로움 속에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다. 고사성어나 자연물에 빗댄 비유 등을 통해 슬픔과 간절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학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여성의 시선으로 쓰인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여성의 정서와 현실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규방 가사로 평가된다.

주제 >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외로움과 한탄

구성 >

- 1~12행: 젊었던 시절을 돌아보며 나이 들고 외로운 처지가 된 지금의 상황을 한탄함.
- 13~26행: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며 외로운 밤을 보내는 심정을 노래함.
- 27~34행: 마음을 달래고자 하지만 외로움이 가시지 않음.
- 35~47행: 돌아오지 않는 임의 소식을 기다리며 자신의 처지를 비판함.

㉡ 작자 미상, 「인현왕후전」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전기체(傳記體) 소설로 궁중 비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록」, 「계축일기」와 같은 궁중 문학으로 분류된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현왕후의 덕행과 장 희빈의 악행을 대비하면서 흥미롭게 사건이 전개되는 가운데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한 주제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어 교훈서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주제 > 폐위와 복위를 중심으로 한 인현 왕후의 삶과 덕행

전체 줄거리 > 인현 왕후는 병조 판서를 지낸 민유중의 딸로, 인경왕후 사후 숙종의 외조부 김 공의 천거로 왕후가 된다. 인현 왕후는 덕이 높고 효성이 깊었으나 후사가 없어 왕에게 후궁을 들일 것을 청하는데, 시녀 출신 장 씨가 희빈이 되어 왕자의 생모가 된다.

장 씨는 거짓과 모략으로 왕의 총애를 얻고 인현 왕후를 폐위시킨다. 많은 신하들이 폐위를 반대했지만 왕은 듣지 않는다. 폐위된 인현 왕후는 안국동에서 죄인처럼 조용히 지내게 되고, 장 씨는 왕자의 세자 책봉 이후 기고만장하여 권세를 떨친다. 몇 해가 흐른 뒤 왕은 장 씨의 허물을 알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인현 왕후를 복위시킨다. 그러나 장 씨가 무속과 음모로 인현 왕후를 해치려 하던 중 인현 왕후는 복위 8년 만에 35세로 세상을 떠난다. 이후 진상을 파악한 왕은 장 씨와 관련된 자들을 처형하고, 장 씨에게는 사약을 내리는 한편, 제문을 지어 인현 왕후의 넋을 위로한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일년일도 실기치 아니커든’에서 ‘견우직녀’ 설화의 인물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설화 속 인물들은 일 년에 한 번 만남을 이루지만 화자는 임과 못 만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자는 동일시되지 않고 서로 대비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살게 된 상황에 대해 ‘삼생의 원업이오 월하의 연분으로’와 같은 대구적 표현에 의한 운명론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봄바람 가을 달이 베울에 북 지나듯’,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 진고’에서 자연의 변모 과정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자취눈’을 통해 겨울을, ‘실슬’을 통해 가을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하여 시적 배경의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소식이야 더욱 알라’, ‘~생각이야 없으소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임이 부재하는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으며, ‘열두 때 김도 길사 서른 날 지리하다’에서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그러한 상황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02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화자는 입을 ‘장안유협 경박자’라고 지칭했으며, ‘당시의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하다고 했다. 이로부터 화자는 입의 ‘경박’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불안하게 지냈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화자는 외양이 ‘면목가증’한 상태로 변화된 이유를 입이 화자 자신을 빗박한 데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하여’, 즉 세월이 빨리 흐르고 조물주의 시기가 많았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③ ‘인연을 그쳤은들 생각이야 없을까’와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으려’에서 입과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화자가 입과 헤어져 있기보다 ‘인연’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에서 화자는 입을 ‘꿈’에서 보려고 잠을 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수’ 같은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의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화자는 ‘잎’과 ‘짐승’의 소리를 입이 오는 인기적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잠을 깨우는 원수로 여긴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화자가 입과 자신 사이에 ‘약수’가 놓여 있다고 상상한 것에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 입과 재회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난간’은 화자가 ‘입 가신 데’를 바라보는 장소에 해당할 뿐, 화자와 입 사이의 장애물로 볼 수는 없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장 씨는 ‘폐비에게 사약’함으로써 후를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였다. 그리고 조정 소인들은 ‘후의 삼촌 숙질을~아뢰기를 수년에 이’른 데에서 후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애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하는 상감의 결정으로 ‘민씨 일문이 보존’ 되었으므로 장 씨와 조정 소인들은 후의 반대편에서 정치적인 노선을 같이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후는 폐출되어 ‘신세 구차하고 황락’한 자신의 기구한 운명과 관련하여 ‘일찍이 사람을 탓하고 귀신을 원망하는 바가 없이 천연 자약’하였다.

② 후가 ‘색깔 있는 옷’은 거부하고 무명 치마와 순백 저고리를 입은 이유는 자신의 결백을 밝혀 보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겨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③ 장 씨가 ‘양양자득하여’ 기세를 떨치고 ‘방약무인’으로 궁궐 안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것은 왕세자의 어머니가 된 후 일어난 일이지만, 장희재에게 훈련대장의 벼슬을 제수한 것은 그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⑤ 임금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궁궐 사람들을 시켜서 후에게 어찰을 보낸 것은 맞지만, 후가 문도 열어 주지 않자 문을 열도록 거듭하여 명을 내리고 사람을 보냈을 뿐 몸소 후를 찾아가서 사죄의 뜻을 전한 것은 아니다.

0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궁인들은 거처에 들어온 ‘큰 개’를 거둬서 쫓아내려 했으나 후는 ‘그 개 출처~하는 양을 보라’라고 말하며 집에 들이게 한

다. 이를 통해 ‘큰 개’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색다르게 인식하는 후의 모습을 부각해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녹기금’은 연주를 통해 화자의 근심을 달래는 수단이자 화자의 고독과 슬픔을 대변하는 매개체로 나타나지만, ‘실술’은 화자의 근심을 달래기보다 외로움과 슬픔을 환기하고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③ ‘녹기금’은 ‘시름조차 섞어’ 탐으로써 화자의 감정 상태를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지만, ‘큰 개’는 인물의 감정 상태를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④ ‘큰 개’는 ‘출처 없이 들어와 쫓아내는 상황을 견디며 결국은 ‘새끼를 세 마리 낳’았으므로 시련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자연물로 볼 수 있으나 ‘실술’은 그러한 모습이나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⑤ ‘큰 개’는 ‘짓어 대므로 잡귀가~집안이 편안한지라’를 통해 주인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술’은 그러한 모습이나 특성은 보이지 않고, 가을의 이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독과 슬픔의 정서를 환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㉔에서 궁중 안 장 씨로 인해 빛어진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서러워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는 오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어진 사람이 없’어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난망함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 ‘~다더라’를 통해, 후가 ‘말씀하시며 따라 눈물을 흘리시니 죄우가 모두 흐느껴’ 우는 모습을 목격했거나 그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말을 서술자가 듣고 인용하여 소개하는 서술 방식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㉔: ‘대개 무지한 짐승도~하물며 신민이라’에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당연한 도리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고, ‘금수만도 못하리로다’에서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당연한 도리가 지켜지지 않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㉔: ‘대개 예로부터~쉬운 법’이라는 서술을 통해 한 사회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일반적인 인식을 토대로 하여 임금이 저지를 수 있는 과오에 대해 사회가 용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㉔: ‘천운이 순환하여~끝나면 즐거움이’ 오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는 서술자의 생각을 언급하여 사건 진행의 형세가 반전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화자가 '이 태도로 백년기약'한 것은 자신의 '천연여질', 즉 젊고 고운 모습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가운데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에서 후가 '민정자의 딸'을 데려다가 '열녀전'을 가르친다는 것은 집안 차원에서 유교적 가부장제 윤리 규범인 '열'을 지켜 나가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 (나)의 경우 모두 유교적 가부장제 윤리 규범의 잣대가 남성에게는 관대했고 여성에게는 엄격했음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내 얼굴 내 보거나 어느 입이 날 꿰소냐 / 스스로 참되 하니 누구를 원망하리'와 '소식이야 더욱 알랴'에서 보듯 화자는 '입이 날' 괴지 않고 남편의 소식이 없는 이유를 남성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임을 여성인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② (나)의 후가 '대내에 있을 때' 송이를 들여와 '두 대비 전에서 즐겨 진어하'며 '위하여 수라에' 쓴 것은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시어른들을 섬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후가 시어른에게 효를 행하며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것은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선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희빈 장씨가 '오라비 회재와 더불어 꺾어' 나라에 '변이 크게 나'게 만들자 남편인 임금은 '짐짓 그 하는~흉모를 깨'달게 되었다. 이렇게 장 씨가 남편인 임금을 실망시킨 행위는 아내로서 지아비를 섬기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장 씨는 악인으로 규정될 수 있다.

⑤ (가)의 입이 가정을 버리고 '백마굽편으로' '정처 없이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상황과, (나)의 임금이 희빈 장씨에게 '침혹하사' 나라의 체면을 손상'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행위의 주체로서 남성인 가장의 무책임이나 실수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05

갈래 복합

문분 267~272쪽

01 ③ 02 ① 03 ⑤ 04 ① 05 ① 06 ⑤

㉠ 임유후, 「목동가」

해제 > 이 작품은 임유후가 지은 문답체 강호 가사로 '목동문답가', '목우가' 등으로도 불린다. 목동은 사대부들이 문학에서 즐겨 다룬 소재 중 하나로,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서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상징한다. 작품은 크게 전반부의 '묻는 노래'와 후반부의 '답하는 노래'로 나뉘며, '묻는 노래'에는 사대부로 추정되는 화자가 등

장해 목동에게 질문을 하고, '답하는 노래'에는 목동이 등장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독특한 구성을 보여 준다. '묻는 노래'의 화자는 벼슬길에 나아가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세제민의 삶을 바람직한 삶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에 대해 '답하는 노래'의 화자는 자연에 묻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강조한다. 두 화자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주장하지만, 작가는 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가를 묻지 않고, 그 둘이 모두 사대부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 때를 만나면 세상에 나아가고 때를 못 만나면 정처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을 즐기며 산다는, 사대부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두 화자의 목소리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 세상을 위한 출세의 삶과 자연에서 누리는 안분지족의 삶 사이에서 모색하는 바람직한 삶

구성 >

- 문가(問歌: 양반이 목동에게 묻고 말하는 부분): 인생은 유한하므로, 입신양명에 힘써 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후세에 이름을 남길 것을 권유함.
- 답가(答歌: 목동이 양반에게 대답하는 부분): 부귀공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며 수많은 이름난 이들이 벼슬길에서 고초를 당했던 사실을 헤아려, 욕심을 잊고 분수를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함.

㉡ 이정, 「풍계육가」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중기의 문인 이정(李淨: 1520~1594)이 쓴 총 6수로 된 연시조이다. 모두 여섯 편으로 구성되는 '육가형 시조'는 사시가, 어부가, 구곡가와 함께 연시조의 하위 유형 가운데 하나이며 '풍계육가'는 '육가형 시조'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그중 하나는 자연에 대한 강한 긍정이다. 이는 <제1수>의 초장과 중장, <제2수>의 중장에 잘 드러나 있다. 다른 하나는 세속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다. 이는 <제2수>의 초장과 중장, <제4수>의 초장, <제6수> 전체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자연에 대한 긍정과 세속에 대한 거부감이러는 두 가지 주제 의식이 시적 긴장을 조성하면서 시상이 전개된다.

주제 > 자연 친화적인 삶의 지향과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계

구성 >

- 제1수: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
- 제2수: 세속에 대한 거부감과 자연에서 누리는 소박한 삶
- 제4수: 세상 사람들의 욕심에 대한 비판과 청빈한 삶의 강조
- 제6수: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계

㉢ 김시습, 「고금군자은현론」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전기의 사상가이자 문인인 김시습이 선비의 바람직한 거취를 주제로 하여 쓴 한문 수필로서, 그의 문집 『매월당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글쓰이는 벼슬길에 올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노력하는 '출세의 삶'과 벼슬에서 물러나 도를 지키는 '은거의 삶'에 대해 논의하면서, 두 방식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의리'와 '시의'에 맞는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글쓰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

해 공자, 이윤, 부열, 강태공, 도연명, 백이와 숙제 등 다양한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주제 > 선비의 바람직한 거취

구성 >

- 처음: 군자의 바람직한 거취를 판단하는 기준은 의리와 시의에 맞는가에 놓여 있음.
- 중간: 의리와 시의에 맞게 출세의 삶 또는 은거의 삶을 현명하게 선택했던 역사적 인물의 사례
- 끝: 의리와 시의가 아닌 개인의 이익과 명성을 위해 은거의 삶을 선택하는 간사한 인물의 사례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는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하는데 (중략) 이전의 화자는 ‘생애는 유한하고’, ‘사일은 무궁하니’와 같이 대조적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여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바람직한 삶의 가치로서 입신양명을 강조한다. 반면 (중략) 이후의 화자는 송아지와 일하는 소, 희생(제사 때 제물로 바치는 산 짐승)으로 쓰이는 소를 서로 비교하면서, ‘어미 좃아 녹음간에 절로 놓여’, ‘코뚜레 코에 끼고 긴 고삐 굳게 매어’, ‘백정의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흠어지니’와 같이 서로 대조되는 생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입신양명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욕심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삶의 가치를 지향한다. (나)의 화자는 ‘청풍’, ‘명월’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홍진’을, ‘작록’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띠집’을 사용하여, 세속적 욕망을 경계하고 자연에서 욕심 없이 사는 삶의 가치를 강조한다. (다)의 글쓴이는 ‘은거함’과 ‘벼슬함’, ‘이익’과 ‘의리’, ‘고상하고’와 ‘구차한’과 같이 대조적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여, 군자가 물러서고 나아감에 있어 소중히 여겨야 하는 가치를 강조한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대조적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 또는 글쓴이가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다)에서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다)의 내용은 인생에 대한 무상감과는 관련이 없다. (가)의 경우 ‘인생 백 년이 풀 끝에 이슬이라’라는 표현에서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무상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 ‘청풍’, ‘명월’로 제시되는 자연과 ‘홍진’으로 표현되는 인간 세상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지만,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드러내려는 바는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계와 자연에서의 욕심 없는 삶의 긍정이어서 인생에 대한 무상감과는 무관하다.

② (가)는 두 인물 사이의 문답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며,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은 쓰이지 않았다. (나)와 (다)에도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은 쓰이지 않았다.

④ (가)~(다) 모두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세태에 대한 비판은 (가)~(다) 모두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변화한’ 세태에 대한 비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에서 ‘저더러 물어보면 어느 소 되려 할꼬’라는 구절의 인칭 대명사 ‘저’를 ‘소’를 이르는 말로 본다면,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자는 세 종류의 ‘소’로 상징되는 세 가지 삶의 방식을 서로 견주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물의 특성에서 유추한 교훈적 의미를 전달한다는 진술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나)의 경우 자연 친화의 태도를 뚜렷이 보여 주고는 있지만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지도, 그로부터 교훈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지도 않다.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거나 그로부터 교훈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지 않은 것은 (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02 사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갑’은 ‘인간 영욕을 아는가 모르는가’라고 말한 다음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함은 대장부의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공명을 이루고 입신양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을’은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를 몰라’라고 말한 다음 ‘우리는 잘 보아 내 분수만 지키려니’라고 말하며 출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유롭게 한가롭게 살 것을 주장한다. ‘갑’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갑’)에게 배우려고 하는 ‘을’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생애는 유한하고 사일은 무궁하니 / 유한한 생애로 썩지 않을 이름을 / 연구히 전하여 천지와 함께 무궁하려고’에서 알 수 있듯이 후대에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의식은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한다. (가)에는 인생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생 백 년이 풀 끝에 이슬이라’는 구절이다. 그러므로 ‘인생 백 년이~이슬이라’에 담겨 있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후대에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의식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두 구절에 쓰인 ‘운명’, ‘운수’와 ‘재천’이라는 표현은 모두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불가피한 운명을 뜻한다. (가)의 두 화자는 지향하는 삶의 방식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 삶의 요소(갑-수명, 을-영락, 부귀)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서로 같다.

④ ‘갑’은 ‘공명도 못 이루고’, ‘그 아니 느껴우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살아생전에 공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 다시 말해 살아 있는 동안 공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반면 ‘을’은 부귀공명과 같은 세속적 성취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생각, 즉 공명을 이루기 위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러낸다.

⑤ ‘형용이 초췌하’고 ‘잔흔이 영락하’며 ‘눈썹을 찡그리니 시름이 많’아 보인다는 말은 모두 부정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으로, ‘을’의 눈에 비친 ‘갑’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현은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갑’의 모습에 대한 ‘을’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0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 화자는 삶의 세 가지 유형을 세 종류의 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와 ㉡의 소는 좋은 먹이를 넉넉히 먹거나 화려하게 장식된다는 점에서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고되게 일하거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의 소는 먹고 마시는 것은 푸성귀와 시냇물에 불과하지만 자연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린다. 화자는 이 세 유형의 소를 비교한 후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의 소로 상징되는 자연에서의 검소하고 자유로운 삶을 가장 바람직한 삶으로 긍정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의 소를 묘사한 내용 중에 ‘녹음간에’는 자연에서의 삶을, ‘푸성귀 뜯어 먹고 시냇물 흘러 마셔’는 검소한 삶을, ‘절로 놓여’와 ‘제 맘대로 다니기와’는 자유로운 삶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에서의 검소하고 자유로운 삶을 ㉢의 소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A]에서 ㉠의 소를 묘사한 내용 중에 ‘곤 콩대 삶은 콩을 배까지 찰지라도’는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불 같은 여름벌에 큰 쟁기 마주 매어’는 고단한 삶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만 고단한 삶을 ㉠의 소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A]에서 ㉡의 소를 묘사한 내용 중에 ‘일시에 빛나기야’, ‘비단 거적’, ‘붉은 실’은 화려한 삶을, ‘백정의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흩어 지니’는 위태로운 삶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삶을 ㉡의 소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A]에서 화자는 ㉠의 소를 ㉢의 소와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한가하고 어느 것이 괴로운고’라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 ㉢의 소로 상징되는 삶을 강하게 긍정하고, ㉠의 소로 상징되는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이때 ㉠의 소로 상징되는 삶이 부정

적으로 평가되는 까닭은 그것이 한가함을 잃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0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제1수>에서 화자가 창(窓)을 닫지 않은 것은, 청풍(맑은 바람)이 주는 즐거움을 계속하여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그러므로 ㉠이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제2수>에서 화자가 손수 닫은 문(門)을 늦게까지 닫아 둔 이유는 <제2수> 초장의 ‘작록을 마음에 둘고(작록에 마음을 두겠다는)’에 담겨 있는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려는 마음, 세속과 단절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과 단절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자연을 사랑하여 더 오래 가까이하려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을 닫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제1수>의 종장인 ‘옛사람 이 두 가지 두고 어디 혼자 갔노’는 ‘청풍’과 ‘명월’, 즉 자연이 몹시 좋은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 표현일 뿐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제2수>에서 화자는 ‘작록’으로 상징되는 세속적 목표에는 관심이 없으며 자연 속에 검소한 ‘띠집’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 데에서 오는 실망감을 나타내는 소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부각하기 위해 쓰인 소재이다. 그리고 (나)에서 전체적으로 세속적 가치(‘작록’, ‘오두미’)와 자연(‘청풍’, ‘명월’, ‘시내’)이 대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을 닫지 않고 잠도 들지 않을 만큼 자연을 좋아하는 화자의 모습은 세속적 가치에 무관심한 화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 세속적 가치에 무관심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로도 이해된다. <제2수>에서 화자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세속적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부각한다. 그러므로 ㉡을 통해 이상적 공간을 찾는 데 실패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과 ㉡은 모두 기대가 좌절된 현실을 수용하려는 화자의 태도와는 무관하다. 지문에 제시된 「풍계육가」 <제1수>, <제2수>, <제4수>, <제6수>에 기대가 좌절된 현실을 수용하려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지문에 제시된 「풍계육가」 <제1수>, <제2수>, <제4수>, <제6수>에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과 ㉡ 모두 현실에 대한 화자의 미련과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과 ㉡이 현실을 부정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 화자가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같이 나왔다'라고 말한 것은 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말을 한 화자는 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 번뿐인 짧은 삶이니 세상에 나아가 공명을 이루어 후대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는 생각을 펼친다. 그러한 생각이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움은 옛 성인의 사업이요'와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함은 대장부의 할 일이라'라는 구절에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도를 지키는 은거의 삶을 지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인생 저렇도다 소 치기에 어느니라'라는 구절에 담긴 의미는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제시된다. 해당 구절 다음에는 세 가지 경우의 소에 빚대어 세 가지 유형의 삶에 관해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화자는 화려한 출세의 삶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여 욕심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삶을 강하게 긍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내 분수만 지키려니'라는 표현으로 요약해 제시한다. 그러므로 '인생 저렇도다~ 어느니라', '내 분수만 지키려니'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출세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분수에 만족하여 욕심부리지 않는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나)의 화자는 '내라서 누구라 하여 작록을 마음에 돌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벼슬에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세간이 '뉘싯대 하나 외에 거칠 것이 전혀 없으라'라고 말하면서 소박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홍진(세속)에 나아가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아가는 출세의 삶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명월을 좇아 여겨 잠을 아니 들었노라'라고 말하면서 달을 완상하느라 밤을 새울 만큼, 자연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나)의 '바람 비 어지러워 칼과 톱이 무서워라'는 출세의 삶에 수반되는 위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출세의 삶을 위태로운 것으로 여기는 화자의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룬바'는 자연에 은거하는 화자의 삶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바람 비~무서워라', '조그만 띠집을~이룬바'라는 표현에 출세의 삶을 위태롭게 여기면서 자연으로 물러난 은거의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6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의 글쓴이는 벼슬에 나아감에도 옳고 그름이 있고, 물러서 은거함에도 옳고 그름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

은 벼슬에 나아가거나 물러나 은거할 때 그 선택이 의리에 합당하고 시의에 맞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거취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보다 거취를 결정하는 동기나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비의 거취에 대한 평가가 그 결정이 낳는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에서 말하는 '군자의 처신'은 '벼슬함'과 '은거함' 사이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에 따를 때 '벼슬함'과 '은거함'의 적절함은 그것이 의리와 시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군자의 처신'이 어려운 까닭은 군자의 거취가 '의리'와 '시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② (다)에서 글쓴이는 미자, 백이와 숙제가 벼슬에서 물러난 일을 '은거함'의 올바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은거함'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의리에 맞는가', '도를 행함 직한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미자, 백이와 숙제의 처신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까닭은, 그들의 거취가 '의리에 맞는가', '도를 행함 직한가'를 판단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④ (다)의 글쓴이는 '벼슬함'과 '은거함' 사이에서 결정을 할 때 각각의 상황에서 의리와 시의에 맞는지를 헤아려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거취라고 말한다. 반면 사적인 이익과 명성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취라고 말한다. 이윤과 부열, 강태공은 올바른 거취의 사례로 제시된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벼슬함'이 구차한 일이 아니라 올바른 거취가 되는 까닭은, 이들에게 '각각 그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하기로 결정해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의리와 시의에 부합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쓴이는 '간교한 신하'와 '위선적인 선비'를 '홍내 내는' 것에 불과하고 '거론할 것도 없다'고 말하며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은거함'이 사적인 이익과 명성에 대한 욕심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06

갈래 복합

본문 273~277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②

06 ④

㉠ 한용운,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해제 ▶ 이 작품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통해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1연과 2연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 따라 자연물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계절에 새롭게 탄생한다는 '자연의 인생', 곧 자연의 섭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3연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

재에는 우주적 진리가 깃들어 있으므로 우리 '인생'이 자연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고통도 삶의 필연적 과정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환희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리

구성 >

- 1연: 쇠잔한 눈이 가져다주는 봄기운
- 2연: 여름의 녹음이 다한 후 가을 산에 물든 단풍
- 3연: 고통을 극복하고 환희의 낙원을 건설할 생각에 행복해지는 '나'

㉠ 신경림, 「산에 대하여」

해제 > 이 작품은 '낮은 산'을 '높은 산'과 대비하여 소박한 삶의 기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낮은 산'이 나지막이 엮드려 있고, 동네까지 내려와 사람 사는 모습을 구경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편한 길이 되어 주고, 젊은 연인에게 사랑을 주는 은신처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 '낮은 산'이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작고 소박한 일에 기쁨을 느끼며, 서로 다투고 화해하고 다시 웃을 줄 아는 사람 사는 재미를 안다고 밝히고 있다. '낮은 산'은 힘과 권력이 없는 연약한 인간을 상징한 것으로, 화자는 이들이 겸손하고 친근하고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소박한 삶의 기쁨과 사람 사는 재미를 아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주제 > 낮은 산을 통해 깨달은 인간적인 삶의 모습

구성 >

- 1, 2행: 산과 관련한 일반적 통념에 대한 부정
- 3~11행: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낮은 산의 모습
- 12~21행: 낮은 산만이 아는 여러 긍정적인 것들
- 22~26행: 산과 사람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 박지원, 「능양시집 서」

해제 > 이 작품은 글쓴이가 조카인 박종선의 『능양시집』에 쓴 머리말로, 『연암집』에 실려 있다. 조선 후기는 근대적 징후가 일어나는 시기로, 글쓴이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관과 인식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 글에는 이러한 글쓴이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까마귀'와 '미인'을 예로 들어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열린 사고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주제 >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태도에 대한 성찰

구성 >

- 기: 달사와 속인이 사물을 보는 방식의 차이점
- 승: 까마귀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 관념의 오류 지적
- 전: 미인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 관념의 오류 지적
- 결: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탄식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는 '고통의 가시덤불'과 '환희의 낙원'을 대비하여 고통을 인내해야 낙원에 도달할 수 있음을 전달하였다. (나)는 '크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대비하여 낮은 산만이 지니는 긍정적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다)는 어리석은 '속인'과 현명한 '달사'를 대비하여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세 작품 모두 대조적인 특성을 보인 대상을 대비하여 그와 관련한 화자와 글쓴이의 새로운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나는 아아 행복입니다', (다)의 '아! 저 까마귀를 보라', '아! 연암 노인이 연상각에서 쓴다'에 영탄법이 쓰였다. 그러나 (나)에는 영탄법이 쓰이지 않았다.
- ③ (가)와 (나)에는 의인화 기법이 쓰였지만 이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의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에는 의인화 기법이 쓰이지 않았다.
- ④ (가)와 (다)에는 색채 이미지가 쓰였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나)에는 대상의 역동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드러내기 위해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 ⑤ (가)는 '쇠잔한 눈', '봄기운', '단풍' 등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드러내었다. (나)와 (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기 위해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02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는 존재는 '낮은 산'이 아니라 '높은 산'이다. 따라서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높은 산'의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모두'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모든 존재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낮은 산'과 같은 약한 존재가 '높은 산'과 같은 강한 존재보다 더 영속적인 존재임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쇠잔한 눈'이 '구슬 같은 꽃방울을 맺혀' 준다는 것은, '눈'이 점차 소멸하는 상황에서도 '꽃방울'과 같은 새로운 자연물이 생성된다는 진리를 나타낸 것이다.
- ② (가)에서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우는 '단풍'을 '지난여름의 무르녹은 녹음'이 준다는 것은, '녹음'이 우겨진 여름이 지나면 '단풍' 지는 가을이 오는 자연의 순환 원리가 대자연의 한 섭리임을 나타낸 것이다.
- ③ (가)에서 '남을 떠'나면서도 '나는 아아 행복입니다'라고 한 것은, 이별의 고통 뒤에 행복이라는 환희가 오는 것이 생의 본질임

을 나타낸 것이다.

④ (나)에서 ‘어떤 산’은 ‘낮은 산’으로, 누군가에게 ‘순하디순한 길’이나 ‘따뜻한 사랑의 숨을 자리’가 되어 준다는 것은, ‘낮은 산’이 지닌 덕성 중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글쓴이가 ‘어찌 그 눈에서만 판정할 따름이라? 보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미리 판정해 버린다.’라고 한 것은 직접 관찰하지도 않고 까마귀의 색은 이럴 것이라는 고정 관념으로 까마귀의 색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이는 선입견을 지니고 대상을 판단하려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이 마음으로 본 것만 진실로 여기고 눈으로 본 것은 진실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백로를 기준 삼아 까마귀를 비웃고 물오리를 기준 삼아 학의 긴 다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백로’와 ‘물오리’만으로 다른 대상을 판단하려는 태도, 즉 자신의 좁은 식견으로 한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그릇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② ‘푸른 까마귀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고 다시 붉은 까마귀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는 것은, 까마귀가 하나의 색만 지녔다고 여기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획일화된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파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④ ‘한 가지 법에 매이지 않고 온갖 시체를 두루 갖추었으니, 우뚝이 동방의 대가가’ 되었다는 것은, 종선이 무조건 특정한 문체만 따르려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러 문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려는 유연한 사고를 지녔음을 칭찬한 것이다.

⑤ ‘세상 사람들은 미인을 재계하는 모습이나 불상처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은, 미인은 이런 모습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얽매어 미인이 다양한 자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속인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04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서는 작은 ‘일경초’가 큰 ‘장륙금신’이 되고, 그 반대로 될 수 있다는 역설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우주적 진리가 깃들어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B]에서는 ‘~지 않은 것이 없다’처럼 이중 부정을 통해 세상의 사물은 빛깔이 있으면 빛이 있고 형체가 있으면 자태가 있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B]에서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세상의 사물에 담겨 있는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② [A]에서는 ‘~가 ~이 되고, ~이 ~가 됩니다.’, ‘~는 ~요, ~는 ~입니다.’의 형식이 쓰였지만 이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각자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B]에서는 ‘~은 ~ 때문에 ~ 수 있다’, ‘~이/가 있는 것엔 ~이/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형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에 개성이 있음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다.

③ [A]에서는 인과의 표현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B]에서는 인과의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사물이 유한한 존재라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A]에는 자연과 인간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B]에는 모든 존재의 공통점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공통점을 근거로 자신의 긍정적 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의 뒤에서 글쓴이는 미인들은 다양한 자세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특정 자세만이 진정한 미인의 모습이라고 여긴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종선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미인을 관찰하면 시를 알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미인의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것처럼 시도 특정 문체가 아니라 다양한 문체로 쓰일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안다’는 소박하고 사소한 일에 즐거워하는 낮은 산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③ ㉠은 산이 낮아진 이유가 아니라 낮은 산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은 시를 쓰는 바람직한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글쓴이가 미인의 처지를 이해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④ ㉠은 낮은 산의 특성을 드러낸 말로, 이를 통해 화자가 낮은 산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에서 미인은 글쓴이가 인용한 대상일 뿐, 글쓴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⑤ ㉠은 화자의 특성을 드러낸 것일 뿐, 이를 통해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 역시 미인으로 인한 글쓴이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지 않는다.

06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계지의 동산에는 까마귀가 문득 푸르렀다 붉었다 한다.’는 계

지가 까마귀를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의 시가 이러한 열린 관점으로 창작되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계지의 동산에 까마귀가 여러 색깔을 지녔다는 것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사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④는 구름, 시냇물, 단풍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가을을 맞이한 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② ⑥는 계절의 순환과 관련된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화자가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려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⑤는 마을 가까이 있는 뒷동산처럼 사람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는 낮은 산의 특성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⑥는 글쓴이가 이 글을 쓰는 것을 주저하는 상황을 밝히고 있다. 글쓴이는 세상의 이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곧 속인들이 많은 현실을 비판하며, 차라리 그 생각을 밝히지 않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주제 > 폭력적 도시와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에 상처 입은 현대인의 방향

전체 줄거리 > 정희네 가족은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하여 살고 있지만 정희는 아파트의 소음, 군중 속에서의 각박한 삶을 ‘한데’에서의 삶이라고 인식하며 그곳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자 시골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한다.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집을 인식하는 남편과의 갈등 끝에 결국 시골집으로 이사를 하지만, 시골에서의 삶이 기대한 것보다 소란스럽다는 것과 사냥꾼들이 벌인 사건에 놀라 정희는 다시 도시의 집으로의 이사를 원하게 된다. 그러나 시골집으로의 귀갓길에 만난, 그동안 불쾌하게 여기던 트럭 장수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우연한 경험을 통해 오해하던 것이 해소됨을 느끼며 마음의 방향을 매듭짓게 된다.

01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객지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에게 대한 외양이 묘사되어 있지만 그 묘사는 상황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여관집 머슴들이 편안해 보이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그들이 ‘여관을 여관’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여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 ② 여관집 머슴들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 잠자리를 대하는 태도 등을 사례로 들어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여관집 머슴들이 남다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과객 자신의 태도와 비교하여 듣는 이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⑤ 객지에서의 잠자리, 타인과 동숙을 했을 때 겪을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일들을 열거하여 자신이 머물던 곳에서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02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정희는 자신이 불쾌하게 여기는 소리를 틀어 대는 트럭을 만나자 그 불쾌한 마음에 트럭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며 고개를 돌린 채 기다리고 있다. 차가 가까이 올수록 노랫소리가 선명하다고 한 것은 멀리서부터 노랫소리를 들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트럭을 마주친 것에 놀랐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객은 글쓴이가 도를 지키고자 수양을 하던 선비임을 일깨우므로써 현재의 문제 상황을 극복할 방법은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 ② ‘속에서 일어나는 불’, ‘질병’은 글쓴이가 겪고 있던 괴로움의 상황을 가리킨다. 과객은 이러한 괴로움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글쓴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07

갈래 복합

본문 278~282쪽

- 01 ③ 02 ③ 03 ② 04 ⑤ 05 ③ 06 ②

㉠ 이학규, 「박꽃이 피어난 집」

해제 > 이 작품은 유배지의 좁고 열악한 집에서 더위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던 글쓴이가 한 과객이 들려준 머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서술한 수필이다. 과객이 들려준 이야기를 인용하여 그와의 우연한 대화를 통해 자신이 잊고 지냈던 삶의 교훈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주제 >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을 극복하는 삶의 지혜

구성 >

- 기: 험소하고 열악한 곳에서 더위와 싸우며 지내는 어려움
- 서: 과객이 객지를 다니며 만난 머슴들의 여유로운 삶의 모습
- 결: 머슴들의 여유를 본받아 현재의 삶의 조건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신을 성찰해야 할 필요성

㉡ 공선옥, 「한데서 올다」

해제 > 이 작품은 삶의 공간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고민하는 한 주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도시 아파트에서의 삶과 시골 마을 땅집에서의 삶을 대조적인 공간으로 놓고 ‘집’의 의미를 고민하는 주인공과 그 가족의 모습을 통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정희는 운전석 옆자리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의외라고 생각하며 클랙슨을 울려 트럭을 멈춘다. 그러면서도 아직 '속으로는 뼈죽거리는 심보'라고 스스로의 기겁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시내'는 정희가 시골집을 떠나 새로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나간 곳이지만, 시골집의 불편한 요소 중 하나이던 트럭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고 또 시내 주차장에서 겪은 불편한 일을 떠올리며 이제는 시골집에서의 삶에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한다.

03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과객은 글쓴이가 현재 머무는 곳의 조건이 열악함을 말하며 어려움을 토로하자, 삶이란 임시적인 것임을 여관(㉠)에 비유하여 언급하며 그 임시적인 삶 속에서 또 임시적인 곳(㉡)에 머물고 있음을 새겨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과 ㉡는 인간의 삶에 대한 비유로, 처세 방법을 비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과객은 ㉡에서의 삶이 더 고되고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관 속의 여관'이라는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점을 생각하며 글쓴이가 자신의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④ ㉠과 ㉡는 모두 삶의 유한함과 비영속성을 말하기 위한 비유로, 서로 대조를 이루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 또 둘 중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다.

⑤ 글쓴이는 현재 자신의 삶의 괴로움에 주목하였지만 과객은 그 삶의 임시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로 여길 수 있도록 과객이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0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정희의 남편이 동네 입구에 사는 여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다니고는 있지만, 남편이 그것을 먼저 제안했는지 알 수 없으며, 친화력에 대한 진술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남편은 틀림없이 그럼 달나라에 가 살라고 하고도 남을 거였다',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에서 정희는 집을 옮기겠다는 생각을 남편에게 설명하는 일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자신을 괴롭혔으면 어디를 얼마나 괴롭혔다고, 자신을 짜증

나게 했으면 어디를 얼마나 짜증 나게 했'냐고 스스로 자문하며 트럭의 카세트 소리 때문에 느끼는 자신의 불편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정희는 도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것 때문인가', '도시로 다시 나오려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어떻게,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라며 스스로에게 도시로 다시 가고자 하는 이유를 자문하고 있다.

④ '남편은 그 덕분에 길어진 출퇴근길이 주는 스트레스를 토크하면 그녀에게 쏟아 내곤 했다.', '남편과 '사투'를 벌여 가며 이주를 해 온 시골집'에서 정희의 남편은 원치 않던 이사를 하게 되는 바람에 출퇴근길이 길어졌고, 이로 인한 불편한 반응을 내비쳤음을 알 수 있다.

05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의 '햇볕이 쏟아져 들어와', '벌레에 물린 자리를 긁어 대느라 지치고', [B]의 카세트 트는 소리와 확성기 소리는 모두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물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감을 생생하게 형상화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와 [B] 모두 특정 사건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거나 그에 따른 반응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는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 있으나 [B]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에서는 '높이가 한 길이 채 되지 않고 너비가 아홉 자가 되지 않는다', '인사하려면 갖이 걸리고, 드러누우려면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 등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상황 극복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B]에서는 '~소리'를 열거하여 특정 소리들로 인해 느끼는 심리를 표현하였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여는 알기 어렵다.

⑤ (나)의 일부 부분에 스스로 묻고 답하는 표현이 있지만 [A], [B]에서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표현을 찾을 수 없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글쓴이는 '과객'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던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을 달리하게 되고,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다. 즉 스스로에 대해 윤리적 성찰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과객은 여관집의 머슴, 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자신

의 판단이 경험을 일반화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③ (나)에서 정희는 번개탄 장수와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던 번개탄 장수의 상황을 알게 된다. 정희가 번개탄 장수로 인한 소음을 불쾌하게 여기던 당시에는 아이가 함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제한된 인식에 갇혀 타인이 생계로 인해 처해 있는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느끼고 윤리적 성찰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④ (나)에서 번개탄 장수와 아이의 만남을 통해 그의 상황을 헤아리게 된 정희는 트럭 안에 타고 있던 아이의 상황에 마음이 쓰이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정희가 번개탄 장수에 대해 짐작하던 내용과 번개탄 장수에게 품었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과객은 자신이 관찰한 여관집의 모습, 종의 태도를 말하기에 앞서 자신이 객사에서 머문 경험이 매우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와 다른 경험을 한 것이 외부의 상황을 수용하는 다른 관점을 만들었음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나)에서 정희가 트럭을 만나 번개탄 장수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정희의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를 제공한다. 정희는 앞서 요즘 누가 연탄을 때는 사람이 있다고 번개탄을 팔고 번개탄을 시끄럽게 광고하는지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 장면에서 '번개탄도 있잖아요.'라는 정희의 말에 '요새도 분명히 연탄 때는 집이 있'다고 번개탄 장수가 건네는 대답은 정희가 특정한 인식에 갇혀 다른 이들의 처지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인식이 번개탄 장수와의 달랐던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08 갈래 복합 본문 283~287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6 ③

㉠ 홍성원, 「남도 기행」

해제 ▶ 이 작품은 서울 낚시꾼이 남도 출신의 김선두와 함께 배를 타고 남해 바다 여기저기를 떠도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바다 오염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자연에 폭력을 가하는 인간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으며, 환경 파괴로 인한 삶의 위기를 묘사함으로써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주제 ▶ 환경 파괴로 인한 삶의 위기에 대한 비판 및 환경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반성 촉구

전체 줄거리 ▶ 남도 바다에서 낚시를 하며 일상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끼는 서울 낚시꾼은 종종 남도 토박이인 김선두의 배를 이용한다. 김선두의 배를 타고 낚시를 하던 서울 낚시꾼은 김선두를 통해 기름 유출 사건을 들으며 노여움을 느낀다. 그러다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김선두의 행동에 반감을 느껴 제재를 가하는 서울 낚시꾼에게, 김선두는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행태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실상을 전한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행태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드러난다. 김선두는 바다 오염에 대해 분노할 때와 마찬가지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은폐되고 왜곡된 상황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다.

㉡ 윤대녕, 「한 그루 나무처럼」

해제 ▶ 이 글은 약수터에서 발견한 참나무 한 그루와의 인연을 통해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참나무에 박힌 녹슨 대못을 빼낸 것을 계기로 참나무와 인연을 맺고 교감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한결같이 서 있는 참나무를 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함과 동시에, 자신도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낸다.

주제 ▶ 한 그루 나무처럼 변함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

구성 ▶

- 처음: 주말마다 산행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
- 중간: 약수터 옆에 서 있는 참나무의 녹슨 대못을 빼낸 것을 계기로 참나무와 인연을 맺고, 마음이 어지럽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참나무를 찾아가 위안을 얻음.
- 끝: 한 그루 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됨.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김선두와 서울 낚시꾼의 대화를 통해 작년에 바다에서 벌어진 화물선 사고가 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B]에는 낚시를 하는 동안 예사롭게 쓰레기들을 배 밖으로 던지는 김선두의 모습에 대한 서울 낚시꾼의 반감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대대로 지어 묵던 어장이 하루아침에 지름밭이 되었을 뿐이지라.'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B]에서 김선두의 행동을 관찰한 서울 낚시꾼은 그의 행동을 거슬러 하고 있으므로 인물에게서 받은 인상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A]에서 외국 화물선이 불이 나 터진 사건에 대해 김선두와 서울 낚시꾼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B]에는 김선두의 행동에 대한 서울 낚시꾼의 반감만

드러나 있을 뿐, 인물의 상반된 심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에서 화물선이 터지며 안에 실려 있던 기름이 바다에 쏟아지는 바람에 양식장이 기름받이 되었다는 서술을 바탕으로 인과적 서술을 통해 현실 상황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B]에는 사건에 대한 요약적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A]에서 김선두나 서울 낚시꾼이 관찰을 바탕으로 객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B]에서 서울 낚시꾼은 바다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김선두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지 내면을 추리하고 있지 않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바다 오염 야그만 나오면 나가 복장이 터져뿌요.’라고 말한 김선두는 서울 낚시꾼에게 바다 오염의 다양한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선두가 말했듯이, 바다 오염과 관련된 이야기는 복장이 터질 정도로 마음에 답답함을 안겨 준다. 김선두는 바다 오염의 다양한 실태와 오염의 여러 원인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뿐더러, 이야기를 통해 양식장 시설물로 인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서울 낚시꾼에게 전한다. 따라서 ㉠의 ‘과연’은 김선두가 들려준 이야기가 서울 낚시꾼이 예상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김선두의 표현처럼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현실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느닷없이 욕설을 하는 김선두를 보며 서울 낚시꾼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고요하게 웃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서울 낚시꾼은 과거 말 한마디 잘못 건넸다가 김선두로부터 반격을 당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이를 통해 ㉡의 ‘오히려’는 서울 낚시꾼이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떠올렸기 때문에 보인 반응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김선두는 서울 낚시꾼이 보거나 말거나 담뱃갑이며 소독제, 심지어 맥주병까지 바다에 버린다. 따라서 ㉢의 ‘홀홀’은 서울 낚시꾼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김선두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약수터에 서 있는 참나무 한 그루에 박혀 있는 녹슨 대못이 ‘나’의 눈에 하필이면 제일 먼저 들어왔다. 이를 계기로 참나무와 ‘나’의 인연이 시작되었으므로, ‘나’는 인연이 참으로 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의 ‘하필이면’은 우연한 발견이 ‘나’와 참나무와의 인연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우리의 옛 신화에는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는 ‘우주나무’가 있다. 이는 사람의 염원을 나무에 빌어 하늘에 전달하는 민간 신앙으로, 지금까지도 이러한 민간 신앙에 대한 믿음이 이어져 사람들

이 시골 느티나무에 오색 천을 감아 우주나무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의 ‘아직도’는 지금도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나무를 통해 자신들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바다로 종이를 비롯한 자잘한 쓰레기를 버리는 김선두를 서울 낚시꾼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질책한다. 그러한 서울 낚시꾼에게 김선두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기막힌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다 오염의 진짜 원인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인간이 설치한 양식장 시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우리가 아는 바다 오염은~여러 종류의 양식장 시설물이다.’를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활 하수와 공장 폐수가 아니라 양식장 시설물이 바다를 망가뜨리는 원인임을 김선두가 주지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김선두는 자신이 버리는 자잘한 종이 쓰레기가 아닌, 바다를 오염시키는 진짜 원인인 양식장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사람들이 양식장 설치비를 뽑기 위해 한 종류의 해산물만을 연작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한 김선두는, 이로 인해 각종 해산물의 배설물이 바다 밑에 적체되고 양식장 바닥에 오니가 쌓여 오염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김선두가 자신이 버리는 종이 쓰레기가 양식장 바닥에 오니로 쌓여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김선두는 서울 낚시꾼에게 바다를 오염시키는 진짜 원인이 자신이 버리는 종이 쓰레기가 아니라 양식장 시설물임을 알고 싶어 하므로, 자신들이 항구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김선두는 자신이 버리는 종이 쓰레기를 건져 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 않다.

04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를 통해 ‘나’의 마음이 후련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참나무를 보러 산에 오르면서부터, ‘나’는 나무가 무어라 자신에게 말을 건네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후련함을 느낀 동시에 나무가 말을 건네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약수터 옆에서 발견한 참나무의 녹슨 대못을 ‘손으로는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 오는 것 같았다.’, ‘혹은 내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도 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참나무를 나의 우주나무로 삼게 된 셈이었다.’,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이제 나는 믿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나’는 참바람 속에서 있는 참나무를 발견하고 참나무가 침묵하며 고통을 견디고, 자신의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한 참나무를 보며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한 그루 나무처럼 자신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속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05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는 햇빛은 나무를 보며 사소한 일에도 자주 흔들리고, 상처를 받으면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성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햇빛은 나무를 통해 ‘나’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나’에게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나’는 햇빛은 나무를 보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나’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햇빛은 나무를 보며 ‘나’가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삶을 성찰하는 것이 ‘나’가 소외감을 느끼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참나무와 오랜 인연을 맺게 된 ‘나’가 자신이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고는 참나무의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는 인간이 자연에 입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자연을 도구로 인식하고 함부로 대하는 인간의 폭력성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이미 참나무와의 교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협동을 지향하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체험하고 실감하였으므로, 참나무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이 ‘나’에게 이러

한 사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서울 낚시꾼은 김선두가 ‘바다 덕에 먹고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김선두가 바다에 자살한 쓰레기들을 예사로 버리는 모습을 목격하자 그를 힐책한다. 낚시꾼이 쓰레기를 버리면 말려야 될 처지에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는 김선두를 서울 낚시꾼이 지적하는 것은, 자연으로 인해 생계를 꾸려 가는 인간은 자연을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며, 이는 자연을 도구로 인식하고 함부로 대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인간이 쏟은 기름이 양식장에 흘러들어 ‘대대로 지어 묵던 어장이 하루아침에 지름밭이 되’어 생존에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인간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었으며, 이는 더 이상 인간이 자연에서 생계를 이어 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 부주의든 고의든 ‘사람들이 바다에 기름을 쏟아붓는’ 행동은 바다를 학살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바다 오염으로 직결된다. 또한 (나)에서 ‘바가지를 걸어 놓기 위해’ 참나무에 ‘대못’을 박은 것은 인간이 편리를 위해 자연을 도구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는 인간의 이기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김선두는 바다에 기름을 쏟아부어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들을 ‘바다에 지름 쏟아붓는 작자들’로 지칭하며 ‘시상에서 질로 나쁜 놈들’이라고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인식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냄과 동시에,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로 여기는 생태 중심적 사고에 기반하여 보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 참나무의 녹슨 못을 빼낸 후 ‘나’가 후련함을 느끼는 것은 참나무가 겪는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참나무가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생태 중심적 사고에 기반하여 보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09 갈래 복합

본문 288~292쪽

01 ① 02 ② 03 ① 04 ② 05 ⑤ 06 ⑤

가 윤동주, 「참회록」

해제 > 이 시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 처한 시인의 자세가 잘 드러

난 시로 평가받는다. 과거 자신의 삶을 욕된 것으로 인식하고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와 같은 탄식으로 참회를 갈음하던 화자는 언제든 반드시 찾아올 '그 어느 즐거운 날'을 전망하면서 그때 자신이 '부끄러운 고백', 즉 현재의 참회를 다시 참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화자는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는 행위, 즉 치열하고 철저한 자아 성찰이 요구됨을 인식한다. 이러한 자아 성찰의 결과 자신이 '홀로', '슬픈' 희생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깨닫고도 이를 감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에서 숙연함을 느낄 수 있다.

주제 >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희생의 의지

구성 >

- 1, 2연: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이에 대한 참회
- 3연: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새로운 참회의 필요성
- 4, 5연: 치열한 자아 성찰을 통해 확인하는, 희생과 비극적 운명을 감내하겠다는 의지

㉠ 허형만, 「녹을 닦으며-공초 14」

해제 > 이 시는 총 65편으로 이루어진 공초(供奉) 연작 중 하나로, 회한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통렬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부제로 제시된 '공초'의 사전적 의미는 조선 시대 형사 사건에서 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동학 농민 운동으로 신문을 받은 전봉준의 공초를 의미한다. 작가에게 시는 '진솔한 삶의 역사'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의 화자는 치열한 삶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간 전봉준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통렬하게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 회한으로 가득한 삶에 대한 성찰

구성 >

- 1~6행: 대문의 녹을 닦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 봄.
- 7~11행: 회한의 슬픈 생애와 역사
- 12~19행: 치열한 자기반성

㉡ 김용준, 「선부 자화상」

해제 > 이 수필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며 떠오른 생각들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외모를 유머러스하게 묘사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신의 호인 '선부'에 담긴 자신의 가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가볍고 유머러스한 문체를 통해 드러나는 글쓴이의 개성과 삶에 대한 성찰이 돋보이는 글이다.

주제 > 자화상과 '선부'라는 호를 바탕으로 한 삶의 성찰

구성 >

- 처음: 자화상을 그려 달라는 부탁을 받음.
- 중간: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선부에 대한 지향
- 끝: 자신의 외모에 대한 수용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 (나)의 화자는 각각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과 녹이 슬어 있는 '혹갈빛 대문'을, (다)의 글쓴이는 '자화상'을 매개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와 (나)의 화자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만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의 글쓴이는 자신의 얼굴과 성격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가)~(다)에서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다)의 글쓴이는 자신의 외모를 '톨스토이'나 '몰리에르'와 비교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의 화자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⑤ (나)와 (다)가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있지는 않다.

02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화자는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라는 참회를 하고, [B]에서는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참회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제기한 의문은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인데, [B]에서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B]에서 그 의문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A]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행위에 대해 성찰하고 있고, [B]는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 즉 현재 이루어진 성찰 행위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④ [A]에서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라고 했으므로, 행동의 변화를 제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B]에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성찰하고 있으므로 행동의 지속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A]와 [B]는 모두 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과 ㉡은 현재 녹이 슬어 있는 상태로, 이것의 원래 대상의 모습은 녹이 슬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현재의 모습은 원래 모습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은 화자의 모습을 비취 재현해 나타내 주는 것이지만, ㉡은 화자의 모습을 재현해 나타내 주는 특성이 있지 않다. 또한 두 대상은 화자를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일 뿐 화자의 분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과 ㉡에 녹이 슬어 있다는 점에서 방치된 물건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두 대상을 보며 화자가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대한 화자의 망각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은 화자가 과거부터 소유해 왔던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은 새로이 이사를 온 집의 대문이므로 과거부터 소유해 왔던 것이라 할 수 없기에 화자의 생애를 함축하는 존재로 보기 어렵다.
- ⑤ ㉠과 ㉡이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자는 이를 보며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강인한 의지를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의 '그 어느 즐거운 날'은 일제로부터 조국이 독립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화자가 살아온 날 전부를 의미하는 '만 이십사 년 일 개월' 동안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하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바라던 '기쁨'은 조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어느 왕조'는 조선 왕조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를 욕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선 왕조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나)의 부제에 제시된 '공초'는 전봉준의 '공초'를 의미하고, 이를 통해 이 시의 화자가 전봉준의 치열했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생애를 성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화자가 '내 지나온 생애'를 '부끄럽고 죄스러워'하는 것은 전봉준의 삶에 비추어 얻은 인식임을 알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가 전봉준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는 것은, 성찰의 범위가 개인을 넘어 역사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자 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화자의 '어두운 생명 저편'을 '회한의 슬픈 역사'와 연결 짓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에서 거울을 닦는 행위와 (나)에서 녹을 지우는 행위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행위이고, 이를 위해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고, '손가락이 부르토도록' 문지른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아내의 말을 인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아내의 말일 뿐 글쓴이

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은 화자를 빗댄 대상이다. '빗방울'은 넓은 바다 위에서 일어나고자 인간함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뽀오얀'은 '뽀얀'의 시적 허용으로 '사랑'의 순수함을 부각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온몸으로'를 반복하여 화자가 느끼는 절실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양미간이 좁고 찌부러진 글쓴이의 얼굴 모양을 묘사함으로써 글쓴이의 외형을 내면에 숨은 우울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06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자신을 '불선부'라 부른 것을 '섭섭히 생각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잘못이 있다는 전제에서 글쓴이가 그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글쓴이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선지를 놓을 만한 잣대가 되는가'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얼굴을 '괴석'에 빗대어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얼굴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글쓴이는 유쾌한 성격을 지닌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남들의 시선과 관계없이 자신의 얼굴을 '그저 좋기만 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선부'는 선한 지아비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평생에 소원'이라 하고, 또 그와 같은 호를 얻은 것에 기뻐하는 모습에서 글쓴이가 선량한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수 있다는 것은 글쓴이가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10 갈래 복합

본문 293~297쪽

-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③ 06 ④

21 김기택, 「멸치」

해제 > 이 작품은 식탁에 반찬으로 오른 멸치에서 떠올린 상념을 통해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을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는 멸치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던 존재였음을 떠올리고, 그것이 인간에 의해 포획되어 접시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한다. 그리고 현재 바라보고 있는 멸치에도 과거에 멸치가 지녔던 생명력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멸치에 대한 이러한 상념은 자연의 생명력을 파괴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실되어 버린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암시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 생명력의 상실과 회복에 대한 소망

구성 >

- 1~4행: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던 멸치
- 5~13행: 그물에 잡히고 딱딱하게 굳어 접시에 담긴 멸치
- 14~17행: 멸치의 몸통에 남아 있는 물결의 흔적
- 18~21행: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

㉠ 복호근, 「버팀목에 대하여」

해제 > 이 작품은 버팀목으로부터 연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는 태풍에 쓰러졌던 나무에 각목을 버팀목으로 댄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은 모두 삭아 사라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버팀목 덕분에 나무가 더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 또한 한때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아버지와 이웃들에게 빛지고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나아가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다.

주제 > 다른 이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삶의 가치

구성 >

- 1연: 쓰러진 나무를 세우고 버팀목을 덧댄.
- 2연: 쓰러진 나무가 회생함.
- 3연: 덧대었던 버팀목이 삭아 사라짐.
- 4연: 쓰러졌던 나무가 더 튼튼하게 서게 됨.
- 5연: 죽은 아버지와 이웃들이 '나'의 버팀목임을 떠올림.
- 6연: '나'도 다른 이의 버팀목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함.

㉡ 정호승, 「뿌리가 꽃이다」

해제 > 이 작품은 수선화 화분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낸 수필이다. 글쓴이는 1년 동안 내버려두었던 수선화가 다시 꽃을 피워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뿌리가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본질'의 가치를 강조한다. 또한 역사적 인물인 다산 정약옹과 함께 보통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다산 주막 주모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녀가 실천한 본질을 지키는 삶의 결과를 부각하고, 본질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주제 > 본질의 가치와 본질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

구성 >

- 처음: 1년 동안 배란대에 내버려두었던 수선화 화분에서 싹이 트고 꽃이 핀 이유를 생각함.

- 중간 1: 구근이 잘 보존되어 수선화꽃이 필 수 있었음을 떠올리면서 뿌리와 본질의 가치를 조명함.
- 중간 2: 다산 정약옹 선생과 다산 주막 주모의 삶을 통해 본질을 지키는 삶의 가치를 떠올림.
- 끝: 본질을 지키는 삶의 자세에 비추어 '나'를 성찰함.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는 음성 상징어 '허위허위'가 사용되었지만, 이는 화자의 움직임이나 나타낼 뿐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 '까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 등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멸치가 주는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직유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는 '바닷속', '길거리', '건어물집', '접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간들을 제시하여 멸치가 이동해 온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길'을 구체적인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공간들을 제시하여 대상이 이동해 온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가)에는 경어체가 나타나 있지 않다. (나)는 '-습니다', '-하니다'와 같은 어미가 결합된 경어체의 문장을 사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가)에는 바다에 살던 멸치가 잡혀 말려지고 튀겨진 뒤 접시에 담기기까지의 시간 경과와, 그에 따른 멸치의 외형적 변모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는 태풍에 쓰러진 나무에 버팀목을 덧댄 뒤 나무가 회생하고 버팀목이 삭아 없어지기까지의 시간 경과와, 그에 따른 나무와 버팀목의 외형적 변모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의 '지금'은 화자가 접시에 담긴 멸치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을 나타낸다. 화자는 멸치의 몸통에 남은 흔적을 통해 바다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던 멸치의 과거를 떠올릴 뿐, 딱딱하게 굳어 버린 멸치가 바다에서처럼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은 멸치에 쏘이는 햇빛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은 멸치들이 햇빛을 받게 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죽음에 빛진'은 태풍에 의해 쓰러진 나무가 죽은 나무인 버팀목에

의해 지탱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㉔은 쓰러진 나무가 ‘죽음에 빚진’ 동안의 시간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다는 것은, 나무가 버팀목 덕분에 회생하여 ‘큰바람이 불어’오고 버팀목이 사라졌어도 홀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상황을 보여 준다. ㉔은 이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수선화의 꽃에 주목했던 글쓴이는 사색을 통해, 수선화의 뿌리가 잘 보존되어 해가 지나서도 꽃이 다시 필 수 있었다는 점을 떠올린다. 그리고 ‘꽃이 뿌리로 보였다’면서 뿌리가 지닌 진가를 깨닫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㉔은 이처럼 꽃과 뿌리의 관계에 대한 사색의 결과 뿌리가 지닌 진가를 깨닫게 된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0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는 삭아서 사라질 ‘죽은 나무’인 ‘각목’이 ‘산 나무’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상황이, [B]에는 ‘죽은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이 화자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상황이 드러난다. 화자는 두 상황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C]에서 자기 자신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는 쓰러진 나무와 버팀목, [B]에는 ‘나’와 아버지나 이웃들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화자의 생각에서 상반된 관점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A]~[C]에서 화자는 경험과 성찰의 내용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지 않다.

③ [A]에는 화자가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은 상황이 드러나며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A]의 갈등이 해소되어 [C]의 상황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④ [A]에 특정한 덕목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B]와 [C]에 덕목들이 지닌 의미를 보여 주는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0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서 화자는 ‘쓰러진 나무’가 회생하는 현상을 기대하면서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웠’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쓰러진 나무’에서 틈 ㉔은 이러한 화자의 기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다)에서 글쓴이는 ‘지난해 봄’ ‘수선화 화분을 사서 꽃이 시들 때까지 보다가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두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1년이 지난 뒤 ‘빈 화분을 버리려고’ 했다. 글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㉔을 발견하고는 화분을 버리려던 ‘마음을 고쳐먹었’으므로, ㉔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은 화자의 행위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소생했음을 보여 주는 대상일 뿐 화자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② ㉔은 글쓴이가 내버려두었던 화분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상으로, 글쓴이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③ ㉔은 ‘쓰러진 나무’가 회생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대상일 뿐 화자가 소중하게 간직하려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㉔은 글쓴이가 수선화 화분을 버리려는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계기이지, 경계를 드러내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④ ㉔은 ‘버팀목을 세’운 화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대상이며, 화자의 특정 행동을 재촉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㉔은 글쓴이가 의도했던 행동, 즉 화분을 버리려던 것을 가로막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⑤ ㉔은 ‘쓰러진 나무’의 회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희망을 환기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화자를 절망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고 볼 수 없다. ㉔은 글쓴이에게 수선화 화분이 살아나 꽃을 피울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해 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05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다)의 글쓴이는 「논어」의 ‘회사후소’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예술에서의 본질적 가치와 꾸밈의 관계를 각각 뿌리와 꽃에 대응시키면서, 예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먼저 이뤄져야’ 꾸밈에 해당하는 ‘창작의 아름다움이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지난해 봄’ ‘수선화 화분을 사서 꽃이 시들 때까지 보다가 베란다 구석에’ 방치한 일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수선화 화분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② 글쓴이는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둔 수선화 화분을 찾고서 구근을 ‘그대로 내버려뒀음에도 불구하고’ 수선화꽃이 피었음을 밝히고 있다. 글쓴이가 수선화 구근을 손질하여 간수했다고 볼 수 없다.

④ 글쓴이는 주모가 ‘사람은 누구나 끼니때가 되면 식사를 함으로써 배고프지 않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본질’을 외면하지 않았고, 이러한 주모의 정성 덕분에 다산 선생이 ‘유배의 꽃을’ 피울 수 있었음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삶이 선비의 삶보다 본질에 충실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아버지의 은혜를 더 무겁다고 여긴 데 반해, 주모는 종자와 토양 중 토양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공적이 더

크다고 여겼다. 글쓴이는 주모의 말에 주목하여 토양과 연결된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부모의 은혜에 대한 주모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의견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어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6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에서 '모진 추위와 어둠 속에서도' 수선화가 꽃을 피운 일과 '유배 생활 중에서도' 다산 선생이 '선비로서의 실천적 삶'을 산 일은, 글쓴이가 추구하는 본질을 지키는 삶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수선화가 '모진 추위와 어둠'으로 인해 꽃을 피운 것은 아니고 다산 선생이 '유배 생활'로 인해 선비로서의 실천적 삶을 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글쓴이는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지키는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을 뿐, 시련과 고통이 가치 추구의 전제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화자는 '바다의 무늬'가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부정적 상황에 주목하여, 바다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던 멸치가 그물에 잡힌 후 생명력을 잃게 된 과정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현재 삶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구속되지 않은 채 충만한 생명력을 지니고 자유롭게 살아가던 멸치의 모습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롭고 생기 넘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큰 바람이 불어와도' '눅지 않'는 나무에 주목하고 있다. 화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이타적인 삶의 가치를 떠올리고 있다.

⑤ (다)에서 '꽃의 가치만 소중히 여기'며 산 결과 '남이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글쓴이가 본질의 중요성을 있고 외부의 잣대에 비추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글쓴이의 이러한 생각은 본질의 중요성을 잇는 삶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11

갈래 복합

본문 298~302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②

㉠ 김혜순, 「잘 익은 사과」

해제 > 이 작품은 다양한 이미지의 연상 작용을 바탕으로 순환론적 세계관을 통해 삶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치유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는 소리는 일상에서 느끼는 생명력과 변화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가을의 풍경은 자연의 순환을 드러낸다. 특히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는 고통과 비애를 내포하고 있는 삶의 다양한 국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처가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치유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전개되고 있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는 상실감과 그리움의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구멍가게 노랑든 할머니'가 사과를 먹는 장면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달콤함과 풍요로움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

주제 > 순환론적 세계관을 통한 슬픔의 망각과 상처의 치유

구성 >

- 1~4행: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자전거 바퀴 소리가 여러 다른 소리로 치환됨.
- 5~10행: 고통과 비애를 내포한 다양한 삶의 국면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치유됨.
- 11~17행: 치유와 망각의 시간 속에 있는 노년의 모습

㉡ 문태준,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해제 > 이 작품은 삶의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상실과 비애를 바탕으로, 결국 세상에 홀로 남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형상화하고 있다.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는 것은 물리적 여정을 넘어 인생의 시작과 끝, 떠남과 귀환을 상징한다. 특히 강's 흐름을 따라가며 마주하는 다양한 변화의 장면을 대비하여 드러내고, 지향과 전진의 삶의 국면이 회고와 상실이라는 양방향성과 함께하고 있음을 통해 인생의 무상감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삶의 다양한 국면과 여정에 대한 성찰

구성 >

- 1~3행: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여정을 통한 삶의 방향성 탐색
- 4~7행: 여정 중에 발견한 삶의 다양한 국면
- 8, 9행: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죽음과 슬픔
- 10~17행: 상실의 필연성 및 삶의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과 귀환의 여운

㉢ 김인숙, 「길의 안내자들」

해제 > 이 작품은 여행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수필이다. 모든 여행은 계획이나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 여행에서 만나게 된 길 안내자 '향도'를 소재로 하

여, 그들이 길을 안내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인생의 다양한 여정에 대한 깨달음

구성 >

- 처음: 여행지에서의 경험
- 중간: '향도'의 길 안내 방식과 그 의미
- 끝: 삶의 여정과 귀로에 대한 인식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는 '누가 있을까', '강을 따라갔다' 등의 시구를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 시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네요'의 반복을 통해 타인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화자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에서 '누가 있을까'의 반복적 사용이 설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대상의 처지를 강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의 '아가인 그 사람의 뉘새가 나네요'에서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나)에서는 후각적 심상을 찾기 어렵다.

⑤ (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고향 마을의 골목길을 도는 행위가 드러나 있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서는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일'에 대한 인간의 삶의 여정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지만, 화자의 인식이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자전거 바퀴가 '길을 깎아 내고' 있는 모습에서 '큰 사과가 소리 없이 깎이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고통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깎아 내는 행위의 의미를, <보기>에서 제시한 '과거의 아픈 기억은 세월이 흐르며 슬픔을 망각하게 되고 상처는 포용하는 것'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전거 바퀴의 소리가 여치 소리를 거쳐 나락들이 뿔아지는 소리로 변하는 것은 청각적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화자의 연상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의 모습에서 떠오른 애상적 이미지는 '손등을 덮어 주는' 행위로 연결되어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③ <보기>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은 세월이 흐르며 슬픔을 망각하게 되고 상처는 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화자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의 모퉁이'를 '둥글게 둥글게' 만든다는 것은 자전거 타는 행위를 통해 삶에서 생긴 상처를 다듬고 다독이는 과정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마지막 부분의 '할머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사과를 '오물오물' 먹는 행위는 과거의 상처를 잊고 평안을 찾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3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새의 햇곡식 같은 아침 노래'를 가슴에 간직하다가 '텅 빈 곡식 창고 같은 동지'를 '머리 위에 이겨 되었다'는 것은, <보기>에서 제시한 '어떤 것을 지향하더라도 끝내 그것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에 남게' 되었다는 내용과 연결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 지향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이 부분은 삶에 대한 공허함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모습에 대한 후회와 한탄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붉은 '꽃나무'가 나온 '꿈'은 사라지고 '흐물흐물한 식은 허물'이 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대비를 드러낸 것으로,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여러 국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측근의 죽음을 '맨몸에 상복을 입'은 것과 같다고 인식하는 것은, 삶에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인간의 숙명적인 비애감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누가 있을까', '~지 않은 이'의 도치법이 사용된 구조를 반복해서 드러낸 것은, 삶에 대한 통찰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부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행위를 통해 '집으로', '무덤으로' 돌아왔다는 화자의 인식은, 결국 모든 인간은 인생의 여정 끝에 죽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성찰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 유모차에 실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 아가'의 모습을 통해, 여리고 상처 입은 연민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가볍고 상쾌한' 유모차의 이미지와 '절룩이고 초라한 거지'를 대비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어린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에서 '가볍고 상쾌한 유모차'라는 표현을 통해 대상이 지닌 생명력을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생동감 있는 움직임의 중심으로 묘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에서도 생동감 있는 움직임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 ② (가)와 (나) 모두 '유모차'를 통해 친근하고 동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화자의 과거 경험과 관련하여 가치 있는 삶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가)에서 '유모차'가 시간의 역행적 구성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보기 어렵고, (나)에서 '유모차'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가)에서는 '유모차'가 입양 가는 아가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슬픔을 자아내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나)에서 '유모차'가 타자를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

05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의 '일생'은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일'이고 ㉡의 '귀로'는 길 안내자들이 안내를 마치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을 의미하므로, 여정을 거쳐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는 회귀의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 ㉢ 모두 시간의 변화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의지가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② '타인과 동행하는 여로'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관련 있는 것은 ㉢으로 볼 수 있다. ㉠, ㉡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삶의 시작과 마무리에 관한 화자의 성찰'을 담고 있는 것은 ㉠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과 ㉢은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 ④ ㉠, ㉡ 모두 타인의 삶을 위한 희생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06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2문단에서 '나'는 길을 잃었을 때 서둘러 되돌아가는 편이었으며, '그리하여 여행지에서 남는 사진은 황홀한 추억보다 망설임과 초조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여행지의 경험이 기대와 같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황홀한 추억'을 느끼는 경험을 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모든 여행'은 '짧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바깥을 향

해 열려 있다.'는 진술을 통해 '나'에게 있어 모든 여행은 세상과 연결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3문단의 '그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나는 그들이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구직자들이 아닌가 했다.'와 이어지는 문장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④ 4문단 전체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6문단에서 '다행히 중국에서 길 안내자들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아주 싸다.', '낯선 이가 지시하는 길이 완전히 안전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어야 하는, '사소한' 문제점이 있을 뿐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전 학습 1회

본문 304~321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⑤
06 ②	07 ⑤	08 ②	09 ④	10 ⑤
11 ①	12 ⑤	13 ⑤	14 ③	15 ③
16 ⑤	17 ④			

01~04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황새결승」

해제 > 이 작품은 「삼설기」에 실려 있는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이다. 경상도 땅에 살던 부자가 송사를 진행하고 패소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전반부와 부자가 지어낸 ‘황새의 송사’ 이야기가 서술되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들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부패한 송관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조선 시대 송사의 부패 양상과 씨족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파헤친 풍자 소설로, 우화 소설, 송사 소설로도 분류된다.

주제 > 청탁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부패한 관리들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풍자

전체 줄거리 > 경상도 땅에 대대로 부자로 살아온 이가 있었다. 그의 친척 중 하나가 재산의 절반을 달라며 부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괴롭히자, 부자는 형조에 소송을 올려 억울함을 풀려고 한다. 송관은 사건의 진실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미리 청탁한 이(부자의 친척)에게 이로운 판결을 내린다. 이에 부자는 이야기 하나를 지어 송관에게 들려준다.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꾀꼬리, 뽕새, 따오기는 서로 자기 목소리가 듣기 좋으며 경쟁하는데, 따오기의 청탁을 들은 황새가 따오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청탁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황새의 이야기를 듣고, 송관과 그의 무리 또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평소 글자도 읽고, 상시 박람하여 구변도 있고, 주체넘은 문자도 쓰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은 놀기를 즐기고 허랑무도하여 주유사방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은 ‘문건이 너르고 겸하여 시속 물정 또한 아는’ 이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천행으로 가산이 풍족하오매 자연히 친척의 빈곤한 사람도 많이 구제한 사람으로, 그로 인해 ‘이웃 사람’의 ‘송덕’을 받았다. 반면 ㉡은 그 ‘몹쓸 심사’ 때문에 동리 사람들이 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② ㉠이 ㉣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 것은 ‘동리 사람들’이 ㉣의 거동을 보고 차마 분함을 거두지 못하여 송사를 권유하였기 때문이다.

④ ㉠은 ㉣을 상대로 송사를 진행하면서, ‘이놈을 형추정배하면 다시 꿈쩍 못 하게 하리라’ 하며 자신이 송사에 이길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⑤ ㉠은 원정을 올린 후 ‘좌기되기만 기다리’며 ‘한 일을 전혀 믿고 아무 사람도 찾아보지 아니하’였지만, ㉡은 ‘일변 친구도 찾으며 형조에 청길을 뚫어’ 송사와 관련된 이들을 미리 만나 청탁을 하였다.

02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송관은 자신의 판결이 어떠한 법조문을 따른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다만 ‘친척 간 서로 의를 상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그놈’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송관이 ‘그놈’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그놈’의 청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송관이 법관으로서 명확한 증거에 따라 법규를 해석한 것이 아니고, 법관으로서 자유로운 심증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송관은 부자의 말을 들은 후, 부자가 어떻게 만석꾼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부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과정에 양측에 의견 차이가 없어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부자는 ‘그놈’에게 여러 차례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말을 송관에게 했지만, 송관은 그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부자의 주장은 당사자가 다투는 주요 쟁점에 해당하므로 제대로 된 법관이라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 보아야 했다.

③ 송관은 부자를 두고 ‘지친을 구제치 아니하고 송사를 하여 물리치려 하’였다면서 ‘무도한 놈’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자의 말을 전혀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그놈’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

④ 송관은 ‘그놈’에게 유리하도록 ‘재물과 전답을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민사 재판이라면 그러한 분배 비율이 어떠한 근거로 정해진 것인지 밝혀야 한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이 글의 전체 맥락과 관련지어 볼 때, ‘늑비알자(㉠)’는 ‘송사의 과정에서 이기지 못할 송사가 잘못된 판결로 뒤집히는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은 사건을 보는 기준이나 관점을 마음대로 바꾸어, 사건의 진실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청탁을 한 ‘그놈’에게 유리한 부당한 판결을 내어놓은 ‘송관’의 행위를 비판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녹비왈자'는 바라보는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상황을 드러내는 말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자'에게 다양한 충고를 들을 것을 권하기 위해 한 말은 아니다.
- ③ '녹비왈자'를 두고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송관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갈등을 이해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한 말로 보기는 어렵다.
- ④ '녹비왈자'는 부자의 설득 방식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 아니다. 부자는 자신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의 기준에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 ⑤ '녹비왈자'는 옳고 그름을 정할 때 뚜렷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송관은 '그놈'의 청탁을 받아 '그놈'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것이지, 뚜렷한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없던 것이 아니다.

04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부자가 자신이 겪은 송사의 진행 과정을 바탕으로 '이야기 한마디'를 만들어 낸다면, 자신의 상황과 [A]의 내용을 비슷하게 구성할 것이다. 따라서 따오기의 청축을 받은 황새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그로 인해 꼬꼬리와 삐꾸새는 억울해하며(㉡), 그러한 판결을 지켜본 다른 새들이 황새를 비판하는 사건(㉢)을 제시해야 한다. '이야기 한마디'를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그놈'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송관과 그 무리들을 무안하게 만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④, ⑤ 황새는 '송관'과 비슷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송관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될 것이다. 또한 따오기는 '그놈'과 비슷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놈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될 것이다. 따라서 [A]의 뒤에는 황새가 꼬꼬리와 삐꾸새에게 따오기의 청축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사건(㉠)이나 따오기가 일부러 참혹한 소리를 내는 사건(㉢)은 들어갈 수 없다. ⑥와 ㉢은 부자가 겪은 송사 과정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①, ②, ④, ⑤는 적절하지 않다.

05~10 갈래 복합**㉠ 윤선도, 「만흥」**

해제 > 이 작품은 총 6수의 연시조로, 세속과 멀어져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만흥'은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라는 뜻으로, 작가가 은거지인 금쇄동의 자연을 접하면서 느낀 흥취를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 준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구성 >

- 제1수: 안분지족의 삶에 대한 지향
- 제2수: 소박하고 한가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
- 제3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 제4수: 자연을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
- 제5수: 세속과 멀어져 자연에서 지내는 만족감
- 제6수: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 기대승, 「장춘정기」

해제 > 이 글은 글쓴이가 '장춘정'의 주인인 유충정(유충한)의 부탁을 받고 적은 기문(記文)이다. 유충정은 무과에 급제해서 미관말 직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고향 나주로 돌아간 후, 영산강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지었는데 그 주위에 기이한 화초를 심어 첼따라 온갖 꽃이 만개한다는 점에서 '봄을 간직한 집'이라는 뜻을 지닌 '장춘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글쓴이는 봄을 간직할 수 있다는 유충정에게 봄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는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본성과 하늘의 성정에 대한 회암 선생의 말씀을 고려해 볼 때 내 마음의 봄은 우리에게 없었던 적은 없었으며, 이 때 마음의 봄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인(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장춘정'이라는 이름은 소동파의 글을 통해 널리 알려진 송나라 조경순의 '장춘오'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다.

주제 > 마음의 봄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와 마음의 본성인 '인'을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

구성 >

- 처음: 유충한 군이 나에게 '장춘정'의 기문을 부탁함.
- 중간: 봄을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충한 군과 봄을 간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문답
- 끝: 내 마음의 봄은 우리에게 없었던 적이 없다는 '나'의 대답

05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제6수>에서는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라는 물음의 방식으로 자연에서 은거하며 살아가는 화자의 상황을 언급한 후, 화자가 고마워하는 대상인 '임금'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연 속에 떠집을 짓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과 이러한 화자를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할 뿐, 자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자연물과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자연에서 사는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심리는 드러나 있지만,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법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 ③ 혼자 앉아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도덕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④ 화자는 자신의 천성이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을 뿐, 자연물과 자신의 공통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06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의 '소부 허유가 낙뚫더라'는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한 허유에 대해 표면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의 '영수 맑은 물은 더러운 채 있나니'는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한 허유와 달리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현실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와 [B]에 드러난 허유에 대한 인식이 허유가 타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 [C]의 '은사의 마음을 내 아노라'는 화자가 허유가 자연에서 은거한 이유를 이해하고 허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허유가 화자의 삶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는 요임금의 제안을 거절한 허유에 대해 '낙뚫더라'라고 말하며 허유가 요임금의 제안을 거절한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달리 [B]는 '기산에 늙은 사람 귀는 왜 씻었던고'를 통해, [C]는 '산 밑 샘에 귀를 씻으니'를 통해 허유가 요임금의 제안을 거절한 후 귀를 씻은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③ [A]에서는 '임천 한홍을 비길 곳이 없어라'를 통해, [C]에서는 '은사의 마음을 내 아노라'와 '공을 이루는 일은 구름 속에 있도다'를 통해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달리 [B]에서는 '지금에 영수 맑은 물은 더러운 채 있나니'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A]에서는 '이제사 생각하니'와 '임천 한홍을 비길 곳이 없어라'를 통해, [C]에서는 '물가의 술을 벗 삼으니 은사의 마음을 내 아노라'와 '공을 이루는 일은 구름 속에 있도다'를 통해 자신의 삶을 근거로 허유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B]에서는 '지조가 가장 높다더니'라는 타인의 말을 근거로 허유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⑤ [A]에서는 '임천 한홍을 비길 곳이 없어라'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를 통해, [C]에서는 '물가의 술을 벗 삼으니'와 '공을 이루는 일은 구름 속에 있도다'를 통해 자연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속세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B]에서는 '지금에 영수 맑은 물은 더러운 채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허유에 대해 '지조가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07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글쓴이는 '촉은지심'이 사람의 성정에 관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봄'에 생긴 기운 역시 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점에

서 봄을 감추어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 봄이 만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돌아오는 계절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이치를 군자는 음미하여 마음을 다 쓰고, 소인은 모른 채 부름을 받는다.'라는 구절을 통해 글쓴이는 만물이 바뀌는 이치를 알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의 여부가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이 때문에 정자에 들어온 사람은 항상 그 사이에서 봄기운을 느낍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유중한 군'은 '장춘정'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저는 옛사람에게서 증거를 찾았는데'라는 구절을 통해 '유중한 군'은 옛사람이 지은 글인 소동파의 「장춘부」를 근거로 봄을 감추어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공명과 부귀, 풍요한 재물과 곡식, 비단처럼 ~바람에 날아가기란 잠깐이니, 붙잡아 두기에 부족하다.'라는 구절을 통해 글쓴이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귀공명과 재물 등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8 배경 및 소재의 가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제3수>에서 화자는 먼 뫼를 바라보는 즐거움이 '그리던 입'이 오는 반가움보다 더 좋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을 자연을 바라보며 느낀 화자의 흥을 고조하는 인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제1수>와 <제2수>에서 화자는 '떠집'을 짓고 '보리밭 꽃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 바위 끝의 물가에서 지내는 것 이외에는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일상을 보여 주는 사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글쓴이는 '천지의 조화'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만물을 감돌고 고금에 흐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계절이 흐르고 추위와 더위가 바뀌며 만물'이 피어나고 시드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은 글쓴이가 생각하는 만물이 필연적인 이치에 따라 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유중한 군은 자신이 지은 정자의 이름을 '장춘정'이라 지은 후 글쓴이의 글을 걸어 자랑하려고 하였다. 이에 글쓴이는 정자의 이름을 '장춘정'이라 지은 이유를 묻고 있다. 따라서 ㉠은 자신의 글을 장춘정에 걸어 두려고 하는 유중한 군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글쓴이의 요청이라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글쓴이는 '장춘정'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봄을 감추어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유중한 군의 대답을 들은 후, '장자의 말'을 근거로 유중한 군의 대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글쓴이가 유중한 군의 발언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09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제5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게으른 천성으로 인해 하늘이 인간 만사를 맡기는 대신, 다룰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㉔는 화자가 다룰 이 없는 강산을 지키며 자연에 은거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나)에서 글쓴이는 하늘의 성정에서 봄에 생긴 기운은 통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성정에는 측은지심이 관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약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을 가지고 거꾸로 찾아본다면, 간직할 수 없는 봄이 인간에게 없었던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㉔는 글쓴이를 비롯한 인간들이 하늘의 성정을 찾을 수 있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천성’이 ‘자신이 본래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을 일컫는다는 점과 (가)의 화자가 자신의 천성이 게을러 하늘이 자신에게 강산을 맡긴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㉔는 화자가 노력하여 바꾸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㉔는 인, 의, 예, 지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지는 것일 뿐, (나)의 글쓴이가 간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가)의 화자는 하늘이 자신의 천성이 게으르다는 것을 알고 인간 만사를 맡기는 대신 ‘다룰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㉔가 하늘로 인해 화자가 깨달은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㉔는 ‘장춘정’만이 봄을 감추어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중한 군을 설득하기 위해 (나)의 글쓴이가 언급한 것일 뿐, 글쓴이로 인해 유중한 군이 깨닫게 된 것이 아니다.

③ (가)의 화자는 자신의 천성이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는데, ‘천성’은 ‘자신이 본래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을 일컫는 말이라는 점에서, ㉔가 속성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㉔는 인, 의, 예, 지에 따라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 명칭이 달라지는 것일 뿐 부르는 명칭에 따라 그 속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⑤ (나)에서 유중한 군은 ‘사람의 성정’ 중 ‘측은지심’이 관통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봄이 진실로 나에게 있지 않은 적이 없다는 글쓴이의 말을 듣고 그렇다고 하였다. 따라서 ㉔는 유중한 군이 글쓴이의 견해에 동조하게 된 계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㉔는 하늘이 자신에게 강산을 맡긴 이유라고 (가)의 화자가 생각하는 것이며, (가)의 화자는 자신을 비판하는 ‘모르는 남들’에 대해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㉔는 화자가 자신을 비판하는 다른 이들의 견해에 동조하게 된 계기와는 관련이 없다.

10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서는 인간이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가치를 부여하는 등 그 공간과 긴밀한 정서적 끈을 형성하며 살아갈 때 그 공간은 ‘장소’가 되며, 공간이 장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장소에 대해 특별한 애정인 ‘장소에’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나)의 글쓴이는 ‘장춘정’에 관한 기문을 적어 달라는 유중한 군의 부탁을 듣고 ‘인(仁)’이 모든 마음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 ‘장춘’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 말하며, 이를 정리하여 기문으로 적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가 ‘장춘정’의 가치를 알고 해당 장소에 대한 ‘장소에’를 갖기 위한 노력으로 기문을 적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산수 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 것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것이라 말하며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남들’은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비웃고 있다. <보기>에서 ‘공간’은 사물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의미만 지니고 있지만, 인간이 그 공간과 긴밀한 정서적 끈을 형성하며 살아갈 때 그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산수 간 바위 아래 띠집’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화자에게는 ‘장소’가 될 수 있지만, 화자를 비웃는 ‘남들’에게는 단순히 집이 존재하는 ‘공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보리밥 푼나물’을 먹은 후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는 것 이외에는 부러워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서 공간이 장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장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인 ‘장소에’를 갖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는 화자의 행위는 화자가 ‘물가’에 대해 ‘장소에’를 갖게 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혼자 앉아 바라보는 ‘먼 뫼’가 말씀도 없고 웃지도 않아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서 인간이 그 공간과 긴밀한 정서적 끈을 형성하며 살아갈 때 그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먼 뫼를 바라보’며 화자가 ‘혼자 안자’ 있는 곳은 좋아하는 대상을 볼 수 있다는 가치가 부여된 곳이라는 점에서 화자에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장춘정’ 주위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은 유중한 군이 ‘장춘정’과 정서적 끈을 형성하는 행위로, 이는 ‘장춘정’에 대한 유중한 군의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글쓴이는 ‘장춘정’에 관한 기문을 적어 달라는 유중한 군의 부탁을 듣고 ‘장춘’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장춘정’에 대한 기문을 적는다고 밝히고 있다. <보기>에서 공간과 맺는 정서적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이라도 개인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춘정’이라는 동일한 장소에 대한 글쓴이와 유중한 군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1~14 현대 소설

■ 최일남, 「너무 큰 나무」

해제 ㉠ 이 작품은 식모인 '나'의 눈에 비친 김 박사의 모습을 통해 지식인들의 표리부동한 면모를 비판한 소설이다. 김 박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유명 인사이지만, '나'가 집 안에서 관찰한 아버지(김 박사)의 실체는 그가 밖에서 한 말이나 쓴 글과는 거리가 먼, 가식적인 속물일 뿐이다. 순박한 식모를 서술자로 삼아 1970년대 우리 사회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지녔던 이중성을 폭로함으로써 사회 비판적인 주제를 풍자적인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주제 ㉡ 지식인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대한 풍자

전체 줄거리 ㉢ 식모인 '나'가 보기에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바쁘다. 특히 모 연구소의 소장이라는 주인아버씨는 민족과 국가에 관한 강연도 많이 하고, 텔레비전에도 출연하며, 신문에 사진과 글이 자주 실리는 유명 인사이다. '나'는 그런 아버씨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씨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전화 받기 전후의 태도 변화, 잡지에 쓴 글의 내용과 반대되는 가족의 모습, 독서에 관한 주장과 반대되는 평소 태도, 아내나 자식들과의 관계, 술주정을 부리는 모습 등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또 밖에서는 큰일을 하는 아버씨가 식모인 '나'의 월급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크게 실망하고 혼란을 느낀다.

1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상대가 전화로 아버씨를 찾는 이유에 대한 '나'의 추론이 아니라, 전화로 '김 박사 맥'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나'가 어떤 의도를 갖고 말투를 선택해 대꾸했는지에 관한 서술이다.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상황에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독자에게 알려 주는 것과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에 앞서 '나'는 전화 상대에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 말에 담긴 속마음은 ㉢과 같았다는 부가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서술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 제시한 것이므로, 서술자가 한 말에 담긴 진짜 뜻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이해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에서 '나'는 '또 한 가지 털어놓아야겠다'며 새로운 사건에 대해 서술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그것이 자기와 관계된 일이라는 '좀 거북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서술자가 노출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제시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④ ㉣에는 월급 인상을 바라는 '나'의 솔직한 심정과, 월급 인상에 신경 써 주지 않는 아버씨와 아주머니에게 성이 나는 '나'의 심리가 직접 서술되어 있으므로, 서술자 '나'가 '아주머니더러 알아들으라고 대놓고 말'한 이유를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⑤ ㉤은 명절 때만 되면 아버지 내외가 선물을 잔뜩 차에 싣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이유에 대해 '나'가 궁금증을 느껴 왔다는 서술이다. 따라서 아버씨의 행동에 담긴 의도는 서술자에 의해 직접 설명되지 못한 것이고, 사건의 내밀한 진실을 파악하려는 독자라면 아버지 내외의 행동에 관해 능동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1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른 집에서도 우리 같은 애들의 월급은 대개 아주머니들이 정하고 바깥양반들은 재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우리 같은 애들의 가슴에서 국이 끓고 있는지 밥이 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래서 나쁜 것이 없지만'을 보면, '나'는 다른 집 가정들도 식모의 처우나 고민 등에 큰 관심이 없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참아라. 참아라. 나는 아주머니에게 얼마나 많이 이 말을 들어 온지 모른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놀란 토끼처럼 허리를 칠십 도로 구부리고, 후딱 하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의젓한 자세로 얘기를 하고 걸려 오는 전화마다 받들어 모시듯 하는 우리 아버씨 같은 분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집 식구들은 제각기 사업에 바빠서 서로 들고 나는 시간이 엇바뀌는 바람에 일동 집합하는 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나눈다든가, 유식한 말로 대화를 나눈다든가 하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아주머니가 '나'에게 '요구를 할 양이면 정정당당히 얘기를 할 것이지 왜 송물스럽게 심순이는 갖다 붙이니.'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아버씨가 '‘하’ 소리 하나에 꼭 일 초는 걸릴 만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높지도 낮지도 않게 웃는' 소리로, '나'는 그 웃음소리가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배우들이 꾸며 대서 웃는 소리는 저리 가라 할 만큼 정확한 간격'을 지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나'가 어딘지 자연스럽게 알고 작위적이라고, 즉 꾸며서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고 느끼는 웃음소리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③ 아버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웃고, 심지어 새벽녘 잠자리에서 방금 깨어나 전화를 받더라도 '의

것하고 또릿또릿한' 통화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아저씨가 '참 희한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으며 '어쩌면 짜증도 나고 해서 반은 덜 낀 목소리로 더듬더듬 씨불일' '우리 같'은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낀다. 따라서 ㉓는 '나'가 아저씨에게 느끼는 친근감을 더 키지게 한다거나, 아저씨도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㉔ '나'가 아저씨를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여긴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㉕ ㉔는 아저씨가 '이 선생'과 통화하면서 낸 웃음소리이지 '나'에게 느낀 불쾌감을 숨기려고 낸 웃음소리가 아니다.

1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㉓ 김 박사(아저씨)가 월급 문제로 불만이 있는 '나'를 '잘 달래서 따둑거리라'고 아내에게 말할 것은 파스한 마음씨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김 박사의 면모로 볼 때, 아내로 하여금 월급을 안 올려 주더라도 '나'가 불평 없이 참고 계속 일하도록 만들라는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저 좀 올려 주지 그래'라는 한마디만 했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서운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㉑ 전화벨이 울린 직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채신머리없이' 굴다가 전화를 받고 나면 그 즉시 점잖게 돌변하는 김 박사의 가식적인 모습을 묘사한 부분은 '나'가 관찰한 바를 희화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김 박사가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요소이다.

㉒ 잡지에 실린 김 박사의 글을 읽은 '나'는 '아둔한 생각으로도' 알고 있는 바람직한 글의 요건에 그 글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는 스스로의 의문을 풀지 못'하는데, 이는 김 박사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의아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㉔ '나'는 김 박사의 정체를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고 느끼며, 어릴 적 멀리 있는 천방산이 무척 아름다워 보였지만 막상 가 보면 그 인상과 달라서 자기네 뒷동산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기억을 떠올린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김 박사의 대단한 모습은 자신이 가까이에서 지켜본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는 해석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㉕ '너무 아저씨의 곁에 가까이 있어서 어떤 때는 무엇이 아저씨의 정체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고 느끼는 것을 '나'는 '큰 나무의 바로 밑동에 서서 보면 그 나무의 꼭대기가 안 보이'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어렵풋이 느끼며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라고 한다. 이는 김 박사의 정체를 '나'가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는 난감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5~17 현대시

㉓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해제 > 이 작품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은 화자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며 영원한 이별 끝에 깨닫게 되는 것들을 읊은 시이다. 화자는 어머니를 추억하며 한 사람이 사라진 자리가 곧 텅 빈 공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백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존재감으로 남아 결국은 그 소멸을 통해 새로운 탄생이 이어지고 순환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주제 > 어머니와의 이별로 깨닫는, 죽음과 탄생의 순환

구성 >

- 1연: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여백의 의미를 감지함.
- 2연: 모든 부재 뒤에는 새로운 탄생이 뒤따름.
- 3연: 화자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여백이 되기를 소망함.

㉔ 나희덕, 「사과밭을 지나며」

해제 > 이 작품은 사과가 다 떨어지고 난 후의 빈 나뭇가지의 모습을 통해 이별한 상대방을 마음속에서 서서히 떠나보내는 과정을 그려 내고 있는 시이다. 나비의 날갯짓, 사과가 떨어진 후에도 휘어 있는 나뭇가지라는 시적 대상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은 후 아픔을 겪어 내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상대방과의 결별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이별의 수용과 극복

구성 >

- 1연: 나비의 날갯짓이 무겁다고 느낌.
- 2연: 사과를 떨어뜨린 나뭇가지가 여전히 휘어 있음을 봄.
- 3연: 이별한 대상에 대한 미련을 털고 결별을 수용하며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과정
- 4, 5연: 이별을 받아들이기까지 오 년이 흐름.

15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㉓ (가), (나)에 모두 현재형 어미가 드러나 있으나 화자의 의지가 현재형 표현을 통해 드러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㉑ (가)의 '뗏새의 발목을 툭, 치며', '쟁쟁쟁 흘러가는', (나)의 '툭, 떨어지는'은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번잡한 일상과 멀어지고 있음((가)을, 시적 화자가 집착에서 놓여나고 있음((나))을 나타낸 구절들이다.

㉒ (가)에서는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나)에서는 '내려놓았구나', '가볍겠구나' 등에서 '-구나'라는 어미를 반복하여 상실과 이별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㉔ (가)의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잔소리들이 / 방생의 시냇물 따라 / 들 가운데로 흘러 흘러 바다로' 등의 표현에,

(나)의 환해진 '사과나무 그늘', '나비의 날개'보다도 가벼워졌다는 표현 등에 화자가 처한 상황이 형상화되어 있다.

⑤ (가)의 '오', (나)의 '아'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순간을 강조하는 감탄사로 볼 수 있다.

1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오 년'이라는 기간을 진술하여 '사과 한 알을 내려놓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을 뿐, 그 이유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비조차 낮게 나는가'는 가볍게 날아야 할 나비가 가을이 되자 낮고 무겁게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에 주목한 진술이다. 화자는 이를 언급하며 '가을엔'이라고 덧붙여 가을이라는 결실과 수확의 계절을 나비가 나는 모습이 변화한 이유와 연관 지어 표현하고 있다.

② 열매를 다 내려놓았다는, 이전과 달라진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휘어져 있는 나뭇가지의 양상에 주목하며 화자가 느끼는 마음의 무게와 연결 지어 표현하고 있다.

③ 화자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 '나비의 날개보다'도 가벼워진 상태를 '사과나무 그늘이 환해'진 변화와 연결 지어 드러내고 있다.

④ '톡'이라는 음성 상징어와 심표를 사용하여 가지와 사과가 분리되는 순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화자가 마음에 남아 있던 미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17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화자는 어머니를 잃고 그 부재를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멀어져 있는 대상을 가슴 속에 이제껏 무겁게 담아 두고 있다가, 그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이는 '상실의 고통'과 관련이 있는 시구로 볼 수 있으나 탄생과 죽음 사이의 순환에 대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이별 후에도 이별한 존재와의 새로운 만남 또는 새로운 존재와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겪은 이별에서 얻은 깨달음을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순환한다는 보편적 이치와 연결하고 있다.

② (가)에서 사별한 어머니를 떠올려 보던 화자가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때를 말하는 것은, 자신 또한 세상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이로부터 이별해야 할 때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깨닫고 앞으로 닥쳐올 이별을 떠올려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이별을 수용하고 극복하게 되자 자신이 느끼는 홀가분한 감정을 나비의 날개보다 가볍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별한 상대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인정한 후에 느끼는 감정을 '나비의 날개보다'라는 시구로 강조하고 '가벼움'이라는 감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⑤ (가)에서 어머니가 떠난 후의 자리를 '큰 여백'이라고 표현하고, (나)에서 열매를 다 떨군 빈 가지의 '허공'이 '열매보다 더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별로 인한 부재감과 상실감이 크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모두 시적 대상이 떠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떠나간 이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전 학습 2회

본문 322~336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①	05 ④
06 ①	07 ③	08 ③	09 ③	10 ⑤
11 ⑤	12 ③	13 ⑤	14 ④	15 ⑤
16 ①	17 ②			

01~04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금환기봉」

해제 > 이 작품은 여성 주인공 장선빙이 남장을 하고 생활하면서 자신이 처한 고난을 극복하고 사회적, 국가적 능력을 인정받는 여성 영웅 소설이다. 남녀 주인공이 처음부터 천상계에서 예정한 운명적 관계로 맺어진 존재로 나타나며, 남녀의 결연담과 여성의 영웅담이 결합되어 있는 서사적 특징을 보인다. 장선빙이 남성 주인공 김희경을 뛰어넘어 당대 최고의 영웅이 된다는 점은 당시 소설의 독자층이었던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 장선빙의 고난과 영웅적 활약

전체 줄거리 > 월궁 선녀와 천상계의 문창성은 적강하여 각각 장자영의 딸 장선빙과 김정의 아들 김희경으로 태어난다. 장선빙은 어머니가 죽은 뒤, 우연히 김희경을 만나고 금지환을 주고받으며 백년기약을 맺는다. 이후 장선빙은 유배된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하고, 흑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남장을 한다. 장선빙은 어렵게 아버지가 있는 곳에 도착하지만, 이미 아버지가 죽었음을 알게 되고 정혼자인 김희경을 찾아가는데 김희경이 이사를 가 찾을 수 없게 되자 물에 몸을 던진다.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이영이 용왕이 보낸 환혼주로 장선빙을 구하고, 장선빙은 이영의 집에서 계속 남자의 신분으로 지내게 된다. 이 무렵 김희경은 장선빙이 죽은 줄 알고 결혼을 하지만 계속 장선빙을 그리워하고, 장선빙은 이영의 권유로 과거를 보러 갔다가 김희경과 함께 왕원 급제한다. 장선빙과 김희경은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위왕의 반란군을 토벌하는 공을 세우는데, 이에 임금이 장선빙을 부마로 삼으려 하자 장선빙은

그간의 사정을 밝힌다. 임금은 장선빙과 김희경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둘은 행복하게 살다가 승천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장선빙이 배 안에서 눈을 들어 살펴볼 때 ‘어떤 노인이 갑자기 베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고 하였고, ‘장선빙이 다시 사례하다가 문득 보니, 설랑과 영춘이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오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영이 장선빙을 만나고 이후 설랑과 영춘이 장선빙이 있는 장소로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장선빙은 남해 용왕의 시녀가 준 것을 먹고 정신이 든 뒤 ‘가만히 눈을 들어 살펴보니 집이 아니라 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노인이 자기를 구하여 살렸음을 짐작하고, 설랑과 영춘은 필시 죽었으리라 생각’하였다.

③ ‘두 사람이 함께 어전에 이르자 임금과 여러 신하가 길이 칭찬하였’으며, 임금이 ‘내가 이 두 사람을 모두 쓰려고’ 한다고 하자 신하들이 ‘폐하께서 오늘 주석 같은 두 신하를 얻었으니 국가의 큰 행운입니다. 신들이 어찌 폐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④ ‘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김희경을 한림학사에’ 제수하고 이후 김희경과 장수정(장선빙)이 ‘궐문을 나’왔으며, ‘김희경이 돌아오자 김정 부부가’ 기뻐하였다.

⑤ 장선빙이 ‘상소를 올려 장자영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를 청하’자 임금이 ‘그 품은 마음에 감동하여 즉시 애매함을 풀’었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옥’과 ‘진주’는 김희경과 장선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임금이 신하들에게 김희경과 장선빙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녀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귀한 몸을 보충하십시오.’라고 하며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환혼주를 얻어 아가씨를 구’했다고 하며 장선빙을 구한 자신의 행위와, 이러한 행위의 이유가 ‘용왕의 명’임을 밝히고 있다.

② ‘세상을 나쁘게 여’겼다는 이영의 말에 장선빙은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액운을 면치 못’했다고 밝히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시 살려 주신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다고 하며 상대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③ 김희경은 ‘왜 장 소저는 나에게 혼자라고 했는가?’라고 하며 장선빙이 과거에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으며, ‘혹시 나를 속인 것

인가?’라고 하며 장선빙이 이전에 했던 말이 사실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⑤ 영춘이 ‘당초의 맹약을 어찌하실’ 것인지 묻자, 장선빙은 ‘머지 않아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자연스럽게 대답할 말이 있다.’라고 하며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며 상대의 걱정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주인공인 장선빙은 아버지가 ‘만리 먼 곳에서 원통함을 품고 돌아가셨’음을 떠올리며 ‘장원 급제하면 위로는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는 주인공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주인공을 시기하는 세력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주인공은 ‘이영의 권유’로 과거를 보러 왔다고 하였다.

⑤ 주인공은 자신을 ‘수정’이라고 하며 여자임을 숨기고 있지만, 정체가 밝혀지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길건에 베옷을 입은 노인은 ‘이영’으로, 장선빙은 ‘남해 용왕의 시녀’가 준 ‘환혼주’를 먹고 살아난다. 이영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며, 초월적 존재는 공중에서 내려온 남해 용왕의 시녀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이영은 장선빙을 보고 ‘마치 선계의 단산에 깃든 봉황과 같이 세속에 찌든 모습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며 감탄하였다. 또한 이영이 장선빙에게 ‘고향은 어디며 성은 무엇인가? 또한 아버님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장선빙이 ‘저는 전 이부 상서 장자영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수정이라고 합니다.’라고 답하는 것에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스스로 남성의 신분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장선빙이 ‘4년 동안 남북을 입고 세상을 살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나를 남자로 알고 있다.’라고 하며 ‘장원 급제하면’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남장을 수단으로 삼아 가문의 누명을 벗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④ 장선빙이 ‘장원의 푸른 옷을 입’었다는 것과 ‘태학사 벼슬의 홀을 잡고 있’었다는 것에 여성 주인공이 임금으로부터 태학사 관직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얻은 사실이 나타나 있다.

⑤ 설랑과 영춘이 ‘한숨’을 쉬고 ‘아가씨께서 이렇게 귀한 몸이 되셨으니 기쁘기 그지없’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어찌시려고 이러십

니까?’라고 하는 것에 기쁨과 우려를 드러내고 있음이 나타나 있고, 이에 장선빙이 ‘아버님의 원통함을 풀기 위한 것이니, 만일 이 일만 이룰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애정의 성취보다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어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면모가 나타나 있다.

05~10 갈래 복합

㉠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해제 > 이 작품은 화자를 에워싼 ‘산’이 화자에게 말을 전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고,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순수하고 소박한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순수한 삶에 대한 지향

구성 >

- 1연: 욕심 없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자 하는 삶의 지향
- 2연: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지향
- 3연: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지향

㉡ 문정희, 「흐름에 대하여」

해제 > 이 작품은 삶이란 곧 흘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삶이 화자나 사람들이 소망하는 이상향으로 흘러가지 못한 채 죽음으로 귀결되는 숙명적 한계를 가진 것임을 자각하고 이로 인한 삶의 비애를 노래하고 있다. 삶을 흘러가는 것에 빚낸 표현과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자연물, 의문형 어미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삶의 비애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삶의 숙명적 한계와 비애

구성 >

- 1연: 이상향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
- 2연: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
- 3연: 희망과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삶
- 4연: 삶의 이유와 의미에 대한 의문
- 5연: 이상향에 도달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숙명
- 6연: 삶의 숙명적 한계와 비애

㉢ 허균, 「한정록 서」

해제 > 이 작품은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옛사람들과 같이 자연 속에 귀의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시대와 운명에 부합하지 않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들어가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자연에 귀의하여 살았던 옛사람들을 분류하는 한편, 관직을 가진 신하로서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키고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옛사람들과 같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 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주제 > 자연에 귀의하여 살지 못한 이유와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

구성 >

- 기: 벼슬을 버리고 자연 속에 숨으려는 태도의 부당함과 의문
- 승: 세속적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성찰과 옛사람들과의 비교
- 전: 관직을 가진 신하로서 자연 속에 숨어들지 못한 이유
- 결: 시대와 운명과 맞지 않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소망

05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화자는 ‘자유를 주었는가’, ‘우리들은 왜 흐르는가’, ‘산으로 가는가’, ‘제 목숨 갖고 가는가’와 같이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바다’에 도달하여 ‘바다’가 되고자 하는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 독백적 어조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체념적 정서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가)의 화자는 독백을 통해 산이 자신에게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는 형식으로 자신이 소망하는 삶의 방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시어들이 사용되고 있을 뿐 대립적 시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③ (나)에 ‘슬픔처럼’, ‘약속처럼’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 화자의 희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역동성을 드러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또 (나)에서는 ‘영롱한’과 같은 시어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대상이 지닌 역동성을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06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화자에게 욕심 없고 소박하며 순수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을 전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에게 삶의 지침을 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은 화자가 동경하는 ‘바다’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음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도달하게 되는 운명적 공간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화자가 바라던 이상적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삶과 관련된 것이므로, 화자가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삶과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은 화자에게 삶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대상일 뿐 ㉡를 통해 화자의 삶이 고양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은 화자에게 삶의 지침을 주는 존재이다. 화자가 이러한 삶의 지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 귀의할 필요가 있으며, 화자

는 ㉔에 귀의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㉕는 화자가 바라던 삶의 이상적 흐름으로 나아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달하게 된 결과에 해당하므로, ㉕를 화자가 도피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㉔는 화자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지시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㉕는 화자가 자신이 바라던 삶의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도달하게 된 결과일 뿐, 화자에게 삶의 목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존재는 아니다.

⑤ ㉔를 통해 화자가 바람직한 삶의 지침을 설정하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살아가자 하는 생각이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㉔를 통해 일부 위안을 얻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㉕는 화자가 바라던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된 공간이므로, ㉕를 화자가 위안을 얻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㉔은 화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공간에 이르지 못함은 죽음이라는 숙명적 삶의 과정을 경험해야만 하는 안타까움과 탄식을 드러내고 있는 시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믐달은 보름이 지나고 기울어진 모양의 달이므로, ㉔에 삶도 차오르면 언젠가는 기울어지게 된다는 인식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삶을 표현하기 위해, 물처럼 흘러 바다로 가고 싶다는 비유적,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㉔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화자의 의문이 제시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㉔을 통해 글쓴이는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당대의 판단 기준으로 미치광이나 망령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옛날의 현자들은 시인스럽게 혼탁한 속세를 벗어났던 사람들이므로, 글쓴이는 옛날의 현자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의 시작 부분에서 글쓴이는 선비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도가 풍속과 어긋나고, 운명이 시대와 맞지 않을 때에만 고상한 생활에 몸을 던져 숲속으로 도피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㉔에서 글쓴이는 현재 자신의 삶이 시대와 운명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며 과거 선비들이 탄식하며 숲속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옛사람, 즉 선비들과 자신의 공통점을 이유로 숲속으로 도피하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의향을 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8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다)에서 글쓴이는 권세를 좇는 길 위에서 허둥대느라 한 해 내

내 한가로운 때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세속적 가치를 좇는 생활을 지속하며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선비가 요순 같은 임금 아래에서 고위 관직을 맡고 있는 자가 소부나 허유와 같이 자연에 귀의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② 글쓴이는 그동안 이루어 놓은 공훈이나 업적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자신의 뜻이 시대와 운명에 부합하지 않다고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방에 동요하여 벼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하지는 않았다.

⑤ 글쓴이는 스승으로부터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으며, 거침없고 도도한 행동 탓에 권세가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09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다)의 마지막 부분에서 글쓴이는, 훗날 숲 아래에서 세상을 버리고 속세와 인연을 끊은 선비, 즉 소부나 허유와 같은 인물을 만나 이 책을 내어놓고 서로 논평하며 읽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처음 먹은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소부와 허유가 살던 시절은 요순이 다스리던 세상으로 군주와 신하가 서로 화합하고 도와서 정치와 교화가 잘 펼쳐졌다. 그러므로 글쓴이가, 도가 풍속과 어긋난 시절에 소부와 허유가 보인 삶의 태도나 처세의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글쓴이는 사강락이나 백향산이 벼슬아치들과 텅굴다가 산수에 오만한 기분을 풀었는데, 자신은 이들과 같이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부와 허유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요순시대에 살면서도 정사를 맡는 일을 거부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부와 허유가 숲속에 몸을 던져 생활하는 것을 자신만의 오만한 기분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소부와 허유는 군주와 신하가 서로 화합하고 도와서 정치와 교화가 잘 펼쳐진 요순시대의 인물로,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도 정사를 맡는 일을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소부와 허유가 세상을 떠난 것을 군자와 신하가 화합하여 정치와 교화가 잘 펼쳐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도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은 소부와 허유가 아니라 글쓴이 자신이다.

1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화자는 '바다'로 흘러가 '바다'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

지고 있으며, 그러한 흐름의 과정에서 키워 낸 영롱한 '진주'를 가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나)의 화자는 이처럼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소망하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진주'와 같이 영롱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현재의 처지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다)에서 글쓰이는 자신이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임금을 저버리고 소부와 허유의 삶을 추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사강락'과 '백향산'은 벼슬아치들과 어울리면서 산수에 오만한 기분을 풀었던 사람들로, 이들은 속세를 버리고 산수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속세에서 생활하던 중 일시적으로 자연을 찾아 즐기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글쓰이는 상황이 허락된다면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 속에서 귀의하여 살기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처지에서 '사강락', '백향산'과 같이 자연을 즐기는 것이, 글쓰이가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산'은 화자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한 지침을 설정해 주는 존재로, (가)는 이와 같은 설정과 구체적 소재, 표현들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바다가 되고 싶다'의 '~고 싶다'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 싶다는 욕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들쫄레', '쑥대밭', '그믐달' 등은 모두 화려한 자연의 모습과 대조되는 소박하고 수수한 속성을 지닌 자연물이다. 또 (나)의 '바다'는 넓고 자유로운 속성을 지닌 자연물이다. 그러므로 두 작품의 화자는 각 작품에 사용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나 그러한 삶의 고유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소박하고 수수한 세계로 자신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또 (다)의 '숲'이나 '산수'는 어지럽고 혼탁한 현실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글쓰이가 귀의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가)의 화자와 (다)의 글쓰이는 이러한 자연적 공간을 통해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지닌 '자유와 햇살'을 빼앗기고 '산'으로 종착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한계로 인해 이상적 자연 공간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의 글쓰이는 신하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벼슬이나 관직, 즉 사회적 책무로 인해 이상적 자연 공간으로 귀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글쓰이는, 사회적 책무를 이상적 자연 공간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14 현대 소설

■ 이기영, 「고향」

해제 이 작품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소설로, 일제 강점기 농촌 사회의 빈곤과 계급 모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주인공 김희준이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의 비참한 삶과 식민지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를 마주하며 계급적 자각을 이루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가는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농민들의 고통, 지주와 자본가의 억압, 그리고 노동자·농민의 연대를 통한 저항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두레'라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려고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당대 카프 문학의 이념적 기반과 예술적 성취를 동시에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주제 일제 강점기 농촌 현실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농민 의식의 성장

전체 줄거리 동경에서 법학을 전공한 김희준은 5년 만에 고향 원터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은 철도와 제사 공장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빈곤에 시달린다. 자작농이었던 원철이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덕삼과 춘식은 가난을 피해 떠난다. 희준은 마을의 황폐함에 충격을 받고 농민 계몽을 다짐한다. 그는 소작농으로 일하며 계몽 활동을 펼치고, 교활한 마름 안승학과 갈등을 빚는다. 승학은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며 소작농을 착취한다. 승학의 딸 갑숙은 고향에서 희준과 재회하고, 읍내 상인 권상필의 아들 경호와의 관계로 고민한다. 승학은 갑숙을 이씨 문중으로 시집보내려 하지만, 그녀와 경호의 관계를 알고 협박을 시도한다. 갑숙은 반발하며 가출해 '육희'라는 이름으로 공장에 취직한다. 경호도 집을 나와 공장 직공이 된다. 갑숙은 공장에서 노동자 권리 운동을 벌이고 경호와 약혼한다. 마을은 풍년에도 소작농에게 혜택이 없고 수재로 인해 더욱 곤궁해졌으며, 희준은 소작료 감면을 요구하며 승학과 대립한다. 갑숙은 공장에서 노동 쟁의를 일으키고, 희준은 이를 돕다가 서로 애정을 느끼며 연대한다. 희준은 승학을 압박해 소작농의 요구를 관철 시킨다.

11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조 침지가 마름댁에 잘 말해서 소작료를 감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선달은 '감할 게 어디 있어요. 아주 탐강한대도 소출이 없을 터인데요.'라고 대응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름에게 제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동조를 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애야, 한 푼이 새로운데 왜 그랬니. ~네가 받기 싫으면 내가 받으며.', '그건 그게고 이진 이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그만뒹요. 우리는 그 돈 아니라도 집을 고치지 않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면 그도 좋은 일 아니겠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③ '인제 꼭 죽었으니 이 일을 어째야 좋단 말인가?'하고 한숨을 내쉬는 조 침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아따, 귀끼면 아저씨 한 분만 귀끼겠수. 대동지환으로 죄다 죽을 판인데요 뭐.', '감할 게 어디 있어요. 아주 탕감한대도 소출이 없을 터인데요.', '다른 사람들도 여출일구로 김 선달의 말에 동의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인물의 성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벼가 익기도 전에 베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을 소작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계산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선악 구도의 중립적인 위치에 놓이는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승학은 오히려 농민을 착취하는 부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안승학은 일반적인 농민들과는 다르게, 지적도를 위조하고 전 환족을 대는 동생을 이용하는 등 근대적인 문물을 익숙하게 이용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혼란기 속에서 지위와 부를 구축하는 등 현실 감각이 있는 인물로 짐작할 수 있다.

② 동생에게 희준의 감시를 부탁하고, 희준의 영향력이 농민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을 통해 희준이 기존의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안승학은 이런 희준을 위협적인 존재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대결하려는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④ 소작인들의 대응 계획을 '불온한 공기'로 인식하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 농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자본가의 부정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⑤ 길동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것은 자기도 그전에 안승학이가 구차하게 지낼 때는 오히려 승학이보다도 잘살았다.'고 진술한 부분을 통해, 이전에는 안승학이 지배 계층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는 소작인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통해 과도기적 혼란기 속에서 지위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물의 특징을 바탕으로 독자는 당대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1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푼이라도 남의 사정을 보려 들었다. 그것은 누구를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자기네에게도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이었다.', '만일 이웃 간에서 누가 굶는데 양식 있는 집으로 먹이를 꾸러 갔다가 그 집에서 거절을 하는 지경이면 그 집과는 수화를 불통하고 안팎 없이 받을 끝

는다.' 등을 통해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공동체의 유대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두레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려는 분위기를 진술한 부분을 통해, 운영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 조직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에서 흥수의 재난 상황을 진술한 부분을 통해서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발동하는 협력체임을 파악할 수 있으나, 마을이 모두 혈연적인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두레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남을 돕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글에서 서술하고 있는 두레의 성격상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④ 마을의 환란이 있을 때 협력하는 방식이지만, '관'의 성격이 담긴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체라고 볼 수 있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희준이 소작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타작관이 내려와서 간평을 할 때'로 계획을 세우며 '회심의 웃음'을 짓는 것은,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므로 민중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장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의 앞부분에서 폭우로 인한 마을 사람들의 침수 피해와 농사의 작황이 막막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이러한 소작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안승학의 심리가 드러나 있으므로, 안팎으로 피해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② '작인들의 관심은 차차 소작료를 중심으로 날이 갈수록 물론이 돌기 시작하였다.'에서 '물론'은 많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작인들이 흉작 상황을 인식하고 이 상황에서 소출을 감행하는 부당한 경제 구조에 대해 함께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웃의 일을 자기 일처럼 보살피고 주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만큼 길동이네도 자연 그에게로 마음이 쏠리게 된 것이었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소작인들이 서로 '남의 사정을 보려 들었다. 그것은 누구를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자기네에게도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고,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 김희준이 연대의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17 고전 시가

㉒ 작자 미상, 「규수상사곡」

해제 > 남녀 간의 연정을 노래한 가사이다. 제목이 '규수상사곡'으로 되어 있으나 규방의 규수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남성이 주체인 상사곡이다. 사랑하는 대상이 남의 아내가 된 사람이기에 잊으려고 무단히 애썼으나 그리움이 커진다는 내용으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리움을 호소하는 사랑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

구성 >

- 서사: 임과의 이별의 배경과 슬픔의 시작
- 본사: 상사병에 걸린 화자의 고통과 애절한 심정(수록 부분)
- 결사: 죽어서도 임을 잊지 못할 지극한 사랑

㉓ 박효관, 「임 그린 상사동이 ~」

해제 > 깊은 가을밤에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정을 표현한 평시조이다. 임을 그리워하여 꾸는 꿈이 귀뚜라미의 낮이 되어 임을 찾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드러나 있다.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

구성 >

- 초장: 임을 그리워하여 꾸는 꿈이 귀뚜라미의 낮이 되길 바람.
- 중장: 귀뚜라미 낮이 되어 임에게 가고 싶음.
- 종장: 임의 잠을 깨우고 싶음.

15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무심하다 저 여자가 가련하다 이내 청춘', '목석이 아니거든 인정조차 없겠는가'라고 하며 임에 대한 섭섭함, 그리움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나 임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추측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다시 못 볼 임'을 잊지 못해 '이내 시름 골수에 젖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임을 영원히 못 볼 것만 같다고 생각하며 시름겨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식불감미하고 침불안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입맛을 잃고 편안히 자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이내 심정 가련하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가련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열녀 정절 본받으면 천만년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사랑하는 임이 열녀의 정절을 본받는 것보다 자신과의 사랑을 택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㉓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워하다가 황천객, 즉 죽은 사람이 될 지경이라며 사랑의 좌절로 인한 절망감을, ㉔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서 임에게 가까이 가 깊이 든 잠을 깨우겠다고 임을 보고 싶어 하는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㉓에는 무심한 임에 대한 원망과 사랑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㉔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반영한 대상인 것이지 화자에 대한 임의 변함없는 신뢰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다.
- ③ ㉓는 사랑이 성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이 담긴 표현이고, ㉔는 사랑의 성취를 향한 간절함이 담긴 표현이다.
- ④ ㉓는 임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라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서러움이 담긴 것이고, ㉔는 임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잠든 임을 깨워 보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⑤ ㉓는 자신을 떠난 임이 겪을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보고 싶어도 임을 볼 수 없는 화자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것이다. ㉔는 실술의 낮이 되어 자신을 잊고 잠든 임을 깨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자신은 안중에도 없는 임에 대한 섭섭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가 임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인정을 베풀 것을 호소하는 것은 그만큼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임이 해 주기를 기대하는 일에 대해 애원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에 기반한 상상으로 임이 자신의 마음에 화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달리는 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 후에 임을 보지 못해 '홀로 병이' 든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고,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며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임을 떠올리며 눈에 흐릿하게 아픈 거리고, 귀에는 또렷하게 들리는 듯하다고 하며 이별로 인해 부재하는 임을 느끼고 있다. 이는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상상을 통해 임의 모습과 소리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다.
- ④ (나)의 화자가 '상사몽'을 통해 실술의 낮이 되어 임의 방에 들어가서 임을 깨우겠다고 하는 것은 변신 모티프를 통해 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비현실적 상상이 드러난 것이다.
- ⑤ (나)의 화자가 임을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자는 존재로 상상한 것은 임을 잊지 못해 꿈속에서라도 만나고자 하는 자신과는 달리 자신을 잊은 것 같은 임에 대한 서운함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한눈에 보는 정답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01 ④ 02 ② 03 ㉠: 기러기 ㉡: 열 십자
2강	시의 내용 01 ㉠: (가), (다) ㉡: (나) ㉢: (다) 02 ㉠: 가장(家長), (손자의) 할아버지 등 ㉡: 농부 03 ⑤
3강	소설의 서술상 특징 01 (1) × (2) × (3) ○ 02 ④ 03 [A]에서 초점화자는 칠복으로,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칠복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주목하게 됩니다. [B]에서 초점화자는 봉구로,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봉구의 칠복에 대한 죄책감(미안함)에 주목하게 됩니다.
4강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01 • 해당 구절: 응서의 칼이 ~ 추풍낙엽 같으니 / • 평가의 내용: 김응서의 탁월한 무력(武力)에 대한 예찬 02 적의 침입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자면서도 눈과 귀를 열어 둠. 03 ②
5강	극의 특성과 극 문학의 구성 요소 01 ④ 02 ④ 03 [A]: 헛것 [B]: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
6강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01 ③ 02 ① 03 (자신이) 높아진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자신에게) 유익하다 등
7강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01 ① 02 ④ 03 하나씩의 별
8강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01 ④ 02 학생 ㄱ, 학생 ㄴ 03 ③
9강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01 ㉡, ㉢, ㉣ 02 ③ 03 ④

2부 적용 학습

고전 시가	01	01 ⑤ 02 ③ 03 ①
	02	01 ⑤ 02 ⑤ 03 ③
	03	01 ③ 02 ⑤ 03 ③
	04	01 ③ 02 ③ 03 ④
	05	01 ⑤ 02 ② 03 ④
	06	01 ① 02 ⑤ 03 ⑤ 04 ④
	07	01 ② 02 ③ 03 ③ 04 ④
	08	01 ② 02 ③ 03 ③ 04 ④
	09	01 ② 02 ② 03 ⑤
	10	01 ② 02 ② 03 ①
	11	01 ④ 02 ① 03 ⑤

현대시	01	01 ⑤ 02 ② 03 ①
	02	01 ④ 02 ③ 03 ④
	03	01 ③ 02 ① 03 ④
	04	01 ④ 02 ① 03 ④
	05	01 ⑤ 02 ⑤ 03 ①
	06	01 ③ 02 ③ 03 ②
	07	01 ② 02 ④ 03 ② 04 ④
	08	01 ① 02 ④ 03 ③
	09	01 ④ 02 ⑤ 03 ④ 04 ③
	10	01 ④ 02 ① 03 ④ 04 ④
	11	01 ① 02 ⑤ 03 ④

고전 산문	01	01 ⑤	02 ④	03 ②	04 ④
	02	01 ①	02 ④	03 ⑤	04 ③
	03	01 ④	02 ④	03 ②	04 ②
	04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01 ⑤	02 ①	03 ④	04 ⑤
	06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7	01 ②	02 ②	03 ④	04 ①
	08	01 ④	02 ④	03 ④	04 ④
	09	01 ①	02 ⑤	03 ②	04 ①
	10	01 ⑤	02 ③	03 ④	04 ②
	11	01 ④	02 ②	03 ③	04 ⑤

현대 소설	01	01 ③	02 ③	03 ④	04 ⑤
	02	01 ④	02 ⑤	03 ①	04 ⑤
	03	01 ①	02 ②	03 ②	04 ④
	04	01 ③	02 ①	03 ④	04 ④
	05	01 ⑤	02 ⑤	03 ⑤	04 ①
	06	01 ②	02 ②	03 ④	04 ⑤
	07	01 ⑤	02 ①	03 ⑤	04 ④
	08	01 ②	02 ②	03 ①	04 ③
	09	01 ②	02 ⑤	03 ④	04 ①
	10	01 ⑤	02 ①	03 ①	04 ②
	11	01 ⑤	02 ③	03 ③	04 ③

극· 수필	01	01 ③	02 ③	03 ②	04 ④
	02	01 ②	02 ③	03 ②	
	03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4	01 ③	02 ②	03 ③	
	05	01 ⑤	02 ①	03 ③	04 ④
	06	01 ②	02 ③	03 ④	04 ⑤
	07	01 ③	02 ④	03 ③	
	08	01 ④	02 ③	03 ④	

갈래 복합	01	01 ③	02 ②	03 ④	04 ③	05 ④	06 ④
	02	01 ②	02 ④	03 ③	04 ④	05 ⑤	06 ⑤
	03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5 ③	06 ②
	04	01 ④	02 ①	03 ④	04 ②	05 ③	06 ④
	05	01 ③	02 ①	03 ⑤	04 ①	05 ①	06 ⑤
	06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②	06 ④
	07	01 ③	02 ③	03 ②	04 ⑤	05 ③	06 ②
	08	01 ②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6 ③
	09	01 ①	02 ②	03 ①	04 ②	05 ⑤	06 ⑤
	10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③	06 ④
	11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②



3부 실전 학습

1회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⑤	06 ②	07 ⑤	08 ②	09 ④	10 ⑤	11 ①	12 ⑤	13 ⑤	14 ③	15 ③	16 ⑤	17 ④
2회	01 ②	02 ④	03 ③	04 ①	05 ④	06 ①	07 ③	08 ③	09 ③	10 ⑤	11 ⑤	12 ③	13 ⑤	14 ④	15 ⑤	16 ①	17 ②